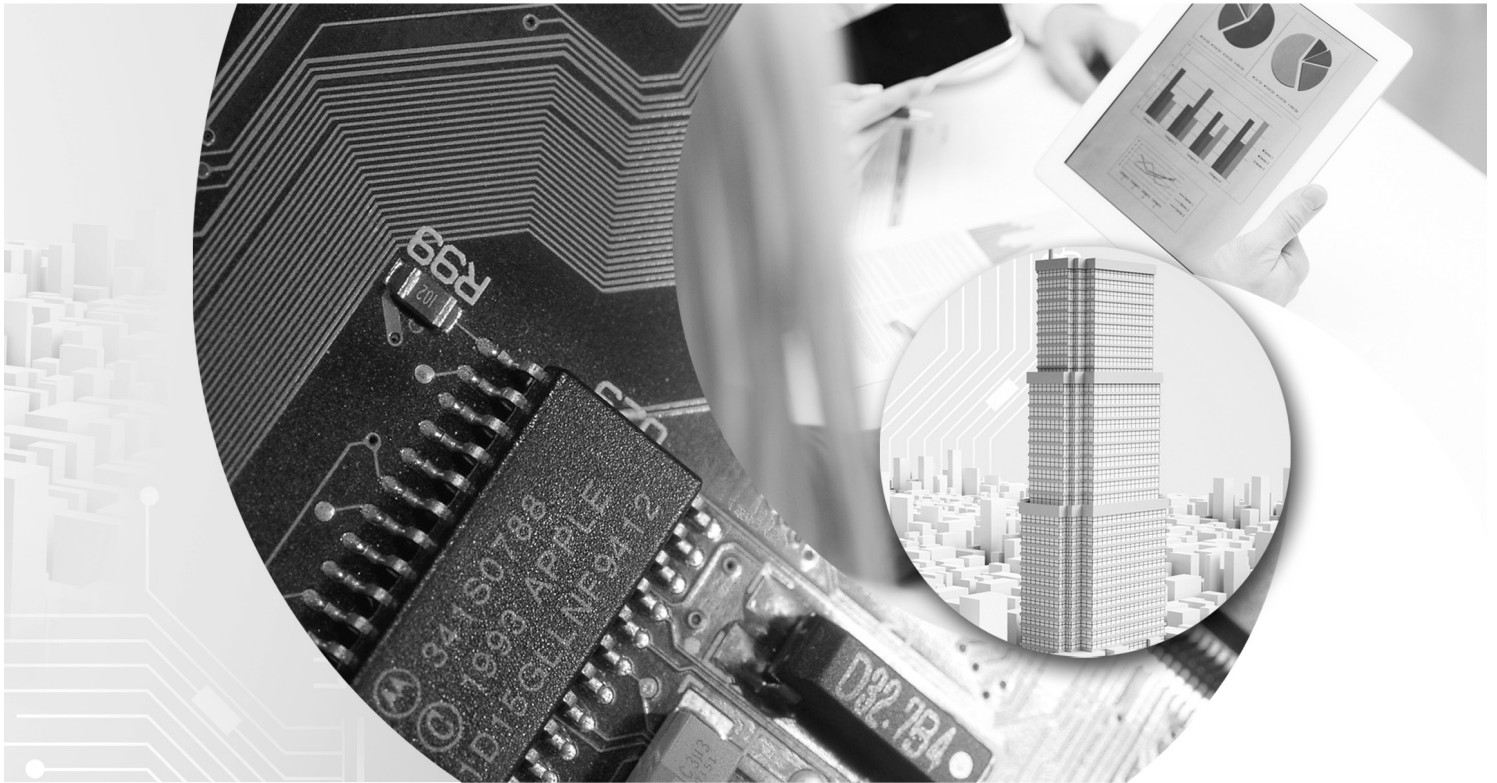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0000-000379-1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2016. 8.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목 차

제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3
1. 중소기업 현황	3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7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10
1. 업종별 동향	10
2. 분야별 동향	21

제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1장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	31
제1절 기술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31
1. 신설법인현황	31
2. 창업저변 확대	33
3. 기술 창업 활성화	41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59
5. 지식서비스기업 성장 촉진	64

제2절 벤처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	71
1. 벤처투자 현황	71
2. 벤처투자 확대	73
3. 회수시장 활성화	77
제3절 원활한 재도전·재창업 환경 조성	81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81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90
제4절 지역 중소기업 성장 유도	95
1. 지역특구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95
2. 지역특구 운영현황	97
3. 지역특구 운영성과	100
제2장 중소기업 성장 역량 강화	103
제1절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103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103
2. 정책자금 지원	105
3. 신용보증 공급	110
4. 매출채권보험 운용	114
제2절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	116
1. 중소기업 인력 애로 현황	116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117
3. 우수 인력 장기재직 유도	124
4. 중소기업 인식개선	130
제3절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위기대응 강화	132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132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R&D)	134
3.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150
4. 국제 친환경 기술협력(ASEIC)	161
5.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화지원	164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171
제4절 창조제품 시장수요 확대	174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74
2.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176
3. 창조혁신제품 마케팅지원	190
제5절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202
1. 수출 현황	202
2. 수출역량별 맞춤지원	204
3. 해외진출기반구축	210
4. 국제협력 추진	219
제3장 견고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225
제1절 혁신형 기업 발굴 및 육성 제도 운영	225
1. 벤처기업 육성	225
2. 벤처기업 지속성장 지원	228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	232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육성	234
제2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글로벌화	236
1. 중견기업 현황	236
2. 중소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 추진	243
3.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경쟁력 강화	252

제3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강화	262
1. 대·중소기업간 경영현황	262
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분위기 확산	263
3. 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267
4.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269
5. 전략적 동반성장 확대	275
제4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286
제1절 준비된 창업유도 및 생업안전망 확충	286
1. 소상공인 현황	286
2. 과잉창업 방지 및 준비된 창업 유도	290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304
제2절 혁신역량 제고 및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307
1. 소상공인 혁신역량 제고	307
2.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313
제3절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325
1. 전통시장 현황	325
2. 특성화 시장 육성	327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34
4. 시장경영혁신 지원	336
5. 상권 활성화	340
제5장 현장 체감형 중소기업 행정 구현	343
1.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343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350
3.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353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359
제2장 교육부	361
제3장 미래창조과학부	365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372
제5장 행정자치부	378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380
제7장 환경부	387
제8장 고용노동부	390
제9장 해양수산부	397
제10장 방송통신위원회	399
제11장 국세청	400
제12장 관세청	404
제13장 방위사업청	405
제14장 병무청	411
제15장 특허청	412
제16장 기상청	416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장 중소기업중앙회	421
제2장 중소기업진흥공단	450
제3장 중소기업연구원	473
제4장 신용보증기금	487
제5장 기술보증기금	495
제6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3
제7장 중소기업유통센터	525
제8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531
제9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39
제10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55
제11장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598
제12장 중소기업은행	606
제13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31
제14장 한국무역보험공사	667
제15장 한국생산성본부	677
제16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85
제17장 산업연구원	695
제18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08
제19장 한국디자인진흥원	718
제20장 한국산학연합회	729
제21장 창업진흥원	740

표 목 차

표 I-1-1-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3
표 I-1-1-2 주요국의중소기업현황(2014년기준)	4
표 I-1-1-3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
표 I-1-1-4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5
표 I-1-1-5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5
표 I-1-1-6 지역별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현황	6
표 I-1-1-7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6
표 I-1-1-8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7
표 I-1-1-9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 및 기여율	7
표 I-1-1-10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8
표 I-1-1-11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9
표 I-2-1-1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10
표 I-2-1-2 2015년월별중소제조업생산추이	10
표 I-2-1-3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11
표 I-2-1-4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11
표 I-2-1-5 중소제조업임금및근로시간현황추이(5~299인)	12
표 I-2-1-6 중소기업취업자및고용률,실업률현황	12
표 I-2-1-7 원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13
표 I-2-1-8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13
표 I-2-1-9 원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14
표 I-2-1-10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14
표 I-2-1-11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15
표 I-2-1-12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16
표 I-2-1-13 성장성 지표	16
표 I-2-1-14 수익성 지표	17
표 I-2-1-15 안정성 지표	18
표 I-2-1-16 생산성 지표	19

표 I-2-1-17	소상공인경기동향BSI(BusinessSurveyIndex)	20
표 I-2-1-18	전통시장경기동향BSI(BusinessSurveyIndex)	20
표 I-2-1-19	신설법인수(전국기준)	21
표 I-2-1-20	부도업체수(전국기준)	21
표 I-2-1-21	어음부도율 추이	22
표 I-2-1-22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22
표 I-2-1-23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23
표 I-2-1-24	국가별 수출액 및 증감현황	23
표 I-2-1-25	중소기업수출상위10대 품목	24
표 I-2-1-26	기업 대출잔액 현황	24
표 I-2-1-27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25
표 I-2-1-28	I-2-1-28중소제조업인력부족률추이	25
표 I-2-1-29	중소제조업의직종별인력부족실태(2014년)	26
표 I-2-1-30	중소제조업의 학력별 인력구성	26
표 I-2-1-31	중소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26
표 I-2-1-32	R&D 수행중소제조업체(5~299인)추이	27
표 I-2-1-33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27
표 I-2-1-34	중소기업의R&D투자규모추이	28
표 I-2-1-35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28
표 I-2-1-36	부가가치기준생산성(중사자1인당)	28
표 II-1-1-1	연도별 신설법인수	31
표 II-1-1-2	업종별 신설법인수	31
표 II-1-1-3	연령별 신설법인수	32
표 II-1-1-4	성별 신설법인수	32
표 II-1-1-5	비즈쿨 운영실적	33
표 II-1-1-6	대학생창업동아리,창업강좌실적	34
표 II-1-1-7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연도별 지원성과	34
표 II-1-1-8	창업대학원(석사과정)설치현황	35
표 II-1-1-9	기업가정신교재및교구개발현황	36
표 II-1-1-10	창업리그최근5년간주요추진성과	40
표 II-1-1-11	'16년창업선도대학지정현황	42
표 II-1-1-12	창업선도대학 주요실적 및 성과	42
표 II-1-1-13	표창년CEO양성규모	44

표 II-1-1-14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45
표 II-1-1-15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47
표 II-1-1-16 창업팀후속투자/인수·합병	48
표 II-1-1-17 글로벌 진출지원 성과	53
표 II-1-1-18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성과	54
표 II-1-1-19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성과	55
표 II-1-1-20 창업맞춤형사업 지원 체계도	55
표 II-1-1-21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성과('15.12)	56
표 II-1-1-22 시니어창업스쿨운영현황(2015년)	57
표 II-1-1-23 시니어창업센터설치현황(2015년)	58
표 II-1-1-24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59
표 II-1-1-25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이용현황	60
표 II-1-1-26 최근5년간창업보육센터사업운영현황	61
표 II-1-1-27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61
표 II-1-1-28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61
표 II-1-1-29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62
표 II-1-1-30 비즈니스센터 지정 현황	65
표 II-1-1-31 1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실적및성과	67
표 II-1-1-32 스마트창작터 지정기관	68
표 II-1-1-33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현황	69
표 II-1-1-34 참살이 실습터 현황	70
표 II-1-2-1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 규모	72
표 II-1-2-2 미국-한국의엔젤투자규모(2012)	72
표 II-1-2-3 모태조합 조성 및 운용 현황	73
표 II-1-2-4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현황	74
표 II-1-2-5 엔젤투자실적(신규)	75
표 II-1-2-6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현황	76
표 II-1-2-7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현황	76
표 II-1-2-8 투자금회수경로별비중비교(2015년)	78
표 II-1-3-1 창업환경조사(현대경제연구소,창업관련국민의식변화와시사점'15.11)	81
표 II-1-3-2 창업청년창업자(30대미만)의실패와재도전현황	82
표 II-1-3-3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84

표 II-1-3-4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84
표 II-1-3-5 사업전환의 유형	87
표 II-1-3-6 사업전환지원추진실적	88
표 II-1-3-7 사업전환지원사업추진성과(2015년사업전환지원기업)	88
표 II-1-3-8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지원 실적	89
표 II-1-3-9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91
표 II-1-3-10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91
표 II-1-3-11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93
표 II-1-4-1 2003년이후지역특구제도추진현황	96
표 II-1-4-2 연도별 특구지정 현황	97
표 II-1-4-3 지역특구 규제특례 적용현황	99
표 II-1-4-4 연도별 우수특구 선정 및 포상금 지급현황	100
표 II-1-4-5 연도별 지역특구 경제적 성과	102
표 II-2-1-1 중소기업대출잔액및대출금리(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5년)	103
표 II-2-1-2 중소기업직접금융조달실적(금융감독원)	104
표 II-2-1-3 중소기업기업경기및자금사정실적지수(한국은행,2015년)	105
표 II-2-1-4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06
표 II-2-1-5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규모및조건(2015년)	108
표 II-2-1-6 2015년도중소기업정책자금주요개편내용	109
표 II-2-1-7 연도별·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111
표 II-2-1-8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111
표 II-2-1-9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112
표 II-2-1-10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113
표 II-2-1-11 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114
표 II-2-2-1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116
표 II-2-2-2 중소기업의직종별인력부족실태(2015년)	116
표 II-2-2-3 중소기업의 학력별 인력구성	117
표 II-2-2-4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117
표 II-2-2-5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118
표 II-2-2-6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118
표 II-2-2-7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 현황	120
표 II-2-2-8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121

표 II-2-2-9 국립공고(마이스터고)일반현황	122
표 II-2-2-10 국립공고(마이스터고)육성예산	123
표 II-2-2-11 국립공고(마이스터고)취업률	123
표 II-2-2-12 연도별 주택공급 실적	125
표 II-2-2-13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현황	126
표 II-2-2-14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추진실적	127
표 II-2-2-15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 주요성과	127
표 II-2-2-16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및 병역지정 업체 신청 요건	128
표 II-2-2-17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129
표 II-2-3-1 R&D 수행중소제조업체(5~299인)추이	132
표 II-2-3-2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132
표 II-2-3-3 중소기업의R&D투자규모추이	133
표 II-2-3-4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133
표 II-2-3-5 부가가치기준생산성(종사자1인당)	133
표 II-2-3-6 연도별중소기업R&D기획지원추진실적	135
표 II-2-3-7 R&D 기획지원의성과(2012~2014년성과분석결과)	135
표 II-2-3-8 연도별R&D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추진실적	135
표 II-2-3-9 기술혁신개발지원실적	136
표 II-2-3-10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138
표 II-2-3-11 지원성과(과제수행전후대비기술적성과)	139
표 II-2-3-12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융합전략·현장기획과제)추진실적	140
표 II-2-3-13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이전기술과제)추진실적	140
표 II-2-3-14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2
표 II-2-3-15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운영현황	143
표 II-2-3-16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3
표 II-2-3-17 연도별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144
표 II-2-3-18 연도별 도약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145
표 II-2-3-19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추진 경과	146
표 II-2-3-2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147
표 II-2-3-2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성과	147
표 II-2-3-2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추진 경과	148
표 II-2-3-23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협력펀드조성현황(2015년)	149
표 II-2-3-24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9

표 II-2-3-25	정부의중소기업R&D지원예산현황	150
표 II-2-3-26	중소기업청중소기업R&D지원예산현황	151
표 II-2-3-27	KOSBIR 시행기관의중소기업R&D지원추이	152
표 II-2-3-28	KOSBIR 시행기관별중소기업R&D지원현황	152
표 II-2-3-29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154
표 II-2-3-30	6대뿌리산업중사자규모별현황	157
표 II-2-3-3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현황	158
표 II-2-3-32	뿌리산업6대업종별지정현황	158
표 II-2-3-33	뿌리산업 지역별 지정현황	158
표 II-2-3-34	2015년뿌리산업6대업종별지원현황	159
표 II-2-3-35	2015년뿌리산업6대업종별지원성과	160
표 II-2-3-36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추진실적('15.12월말기준)	167
표 II-2-3-37	중소기업분야별정보화수준(100점기준,2015년)	168
표 II-2-3-38	연도별정보화수준(100점기준)	169
표 II-2-3-39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170
표 II-2-3-40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171
표 II-2-3-41	일반 중소기업제조업과 컨설팅 수진 중소기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172
표 II-2-4-1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74
표 II-2-4-2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75
표 II-2-4-3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175
표 II-2-4-4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75
표 II-2-4-5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177
표 II-2-4-6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178
표 II-2-4-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179
표 II-2-4-8	2016년도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및기술개발제품구매계획	179
표 II-2-4-9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	180
표 II-2-4-10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181
표 II-2-4-11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182
표 II-2-4-1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183
표 II-2-4-1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185
표 II-2-4-1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186
표 II-2-4-15	성능인증 발급 현황	186
표 II-2-4-16	성능보험 계약 현황	187

표 II-2-4-17	성능검사·원가계산 지원 현황	187
표 II-2-4-18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188
표 II-2-4-19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188
표 II-2-4-20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189
표 II-2-4-2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실적	192
표 II-2-4-22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실적	193
표 II-2-4-23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아임쇼핑)운영현황('15년말기준)	194
표 II-2-4-24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연도별 지원실적	195
표 II-2-4-25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실적	196
표 II-2-4-26	온라인 판로지원 실적	198
표 II-2-4-27	중소기업공동A/S지원추진경과	198
표 II-2-4-28	중소기업공동A/S지원실적	199
표 II-2-4-29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지원실적	200
표 II-2-4-30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201
표 II-2-5-1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202
표 II-2-5-2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202
표 II-2-5-3	국가별 수출액 및 증감현황	203
표 II-2-5-4	중소기업수출상위10대품목	203
표 II-2-5-5	수출역량강화사업(舊수출기업화사업)지원현황	205
표 II-2-5-6	수출역량강화사업(舊수출기업화사업)성과	205
표 II-2-5-7	글로벌강소기업 및 지역강소기업 선정 현황	205
표 II-2-5-8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206
표 II-2-5-9	수출지원센터 구성 현황	208
표 II-2-5-10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208
표 II-2-5-11	외국어통·번역지원현황	209
표 II-2-5-12	무역촉진단 파견실적	211
표 II-2-5-1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212
표 II-2-5-14	수출유망상품DB구축현황	213
표 II-2-5-15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 현황	214
표 II-2-5-16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현황	214
표 II-2-5-17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성과	215
표 II-2-5-18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216
표 II-2-5-19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217

표 II-2-5-20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218
표 II-3-1-1 확인유형별벤처기업수(2015년말기준)	226
표 II-3-1-2 벤처기업 성과	227
표 II-3-1-3 연도별 벤처천역기업 현황	227
표 II-3-1-4 연도별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실적	230
표 II-3-1-5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지정현황	232
표 II-3-1-6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233
표 II-3-1-7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지정현황	234
표 II-3-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235
표 II-3-2-1 중견기업법령의 중견기업 정의	240
표 II-3-2-2 연도별 중견기업 수	241
표 II-3-2-3 중견기업 고용 추이	241
표 II-3-2-4 중견기업 총 매출액 추이	242
표 II-3-2-5 매출액별중견기업현황(2014년기준)	242
표 II-3-2-6 중견기업R&D집약도추이	242
표 II-3-2-7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R&D지원체계	246
표 II-3-2-8 분야별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 현황	246
표 II-3-2-9 가업상속공제 관련 주요제도의 연혁	249
표 II-3-2-10 고성장기업 규모별 분포	252
표 II-3-2-11 고성장기업 업력별 분포	253
표 II-3-2-12 고용기준 고성장 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	253
표 II-3-2-13 월드클래스300선정기업현황	254
표 II-3-2-14 업종별 분포현황	255
표 II-3-2-15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257
표 II-3-2-16 제3기희망엔지니어적금주요내용	259
표 II-3-2-17 제3기희망엔지니어적금가입기업인센티브	259
표 II-3-2-18 수행단계별 지원내용	261
표 II-3-2-19 기술분야별 컨소시엄 지원현황	261
표 II-3-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교	262
표 II-3-3-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263
표 II-3-3-3 구매상담회 성과	263

표 II-3-3-4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의 수요처 참여 추진 현황	265
표 II-3-3-5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지원중소기업 현황	265
표 II-3-3-6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	266
표 II-3-3-7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실적	267
표 II-3-3-8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	269
표 II-3-3-9 연도별 납품대금 결제기간 추이	270
표 II-3-3-10 수·위탁거래 법령위반기업 현황	271
표 II-3-3-11 수·위탁거래분쟁조정현황(2005~2015)	273
표 II-3-3-12 여성기업체 현황	276
표 II-3-3-13 여성기업주요업종별현황(2014년)	276
표 II-3-3-1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277
표 II-3-3-1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277
표 II-3-3-16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278
표 II-3-3-17 여성기업 보증 지원실적	278
표 II-3-3-18 연도별 장애인 현황	279
표 II-3-3-19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280
표 II-3-3-20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280
표 II-3-3-21 장애인 고용률 현황	281
표 II-3-3-22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282
표 II-3-3-23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282
표 II-3-3-24 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283
표 II-3-3-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284
표 II-3-3-26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285
표 II-4-1-1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286
표 II-4-1-2 2014년업종별소상공인사업체및종사자수현황	287
표 II-4-1-3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287
표 II-4-1-4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288
표 II-4-1-5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289
표 II-4-1-6 최근3년간방송통신위원회사회복지분야공익채널선정결과	290
표 II-4-1-7 2015년소상공인방송송출현황	291
표 II-4-1-8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일평균 시청가구수 추이	291
표 II-4-1-9 2015년소상공인방송신규제작프로그램	292
표 II-4-1-10 소상공인방송VOD이용건수추이	292

표 II-4-1-11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293
표 II-4-1-12 상권정보시스템기초DB정확도조사결과	294
표 II-4-1-13 상권정보시스템이용자만족도추이(온라인조사)	294
표 II-4-1-14 2015년소상공인마당앱다운로드현황	296
표 II-4-1-15 종합보시스템이용자만족도추이(온라인조사)	296
표 II-4-1-16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장 현황	298
표 II-4-1-17 연도별 해외창업 교육수료 현황	299
표 II-4-1-18 연도별 해외창업 현황	300
표 II-4-1-19 연도별 신사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지원 현황	301
표 II-4-1-20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대표 사례	302
표 II-4-2-1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연혁	307
표 II-4-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예산 및 실적	308
표 II-4-2-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성과	308
표 II-4-2-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309
표 II-4-2-5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311
표 II-4-2-6 지역별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인프라구축지원현황(2015.12월말기준)	312
표 II-4-2-7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314
표 II-4-2-8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317
표 II-4-2-9 시도별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현황(2015.12)	318
표 II-4-2-10 건립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318
표 II-4-2-1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319
표 II-4-2-12 연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현황	320
표 II-4-2-13 주요 특례보증 시행내역	322
표 II-4-3-1 연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325
표 II-4-3-2 전국전통시장활성화수준(2015년)	326
표 II-4-3-3 2015년문화관광형시장육성시장현황(2015.12월말기준)	328
표 II-4-3-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현황	334
표 II-4-3-5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성과평가(2015.12월)	336
표 II-4-3-6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	337
표 II-4-3-7 2015년도온누리상품권주체별구매비율	338
표 II-4-3-8 상인교육 현황	339
표 II-4-3-9 연도별 박람회 개최 현황	340

표 II-4-3-10 상권활성화지원현황(2015년)	341
표 II-5-1-1 중소기업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정보제공현황	345
표 II-5-1-2 중소기업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이용현황	345
표 II-5-1-3 1357 중소기업콜센터상담현황	346
표 II-5-1-4 비즈니스지원단현황('15)	348
표 II-5-1-5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348
표 II-5-1-6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349
표 II-5-1-7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실적	351
표 II-5-1-8 2015년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대표사례	351
표 II-5-1-9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354
표 II-5-1-10 규제애로 유형별 처리 현황	354
표 III-4-1-1 지원 내역	377
표 III-6-1-1 기술정보 등록 실적	386
표 III-8-1-1 컨설팅 실적	395
표 III-8-1-2 컨설턴트 위촉	396
표 III-13-1-1 지역별국방벤처센터협약기업현황	406
표 III-14-1-1 '15년중소기업배정/편입인원	411
표 IV-1-1-1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422
표 IV-1-1-2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423
표 IV-1-1-3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추천현황	424
표 IV-1-1-4 중소기업정책과제건의및반영현황(2015년)	426
표 IV-1-1-5 경제민주화 입법 현황	429
표 IV-1-1-6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430
표 IV-1-1-7 공제사업기금조성내역(2015.12.31기준)	438
표 IV-1-1-8 공제사업기금대출현황(2015.12.31기준)	439
표 IV-1-1-9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	440
표 IV-1-1-10 기업보증공제운영현황(2015.12.31기준)	441

표 IV-1-1-11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441
표 IV-1-1-12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442
표 IV-1-1-13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443
표 IV-1-1-14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444
표 IV-1-1-15 구매정보망 등록 현황	445
표 IV-1-1-16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445
표 IV-1-1-17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446
표 IV-2-1-1 창업기업지원자금 집행실적	451
표 IV-2-1-2 청년전용창업자금 집행실적	452
표 IV-2-1-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집행실적	452
표 IV-2-1-4 신성장기반자금집행실적(2015년)	453
표 IV-2-1-5 긴급경영안정자금집행실적(2015년)	453
표 IV-2-1-6 사업전환자금집행실적(2015년)	454
표 IV-2-1-7 투융자복합금융집행실적(2015년)	455
표 IV-2-1-8 재창업자금집행실적(2015년)	455
표 IV-2-1-9 재창업자금집행실적(2015년)	455
표 IV-2-1-10 국내수출지원사업상담및수출계약성과(2015년)	458
표 IV-2-1-11 국내수출지원사업참가업체타사업연계지원실적(2015년)	458
표 IV-2-1-12 해외협력기반조성실적(2015년)	462
표 IV-2-1-13 2015년연수실적	465
표 IV-4-1-1 최근3개년신용보증현황	488
표 IV-4-1-2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489
표 IV-4-1-3 도전적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현황	490
표 IV-4-1-4 수출 중소기업 보증지원 현황	491
표 IV-4-1-5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현황	492
표 IV-4-1-6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현황	492
표 IV-4-1-7 신용보험 주요 제도개선 사항	493
표 IV-4-1-8 보증승인 현황	494
표 IV-5-1-1 기술보증 규모	496
표 IV-5-1-2 3대중점지원분야보증현황	496
표 IV-5-1-3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497

표 IV-5-1-4 4대신성장핵심분야보증지원실적	498
표 IV-5-1-5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	503
표 IV-5-1-6 기술평가건수(누계)	504
표 IV-5-1-7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	504
표 IV-5-1-8 기술신용평가(TCB)관련지원현황	505
표 IV-5-1-9 기술평가 운용 조직체계	505
표 IV-5-1-10 기술평가 인력현황	506
표 IV-5-1-11 기술평가의 글로벌화 추진전략	507
표 IV-5-1-12 연도별지식재산(IP)보증현황	508
표 IV-5-1-13 R&D보증지원실적	509
표 IV-5-1-14 보증연계투자 주요내용	511
표 IV-5-1-15 강좌별 수료자 현황	512
표 IV-5-1-16 2015년기술·경영컨설팅지원현황	512
표 IV-6-1-1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514
표 IV-6-1-2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515
표 IV-6-1-3 금액별보증공급현황	515
표 IV-6-1-4 재단의 영업점 현황	523
표 IV-6-1-5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523
표 IV-6-1-6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524
표 IV-7-1-1 백화점(목동판매장)판매지원현황	527
표 IV-7-1-2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IMShopping)운영현황(2015년말)	527
표 IV-7-1-3 홈쇼핑사업 판매지원 현황	528
표 IV-7-1-4 마케팅판로지원사업별주요지원현황(2015년말)	530
표 IV-8-1-1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 현황	532
표 IV-8-1-2 원가절감대중소기업공동사업지원중소기업현황	533
표 IV-8-1-3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	534
표 IV-8-1-4 구매상담회 성과	534
표 IV-8-1-5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	535
표 IV-8-1-6 2·3차수탁기업협의회지원프로그램	535
표 IV-8-1-7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	536
표 IV-8-1-8 기술자료임치현황('15년12월말,누적)	536

표 IV-8-1-9 2015년적합업종추진현황('15년말기준)	537
표 IV-8-1-10 '15년경쟁력강화사업지원현황	538
표 IV-9-1-1 R&D기획역량제고사업지원현황(최근5년)	541
표 IV-9-1-2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지원현황(최근5년)	542
표 IV-9-1-3 융복합기술개발사업지원현황(최근5년)	543
표 IV-9-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지원현황(최근5년)	544
표 IV-9-1-5 상용화기술개발사업지원현황(최근5년)	545
표 IV-9-1-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실적	546
표 IV-9-1-7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547
표 IV-9-1-8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실적	548
표 IV-9-1-9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사업지원실적	548
표 IV-9-1-10 시장창출형지원실적	549
표 IV-9-1-11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550
표 IV-9-1-12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예산	550
표 IV-9-1-13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현황	551
표 IV-9-1-14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지원현황	552
표 IV-9-1-15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 지원현황	552
표 IV-9-1-16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원현황	553
표 IV-9-1-17 연도별정보화지원예산	553
표 IV-9-1-18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추이	554
표 IV-10-1-1 최근5년간예산현황	557
표 IV-10-1-2 최근5년간지원실적	557
표 IV-10-1-3 연도별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 예산현황	558
표 IV-10-1-4 연도별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실적	558
표 IV-10-1-5 연도별 해외창업 성과	558
표 IV-10-1-6 최근5년간예산현황	559
표 IV-10-1-7 최근5년간지원실적	559
표 IV-10-1-8 제도 도입 경과	559
표 IV-10-1-9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560
표 IV-10-1-10 상권정보시스템기초DB정확도조사결과	560
표 IV-10-1-11 상권정보시스템이용자만족도추이(온라인조사)	561
표 IV-10-1-12 연도별 경영개선교육 실시 현황	562

표 IV-10-1-13 연도별소상공인e-러닝센터운영현황	563
표 IV-10-1-14 연도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운영 현황	564
표 IV-10-1-15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564
표 IV-10-1-16 소상공인컨설팅지원예산및실적	565
표 IV-10-1-17 상공인컨설팅 지원성과	565
표 IV-10-1-18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566
표 IV-10-1-19 지역별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인프라구축지원현황(2015.12월말기준)	567
표 IV-10-1-20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569
표 IV-10-1-21 지역별 나들가게 전환 지원 현황	570
표 IV-10-1-22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통합 정보시스템 보급 실적 및 계획	571
표 IV-10-1-23 연도별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현황	575
표 IV-10-1-24 '15년구축공동인프라현황	576
표 IV-10-1-25 공동마케팅 및 그랜드세일 지원실적	578
표 IV-10-1-26 시장종합정보지 연도별 발행실적	580
표 IV-10-1-27 1시장1특색전통시장홍보연도별추진실적	580
표 IV-10-1-28 6시내고향연도별실적	581
표 IV-10-1-29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사업 현황	582
표 IV-10-1-30 교육형태별 지원실적 및 지원예산 현황	583
표 IV-10-1-31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실적	583
표 IV-10-1-32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584
표 IV-10-1-3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584
표 IV-10-1-34 전통시장화재안전점검사업예산및대상시장수	585
표 IV-10-1-35 자문·지도위원 현황	586
표 IV-10-1-36 자문(컨설팅)및점포지도실적	586
표 IV-10-1-37 상권활성화구역지원수	586
표 IV-10-1-38 문화관광형시장 지원현황	587
표 IV-10-1-39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중점사항 변경내역	587
표 IV-10-1-40 글로벌명품시장지역별선정시장	588
표 IV-10-1-41 골목형시장연차별지원현황및향후계획	588
표 IV-10-1-42 장보기및배송서비스시장선정수	589
표 IV-10-1-43 ICT전통시장육성사업선정수	589
표 IV-10-1-44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590
표 IV-10-1-45 '15년소상공인마당앱다운로드현황	592
표 IV-10-1-46 종합보시시스템이용자만족도추이(온라인조사)	592

표 IV-10-1-47	그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594
표 IV-10-1-48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BSI)추이	595
표 IV-10-1-49	소상공인정책자금집행실적	596
표 IV-10-1-50	성장기반자금집행실적(2015년)	597
표 IV-10-1-51	경영안정자금집행실적(2015년)	597
표 IV-11-1-1	모태조합 운영 체계	599
표 IV-11-1-2	벤처투자 자원조성 및 신규조합결성 추이	600
표 IV-11-1-3	한·미 신규 벤처투자 추이	600
표 IV-11-1-4	모태펀드 자원 조성 현황	601
표 IV-11-1-5	모태조합 출자 계정별 구조합 결성 현황	601
표 IV-11-1-6	모태조합 출자금의 투자승수 효과	602
표 IV-11-1-7	모태조합 취약분야 지원 현황	602
표 IV-12-1-1	자금조달 현황	607
표 IV-12-1-2	자금공급 실적	608
표 IV-12-1-3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609
표 IV-12-1-4	재원별 대출실적	609
표 IV-12-1-5	금융자금 대출실적	610
표 IV-12-1-6	기금 및 재정자금 대출실적	611
표 IV-12-1-7	외화자금 대출실적	612
표 IV-12-1-8	용도별 대출실적	613
표 IV-12-1-9	산업별 대출실적	614
표 IV-12-1-10	중소·벤처기업 투자실적	615
표 IV-12-1-11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616
표 IV-12-1-12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616
표 IV-12-1-1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실적	617
표 IV-12-1-14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현황	620
표 IV-12-1-15	중견기업 수 및 대출잔액 현황	626
표 IV-12-1-16	참!좋은무료컨설팅프로젝트실적	629
표 IV-13-1-1	지사화 연도별 주요실적	632
표 IV-13-1-2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실적	633
표 IV-13-1-3	buyKOREA.org의서비스제공내용	633

표 IV-13-1-4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634
표 IV-13-1-5 카드결제 시스템 이용실적	634
표 IV-13-1-6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635
표 IV-13-1-7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635
표 IV-13-1-8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636
표 IV-13-1-9 공동주관 국내전시회 지원결과	636
표 IV-13-1-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추진결과	636
표 IV-13-1-11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제공건수	637
표 IV-13-1-12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제공건수	637
표 IV-13-1-13 방한 바이어 현황	637
표 IV-13-1-14 GP사업계량실적현황	645
표 IV-13-1-15 글로벌역량진단(GCL테스트)제공건수	646
표 IV-13-1-16 이동코트라 서비스 제공 건수	646
표 IV-13-1-17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서비스 제공 건수	647
표 IV-13-1-18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647
표 IV-13-1-19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648
표 IV-13-1-20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651
표 IV-13-1-21 글로벌M&A지원절차	652
표 IV-13-1-22 한중FTA활용지원센터운영지역	654
표 IV-13-1-23 교육과정 운영 현황	656
표 IV-13-1-24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658
표 IV-13-1-25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	660
표 IV-13-1-26 투자종합상담실One-Stop서비스내역	660
표 IV-13-1-27 IKP 인큐베이터이용실적	661
표 IV-13-1-28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662
표 IV-13-1-29 글로벌 인재 채용지원 실적	662
표 IV-13-1-30 전문분야별DB구축현황	663
표 IV-13-1-31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663
표 IV-13-1-32 고용추천서발급실적	664
표 IV-13-1-33 국내인력 해외 취업지원 절차	664
표 IV-13-1-34 주요사업내용및'15년실적	665
표 IV-13-1-35 2015년KOTRAKSP사업주요국수행내역	666
표 IV-14-1-1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669

표 IV-14-1-2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내역	670
표 IV-14-1-3 보험(증)료지원운영내역(서울시및무역협회)	671
표 IV-14-1-4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674
표 IV-15-1-1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679
표 IV-15-1-2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679
표 IV-15-1-3 PMS 인증심사및OJT컨설팅현황	680
표 IV-15-1-4 컨설팅 지원 현황	682
표 IV-15-1-5 교육 및 훈련실적	683
표 IV-15-1-6 세미나 개최실적	684
표 IV-15-1-7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684
표 IV-16-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능	688
표 IV-16-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R&D지원사업현황	689
표 IV-16-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개방형실험실현황(40개)	690
표 IV-16-1-4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690
표 IV-16-1-5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 실적	691
표 IV-16-1-6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691
표 IV-16-1-7 기술이전 실적	692
표 IV-16-1-8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692
표 IV-16-1-9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693
표 IV-16-1-10 생기원-파트너기업운영현황	694
표 IV-16-1-11 기술지도/상담지원실적	694
표 IV-18-1-1 KISTI 정보서비스보유자원현황	709
표 IV-18-1-2 NDSL 정보제공유형별서비스내용	710
표 IV-18-1-3 NTIS 주요제공정보	712
표 IV-18-1-4 중소·중견기업슈퍼컴퓨팅M&S기술지원사업현황	716
표 IV-19-1-1 연도별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실적	720
표 IV-19-1-2 연도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실적	720
표 IV-19-1-3 수출기업화 홍보용디자인개발 지원실적	721
표 IV-19-1-4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주요실적(2015년)	722
표 IV-19-1-5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주요실적(2015년)	722

표 IV-19-1-6 중소중견기업디자인인력지원사업주요실적(2015년)	723
표 IV-19-1-7 2015 디자인코리아주요부대행사	724
표 IV-19-1-8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726
표 IV-20-1-1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731
표 IV-20-1-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실적	733
표 IV-20-1-3 각 단계별 지원현황	733
표 IV-20-1-4 지원현황	734
표 IV-20-1-5 지식재산권출원현황	734
표 IV-20-1-6 '16년도R&D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운영현황	735
표 IV-20-1-7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운영현황	736
표 IV-20-1-8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시험현황	737
표 IV-20-1-9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실적	738
표 IV-21-1-1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운영실적	741
표 IV-21-1-2 창업아카데미사업 지원현황	742
표 IV-21-1-3 시니어기술창업지원사업지원현황(2014~2015년)	743
표 IV-21-1-4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744
표 IV-21-1-5 대한민국창업리그신청자및수상자현황(최근5년)	745
표 IV-21-1-6 창조경제벤처·창업대전참가규모(최근3년)	746
표 IV-21-1-7 K-스타트업이용실적(최근3년)	746
표 IV-21-1-8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용실적(3개년)	747
표 IV-21-1-9 창업조사·연구연도별운영실적	748
표 IV-21-1-10 2015년창업선도대학운영현황	749
표 IV-21-1-11 2015년거점형(입소형)창업선도대학운영현황	749
표 IV-21-1-12 창업선도대학 주요실적 및 성과	750
표 IV-21-1-13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현황	751
표 IV-21-1-14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현황	751
표 IV-21-1-15 글로벌창업활성화 지원현황	752
표 IV-21-1-16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지원현황	752
표 IV-21-1-17 스마트창작터사업 지원현황	754
표 IV-21-1-18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원현황	755
표 IV-21-1-19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추진실적및성과	756
표 IV-21-1-20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추진실적및성과	756

그림목차

그림 1 기업가정신포털사이트(www.eship.or.kr)	37
그림 2 창업선도대학 지원 체계도	41
그림 3 2015년도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현황	43
그림 4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44
그림 5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프로그램사업구조(TIPS)	46
그림 6 미국의벤처투자성공사례:페이스북	71
그림 7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개편방안	101
그림 8 기업대출연체율(%)	104
그림 9 부도율(%)및부도업체수	104
그림 10 내일채움공제	124
그림 11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도출현황	155
그림 12 중소기업청기술로드맵과R&D사업연계	156
그림 13 중소기업기술유출현황(중기청,2015)	164
그림 14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개요	197
그림 15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도	213
그림 16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226
그림 17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 요인	243
그림 18 중견기업 성장부담의 단계적 축소	244
그림 19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	248
그림 20 중견기업의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부담 완화	248
그림 21 상권정보시스템2016년신규서비스	295
그림 22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체계	295
그림 23 희망리텐패키지	304
그림 24 2015년나들가게지원사업개편내역	315
그림 25 햇살론 보증공급 체계도	323
그림 26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326
그림 27 기업마당웹사이트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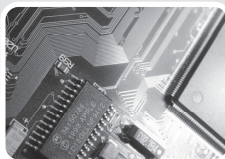
그림 28 1357 중소기업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346
그림 29 One Call 통합상담서비스	347
그림 30 IP 역량단계별기업육성지원체계	413
그림 31 산업위원회 추진 체계	434
그림 32 산업위원회 현황	434
그림 33 정책자금 지원 효과	469
그림 34 글로벌화 지원체계	470
그림 35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471
그림 36 융합과 협업 체계	472
그림 37 기술이전·사업화지원업무프로세스	510
그림 38 상권정보시스템'16년신규서비스	561
그림 39 소공인특화지원센터우수사례(문래동소공인특화지원센터)	575
그림 40 소상공인증합정보시스템서비스체계	591
그림 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685
그림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686
그림 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현황	687
그림 44 기술커뮤니티 지원	693
그림 45 NTIS 서비스개념도	712
그림 46 2015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심사장면(2015.12.16)	726
그림 47 2015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주요성과(2015.12.16)	726
그림 48 우수디자인상품선정&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시상식(2015.12.16)	728
그림 49 창업선도대학 지원 체계도	748

제 1 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제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 정책총괄과 송양훈

1 중소기업 현황

2014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사업체수는 126천개, 종사자수는 606천명이 증가하였다.

표 1-1-1-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체 수	전체	3,354,320	3,418,993	3,545,473
	중소기업	3,351,404	3,415,863	3,542,350
	비중	(99.9)	(99.9)	(99.9)
종사자 수	전체	14,891,162	15,344,860	15,962,745
	중소기업	13,059,372	13,421,594	14,027,636
	비중	(87.7)	(87.5)	(87.9)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가공 및 재편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7.8%), 숙박 및 음식업(19.8%), 제조업(11.1%), 운수업(10.6%)순으로 사업체수가 많으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제조업(22.7%), 도매 및 소매업(20.2%), 숙박 및 음식업(14.4%)이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가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수 비중은 한국 및 영국이 99.9%, 미국 99.7%, 일본 99.0%, 대만 9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87.9%, 대만 78.3%, 일본 75.8%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 및 영국은 각각 48.4%와 60.3%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I-1-1-2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4년 기준)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3,542	99.9	14,028	87.9
일본	5,368	99.0	42,065	75.8
대만	1,353	97.6	8,669	78.3
미국	5,708	99.7	56,063	48.4
영국	5,236	99.9	15,159	60.0

주 : 종사자수 1인 이상 기준, 일본(2012년), 미국(2012년), 대만 및 미국, 영국은 기업체 기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97.0%(3,441천개)와 전체 종사자수의 62.8%(10,022천명)를 차지하였으며, 중기업은 각각 2.9%(102천개)와 25.1%(4,006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표 I-1-1-3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천개, 천명)

구분	전 체		중 소 기 업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 계			
	2013년	2014년	소상공인 2013년	소상공인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사업 체수	3,419	3,545	3,317	3,441	99	102	3,416	3,542	3.1	3.1
	(100.0)	(100.0)	2,962	3,063	(2.9)	(2.9)	(99.9)	(99.9)	(0.1)	(0.1)
			(97.0)	(97.0)						
종사 자수	15,345	15,963	9,524	10,022	3,897	4,006	13,422	14,028	1,923	1,935
	(100.0)	(100.0)	5,778	6,046	(25.4)	(25.1)	(87.5)	(87.9)	(12.5)	(12.1)
			(62.1)	(62.8)						
		(37.7)	(37.9)							

주 :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 = 소기업 + 중기업

2.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가공 및 재편

4 _ 중소기업청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48.0%(1,701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은 27.0%, 호남권은 10.1%, 중부권은 10.1%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1.3%(7,198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5.9%, 중부권은 10.0%, 호남권은 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1-4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도권	1,610,324 (48.0)	1,633,527 (47.8)	1,700,629 (48.0)	6,675,158 (51.1)	6,832,380 (50.9)	7,198,286 (51.3)
영남권	912,947 (27.2)	930,888 (27.3)	957,382 (27.0)	3,432,128 (26.3)	3,521,245 (26.2)	3,636,065 (25.9)
호남권	336,630 (10.0)	345,508 (10.1)	357,060 (10.1)	1,174,830 (9.0)	1,208,300 (9.0)	1,248,063 (8.9)
중부권	333,580 (10.0)	342,260 (10.0)	358,384 (10.1)	1,283,655 (9.8)	1,339,630 (10.0)	1,406,136 (10.0)
기 타 (강원, 제주)	157,923 (4.7)	163,680 (4.8)	168,895 (4.8)	493,601 (3.8)	520,039 (3.9)	539,086 (3.8)

주 : ()안은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가공 및 재편

소상공인은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수가 306만개(총사업체의 86.4%)이며,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서울 21.1%, 경기 20.9% 인천 4.8%)에 위치하고 있고, 종사자수 605만명(37.9%)이다.

표 1-1-1-5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 분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	3,545,473	3,063,001	86.4	3,440,641	97.0	101,709	2.9	3,542,350	99.9
종사자	15,962,745	6,046,357	37.9	10,021,619	62.8	4,006,017	25.1	14,027,636	87.9

* 자료 :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표 I-1-1-6 지역별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645,574	228,399	167,353	148,548	89,604	88,288	63,699	6,95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40,453	108,315	95,855	123,139	115,416	113,350	175,073	210,259	42,718

* 자료 :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또한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28.6%)과 음식·숙박업(20.1%)이 약 50%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소상공인은 생활형 서비스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1-1-7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총) 산업	3,063,001	100.0	6,046,357	100.0
도·소매업	876,093	28.6	1,586,382	26.2
음식·숙박업	616,086	20.1	1,287,130	21.3
제조업	325,621	10.6	1,025,945	17.0
기타	1,245,201	40.7	2,146,900	35.5

* 자료 :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자영업자¹⁾수는 2002년 최고 수준(630만명)을 기록한 후,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2010년 이후 점차 안정세로 2014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표 I-1-1-8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자영업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자영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자영자
2011년	24,244	5,594	0.0	1,505	0.4	4,088	△0.1
2012년	24,681	5,718	2.2	1,549	2.9	4,169	2.0
2013년	25,066	5,651	△1.2	1,510	△2.5	4,141	△0.7
2014년	25,599	5,652	0.0	1,550	2.7	4,102	△0.9
2015년	25,936	5,653	0.0	1,581	2.0	3,982	△2.9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2011년 이후 3년간 중소기업 고용은 전산업 증가분(1,429천명)의 98.1%에 해당하는 1,401천명이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1.9%에 해당하는 28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1-1-9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 및 기여율

(단위 : 천명, %)

구 분	2011년	2012년 (a)	2013년 (b)	2014년 (c)	증감(2011-2014) (a+b+c)
전산업 증감	399	357	454	618	1,429
- 중소기업	364	433	362	606	1,401
(기여율)	91.3	121.2	79.8	98.1	(98.1)
- 대기업	35	△76	91	12	28
(기여율)	8.7	△21.2	20.2	1.9	(1.9)

주 : 1. 증감은 전년대비 종사자수 증감인원

2. 기여율은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가공 및 재편

그리고 우리나라 종사자수 5인 이상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여율을 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이 전체 증가분의 346.3%를 차지하였다.

표 I-1-1-10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단위 : 조원, %)

구 분	2011년	2012년 (a)	2013년 (b)	2014년 (c)	증감액(2011-2014년) (a+b+c)
전체 증감액	46.8	0.6	△0.8	6.7	6.5
- 중소기업	21.6	1.9	5.8	14.9	22.6
(기여율)	46.3	308.8	734.8	221.7	346.3
- 대 기 업	25.1	△1.3	△6.6	△8.2	△16.1
(기여율)	53.7	△208.8	△834.8	△121.7	△246.3

주 : 1.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준이며, (a),(b),(c)는 직전년도 대비 증감액임

2. 기여율은 전체 부가가치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가공 및 재편

연대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비교해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성장정책으로 고용, 생산, 부가가치 증가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이 81.9%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생산, 부가가치 기여율이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서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이 128.7%로 나타나 고용 증가의 중심축에 중소기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가가치 기여율은 50.8%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서고 있다.

표 I-1-1-11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단위 : %)

구 분			1960년대 (63~69)	1970년대 (70~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이후 (00~14)	전 체 (63~14)
사업 체수	기 여 율	중소기업	94.0	94.8	99.4	102.2	101.0	99.2
		대 기 업	6.0	5.2	0.6	△2.2	△1.0	0.8
종사 자수	기 여 율	중소기업	38.1	47.1	81.9	△6.8	128.7	80.3
		대 기 업	61.9	52.9	18.1	△93.2	△28.7	19.7
생산액	기 여 율	중소기업	26.5	32.2	45.7	50.3	47.8	59.9
		대 기 업	73.5	67.8	54.3	49.7	52.2	40.1
부가 가치	기 여 율	중소기업	25.7	35.7	47.7	50.5	50.8	83.1
		대 기 업	74.3	64.3	52.3	49.5	49.2	16.9

주 : 1. 종사자수 5인이상 기준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가공 및 재편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 정책총괄과 송양훈

1 업종별 동향

가. 제조업

1) 생산

2015년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에 비해 메르스 사건 등으로 내수와 수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생산지수가 전년대비 1.2% 감소한 105.1로 나타났다.

표 I-2-1-1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2010=100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지수	104.7	106.3	106.4	105.1
증 감 률	0.2	1.6	△0.1	△1.2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2015년 중소제조업 월별 생산은 내수부진 등으로 대체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표 I-2-1-2 2015년 월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2010=100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지수	103.8	91.5	111.9	108.2	102.5	108.9	107.5	96.6	103.4	109.2	106.9	110.7
전년동월 대비증감률	2.6	△7.3	0.8	△3.7	△4.2	2.3	△2.7	△2.8	0.4	△0.2	0.8	△0.5

자료 : 통계청

한편 2015년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71.9%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다.

표 1-2-1-3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전체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1.1	71.8	71.5	71.5	72.1	71.8	72.1	71.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5년 전체 제조업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2/4분기까지 감소하다 3/4분기부터 반등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도 3/4분기까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5%p 감소하였다.

표 1-2-1-4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2010=100기준)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전체
전 체	107.2 (1.5)	108.0 (0.8)	108.1 (0.0)	105.0 (△0.8)	108.7 (△1.2)	106.3 (0.8)	111.4 (0.2)	107.9 (△0.2)
중소기업	104.6 (0.4)	106.0 (1.4)	105.9 (△0.1)	102.1 (△0.3)	106.8 (△1.7)	103.2 (△0.3)	109.4 (0.6)	105.4 (△0.5)

자료 : 통계청,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고용

2015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012천원이며, 전년 대비 5.0%로 증가하였다.

2015년 중소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87.7시간으로 전년 대비 0.5시간 증가하였다.

표 1-2-1-5 중소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5 ~ 299인) (단위 : 천원, 시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소제조업 임금총액	2,620	2,739	2,870	3,012
중소제조업 근로시간	188.0	186.1	187.2	187.7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5년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44천명 증가한 23,567천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고용률은 65.7%로 0.4%p 증가하였으나, 실업률 또한 0.1%p 증가하였다.

표 1-2-1-6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취업자수(300인 미만)	22,635	22,907	23,323	23,567
고용률	64.2	64.4	65.3	65.7
실업률	3.2	3.1	3.5	3.6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3) 원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

가) 원자재 구매

2014년 중 중소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는 299조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했다

구매처별 원·부자재 구매비율은 국내구매가 91.1%, 해외구매가 8.9%로 전년과 비슷했다.

표 1-2-1-7 원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중 소 제 조 업	2,963,032	3,168,736	2,987,246	△5.7
- 국 내 산	89.0%	91.1%	91.1%	0.0
- 외 국 산	11.0%	8.9%	8.9%	0.0

주 : 국내에서 1차 가공된 수입원자재는 국내산으로 봄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2014년 중 중소제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은 현금이 88.4%, 어음이 11.6%로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지급 비중이 전년(91.1%)대비 2.7%p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 88.9%, 어음 11.1%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 81.3%, 어음 18.7%로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8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단위 : %)

구 분	현 금			어 음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 소 제 조 업	88.6	91.1	88.4	11.4	8.9	11.6
- 소 기 업	89.1	91.6	88.9	10.9	8.4	11.1
- 중 기 업	81.7	83.0	81.3	18.3	17.0	18.7

주 : 1. 기업체당 평균 지급금액 비율(%입).
 2. 현금지급에는 순수현금결제와 어음대체용 현금성 결제가 포함됨.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2014년 중 중소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어음으로 구매한 경우 구매대금의 어음 평균 지급기일은 34.6일, 결제기일은 76.1일, 지급기일과 결제기일을 합한 총 지급기일은 110.6일로 전년(113.6일)대비 3.0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별 구매대금 어음 총 지급기일은 소기업이 3.4일 감소, 중기업이 0.3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9 원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총 지급기일(1+2)	112.6	113.6	110.6	△3.0
· 지급기일(1)	29.9	35.7	34.6	△1.1
· 결제기일(2)	82.7	77.9	76.1	△1.8
- 소 기업	113.1	114.2	110.8	△3.4
- 중 기업	107.4	109.5	109.2	△0.3

주 : 1. 지급기일은 원자재를 구매한(납품받은) 날로부터 어음을 지급한 날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2. 결제기일은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3. 총지급기일은 어음을 지급한 날부터 결제 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제품 판매

2014년 중소기업의 제품판매총액은 604조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했다.

판매액 중 내수판매 비중은 2013년의 90.3%에서 91.6%로 1.3%p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은 9.7%에서 8.4%로 감소했다.

표 I-2-1-10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중 소 제 조 업 (전년비 증감률)	5,799,079 (3.1%)	6,084,988 (4.9%)	6,041,127 (△0.7%)
- 수 출 (자기상표)	14.0 (15.9)	9.7 (16.8)	8.4 (16.3)
- 내 수 (자기상표)	86.0 (13.6)	90.3 (9.5)	91.6 (4.1)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2014년 중소기업 판매대금의 결제는 현금성 결제가 80.0%, 어음 결제가 20.0%로 나타났으며, 현금성 결제는 전년(81.7%)대비 1.7%p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성 결제가 80.3%, 어음결제가 19.7%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성 결제 75.4%, 어음결제 24.6%로 나타나 중기업의 현금결제 비중이 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11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단위 : %)

구 분	현 금			어 음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 소 제 조 업	77.1	81.7	80.0	22.9	18.3	20.0
- 소 기 업	77.3	82.1	80.3	22.7	17.9	19.7
- 중 기 업	73.7	76.5	75.4	26.3	23.5	24.6

주 : 1. 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비율(%)임.

2. 현금은 순수현금결제이외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 포함됨.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2014년 중 중소기업이 제품판매 후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는데 소요된 기일과 어음 결제기일을 합한 총 수취기일은 114.8일로 전년(120.3일) 대비 5.5일 감소했다. 이를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로 구분하면 수취기일은 전년대비 1.5일 감소했고, 결제기일은 4.1일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년대비 5.9일 감소했으며, 중기업은 2.0일 감소했다.

표 I-2-1-12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수취기일(1+2)	115.8	120.3	114.8
· 수취기일(1)	31.7	38.9	37.4
· 결제기일(2)	84.2	81.5	77.4
- 소 기 업	116.5	120.9	115.0
- 중 기 업	107.4	113.9	111.9

주 : 1. 수취기일은 제품을 판매한(납품한) 날로부터 어음을 받은 날까지 평균 소요기일임.

2. 결제기일은 받은 어음의 현금화(결제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임.

3. 총수취기일은 어음을 수취한 날부터 결제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임.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5) 재무구조

가) 성장성

2014년 중소제조업의 총자산 증가율(7.82%)과 유형자산 증가율(8.85%)은 전년대비(2.93%p, 5.21%p) 상승하였다.

그러나, 매출액 증가율(1.72%), 유동자산 증가율(6.46%), 자기자본 증가율(9.54%)은 전년대비(△3.21%p, △0.88%p, △4.50%p) 하락하였다

표 I-2-1-13 성장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 출 액 증 가 율	7.13	9.60	3.08	4.93	1.72
유 형 자 산 증 가 율	3.87	9.95	6.00	3.64	8.85
총 자 산 증 가 율	6.35	5.77	2.29	4.89	7.82
유 동 자 산 증 가 율	8.84	1.25	0.68	7.34	6.46
자 기 자 본 증 가 율	7.67	2.32	△1.21	14.04	9.54

자료 : 201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나) 수익성

2014년 중소기업의 총자산세전순이익률은 4.74%, 총자산순이익률은 4.09%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률 하락 등에 따라 2013년 333.63%에서 2014년 294.36%로 39.27%p 하락했다

한편,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은 이자비용 증가 등에 따라 2013년 1.57%에서 2014년 1.76%로 소폭 상승했다.

표 I-2-1-14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자산 세 전 순 이 익 률	4.79	4.43	4.54	5.19	4.74
총 자 산 순 이 익 률	4.19	3.66	3.90	4.46	4.09
자기 자본 세 전 순 이 익 률	11.93	11.23	11.94	12.53	12.33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률	5.55	5.10	4.95	5.24	5.18
매 출 액 세 전 순 이 익 률	4.43	3.90	3.96	4.52	4.21
매 출 액 순 이 익 률	3.82	3.21	3.40	3.89	3.64
이 자 보 상 비 율	275.01	267.43	246.52	333.63	294.36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	2.02	1.91	2.01	1.57	1.76
차 입 금 평 균 이 자 율	6.06	5.89	5.80	4.89	4.90

주 : 1. 총자산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총자산)×100, 2.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3. 자기자본 세전이익률 = (세전순이익/자기자본)×100, 4.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매출액)×100, 6.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7.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100, 8. 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 = (이자비용/매출액)×100
 9. 차입금 평균이자율 = (이자비용/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100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다) 안정성

2014년에 중소기업은 부채비율 상승,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재무 건전성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동비율(비유동자산/자기자본)은 2013년 120.92%에서 134.45%,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2013년 141.66%에서 158.46%로 각각 상승했으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은 2013년 41.38%에서 38.69%로 하락했다.

또한,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도 2013년 136.27%에서 129.81%로 하락했다.

한편, 차입금의존도<(회사채+장·단기차입금)/총자산>는 2013년 36.84%에서 40.62%로 상승했다.

표 1-2-1-15 안정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 동 비 율	134.44	124.87	123.80	136.27	129.81
비 유 동 비 율	118.09	127.66	134.45	120.92	134.45
자 기 자 본 비 율	40.80	39.47	38.06	41.38	38.69
부 채 비 율	145.09	153.34	162.74	141.66	158.46
차 입 금 의 존 도	36.58	36.89	39.72	36.84	40.62

- 주 : 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 비유동비율 = (비유동자산/자기자본)×100
 3.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4.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100
 5.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라) 생산성

2014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은 2013년 24.02%에서 25.23%로 상승해 3년 연속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013년 267,871천원에서 254,271천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도 2013년 64,342천원에서 64,147천원으로 감소했으나, 종사자 1인당 인건비는 2013년 39,112천원에서 39,332천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은 2013년 60.79%에서 61.32%로 전년 대비 0.53%p 상승했다

한편,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총자본투자효율(자본생산성)은 2013년 27.56%에서 28.35%로 상승해 2011년 이후 지속 상승했다.

표 I-2-1-16 생산성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자 본 투 자 효 율	24.59	24.78	25.57	27.56	28.35
부 가 가 치 율	22.38	21.77	22.29	24.02	25.23
노 동 소 득 분 배 율	57.30	59.27	58.99	60.79	61.32
종 사 자 1 인 당 매 출 액	245,834	265,012	277,984	267,871	254,271
(전 년 대 비 증 감 률)	(6.2)	(7.8)	(4.9)	(△3.6)	(△5.1)
종 사 자 1 인 당 부 가 가 치	55,022	57,695	61,973	64,342	64,147
종 사 자 1 인 당 인 건 비	31,526	34,196	36,557	39,112	39,332

주 : 1. 총자본 투자효율(자본생산성) = (부가가치/총자본)×100

2.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매출액)×100

3.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부가가치)×100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 소상공인 경기동향

2015년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6월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 하였다. 하반기에는 명절, 각종 할인행사 등 내수 진작의 영향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연중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표 I-2-1-17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 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51.1	60.0	60.4	66.7	66.3	43.5	64.2	63.0	69.0	71.4	63.2	59.6
예상경기	84.2	77.5	118.4	93.3	83.9	75.5	66.0	79.9	94.1	98.3	90.4	84.2

구 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출	51.9	58.8	62.7	69.5	67.9	44.5	64.7	62.7	68.7	72.0	63.9	59.4
영업이익	51.5	59.6	62.5	69.1	68.1	44.2	64.3	62.5	68.3	71.3	63.7	59.7
자금사정	52.5	60.6	58.9	67.3	66.0	47.5	63.1	62.6	67.1	69.4	65.9	59.5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전통시장 경기동향

2015년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2월에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최고치를 기록 하였으나, 곧 메르스 사태로 인해 6월에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하였다.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 아래서 등락을 반복하였다.

표 I-2-1-18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 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66.8	92.5	62.4	62.5	69.8	29.4	63.9	61.9	79.5	65.5	76.0	62.3
예상경기	90.6	107.5	101.7	98.6	85.7	74.2	56.5	80.9	106.7	87.0	100.2	91.9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분야별 동향

가. 창업 및 부도

2015년 신설법인수(전국 기준)는 93,768개로 2014년(84,697개) 대비 10.7% (9,071개) 증가하였고, 부도법인수 대비 신설법인수를 나타내는 창업배율은 부도법인이 감소하고 신설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43.8배 증가한 181.7배를 기록하였다.

표 I-2-1-19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단위 : 개, 배)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전체
신설법인수	74,162	75,574	84,697	22,652	23,766	23,377	23,973	93,768
부도법인수	890	705	614	142	160	108	106	129
창업배율	83.3	107.2	137.9	159.5	148.5	216.5	226.2	181.7

자료 : 법원행정처 및 한국은행, 창업배율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2015년 부도업체수는 720개로 2014년 부도업체수 841개 대비 121개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I-2-1-20 부도업체수(전국 기준)

(단위 : 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전체	
전 국	1,228	1,001	841	204	215	156	145	720	
형태별	법 인	890	705	614	142	160	108	107	516
	중소기업 (대기업)	884 (6)	702 (3)	609 (5)	139 (3)	156 (4)	108 (0)	105 (2)	508 (9)
	개 인	338	296	227	62	55	48	38	203

자료 : 금융결제원

2015년 어음부도율은 0.02%로 2014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전자결제 조정 전 어음부도율은 0.16%로 2014년 대비 0.03%p 감소하였다.

표 I-2-1-21 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전체
전국 어음부도율	0.02 (0.12)	0.02 (0.14)	0.02 (0.19)	0.02 (0.23)	0.02 (0.20)	0.01 (0.12)	0.01 (0.10)	0.02 (0.16)

주 : ()내는 전자결제 조정전
자료 : 한국은행

나.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11년 1,016억불(18.3%), 2012년 1,029억불(18.8%), 2013년 9,55억불(17.1%), 2014년 1,033억불(18.0%), 이었으며, 2015년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962억불(18.3)을 기록하였다.

수출중소기업은 2011년 83천개, 2012년 86천개, 2013년 88천개, 2014년 88천개, 2015년 89천개로 1% 증가하고 있다.

표 I-2-1-22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개,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수출액	555,214	547,870	559,632	572,665	526,757
중소기업수출액 (비중)	101,560 (18.3)	102,872 (18.8)	95,492 (17.1)	103,292 (18.0)	96,227 (18.3)
수출기업수	82,833	86,207	87,865	88,486	89,364

* 2011년의 경우 관계기업 제도 시행(2011.1)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비중 감소
* 2015년 수출통계치는 잠정치임 (이하 동일)

2014 과 2015의 기업규모별 수출을 보면, 대기업의 수출액 감소폭이 매우 크나(-11.0%) 중소·중견기업은 비교적 작은 폭으로 수출이 감소(-2.2%)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2-1-23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구분		전체	중소기업 (비중,%)	중견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기타 (비중,%)
2014년	업체수	119,682	88,486(73.9)	2,168 (1.8)	786(0.7)	28,242(23.6)
	수출액	572,665	103,292(18.0)	90,102(15.7)	378,355(66.1)	916(0.2)
2015	업체수	123,757	89,364(72.2)	2,275(1.8)	737(0.6)	31,381(25.4)
	수출액	526,757	103,292(18.0)	92,853(17.6)	336,668(63.9)	1,009(0.2)

2015년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별 수출국가 다변화 정도는 2014년과 동일한 규모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국가 다변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세 둔화와 중국 수출감소 등으로 일본, 미국, EU 지역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한류 등의 영향으로 비누·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출이 크게 늘어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 2015년 수출중소기업 중 54.7%(2014년 : 54.0%)가 1개 국가만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10만불 이하 수출기업은 72.7%

표 I-2-1-24 국가별 수출액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

구분	2014년		2015년			
	업체수	수출액	업체수	증감	수출액	증감
중국	31,173	22,986	31,173	2.3	22,056	△4.0
미국	17,929	11,391	17,929	3.1	10,860	△4.7
일본	19,917	10,089	19,917	-4.5	8,840	△12.4
베트남	12,820	7,305	12,820	11.9	8,442	15.6
아세안	32,475	17,995	32,475	3.8	18,337	1.9
EU	16,604	8,454	16,604	0.2	7,446	△11.9

2015년도 주요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이며, 2014년 상위 10대 품목 중 2개 품목을 제외하고 2015년에는 모두 감소하였다.

표 I-2-1-25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감
1	플라스틱 제품	5,683	5.7	플라스틱 제품	5,475	5.3	△3.7
2	자동차 부품	5,564	5.3	자동차 부품	4,818	4.7	△13.4
3	합성수지	3,860	3.6	합성수지	3,395	3.3	△12.0
4	반도체	3,114	3.2	반도체	2,717	2.6	△12.7
5	편직물	2,864	3.0	무선통신기기	2,683	2.4	1.9
6	무선통신기기	2,634	2.9	편직물	2,462	2.6	△14.0
7	기계요소	2,595	2.3	비누치약및화장품	2,230	2.2	△16.5
8	기타기계류	2,260	2.2	원동기및펌프	2,223	2.2	4.6
9	자동차	2,247	2.8	기타기계류	2,197	2.1	△2.8
10	철강판	2,215	2.1	기계요소	2,167	2.1	△16.5

주 :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MTI 3단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다. 금융

2015년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576.6조원으로 2014년말 대비 54.2조원(10.4%) 증가하였다.

표 I-2-1-26 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			
			1/4 (3월말)	2/4 (6월말)	3/4 (9월말)	4/4 (12월말)
기업대출	659.4	705.9	360.4	366.5	375.5	378.0
대기업	170.5	183.5	183.3	179.6	181.2	179.6
중소기업	488.9	522.4	537.5	553.6	569.7	576.6

자료 : 금융감독원

2015년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73%)은 2014년말(0.84%) 대비 0.11%p 하락하였으며, 대기업 대출 연체율(0.92%)은 2014년말(0.57%)에 비해 0.35%p 상승하였다.

표 I-2-1-27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12월	20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기업	0.57	0.62	0.54	0.52	0.74	0.81	0.68	0.84	1.04	1.00	0.92	1.02	0.92
중소기업	0.84	0.95	1.08	0.97	1.05	1.11	0.78	0.90	0.99	0.82	0.93	0.98	0.73

자료 : 금융감독원

라. 인력

2014년 중소기업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현 인원은 238만명으로 직종별 인력은 단순노무직 33.2%, 기능직 27.8%, 사무관리직 23.6%, 기술직 7.3%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2-1-28 I-2-1-28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명, %)

중소제조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 인원	2,069,724	2,087,898	2,122,822	2,086,116	2,375,864
부족인원	53,389	64,738	66,331	55,489	38,210
부족률	2.51	3.01	3.03	2.59	1.58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한편,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단순노무직이 2.07%로 가장 높고, 기술직 2.05%, 연구직 1.92%, 기능직 1.66% 등의 순이며, 학력별 인력구성은 고졸이 5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 전문대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졸 이상은 0.8%에 그쳤다.

표 I-2-1-29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2014년)

구 분	전 체	사 무 관리직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단 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직
부족인원(명)	38,210	3,629	2,205	3,630	11,118	16,645	174	809
부 족 륜(%)	1.58	0.64	1.92	2.05	1.66	2.07	1.21	1.20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표 I-2-1-30 중소기업의 학력별 인력구성

(단위 : %)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0년	5.9	55.5	17.6	19.8	1.2
2011년	5.0	56.7	14.7	22.1	1.5
2012년	4.3	57.0	15.9	21.5	1.3
2013년	3.9	53.4	18.3	23.0	1.4
2014년	1.7	56.8	20.2	20.5	0.8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일수록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와 인력부족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9인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평균 3.29%로 상시근로자수가 200인~299인 기업의 인력부족률 0.65%에 비해 5.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31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

구 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2010년	4.76	3.59	2.06	1.24	0.85	0.35
2011년	4.42	3.77	3.07	2.20	1.56	0.91
2012년	6.07	3.34	3.00	1.34	1.14	0.75
2013년	3.77	3.44	2.40	1.97	1.68	0.51
2014년	3.29	1.92	1.14	0.76	0.59	0.65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마. 기술

2014년 기준 5인 이상 중소기업체의 30.0%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의 28.9%에 비해 1.1%p 증가한 규모이다.

표 I-2-1-32 R&D 수행 중소기업체(5~299인) 추이

(단위 : 개,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2,492	31,642	33,991	38,531	37,823
중소기업체수 대비 비중	28.9	28.1	31.0	31.6	30.0

자료 :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모집단 : 5~299인 중소기업체 126,187개, 표본수 : 8,000개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15년 34,022개사로 2010년 20,659개에 비해 1만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속 연구원 수도 4만명 이상 증가하여, 2015년에 18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33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0,659	22,876	24,243	27,154	30,741	34,022
소속 연구원수	141,080	147,406	146,833	155,580	172,364	188,280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5.12)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14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1.2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63.7조원의 17.6%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1-34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공연구기관	46,532	55,584	63,061	64,418	69,503	72,607	81,127
대학	38,447	42,043	47,455	50,338	52,769	54,803	57,670
기업	260,001	281,659	328,033	381,833	432,229	465,599	498,545
- 대기업	187,139	199,700	242,129	283,462	320,709	357,781	386,177
- 중소기업	72,862	81,959	85,904	98,371	111,520	107,818	112,367
합계 (국가 R&D 규모)	344,981	379,285	438,548	498,904	554,501	593,009	637,341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2016.1)

그러나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32%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I-2-1-35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 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기술수준	74.6	74.7	74.8	77.4	77.6

* 자료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중소기업중앙회, 2015.12)

표 I-2-1-36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종사자 1인당)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조업	178	175	170	167
- 중소기업	108	107	107	109
- 대기업	373	359	354	336
대기업과 격차	29.1	29.9	30.2	32.5

주 : '대기업과의 격차'는 대기업을 100.0으로 할 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수준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년도에서 재편·가공

제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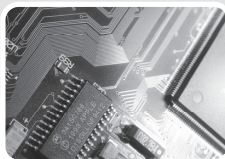
제1장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

제2장 중소기업 성장 역량 강화

제3장 견고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제4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제5장 현장 체감형 중소기업 행정 구현



제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1장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

제1절 기술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1 신설법인현황

● 창업진흥과 이 순 석

2015년 연간 신설법인수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93,768개로 통계 작성(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최초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표 II-1-1-1 연도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법인수	60,312	65,110	74,162	75,574	84,697	93,768

업종별로는 전년대비 건설업(12.6%, 1,201개), 서비스업(12.5%, 6,656개) 및 제조업(3.3%, 646개)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표 II-1-1-2 업종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연 도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전기 수도사업 등	서비스업	계
2013년	1,637 (2.2)	18,721 (24.8)	7,780 (10.3)	47,436 (62.7)	75,574 (100.0)
2014년	2,593 (3.1)	19,509 (23.0)	9,508 (11.2)	53,087 (62.7)	84,697 (100.0)
2015년	3161 (3.5)	20,155 (21.5)	10,709 (11.4)	59,743 (63.7)	93,768 (100.0)

연령별로는 40대(35,699개, 38.1%), 50대(24,469개, 26.1%), 30대(20,418개, 21.8%)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한 가운데, 특히 30세 미만에서의 법인 신설(4,986개)이 가장 크게 증가(전년대비 1,101개, 28.3% 증가)하였다.

표 II-1-1-3 연령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증감수	증감률
30세미만	3,885	(4.6)	4,986	5.3	1,101	28.3
30~39세	18,921	(22.3)	20,418	21.8	1,497	7.9
40~49세	33,100	(39.1)	35,699	38.1	2,599	7.9
50~59세	21,898	(25.9)	24,469	26.1	2,571	11.7
60세이상	6,808	(8.0)	8,108	8.6	1,300	19.1
기 타	85	(0.1)	88	0.1	3	3.5
총계	84,697	(100.0)	93,768	100.0	9,071	10.7

성별로는 여성(12.7%)과 남성(10.1%)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년 대비 0.4%p 소폭 증가하였다.

표 II-1-1-4 성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여성	19,726 (23.3)	22,229 (23.7)	12.7
남성	64,971 (76.7)	71,539 (76.3)	10.1
계	84,697 (100.0)	93,768 (100.0)	10.7

2 창업저변 확대

- 벤처정책과 **업 정 수**
- 창업진흥과 **흥 명 기**
- 지식서비스창업과 **흥 승 한**

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2002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쿨과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인 비즈쿨(Bizcool)은 학교(School)내에서 경영(Business)를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을 통해 꿈, 끼, 창의성 및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비즈쿨 지정학교를 대폭 확대('14년 200개교→'15년 412개교) 하여 참여 학생이 190천명으로 크게 확대된바 있다.

표 II-1-1-5 비즈쿨 운영실적

구 분	'02~'12	'13	'14	'15	'16(목표)
지원예산(A)	216.1억원	45억원	50억원	60억원	83억원
비즈쿨학교(B)	1,027개교	135개교	200개교	412개교	448개교
평균지원(A/B)	0.18억원	0.33억원	0.25억원	0.15억원	0.15억원
참여학생수	580천명	116천명	133천명	190천명	210천명
비즈쿨캠프	89회, 8,850명	22회, 1,808명	15회, 1,035명	11회, 585명	18회, 930명
창업동아리	4,622개	830개	1,053개	1,329개	1,500개

아울러 미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동아리와 창업강좌 개설 등 창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1-1-6 대학생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 창업동아리(개)	297	259	477	336	380	338
창업강좌수(개)	115	155	213	153	161	111
교육인원(명)	7,543	10,608	11,011	7,283	6,623	3,945

또한 일반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는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1-1-7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연도별 지원성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운영과정(개)	26	27	33	30	47	43
수료현황 (수료/참가, 명)	886/1,009	872/1,061	1,128/1,285	996/1,145	1,057/1,215	928/1,103

2004년부터 중앙대학교, 한밭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호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석사과정의 창업대학원을 설치하여 창업관련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신규 5개 대학원(국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을 추가 선정하여 보다 넓게 저변을 확대하였다.

표 II-1-1-8 창업대학원(석사과정) 설치 현황

구 분	중앙대	한밭대	경남과기대	호서대	예원예술대
대학원명	산업·창업 경영대학원	창업·경영 대학원	벤처·창업 대학원	글로벌 창업대학원	문화·영상 창업대학원
개설	2004.9월	2005.3월	2005.3월	2005.3월	2005.3월
형태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5학기
구 분	국민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계명대	부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 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글로벌창업 경영대학원	기술 창업 대학원
개설	2014.9월	2014.9월	2014.9월	2014.9월	2014.9월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야간)
이수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4학기	5학기

나. 기업가정신 확산 및 대한민국 창업리그

① 기업가정신 확산

사회 전반에 걸친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112억원을 조성하여 2011년 3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하고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조사와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전문가 양성 등 기업가정신 확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생, 예비창업자, 청년기업가, 일반인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캠페인 및 국제 행사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가정신 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관련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참여형·체험실습형 기업가정신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확산하고 있으며, 미국·핀란드 등 선진국의 우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콘텐츠를 확충하여 전주기 기업가정신 교육 체계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600여명의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교육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1-1-9 기업가정신 교재 및 교구 개발 현황

구 분	교재 현황	교구 현황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종 개발 - 기업가정신의 이해(이론서) - 새로운 모색과 창조 : 기업가정신 워크북(기초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종 개발 - 고고! 내가 기업왕(보드게임) - 창의코드E(초등용/중고등용)(카드게임)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개발 - 벤처 디스커버리 : 창조적 아이디어 사업화 워크북(중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종 개발 - 미션! 기업가정신(보드게임) - 미래의 잡스(카드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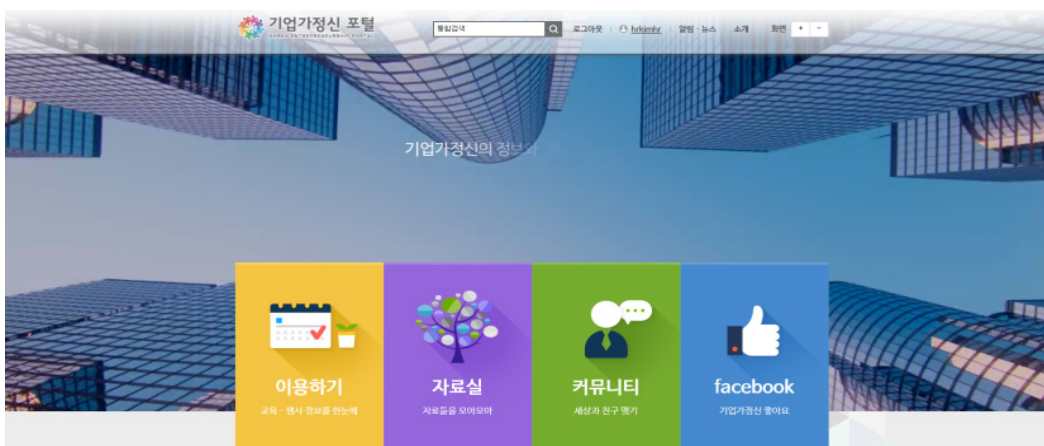
특히 매년 11월 3째주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도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인 'GEW KOREA'를 개최한다. GEW KOREA는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선진 기관 및 주체들과의 연구·학술·교류·경진의 場을 마련하고 창업생태계 구축 및 기업가마인드 고취,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자 2014년도부터 개최되었으며, GEW KOREA 2015에는 30개국 3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에 힘입어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기업가정신 관련 회원국 160개국 회의('15.3, 러시아)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위한 제1회 세계 기업가정신 전문가 총회(GEC+)를 국내에 유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범 아시아권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네트워크(AERN)을 구성(2014)함으로써 아시아권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혁신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2008년부터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글로벌 기업가정신 조사연구(GEM)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가별 기업가정신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있다. 그 결과 '15년 22개 혁신주도형 국가 가운데 한국의 기회형 창업은 8위로 상승하였고, 초기창업활동(TEA)은 9위로 개선되었다. 특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창업하는 기회형창업의 증가는 대한민국에도 혁신주도국가의 견고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 관련 국내외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www.eship.or.kr)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포털은 학생, 연구자, 일반인, 기업인 등 전 국민이 기업가정신을 쉽게 접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기업가정신 교육·행사 등의 활동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단체·협회의 다채로운 기업가정신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그림 1 기업가정신 포털 사이트 (www.eship.or.kr)



그 밖에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대상 기업가정신·창업생태계 국제교류 및 가족단위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행복한 기업가정신 가족 캠프,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 기업가정신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의 한국 순위가 3년 연속 상승하는데 '13) 37위/118개국 → '14) 32위/120개국 → '15) 28위/130개국) 크게 기여하고 있다.

		
<p>교육전문가 양성과정 ('15.08.19~20)</p>	<p>GEW KOREA 2015 ('15.11.16~17)</p>	<p>다큐멘터리 방영 ('15.02.25)</p>

② 대한민국 창업리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이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자발적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창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창업을 테마로 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7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 이래 2008년부터는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진행해 왔으며, 2009년에는 (舊)정보통신부가 개최해 왔던 ‘IT벤처 창업경진대회’와 통합하여 쉐산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기술창업을 테마로 가장 권위 있는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V’로 명칭을 변경하고 창업 선도대학의 지역경진대회 및 1인 창조기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2012년 ‘슈퍼스타V(왕중왕전)’에서는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경진대회까지 아우름으로써 국내 창업관련 대회를 종합하였다. 2013년에는 실전창업리그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여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 6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창업자 발굴 → 멘토링 → 투자연계’ 방식의 오디션 형태로 경진대회를 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청의 ‘대한민국 창업리그’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창조경제대상 : 슈퍼스타V’로 공동 개최하였으며, 총 5,094개 팀이 본 대회에 참가해 전국적인 창업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창조경제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청이 단독으로 ‘대한민국 창업리그’를 개최하여 공중파 TV를 통해 대회 전 과정을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송하여 일반 국민에게 볼거리와 창업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였다.

- * 상반기 (공동) : 접수 (3,103건), 예선 (58팀 선발), 본선 (12팀 선발), 왕중왕전 (6팀 선발)
- * 하반기 (단독) : 접수 (5,057건), 예선 (88팀 선발), 본선 (15팀 선발), 왕중왕전 (10팀 선발)

아울러 하반기 입상기업 10팀에게는 창업기업 95개사와 투자가 95명이 참여하는 “창업사업 통합 IR”에 투자유치 상담 등을 연계하는 후속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II-1-1-10 창업리그 최근 5년간 주요 추진 성과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수상자 수(팀)		50	29	31	40	15	165
성 과	창업기업(개)	27	19	21	29	13	96
	고용인원(명) * 대표자 제외	41	90	86	104	41	321
	매출액(백만원)	4,650	2,877	5,048	1,396	847	13,971
	투자액(백만원)	60	7,580	3,401	2,275	2,230	13,316

- * '12~'13년 실전창업리그 수상자와 왕중왕전 수상자가 일부 중복되어 제외
- * '14년 지원성과 대상자는 전국결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조사
- * '15년 수상자는 하반기 슈퍼스타 v 진출팀을 대상으로 조사



3 기술 창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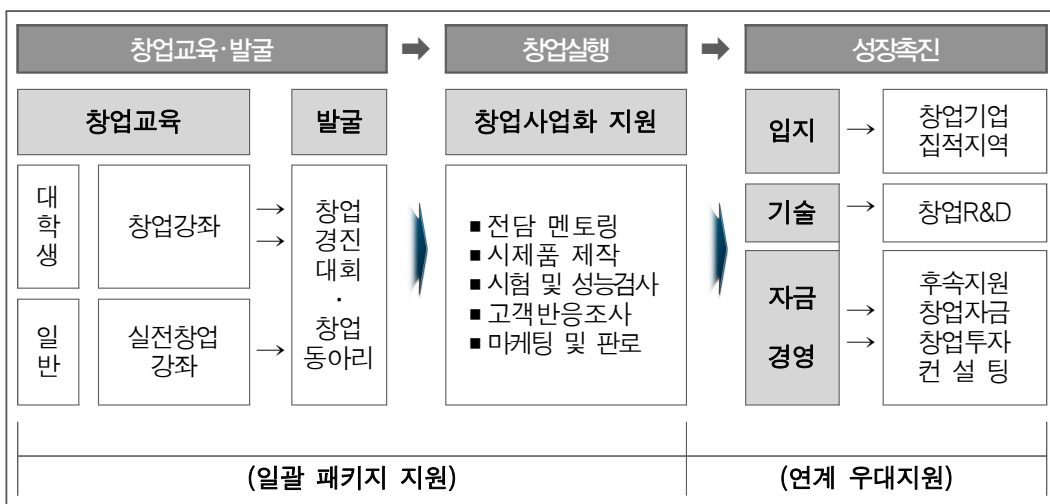
- 창업진흥과 이 광 범
- 창업진흥과 김 대 수
- 창업진흥과 홍 명 기
- 벤처정책과 염 정 수
- 지식서비스창업과 이 권 재

가. 창업선도대학 육성

우수한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전국 34개교)으로 지정·운영하여 창업교육(기업가정신, 실전 창업강좌) → 창업자발굴(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등) → 창업실행(시제품제작,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 자금지원 등) → 성장촉진(투자유치, 컨설팅 등)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은 교내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창업지원단)을 갖추고 전문 멘토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창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명실 공히 전국단위의 대표적 창업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림 2 창업선도대학 지원 체계도



2013년부터는 집중형 창업보육 성공모델의 확산 및 멘토링 강화를 위하여 거점형 프로그램(사관학교식)을 도입('16년 현재 34개 창업선도대학 중 15개교 지정)하였고, (예비)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 창업활동 공간 제공, 집중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첨단기술창업 촉진 및 스타벤처 조기육성을 통해 대학의 창조경제 전진기지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표 II-1-1-11 '16년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

수도권(11)		강원권(2)	충청권(6)	호남권(5)	영남권(9)	제주권(1)
서울(6)	경인(5)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송실대 연세대 인덕대	경기대 단국대 성균관대 한국산기대 인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순천향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한남대 호서대	원광대 순천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경성대 경일대 계명대 대구대 동아대 동서대 부경대 영남이공대 창원대	제주대

* 거점형 선도대학(15개)은 진한 글자체로 표시

표 II-1-1-12 창업선도대학 주요실적 및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예산	창업아이템 사업화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선정	창업	매출	일자리	지재권	개설	수강	개설	수강
2011년	305	537	524	297	1,435	805	86	4,461	15	514
2012년	300	510	504	367	1,150	910	147	8,004	18	610
2013년	402	590	573	340	1,196	768	159	11,201	18	628
2014년	508	629	616	515	1,401	1,075	470	27,608	28	1,005
2015년	651	913	891	1,268	2,372	1,418	550	25,726	110	1,704
합계	2,166	3,179	3,108	2,787	7,554	4,976	1,412	77,000	189	4,461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하여 유망 청년CEO를 양성하고 있다.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최초 개소하였고, 2012년에는 지방(광주, 경산, 창원)으로 확대 개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충남(천안 소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하여 현재 전국 5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그림 3 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특히, 2014년도는 준비된 창업자 선발을 위해 심층심사를 확대(1박2일→2주간)하였고, 2016도에는 면접심사와 심층심사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심층심사로 일원화하여 입교생 선발기간을 단축(2개월→1개월)하고, 지역 특화산업 창업자 선발, 창업교육의 내실화 및 실무형 개편 등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였으며,

불성실자, 수행능력 미달자를 중간에 탈락시키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매년 200명 이상 배출하고 있다.

표 II-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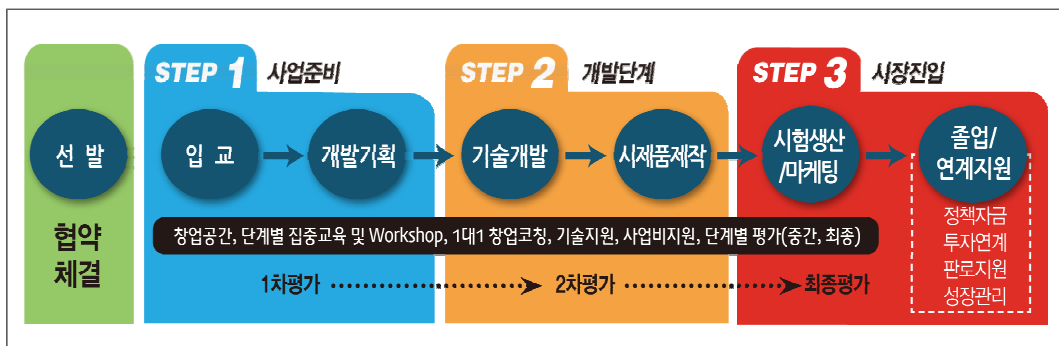
표청년CEO 양성 규모

(단위 : 명)

구 분	선발	퇴교	졸업	비고
2011년 1기	241	△29	212	졸업('12. 2월)
2012년 2기	229	△16	213	졸업('13. 2월)
2013년 3기	301	△47	254	졸업('14. 2월)
2014년 4기	307	△23	284	졸업('15. 3월)
2015년 5기	278	△26	252	졸업('15. 2월)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도전정신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혁신적인 청년CEO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관학교 입교생에게는 기업가정신 등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맞춤형 전문교육을 연간 16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창업 전문인력을 1:1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4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지난 5년간 총 1,215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 3,825억원, 12월말 기준 일자리창출 4,999명, 지적재산권 1,758건 등록 등의 성과를 시현 중에 있다.

표 II-1-1-14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 분	2011년 1기	2012년 2기	2013년 3기	2014년 4기	2015년5기	합계
졸업기업	212	213	254	284	252	1,215
매출액	1,088	1,345	585	753	54(상)	3,825
일자리창출	1,171	1,318	1,291	895	324	4,999
지재권(등록)	226	505	476	473	78	1,758
융자지원	136	97	147	114	52	546
투자지원	104	192	40	94	7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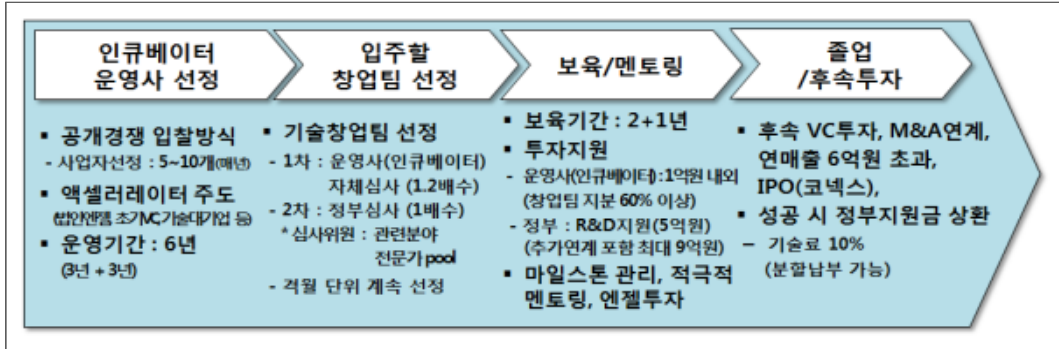


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그간 정부의 창업·벤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성공률은 창업후 5년 생존율은 33%정도로 여전히 낮으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성공벤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이 걸린다. 기존의 창업·벤처 정책은 자금과 시설 제공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지원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공한 벤처기업, 글로벌 대기업 등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자산을 활용하여 유망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을 운영 중이다.

그림 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 성공판정 시 정부 R&D지원금 10% 상환

정부가 엔젤투자사, 기술대기업을 TIPS 운영사²⁾(사업기간 6년)로 선정하고 창업팀 추천권 T/O를 부여한 후, 추천한 창업팀을 정부가 최종 선정한다. 운영사는 선정된 창업팀을 운영사의 보육 센터에 입주시켜 엔젤투자사와 함께 밀착보육, 멘토링을 한다. 정부는 R&D자금(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창업자금(1억원), 해외마케팅(1억원), 엔젤투자매칭펀드(2억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는 초기자본은 없으나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과감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엔젤투자사 등의 선별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6월 현재 21개 운영사, 171개 창업팀이 선정되어 엔젤투자 343억원, 정부R&D 535억원, 창업자금 81억원이 투자·지원되었다.

TIPS 운영사는 엔젤투자회사(재단) 7개, 초기전문 VC 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사당 성공 창업인 2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TIPS 창업팀은 모바일 IT 33개, SW서비스 58개, 의료·바이오 38개, 사물인터넷(IoT) 9개, 기계소재 33개로 주로 IT(SW)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창업팀 대표자 기준으로 석박사 비율은 50.4%, 삼성, 구글 등 세계 대기업 경력자 30%,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경력자 7.7%로 고급기술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2) 성공벤처인 주도 엔젤투자회사(법인엔젤), 엔젤투자재단, 초기전문 VC, 기술대기업 등 (연구중심대학, 기술지주사, 출연연,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등 컨소시엄 포함)

표 II-1-1-15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참여기관	보육공간
1	카이트창업재단	김철환	김철환(이미지앤머터리얼스) + KAIST	KAIST BI
2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스파크랩(Bernard Moon, 김호민, 이한주) +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BI
3	케이큐브벤처스	유승운	김범수(카카오) + 서울대기술지주사BI	서울대기술지주사BI
4	프라이머	권도균	이택경(다음), 권도균(이니시스), 송영길(앤컴퓨팅) + 한양대	한양대 BI
5	패스트트랙아시아	박지웅	신현성(티켓몬스터) + 노정석(파이브락스) + 포항공대	포항공대 BI
6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강석훈	장병규(네오위즈)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BI
7	더벤처스	호창성	호창성, 문지원(Viki) + 더벤처스 스타트업센터	자체 BI
8	퓨처플레이	류중희	류중희(올라웍스)+ KETI(전자부품연구원)	TIPS타운
9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BootstrapLabs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자체 BI
10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이상진	한국과학기술지주사(KST, 17개 출연연 지주사) + 벤처스퀘어	기계연구원 BI
11	엔텔스	심재희	심재희(엔텔스), 네이블 커뮤니케이션	TIPS타운
12	액트너랩	조인제	Lab IX(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인텔 + SK텔레콤	TIPS타운
13	포스코	권오준	포스코 계열사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 혁신센터
14	(주)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이용관(플라즈마트) + 미래과학기술지주(주) + 네오팜 + 생명공학연구원	생명연 BI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참여기관	보육공간
15	(주)슈프리마 인베스트먼트	백승권	차기철(인바디) +이민화(메디슨)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벤처협회 SVI
16	현대자동차 (벤처플라자)	이원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혁신센터
17	ETRI 홀딩스(주)	조병식	DSC인베스트먼트, 디이브이코리아, ETRI	ETRI BI
18	메가 인베스트먼트	김정민	손주은(메가스터디) + 텐케이아시아 + 유니타스클래스	텐케이 BI
19	웹스(주)	이재춘	이재춘(웹스) + 박종환(룩앤울) + 부산연합기술지주+ 비스퀘어	부산시 BI
20	인포뱅크(주)	박태형	박태형(인포뱅크) + 인텔렉추얼스톤 + 텀블러	자체 BI
21	카이스트청년 창업투자지주(주)	이병태	행복나눔재단(SK) + 씨엔티테크 + 코이스라파트너스 + 판도라TV	카이스트 BI (서울)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후 창업팀 신규 고용인원은 606명, 선정된 다수의 창업팀이 M&A, 국내외 VC의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3개 업체(키즈노트, 파킹스퀘어-다음카카오, 엔트리코리아-네이버)가 인수·합병되었고, 45개 창업팀에 총 1,376억원(공개금액만 집계)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II-1-1-16 창업팀 후속투자 / 인수·합병

	운영사	창업팀	후속투자사	투자금액
-	케이큐브 벤처스	키즈노트	다음카카오지분100%인수합병	
-	카이트 창업가재단	엔트리 교육연구소	네이버 인수합병	
-	더벤처스	파킹스퀘어	다음카카오(M&A)	-
1	프라이머	큐키	산텍社(日),네이버	6

	운영사	창업팀	후속투자사	투자금액
2	캡스톤 파트너스	비트패킹컴퍼니	알토스벤처스, YG넥스트, LB인베스트먼트외	270
3	캡스톤 파트너스	드라마앤컴퍼니	대교인베스트먼트, 사이버에이전트벤처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95
4	캡스톤 파트너스	엔트리움	창림, SV인베스트, 산업은행외	53
5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브레인커머스	퀄컴벤처스, 알토스벤처스외	90
6	카이트 창업가재단	오비이랩	KTB 네트워크, 이산파트너스등	20
7	카이트 창업가재단	엔트리 교육연구소	이상기술투자	3
8	퓨처플레이	포도코리아	PCH 등	11
9	스파크랩 (캡스톤)	망고플레이트	소프트뱅크벤처스, 퀄컴벤처스, YJ캐피탈	75
10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조이코퍼레이션	한국투자파트너스, 아주IB	40
11	카이트 창업가재단	노보믹스	안국약품/SV인베스트, 유안타인베스트, 메가인베스트 외	42.4
12	카이트 창업가재단	만나씨이에이	DSC 인베스트먼트, 인모스트파트너스, 카카오등	100
13	케이큐브 벤처스	스트라티오 코리아	SK hynix	24
14	더벤처스	파킹스퀘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KTB네트워크	15
15	케이큐브 벤처스	헬스브리즈	우리기술투자	15.5
16	패스트 트랙아시아	프라센	LB인베스트먼트	3
17	카이트 창업가재단	리브스메드	NHN인베스트먼트	10
18	카이트 창업가재단	아이엠티코리아	마젤란, 네오플렉스, 대교인베스트먼트외	20
19	캡스톤 파트너스	덱스인트게임즈	네시삼십삼분	13

	운영사	창업팀	후속투자사	투자금액
20	캡스톤 파트너스	매드스퀘어	L&S캐피탈, 휴맥스, 서울투자, 키움, IBK캐피탈	40
21	스파크랩 (캡스톤)	어반베이스	캡스톤파트너스, 머스크엔젤클럽	7
22	프라이머	라이클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4
23	액트너랩	이오플로우	대성창업투자, 아이디어브릿지	25
24	퓨처플레이	비트파인더	케이큐브벤처스	8.2
25	케이큐브 벤처스	루닛	소프트뱅크벤처스, Formaiton8, 케이큐브벤처스	20
26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해보라	포스코기술투자, 킥스타터	10.5
27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리니어블	다음카카오	5
28	액트너랩	엑센	SK-KNET	5
29	액트너랩	닷	동문파트너스	10
30	패스트 트랙아시아	다노	아주IB, GS홈쇼핑	22
31	케이큐브 벤처스	다이닝코드	포스코기술투자, 아이디벤처스, 서울투자파트너스, 한빛인베스트먼트, 마젤란기술투자	20
32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플라즈맵	삼성벤처투자, 스톤브릿지, 송현	30
33	엔텔스	브랜드	DSC 인베스트먼트	5
34	엔텔스	티앤알바이오팜	한국투자파트너스, 산업은행	40
35	더벤처스	뤼이드	DSC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신한캐피탈	20
36	슈프리마 인베스트먼트	키페어	마이더스동아인베스트먼트, 마젤란기술투자	8
37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에버스핀	미래에셋, KT-DSC, 코스콤-미래에셋, 플래티넘	19.5
38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밸런스히어로	소프트뱅크벤처스	30
39	퓨처플레이	텐큐브	SK플래닛	7
40	액트너랩	팜토피	한국투자파트너스, 한화인베스트먼트	35

	운영사	창업팀	후속투자사	투자금액
41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토모큐브	소프트뱅크벤처스, 한미사이언스	30
42	케이큐브벤처스	유비파이	엔씨소프트	48
43	프라이머	포그리트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0.5
44	현대자동차	브이터치	L&S캐피탈	5
45	카이트창업가재단	시어스랩	와이콤비네이터, 파운데이션캐피탈, 그래프벤처스, 케이큐브벤처스 등	15
합 계 (비공개 금액 제외)				1,376억원

또한 TIPS 프로그램 창업팀, 운영사들을 창업팀 선호지역에 밀집화하여 창업가 거리 조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의 중심지인 “역삼”지역 2개 건물(해성빌딩, 명우빌딩)에 TIPS 창업타운을 2015년 7월 개소하고, '16년 2단계 조성계획에 따라 1개 건물(현승빌딩)을 추가 조성하고 있다.

TIPS타운 개소 이후 창업팀, 운영사 입주 공간, 시제품제작소 등의 물적 인프라 제공 및 밀집화로 자발적 네트워킹 환경을 마련하고 엔젤투자사 등 지원기관과 창업팀 간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정보공유 및 소통을 확산하여 '16년 7월말 현재 창업팀 48팀, 운영사 8개, 유관기관 9개 등 약 470여명이 입주하여 교류·협력을 진행중이다.



라.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글로벌 창업 활성화 사업은 글로벌 진출지원과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글로벌 진출지원

기술과 사업성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신규로 도입되었다. 현지의 엑셀러레이터³⁾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외국의 이질적인 창업환경을 조기에 극복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벤처기업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동사업의 지원내용은 ① 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내 사전준비활동(멘토링, 창업교육)과 ②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보육대상 기업을 선발한 후 해외현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지 창업보육으로 구분된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2014년에는 동남아 국가와 유럽 국가를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총 185개 창업 팀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4년부터는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귀환 유학생 또는,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을 신규로 도입하여, 성공적인 국내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3) 엑셀러레이터 : 창업자를 발굴, 투자뿐만 아니라 3~6개월 동안 투자자·고객 지향형 성공 제품을 만들도록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또는 기업

동 사업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참여 창업팀 185개 팀이 615.3억원 매출액과 414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440.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7 글로벌 진출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연 도	예산	선정	창업		투자 유치	매출	고용
			국내	현지			
2012	31	39	32	10	88.3	91.4	91
2013	20	28	24	11	91.1	25.9	30
2014	30	56	38	25	170.1	260	76
2015	33	62	48	40	91	238	217
합계	114	185	142	86	440.5	615.3	414

* 창업팀이 국내 및 현지 창업인 경우 중복 계상



글로벌 밀착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해외 투자유치 IR

2)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해외 각국에서 우수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미국: 스타트업 3.0,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칠레: 스타트업 칠레)를 벤치마킹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창업비자제도 도입(2013년 10월)에 따른 우수 해외인력 유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총 50개 기업 지원, 19개 국내창업, 52.2억원 투자유치, 18.6억원 매출, 40명 신규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8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연 도	예산	선정	법인설립			고용		매출실적		투자유치
			창업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14년	
2014	20	28	28	10	18	7	40	-	9.4	50.7
2015	20	22	10	9	1	15	-	-	9.2	1.5
합계	40	50	38	19	19	22	40	0	18.6	52.2



마. 창업맞춤형 사업화

2012년부터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고자 창업맞춤형 사업화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3년 미만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시장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시장진입, 시장전문가 멘토링 및 액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타 부처·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 창업자 112명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우수 창업기업 24개사에 R&D를 지원하였다.

지난 3년간 지원성과는 총 2,567명을 지원하여 2,393개사가 생존하고 있어 93.2%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 3,766명, 매출액 3,037억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3,214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I-1-1-19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신청	선정	39세미만	생존율	매출	일자리	지재권
2013년	4,265	947	50.3%	797(84.2%)	806	1,404	1,657
2014년	4,068	883	50.3%	860(97.4%)	585	1,649	1,216
2015년	3,652	737	39.9%	736(100%)	1,646	713	341
합계	11,985	2,567	47.9%	2,393(93.2%)	3,037	3,766	3,214

* '13~'14년 : 협약 종료시점, '15년 : 협약 1/2 시점 기준

표 II-1-1-20 창업맞춤형사업 지원 체계도

〈 지원 절차 〉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지원	후속지원 프로그램 연계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선배 벤처기업내에 예비창업자를 입주(1~2년)시켜 사업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인 이상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예비 창업자 등을 선도벤처기업 내에 입주하여 시제품 제작, 판로·마케팅, 멘토링 등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선도벤처 기업가와 예비 창업자간 협력비즈니스를 통한 투자·아웃소싱, 공동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선도벤처기업은 매출액이 제조업 100억원, 비제조 5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창업 준비공간,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국내 판매망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총 331개사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창업률 100%, 신규고용 1,123명(평균 3.4명), 매출 642억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기업의 창업 생존율은 평균 약 89%이며, 제1기('11년) 지원기업의 경우에도 '15년 말 기준 6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1-1-21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성과(' 15.12)

(단위 : 개사, %, 명, 백만원, 건)

구 분	신청 (경쟁률)	선정 인원	창업 (%)	생존기업 (생존율, %)	고용 (평균)	지재권확보 (평균)	매출액 (평균)
'15년(5기) ('15.7~'16.5)	868 (10.3:1)	84	84 (100)	84 (100)	358 (4.3)	10 (0.1)	14,098 (169.8)
'14년(4기) ('14.7~'15.5)	625 (7.4:1)	84	84 (100)	84 (100)	336 (4.0)	166 (2)	11,930 (142.1)
'13년(3기) ('13.5~'14.4)	462 (5.5:1)	84	84 (100)	75 (89.3)	215 (2.5)	139 (1.6)	14,752 (175.6)
'12년(2기) ('12.4~'13.3)	184 (3.6:1)	50	50 (100)	32 (64.0)	122 (2.44)	24 (0.48)	7,265 (145.3)
'11년(1기) ('11.4~'12.2)	140 (4.6:1)	30	30 (100)	20 (66.7)	92 (3.1)	22 (0.92)	16,200 (540)

사.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퇴직이 본격화 함에 따라 조기 퇴직한 시니어(4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생계형 자영업(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고 준비 없는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영업부진,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들이 퇴직전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하여 시니어 창업 활성화 정책을 2010년부터 실시하였다.

그 후, 2014년부터 기술창업(제조 및 지식서비스 분야)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생계형 창업을 지양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창업으로 시니어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1)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시니어 기술창업스쿨은 시니어의 경력·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습·체험 중심의 기술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총 9개 주관기관을 통해 시니어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100시간 이상의 실전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2,759명, 2012년 2,942명, 2013년 1,604명, 2014년 1,555명, 2015년 1,020명 등 총 9,880명이 교육을 수료 하였다.

표 II-1-1-22 시니어 창업스쿨 운영현황 (2015년)

NO	기 관 명	주 소
1	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2	호서대학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497 호서빌딩 101호
3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한미르관 11층
4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5	대구한의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6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7	유한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590(괴안동) 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5,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9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지자체·대학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전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1개소, 2013년 13개소, 2014년 15개소, 2015년 20개소를 설치하여 시니어만을 위한 독자적 창업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1-1-23 시니어 창업센터 설치현황 (2015년)

NO	센터명	센터주소
1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12층
2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6층
3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장위2동 65-154)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내
4	부산시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한미르관 11층
5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320-2
6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6-3번지(청수로 64)수성구 새마을회 1층
7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로 128(월곡역사공원 내)
8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길(칠곡상공회의소) 2층
9	광주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10층
10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영동시장 3층
11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14 영빈빌딩 4층
12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	인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06-1 서울외과 4층
14	대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구:대전CT센터) 2층
15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한림성심대학교 산학관
16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3-4번지 2층
17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기청 내
1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1층
19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소상공인희망센터 희망관내
20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 영산대학교 테크노폴리스 산학협력관 3층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기술창업교육(드론))



시니어기술창업지원
(창업경진대회)



시니어기술창업지원
(기술창업센터 개소식)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 창업진흥과 김 대 수
- 창업진흥과 김 한 기
- 벤처정책과 백 대 화

가.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운영

2010년 2월 개통한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은 분산되어 운영 중인 법인 설립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창업자들의 법인 설립시 겪어왔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납부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을 통합·연계한 시스템으로 법인설립의 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1-1-24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구축 전>		<구축 후>	
절 차	기간	절 차	기간
① 상호 검색	1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4대보험 등록 취업규칙 신고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신청수수료	3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0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3단계	4일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 주식발행기능 추가 하였으며, 연계기관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신청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법인설립만 지원하던 시스템을 대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2010년 시스템 운영이후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17,199명의 창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하였다.

표 II-1-1-25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인터넷접속
2010년	1,005	18,569	206,018
2011년	1,673	35,642	216,548
2012년	2,403	51,406	260,977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69	584,374
합계	17,199	276,142	2,175,502

나.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정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1-1-26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1년	예산(334억원), BI 지정·운영(280개 BI), 지원실적(운영비 234개 BI, 리모델링 21개 BI), BI 운영성과(4,764개 기업, 매출 2.0조원, 고용 18천명)
2012년	예산(307억원), BI 지정·운영(290개 BI), 지원실적(운영비 252개 BI, 리모델링 13개 BI, 보육역량 등), BI 운영성과(5,123개 기업, 매출 1.6조원, 고용 17천명)
2013년	예산(257억원), BI 지정·운영(279개 BI), 지원실적(운영비 258개 BI, 리모델링 19개 BI, 보육역량 127개 BI), BI 운영성과(5,511개 기업, 매출 1.6조원, 고용 16천명)
2014년	예산(204억원), BI 지정·운영(28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238개 BI, 리모델링 13개 BI, 보육역량 81개 BI), BI 운영성과(6,254개 기업, 매출 1.5조원, 고용 18천명)
2015년	예산(227억원), BI 지정·운영(27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201개 BI, 리모델링 13개 BI, 보육역량 97개 BI), BI 운영성과(6,275개 기업, 매출 1.7조원, 고용 18천명)

2015년 말 현재 전국에 272개 창업보육센터(대학 203, 연구소 17, 정부/지자체 11, 기타 등 41)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기술창업의 산실 및 창업지원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II-1-1-27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대 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기 타
272	203	17	11	9	32

표 II-1-1-28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72	37	20	34	26	33	50	4	16	14	16	17	5

2015년에는 총 13개 BI에 일반건물의 BI전환, 노후시설 개선 등의 리모델링 30억원을 지원하여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등 운영비 122억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및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멘토링, 브랜드 개발 등 자율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총 7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5년 272개 BI에 입주한 계속기업(4,089개)은 평균 매출액 42.3% 및 평균 고용인원 21.9%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1-1-29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단위 : 개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입주기업	2,829	3,140	3,718	4,089
평균 매출 증가율	-4.1	27.9	34.7	42.3
평균 고용 증가율	8.2	14.1	20.3	21.9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평가체계 재정비를 통한 창업보육센터간 경쟁력 향상을 유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팽창은 지양하고 센터의 운영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창업보육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등 창업보육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대학·연구기관의 일정지역 내에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특례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14개 대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 (2008)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 (2009)동국대학교, 배재대학교, 영동대학교, 한밭대학교 (2010) 전북대학교, 단국대학교, 군산대학교 (2011)카이스트 (2012)영진전문대학 (2014)부경대학교 (2015) 연세대학교, (2016) 고려대학교
- * 2015.12.31 실적 : (입주기업) 328개, (고용) 1,427명, (매출) 1,524억원

이들 대학의 집적지역 내에 대한 제도적 특례로는 건축제한 완화,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3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추진을 희망하는 대학·연구소에 한해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보조는 없으나 특례제도는 유지하고 있다.

부지마련계획수립	집적지역부지조성	기업입주건물설립

5

지식서비스기업 성장 촉진

- 지식서비스창업과 백승표
- 지식서비스창업과 오성재
- 지식서비스창업과 이권재
- 지식서비스창업과 박지수

세계경제가 실물중심의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에서 창의성 기반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전환되고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IT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창의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1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의 접목을 통해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실물로 구현하는 1인 제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창조적 1인 기업의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정부는 '09년부터 창조적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 소규모 창업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였고, '11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식서비스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창업→성장→정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왔다. '스마트창업터'와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를 통해 지식서비스분야의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였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지식산출물의 사업화에 힘써왔다.

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으나 경영여건이 취약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 상담, 일감확보 지원 등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제공을 위해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설치하였고, '16년에 65개의 센터로 확대되었다.

창업 준비부터 보육, 마케팅까지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규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2,750명의 경영자문과 8,926명의 교육 및 세미나 등 경영활동지원을 통해 562명이 창업에 성공하였으며, 1,794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화 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을 실시하였다.

표 II-1-1-30 비즈니스센터 지정 현황

구 분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민간센터 (23개)	르호봇비즈니스센터	서울	중원게임즈	서울
	메트로비즈니스센터	서울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
	오피스이앤씨	서울	(주)비스퀘어	부산
	비즈앤텍스	서울	크로스비즈	부산
	한성케이에스콘	서울	유미컴즈 충북넷	충북
	하우투비즈	서울	창조기업경영연구원	경남
	로아컨설팅	서울	(주)디지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대구
	오피스허브	서울	나눔미넷	대구
	더이노베이터	서울	제이비엘	충남
	한국여성벤처협회	서울	한국캐릭터협회	강원
	코너스톤웍스	서울	세듀인터내셔널	전북
	우리은행	서울	-	-

구 분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공공/지자체센터 (42개)	서울 성북구	서울	차세대의생명융합지원센터	경남
	서울 노원구	서울	대구시 수성구	대구
	서울 마포구	서울	대구시 중구	대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	경북 문경시	경북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	(재)포항테크노파크	경북
	경기도 수원시	경기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경기	경상북도	경북
	경기도여성개발센터	경기	광주시	광주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	(재)광주디자인센터	광주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	광주광산구	광주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전남 담양군	전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	전라남도	전남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경기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
	인천시	인천	전북 전주시	전북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인천	대전광역시	대전
	부산 사하구	부산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
	부산 해운대구	부산	충청남도	충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울산시	울산	강원 강릉시	강원
	울산시 울주군	울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
경남 창원시	경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대다수 1인 창조기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1인 창조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은 마케팅지원사업(최대 2천만원)과 창의적 지식재산(최대 2천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마케팅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분야는 시각·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국내외 시장조사 및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 제작, 매거진 광고 등이며, 이 중 1인 창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은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권리화·제품화 지원을 통한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시제품제작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15년 총 444개의 우수 1인 창조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지원업체가 233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동 사업 등을 통해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빈번히 생성되고 이를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표 II-1-1-31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실적 및 성과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도	예산	신청	선정	신규 고용
2015년	50	2,076	444	601

다. 스마트창작터 운영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스마트 IT 분야 전문 개발인력 양성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2015년 개발공간과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전국의 30개 주요 대학 등을 스마트창작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창작터에서는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UI/UX, 음원, 위치기반, 증강현실, 게임, SNS 등 분야의 전문 개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문가 멘토링과 개발자금 등을 제공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3,451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하여 444개의 앱을 개발하였으며,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총 330팀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교육과정 및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해 총 431개 창업팀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1-1-32 스마트창업터 지정기관

기관명	비고	기관명	비고
한성대학교	서울	선문대학교	충남
상명대학교		극동대학교	충북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성신여자대학교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한양대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
덕성여자대학교		대구대학교	
송실대학교	경기	영산대학교	경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성남산업진흥재단		동의대학교	부산
서정대학교		동서대학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	한국계임과학고	전북
한라대학교	강원	원광대학교	
목원대학교	대전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
한밭대학교		원광대학교	
건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

라.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운영

최근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서비스 분야는 콘텐츠, 모바일 앱 및 SW융합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동 ICT기반 지식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수 청년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창업, 개발 및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과 성장 과정을 일괄 지원하기 위해 '13년에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신설하였다.

2013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주)옴니텔과 경북대학교, 2014년 추가 신설된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울산대학교는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에 필요한 개발실, 교육장 등의 전용공간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사관학교 방식의 운영을 채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동 사업을 신청한 2,487팀 중 우수 창업팀 544팀을 선발, 지원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420개 창업팀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1,235개를 창출하였다.

표 II-1-1-33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현황

권역	운영기관	성 과				비 고
		신청 (팀)	입교 (팀)	창업 (팀)	일자리창출 (명)	
2013년	2개	352	110	81	264	
2014년	4개	980	225	168	429	'14년 2개 신규 주관기관 추가선정
2015년	4개	1,155	209	171	542	
합 계		2,487	544	420	1,235	

마. 참살이 실습터 운영

참살이(Well-being) 분야는 환경오염, 고령화 진전, 여가활동 확대 등으로 건강과 환경,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트렌드가 보편화 됨에 따라 최근 자연스럽게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하나의 산업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10년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참살이 실습터를 지정(7개)하여 참살이 창조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참살이 실습터에서는 초급 자격증 소지자, 경력단절 여성 등 관련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습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5년의 경우 1,223명의 수료생을 배출, 이 중 창업 70명, 취업 525명 등 총 595명이 창·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1-1-34 참살이 실습터 현황

주관기관	관 련 업 종
송파구청	네일아티스트, 커피바리스타, 공예디자이너, 홈오거나이저
건양대	커피바리스타, 플라워데코레이셔너, 웰빙발효식품 비즈니스, 이벤트플래너
남서울대학교	공예디자인, 커피바리스타, 복지건강운동전문가, 1인 여행플래너
한림성심대	커피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복지건강운동전문가, 노년플래너
울산광역시청	웰빙발효식품 전문가, 공예디자이너 과정,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엔터테인먼트전문MC
부산과학기술대	와인소믈리에,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웰빙발효식품 비즈니스, 퍼스널이미지 컨설턴트
대경대학교	소믈리에, 복지건강운동전문가, 두피관리사, 이벤트플래너, 1인 여행플래너
송원대학교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천연화장품 테라피스트
대덕대	커피바리스타, 두피관리사, 네일아티스트, 이벤트 플래너
대구보건대	두피관리사, 생활공예디자이너, 맞춤형건강전문가, 퍼스널이미지컨설턴트
전주비전대	네일아티스트, 푸드코디네이터, 두피관리사, 1인 여행플래너
제주관광대	플라워데코레이셔너, 공예디자이너, 푸드코디네이터, 1인 여행플래너

		
<p>스마트벤처창업학교 (2015년 졸업식)</p>	<p>스마트창작터 (협약 설명회)</p>	<p>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3D 특화센터 교육)</p>

제2절

벤처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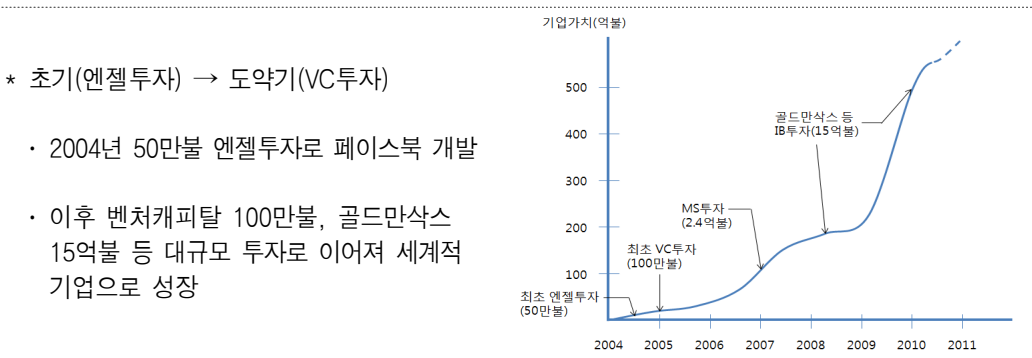
벤처투자 현황

● 벤처투자과 이 철 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중 벤처투자는 담보나 상환부담이 없고 성공시의 이익뿐만 아니라 실패시의 책임도 투자자와 함께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게는 가장 유용한 자금이다.

미국은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우리나라의 2015년 신규 벤처펀드⁴⁾ 조성 규모는 2조 6,554억원으로 전년 2조 5,842억원 대비 2.8%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신규 투자 금액도 2015년 2조 858억원으로 전년 1조 6,393억원 대비 27.2% 증가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4) 벤처펀드 규모 및 신규투자 집계는 중기청에 등록하는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준임

표 II-1-2-1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 규모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업체수	560	613	688	755	901	1,045
투자금액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 용자 잔액 522조원('14년말 기준) 대비 신규 벤처투자는 0.3%에 불과한 수준이며,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0.12% 수준으로 이스라엘 0.58%, 미국 0.2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엔젤투자의 경우 2012년 투자규모가 557억원으로 2000년 5,493억원 대비 90% 급감하였으나 최저점인 2010년 341억원에 비해 63.3% 증가하는 등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창업초기기업의 핵심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엔젤 투자와 벤처캐피탈 투자가 대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 국내 투자시장은 벤처캐피탈 주도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II-1-2-2 미국-한국의 엔젤투자 규모(2012)

구 분	엔젤투자	벤처캐피탈(VC) 투자
미 국	229억불(45.3%)	276억불(54.7%)
한국	557억원(4.3%)	12,333억원(95.7%)

2 벤처투자 확대

- 벤처투자과 이 철 희
- 벤처투자과 이 호 중
- 벤처투자과 강 기 삼

가. 모태펀드 운영

정부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2015년까지 총 2조 2,302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1조 3,191억원을 출자하여 59.1%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1-2-3 모태조합 조성 및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중진기금	7,351	1,000	320	700	800	1,000	2,020	13,191
문산기금	2,700	-	120	-	-	200	541	3,561
특허회계	1,430	-	-	-	-	-	170	1,600
영화기금	-	110	460	450	400	100	100	1,620
미래기금	-	100	-	-	-	500	500	1,100
고용노동	-	-	25	25	25	25	-	100
보건회계	-	-	-	-	200	300	300	800
관광기금	-	-	-	-	-	-	130	130
체육기금	-	-	-	-	-	-	200	200
계	11,481	1,210	925	1,175	1,425	2,125	3,961	22,302
누 계	11,481	12,691	13,616	14,791	16,216	18,341	22,302	

그간 모태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418개, 총 12조 7,753억원 조성('05.6~ '15.12월, 누계)이며, 총 7,069건(3,377개사) 중소·벤처기업에 9조 1,671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5년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39세 이하 CEO 창업기업 등 청년창업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조합에서 1,120억원을 출자하여 10개 1,843억원 조성하였으며, 모태조합에서 500억원을 출자하여 창업초기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엔젤펀드를 총 7개 664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모태펀드 6,337억원을 출자하여 총 1조 8,765억원을 조성하였다. 모태조합이 출자하여 조성한 펀드를 통해 2015년 904개사 1조 7,910억원이 신규로 투자되었다.

표 II-1-2-4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신규	32	9,481 (1,930)	40	16,597 (2,810)	25	6,241 (2,158)	44	14,926 (5,403)	56	22,961 (4,180)	67	18,765 (6,337)

* () 안은 모태조합 약정 금액

이와 같이 모태조합은 '05년에 설립된 이후, 벤처투자 시장에 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서 운용되는 자산 규모가 '04년 말 4.2조원에서 '15년 말 14.1조원으로 3.4배 성장하였고, 매년 신규로 투자되는 투자금도 '04년 6,044억원에서 '15년 20,858억원으로 3.5배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엔젤투자 활성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 현황을 보면, 2000년에 5,49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IT붐 붕괴와 함께 엔젤투자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341억원(2010년)까지 급감하였다. 이에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2013년 5월에

수립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 확대 (1천5백만원까지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및 공제한도 상향(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등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엔젤투자 시장을 리드하는 전문엔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전문엔젤제도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여 1년 6개월만인 2015년말에 36명을 발굴하는 등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용자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표 II-1-2-5 엔젤투자 실적(신규)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투 자 자	1,742	1,243	777	862	1,105	956
금 액	492	346	341	428	557	566

또한, 엔젤투자매칭펀드는 2015년까지 1,920억원을 조성·운용하여 총 472억원을 매칭투자 하였다.

한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투자정보망을 개설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정보망을 통해 기업의 IR자료를 소개하고 투자자는 투자 대상기업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엔젤리더스 포럼, 엔젤투자 페어 등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도 추진하였다.

엔젤투자 활성화 추진에 따라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엔젤투자 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 수는 2015년에만 2,408명이 증가하여 총 9,468명에 이르렀으며, 엔젤클럽도 30개가 신규 결성되어 총 146개의 엔젤클럽이 활동 중이다.

표 II-1-2-6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펀드명	결성금액
2011년	전국펀드 1호	100
2012년	전국펀드 2호	330
	대학펀드	210
	경남펀드	50
	부산펀드	50
	광주펀드	50
	강원펀드	30
	대구펀드	50
2013년	전국펀드 3호	380
	경기펀드	50
	아산나눔모태	100
2014년	전국펀드 4호*	320
계		1,720

* 결성일(2014.12.19), 등록일(2015.1.8)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의 수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97개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완화(자본금: 70 → 50억원, 전문인력: 3 → 2인) 및 모태펀드 운용 예산 확대 등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선배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성장한 회사가 6개의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총 14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신설되었고, 이로 인해 2015년 말 현재 115개 창투사가 활동하고 있다.

표 II-1-2-7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등록	9	6	3	6	14
취소	7	6	7	4	2
등록누계	105	105	101	103	115
납입자본금	13,985	14,455	13,976	14,222	14,825

* 출처 : 중소기업청

또한, 정부는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직접 지식재산권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과거 조합원 전원 동의시에만 가능하던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매각을 조합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매각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에 창업투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창업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규제 완화와 민간 출자자 유인 정책으로 인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와 신규 펀드 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조 858억원으로 전년(1조 6,393억원)대비 27.2%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신규 펀드 조성도 2조 6,925억원으로 전년(2조 5,842억원) 대비 4.2% 증가하여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3

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과 오 성 업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침체되었던 글로벌 M&A 시장은 201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거래금액이 2014년 약 3조 2783억달러, 2015년에는 약 4조 2764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M&A 거래규모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2008년 들어 크게 축소되었으나 2009년에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15년에는 875억달러 규모로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의 9.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M&A는 시장형성이 부진한 상황으로 2015년의 경우 벤처캐피탈은 투자자금의 5.1%(회수시 투자원금 기준)만을 M&A에 의해 회수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64.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I-1-2-8 투자금 회수경로별 비중 비교(2015년)

구 분	M&A	기업공개(IPO)
한 국	5.1%	94.9%
미 국	64.4%	35.6%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M&A 거래 특성상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지원 수단도 많지 않아 그간 정부는 규제완화,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인식개선 활동 및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를 통해 기술혁신형 M&A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도입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주식교환 및 기업 매각에 따른 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의 소규모·간이합병 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8월부터 기존의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3월 「M&A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면제 범위를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하였고, 기술혁신형 M&A에 따른 법인세 감면 범위를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였다.

2015년 7월 「벤처·창업 붐 확산 대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기술혁신형 M&A의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일몰도 18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4개 기관을 M&A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하여 M&A 관련 상담, 교육 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 지역별 M&A 협의회 구성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M&A 활성화를 위해 2014년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을 M&A 지원센터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M&A 지원센터는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활동을 시작하였고, 2011년 말까지 상담 978건, 정보제공 및 자문 730건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가운데 49건의 M&A를 성사시켰다.

이후, 2012년도에는 M&A 전문 중개업자간 거래정보망인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을 구축하고 M&A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M&A 거래정보망은 침체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M&A 거래소 역할이 가능한 전문 중개기관 간 정보망으로서 2012년 7월에 오픈하여 본격 운영 중이다. M&A 거래정보망에는 창투사·회계법인·법무법인·소형M&A 자문사 등 114개의 M&A 전문중개기관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M&A를 희망하는 기업의 매도·매수 DB가 2,657건이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88건의 M&A가 성사되는 등 M&A 거래정보망은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거래정보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15년말 기준)

한편 M&A 시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2015년말 기준 16개 조합 9,035억원 규모의 M&A 및 퇴출벤처 인수 전문펀드를 운용 중이다. 2012년도 상반기에 결성한 305억원 규모의 ‘M&A 매칭펀드’는 국내외 기술·창업기업의 인수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선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매칭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M&A 매칭펀드는 2012년 12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모바일리더가 OCR 기술을 보유한 (주)인지소프트 인수 시 공동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M&A를 성사시킨 이후, 2013년에는 2건의 성공적인 M&A를 성사시켰다. 2013년 8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에스에이티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 전산(주)를 인수하는데 공동투자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코스닥 상장 기업 (주)옵니텔이 M-커머스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주)이스크라를 인수하는데 공동투자를 하였다.

M&A 매칭펀드는 공동투자를 통해 성장 정체에 도달한 기존사업으로부터 성장하는 신규사업으로의 성공적 사업 구조 전환에 기여하였다.

제3절

원활한 재도전·재창업 환경 조성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 재도전성장과 임 동 우
- 재도전성장과 김 원 석
- 재도전성장과 이 효 종

창업 후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재가 위험부담이 높은 기술창업에 나서기 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II-1-3-1 창업환경조사(현대경제연구소, 창업관련 국민의식 변화와 시사점 '15.11)

구 분	조사결과
① 창업 관심 여부	1. 37.7% 전혀 관심없다. 2. 12.1% 매우 관심있다
② 실패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다	1. 70.9% 예 2. 29.1% 아니요

* 현대경제연구소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818명 조사

실패하면 재도전 하기 어려운 환경의 원인으로, 신용등급 회복의 장기화, 과중한 연대보증 채무, 후속 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창업후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을 분석해보면 연대보증채무와 조세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재창업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활동도 제약되는 것이 현실로 폐업시 평균부채는 8.8억원이고 실패 기업의 45%가 조세채무가 있으며 평균체납액은 44백만원에 달한다. ((사)재기개발원 조사, '13.5)

이러한 재기 및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폐업이후 대부분이 단순 일용직 및 노무직(60%, 부도기업인재기협회 조사)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이들의 소중한 사업 노하우와 실패 경험이 다시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의 현황을 조사해보면, 평균 창업횟수는 2.62회, 평균나이 50세로 재기기업인의 40%이상이 차명으로 재창업하며, 사업정리부터 재도전까지 평균 7~8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재창업자금 수혜자 대상 조사, 2013년 중진공)

이는, 과거의 실패 기록으로 인한 제도적 장벽과 재창업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정리부터 재창업까지 기간 중 상당기간이 과거 정리에 소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으로 본인명의로 재창업보다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표 II-1-3-2 창업청년창업자(30대 미만)의 실패와 재도전 현황

- 매년 3,500개의 창업, 3년 생존율은 10%, 사업실패자중 20%가 타인명의로 재기
 - 재도전 의지는 50%이상이며, 이중 20%가 재기, 1%가 본인 창업
- 폐업자 중 재창업하는 경우는 약 7.2% 수준이며, 재창업 기업중 21.6%가 재폐업 (KAIST기업가정신센터, '00년 ~ '11년 폐업기업 82천개 조사)

가. 재창업 교육

우선, 재도전 기업인들이 재도전 의욕을 고취하고, 과거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성공적 재창업이 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을 실시중이다.

재창업 교육은 대표적으로는 (재)재기개발원에서 시행중인 ‘재도전 경영자 힐링캠프’를 들 수 있다. 실패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자아성찰, 심리치유 등 재기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힐링캠프식 재기교육을 2011년부터 매년 3회~4회 실시하고 있다.

재기 교육은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죽도연수원 (통영시 죽도)에서 실패원인분석, 1:1코칭 및 멘토링, 비전수립 등을 통한 자신감 회복 및 재기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이후에는 재창업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하였다.



< 죽도연수원 전경 >

2011년 11월 교육시작 이후 2015년까지 총 298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수료생 중 약 100여명이 재창업자금 융자 지원 및 재창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하여 재창업에 성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재도전 희망 기업인이 재기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인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0년 3월부터 재창업자금을 도입 운영 중이다.

이는 과거 실패 기록으로 인해,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적인 재기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재도전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2015년도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700억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업체당 최고 45억원(운전자금 10억원) 이내로 재창업시 소요되는 시설(9년이내) 및 운전자금(6년이내)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되어 있거나 신용 등급이 하락하여 低신용자로 분류되어 민간금융 및 일반 정책자금의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이다.

표 II-1-3-3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자 -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은 자 	직접 대출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9년(4년거치 5년상환) - 운전자금 : 6년(3년거치 3년상환)

재창업자금은 2010년 15개사 15억원, 2011년 82개사 124억원, 2012년 118개사 202억원, 2013년 244개사 406억원, 2014년 349개사 512억원, 2015년 466개사 7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재도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1-3-4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지원기업수(개사)	15	82	118	244	349	466	1,274
지원금액(억원)	15	124	202	406	512	700	1,959

추가로 변화된 기업 환경에 맞춰, 재창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R&D 사업도 2013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3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2개사를 선정·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과제당 1.5억원을 한도로 총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하였다.

우수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2015년도부터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인 재기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아이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70%(최대 1억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교육과 사업화 뿐 아니라 재창업 전용 보육공간을 신설하여 멘토링과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재창업자간 시너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재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재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사업이 본격 확장되는 시점에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이 시점에도 신용등급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14년 169억원, 2015년 150억원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였다. 조성된 펀드가 재기의 발판이 되도록 성공가능성이 높은 재도전기업에게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사전발굴 및 치유 등을 위해, 건강관리 시스템과 진로 제시·회생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진로제시·회생컨설팅 운영

연간 250개사 내외의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심층진단하고, 회생 또는 청산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하는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으로 구조개선 및 회생 또는 사업전환, 폐업 등의 적절한 진로를 적시에 제공하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회생컨설팅’을 통해 법적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2015년에는 총 15억원, 51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구조개선)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회생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 인력, 기술, 판로 등 복합적인 재기·재도전 기업인의 애로를 감안하여, 모든 분야의 재기지원상담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2014년 서울에 첫 설치 이후 2015년 10월에 부산, 대전에 추가 개소하였다. 동 센터에는 재창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회계사, 세무사, 선배 재기기업인 등이 합동으로 운영하여 재기를 지원한다.

향후 대구, 광주 등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도까지 대폭 확대하여 대도시 중심의 운영에서 전국 단위로까지 확대하여 재도전 기업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2015년부터 3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강도 높은 자체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低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 금융권에서 사실상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있다.

3)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사람이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듯이, 중소기업도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위험을 초기에 발견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건강관리를 받은 기업은 총 27,000여개사('12~'15년)에 달하여,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과 부실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상화 및 사전적 경영개선으로 기업부실화 예방과 함께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FTA 피해기업 구제

1)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추진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3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9월에 시행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거나, 기존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컨설팅·유희설비 유통지원·세제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지원은 사업전환컨설팅 후 사업전환계획 승인, 정책자금 융자의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1-3-5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 업 전 환 내 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완전전환
업종추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신규 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 30% 이상 ↑

*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중기청 고시 제2011-30호)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총 57개사에게 사업전환 컨설팅을 지원 하였고, 총 99개사의 사업전환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2015년에 총 225개사에게 사업전환자금 1,026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 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 계획 승인업체 99개사 중 90.9%인 90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 9.1%인 9개사이다.

표 II-1-3-6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계획승인	자금용자		컨설팅		R&D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2006년	104	62	300	39	3.8	-	-
2007년	173	177	1,090	88	11.5	41	30
2008년	237	230	1,148	152	23.1	31	28
2009년	211	280	1,470	60	7.1	30	25
2010년	184	265	1,467	27	4.7	-	-
2011년	179	249	1,473	46	6.5	-	-
2012년	179	297	1,635	46	4.0	-	-
2013년	163	324	1,617	50	6.6	-	-
2014년	200	317	1,596	52	6.8	-	-
2015년	99	225	1,026	57	7.7	-	-

2015년 사업전환 기업의 성과조사 결과, 2015년도 매출액과 종업원수는 각각 22.1%,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위기기업이 외부의 환경변화 분석과 자사의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선제적인 위기 관리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표 II-1-3-7 사업전환지원사업 추진성과(2015년 사업전환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백만원, %)				고용창출 효과(명, %)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2015년	2015년	증감	증감률
7,899.3	9,644.8	1,745.4	22.1	30.5	36.9	6.4	20.9

2) FTA 피해기업 구제

FTA 등 무역환경의 개방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 무역조정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의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는 2007년 4월 사업 개시 이후 2015년까지 82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312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FTA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7.8억원의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엄격한 요건, 홍보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활용이 저조하였으나, FTA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인정된 업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FTA피해기업이 무역 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I-1-3-8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지원 실적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기업지정	3	2	0	8	24	26	17	80
융자지원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31,014

향후 FTA 확대에 대비하여 기업이 무역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무역조정지원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p>재기중소기업개발원 교육 (3.2)</p>	<p>재도전성공패키지 실전창업교육(5.18)</p>	<p>재도전종합지원센터 개소 (10.5)</p>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 재도전성장과 민 경 기
- 재도전성장과 김 원 석
- 재도전성장과 민 병 철

가. 창업자 연대보증 완화

그간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투자 보다는 보증, 용자 중심의 자금조달로 실패시 상환의 부담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최근 창업투자의 확대로 투자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창업기업들이 용자와 보증을 활용하고 있다. 이중, 보증·용자의 경우에는 그간 창업자 연대보증과 함께 제 3자 연대 보증도 요구하고 있어, 창업 실패시 채무 부담이 대표자와 보증인에게 전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함으로써 재기의 기회 뿐만 아니라 생계의 부담까지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창업의지 약화 및 재도전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는 연대보증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입보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제1단계로 2012년 5월부터 제1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제2단계로 2013년 7월부터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이로써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폐지 하였으며,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공식적 지위에 있는 책임자 1인만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토록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등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으로 하여금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표 II-1-3-9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주요 내용	시 기
제3자 연대보증 제도 전면 폐지	제1금융권('12.5), 제2금융권('13.7)
우수기술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정책금융기관('14), 18개 민간은행('14.8)
평가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15.1), 신·기보('15.4)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완화’를 최고의 규제개혁 성과로 선정하였다.

표 II-1-3-10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구 분	실 적
중진공 연대보증 면제 활용 실적	('14) 96건 → ('15년말) 911건 (3,593억)
신보 연대보증 면제 활용 실적	('14) 121건 → ('15년말) 769건 (4,859억)
기보 연대보증 면제 활용 실적	('14) 82건 → ('15년말) 521건 (4,788억)

향후에도 창업자 연대보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와 함께,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신속한 회생 지원

경영위기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법적인 제도인 회생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제도 활용기업의 대부분(93%, '13년 기준)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 중소기업의 애로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회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13년 10월)에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간이회생제도 시행으로, 조사위원을 기존 회계법인에서 법원사무관 등으로 대체하는 간이조사 위원제도 적용, 회생계획안을 의결권 총액의 50%(기존 66%)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시 의결토록 해주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종전에는 회생 인가까지 평균 8.6개월 걸렸으며 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법원 예납금 또한 1,500만원 내외가 소요되었으나, 간이회생제도 시행으로 기간은 80~100일, 법원 예납금은 300만원으로 기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하였다.

다. 신용회복 및 불이익한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지원중에 있다.

201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중소기업인이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도덕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채무를 조정(이자 : 전액, 상각채권 원금 : 50% 감면,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하고 있다. 향후 정책금융기관의 채권 감면 규모를 확대하여 빠른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1-3-11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대 상	지원 내용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30억원 이하 채무 보유 중소기업인	이자 전액, 상각채권 50% 이내에서 원금감면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3년 -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기간 중 무이자)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8년 - 2억원 초과 : 최장 10년

재창업지원위원회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을 통해 30억원 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블랙리스트 등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개인 회생자에 한해 관련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를 즉시 해제하고 금융기관간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재창업기업은 정부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을 인정받은 점을 감안, 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5년(법원의 개인회생)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간 공유되었으나, 재기 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를 즉시 해제하고 금융기관간 공유를 제한하였다.

아울러,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체납의 애로 해소를 위해 재기창업자의 국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2013년 8월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동 제도가 2015년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2018년도까지 연장하였으며, 체납금액 한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 2016년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도에 일몰된 재기창업자의 국세 징수유예 제도를 부활시키고, 징수 유예기간은 18개월에서 36개월로, 체납금액 한도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 확대하여 2016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다 폐업한 기업중 실패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재창업사업계획이 우수한 재기기업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범위 확대, 불이익한 신용정보 삭제 및 공유제한 등 재도전 걸림돌 제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실패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6년도부터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사업시 지원 요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재도전 기업인 교류회</p>	<p>재도전의날 행사</p>	<p>재도전기업인 토크콘서트</p>

제4절

지역 중소기업 성장 유도

1

지역특구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 지역특구과 이 상 현
- 지역특구과 김 석 동

지역특구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 이양을 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2004년 3월 지역특구법 제정 이후 세 차례('06.10, '09.4, '11.5)의 법 개정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9개의 규제특례가 법제화되어 있다. 규제 특례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특례 61개, 토지 이용에 따른 인·허가 의제 53개, 기초지자체장에 행정권한 이양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구지정 절차는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특례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지역특구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역특구를 지정·고시하는 순으로 되어있다.

지역특구는 직접적인 재정·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 타 유사제도와 차별화되어 있다. 다만 지자체가 각 부처 지역예산 사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 선정에 대한 가산점을 받음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지역특구 안내 브로슈어 등을 제작·배포하여 지역특구제도 홍보를 강화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규제특례활용사례집」과 함께 지자체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특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예산사업 활용 가이드북」도 같이 발간할 예정이다.

표 II-1-4-1 2003년 이후 지역특구제도 추진현황

'03.6.12	제9차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 발표 * 지역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의 하나로 선정
'04.3.22	지역특구법 제정
'04.9.22	지역특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총 29개 법률 69개 규제특례 적용
'04.12.30	제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6개 특구 지정) *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특구
'06.10.4	(1차 개정) 지역특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총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로 확대
'08.2.29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업무 이관 (정부조직법령 개정)
'09.7.2	(2차 개정) 지역특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총 58개 법률 126개 규제특례로 확대
'11.8.25	(3차 개정) 지역특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총 58개 법률 129개 규제특례로 확대
'13.3.2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 이관(정부조직법령 개정)
'14.9.25	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3개 신규지정, 1개 계획변경 누계 163개
'15. 11. 27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7개 신규지정·1개 지정해제, 누계 172개



2015년 지역특구 연찬회

2 지역특구 운영현황

- 지역특구과 이 상 현
- 지역특구과 허 일 록

가. 지역특구 지정현황

지역특구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17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이 가운데 7개 특구가 해제되어 172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특구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 2013년 3월 이후로는 24개의 특구가 추가로 지정되었고, 3개의 특구가 해제되었다.

유형별로는 향토자원 특구와 관광레포츠 특구가 각각 84개(48.8%), 40개(23.2%)로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특구, 산업·연구 특구, 의료·복지 특구는 각각 27개(15.7%), 17개(9.9%), 4개(2.3%)다.

표 II-1-4-2 연도별 특구지정 현황

(단위 : 개)

지정년도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계
2004	2	2	1	1		6
2005	18	7	5	3	2	35
2006	19	5	3	3	1	31
2007	11	5	4	5		25
2008	7	9	4	1	1	22
2009	7	5	1	1		14
2010	5	3	2	1		11
2011	4	1	2	1		8
2012		1	2			3
2013	1	2	1	1		5
2014	6	1			1	8
2015	6	2	2		1	11
지정해제	2	3			2	7
계	84	40	27	17	4	172

※ (지정해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07.9),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11.12),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12.5), 남해 귀향마을 특구('12.12),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13.12),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15.4), 여수 오션리조트특구('15.11)

지역별로는 2015년 현재 전남(33개), 경북(26개), 충남(18개), 충북(15개), 전북(14개), 강원·경남(13개) 순으로 비수도권에서 지역특구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등의 24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자율적인 특화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특구가 많이 지정되었으며, 특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대전시,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개 이상의 특구를 운영하는 34개의 지자체 중 논산시, 부안군, 보성군, 거창군 등 4개 지자체는 3개의 특구를, 원주시, 영동군, 고창군, 곡성군, 김천시, 고성군 등 30개의 지자체는 2개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2개특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전남 11개, 경북 5개, 충북·충남 각 3개, 강원·전북 각 2개, 서울·대구·경남·제주 각 1개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나. 규제특례 적용현황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2015년 현재 58개 법률과 관련된 129개의 규제특례를 제도화하여 172개의 지역특구에 807개 규제특례를 적용하게 되었다. 특구별로는 평균 4.7개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특례는 일반 규제특례 61개, 토지이용 규제특례 53개, 권한이양 규제특례 1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반 규제특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129개의 규제특례 중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140개, 도로통행 제한 100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66개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3 지역특구 규제특례 적용현황

(단위 : 개)

구 분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특구수
일반 규제특례 (61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40
	도로통행 제한(도로교통법)	100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농지법)	50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45
	도로점용 허가 지체없이 허용(도로법)	45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출입국관리법)	26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초·중등교육법)	22
	기타	192
	소 계(적용특례 48개)	620
토지이용 규제특례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21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법)	21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1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국토계획·이용법률)	1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이용법률)	4
	기타	38
	소 계(적용특례 21개)	107
권한이양 특례 (15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6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체육시설설치이용법)	7
	기타	5
	소 계(적용특례 4개)	78
(129개)	합 계 (적용특례 73개)	807

3 지역특구 운영성과

- 지역특구과 이 상 헌
- 지역특구과 오 경 석

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2006년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매년 평가대상 지역특구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각 지역특구의 추진전략, 운영실적,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선정, 포상함으로써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2015까지 총 9회에 걸쳐 대상 9개, 우수상 32개 등 총 83개의 우수특구를 선정하여, 8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2015년에는 160개 지역특구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9개의 우수특구를 선정, 총 7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II-1-4-4 연도별 우수특구 선정 및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개,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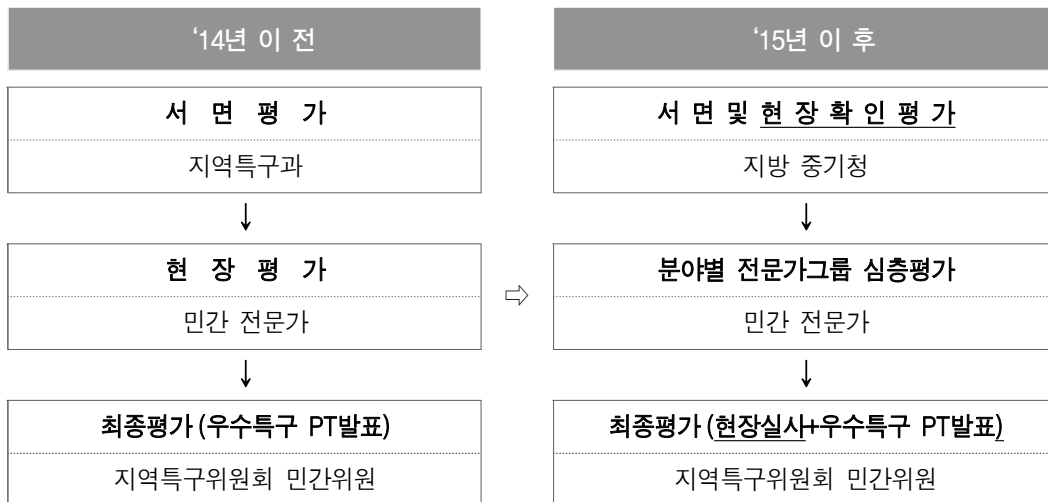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가대상 특구 수	48	79	102	124	139	147	150	151	160
우수특구 수	5*	7	10	12	11	10	10	9	9
포 상 금	10	10	10	10	10	8.5	8.5	7	7

* 2007년은 우수특구 수가 6개이나, 이 중 1개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경상북도에 지급되어 제외

2015년부터는 지역특구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방식을 개편하였다. 지역특구과에서 서면평가하고, 그 중

평가점수가 높은 지역특구만 현장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던 종전의 평가 방식을 개편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성과보고서의 실적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즉 각 성과보고서의 실적에 대해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이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을 하는 1차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는 분야별 외부 민간전문가 그룹이 심층평가를 하여 10개의 우수특구 후보대상을 선정한 다음, 3차 평가는 특구민간위원(9명)이 우수 후보 특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최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PT발표 및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정책평가를 통해 최우수특구 1개, 우수특구 2개, 나머지는 장려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그림 7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개편방안



나. 지역특구 경제적 성과

시행 10년이 경과한 지역특구제도는 외국 제도와 차별화된 독특한 지역 특화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내실화를 통해서 특구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지역특구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자율적인 지역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특히 규제특례라는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를 토대로 매출증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경제적 성과와 함께 지자체가 직접 특화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과 행정적·재정적 역량 등이 뒷받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014년에 이룬 지역특구 성과를 보면 160개 특구에서 기업매출액, 관광수입 등으로 총 10조 7,819억원(전년 대비 7.5% 증가)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1,444개의 기업유치와 24,59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표 II-1-4-5 연도별 지역특구 경제적 성과

구 분	2011	2012	2013	2014	누계('04~'14)
지역특구 수(개)	147	150	151	160	-
소득액(억원)	79,812	91,684	100,263	107,819	579,140
유치기업 수(개)	1,433	1,482	1,304	1,444	11,280
창출 고용인원 수(개)	38,378	26,267	36,623	24,593	262,022

* 지역특구 수는 경제적 성과 파악이 가능한 지정 후 6개월 이상 된 특구 수



제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2장 중소기업 성장 역량 강화

제1절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 기업금융과 이 철 구

2015년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신흥시장의 위험 상존, 메르스 사태, 내수경기부진 등 대내외의 경기부진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국내 은행들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기대출 확대 정책 및 기술금융 취급확대 등으로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기대출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3년 이후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2015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4년에 비해 54.2조원 증가한 576.6조원이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7월까지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8월 이후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표 II-2-1-1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5년) (단위 : 조원, %)

지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출잔액	526.8	531.8	537.5	543.4	549.3	553.6	558.7	564.0	569.7	577.1	580.3	576.6
대출금리	4.23	4.21	4.02	3.85	3.86	3.77	3.69	3.74	3.73	3.72	3.77	3.83

또한, 2015년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전체기업 자금조달의 5.2% 수준인 25,660억원이다.

* 중소기업 직접금융조달 추이(억원, %) : (2011년) 24,897(3.3), (2012년) 6,902(1.2), (2013년) 8,212(1.8), (2014년) 15,808(3.3), (2015년) 25,660(5.2)

표 II-2-1-2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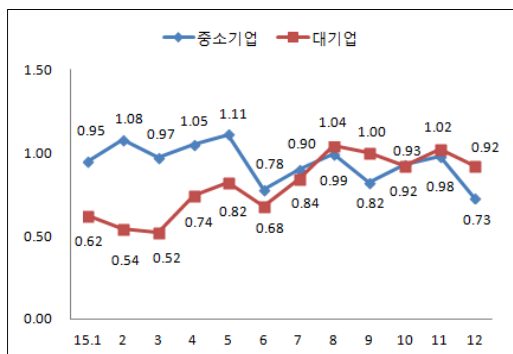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중소기업				대기업			
계	기업공개	증자	회사채	계	기업공개	증자	회사채
25,660 (100)	18,881 (73.6)	4,309 (16.8)	2,470 (9.6)	463,621 (100)	12,687 (2.7)	44,244 (9.6)	406,690 (87.7)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며, 연말에는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적 상환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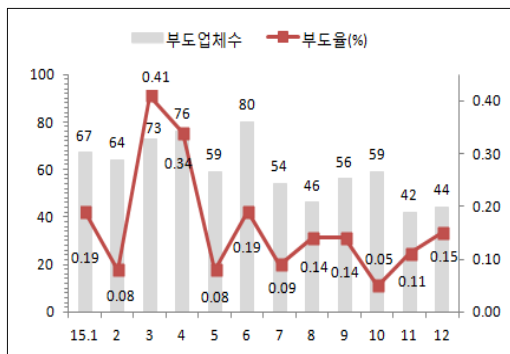
또한, 2015년은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메르스 사태, 내수경기 부진 등 대내외의 경기부진 요인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수는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부도율은 동양그룹 소속기업 등 기존 부도업체의 어음부도액 감소에 따라 0.19%에서 0.15%로 낮아졌다.

그림 8 기업대출 연체율(%)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9 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자료 : 한국은행)

2015년 중소기업 자금사정 실적지수는 5월까지의 전반적으로 '14년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6월 이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14년말 보다 높게 출발하여 5월 이후부터 하락하여 연말에는 전년수준 이하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표 II-2-1-3 중소기업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실적지수(한국은행, 2015년)

지 표	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경기 실적지수	71	73	73	73	65	57	63	62	62	66	63	60
자금사정 실적지수	88	87	89	88	87	80	85	84	83	85	84	84

2 정책자금 지원

- 기업금융과 추 경 훈
- 기업금융과 이 상 진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자금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엔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편성을 통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당초 예산대비 28.5%(8,630억↑) 증가한

38,890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추가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경기침체로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지원하여, 자금애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 당초 예산 30,260억원, 증액 8,630억원(창업 2,000, 개발기술 500, 신성장 1,000, 제도약 130, 긴급 5,000)

표 II-2-1-4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창업기업지원	14,000	13,900	15,300	13,400	15,000
개발기술사업화	2,580	3,080	3,300	3,500	3,500
신성장기반	8,619	8,550	9,350	8,650	11,270
긴급경영안정	2,891	2,778	3,227	1,546	6,000
제도약지원	1,475	1,650	1,700	1,700	2,120
투융자복합금융	-	1,500	1,700	1,500	1,000
소상공인	4,450	5,050	9,344	10,304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	5,008	-	-
소상공인(이차보전)	-	-	-	3,881	-
합 계	34,015	36,508	48,929	44,481	38,890

* 소상공인자금은 '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이관

나. 2015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1) 정책자금 성장단계별 균형지원

메르스 사태 발생과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단계별 균형 지원을 통한 선순환 기업 생태계 조성, 기술 우수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자금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2015년 정책자금 기본 운영 방향으로 삼아 2015년 3조 8,890억원 규모로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순환주기(창업→성장→성숙→재도약)에 적합하도록 자금운용 체계를 확립하고, 창업기(창업기업지원, 투융자복합금융)에 16,000억원(41.1%), 성장기(신성장기반, 개발기술사업화)에 14,770억원(38.0%), 성숙기(긴급경영안정자금)에 6,000억원(15.4%), 재도약기(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에 2,120억원(5.5%)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중소기업 자금애로에 적기 대응하였다.

2) 정책자금의 차별성 강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자금애로 중소 병·의원 및 피해업종 중소기업 517개사에 1,238억원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연구개발 성공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예산 중 R&D연계지원 예산을 확대(500억원 →1,500억원) 운영하였다.

고용 및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고성장(가젤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신성장기반자금 내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신설하여 631개사에 2,8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초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을 신설하여 1,637개사, 1,934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원활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재창업자금을 확대 편성하여 466개사에 7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법원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자 등 민간 금융권 이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재창업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4등급이상)에 대해 가산금리 없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의 가산금리도 인하(0.7%p→0.5%p)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II-2-1-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15년)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용 자 조 건		
		용자한도	용자기간	지 원 기 준
창업기업지원	15,000	잔액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0.08%p 업력7년미만, 예비창업자
개발기술사업	3,50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0.08%p 특허, R&D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11,270	잔액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0.50%p 업력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긴급경영안정	6,000	연간 10억원 (일반경안 5억원)	5년 이내 (수출 180일)	금리 : 기준금리+1.05%p *재해기업 : 2.5%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등
제도약지원	2,120	잔액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9년 이내 (운전 6년)	금리 : 기준금리-0.08%p 사업전환 승인, 재창업 등
투융자복합금융	1,000	이익공유:20억원 (운전 5억원) 성장공유:45억원 (운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금리 적용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

3) 정책자금 운용방식 개선

2015년도에는 접수방식을 기존의 온라인 선착순 접수방식에서 사전상담을 통한 상시접수 방식으로 개편하고, 정책자금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된 자체 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기업 멘토링 및 석세스 코칭을 통해 관계형 금융의 집행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조기반서비스업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물류산업을 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우량기업은 지원을 제한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 조정을 통해 정책 목적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년전용창업자금(2.9%→2.7%) 및 재해자금(2.7%→2.5%)의 고정금리를 인하하여 청년창업자와 재해피해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연중 변동을 최소화하여 금리 안정화를 시현하였다.

이익공유형 대출의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하고, 특히 창업초기기업(3년미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대출 초기 과도한 이자 납부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연도별 이자 상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 및 운용방식을 개선하였다.

표 II-2-1-6 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개편내용

구분	주요내용
전략적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순환주기에 따른 예산 배분 - 창업지원 예산 확대, 성장기 지원을 위한 고성장(가젤형)기업 지원 강화, 재도전기업 지원을 위한 재도약자금 신설
정책자금 신청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사전상담 상시 신청·접수 방식으로 개편 - 기존 온라인 선착순 신청접수 방식은 가수요에 의한 조기마감으로 신청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의 민원 발생 - 사전상담을 통한 상시 접수체제로 변경하여 조기마감 문제를 해소
정책자금 지원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산업'을 전략산업에 추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에 '벤처기업', 'Main-Biz기업' 추가 자산규모 1천억원을 초과하는 우량기업 제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인 한계기업 제외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업력 4년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업 대출조건 : 창업자금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준용 대출한도 : 직접대출로 지원하며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
투자자복합 금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공유형대출 신청대상을 업력 7년미만 기업으로 제한 이익연동이자의 연도별 상한 설정(1년차 : 대출금의 10%, 2년차 : 20% 한도)
관계형금융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전용창업자금 : 멘토링 및 석세스 코칭 실시 재창업자금 : 현장코칭 모듈이 추가된 약식진단 툴 개발
연대보증 면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성평가 우수등급(4등급) 이상기업 가산금리 없이 연대보증 면제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시 가산금리 인하(0.7%p→0.5%p)



3 신용보증 공급

● 기업금융과 전 성 우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위변제 등 신용보증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신용보증 지원규모는 2005년 6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후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대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위기상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 확대 기조를 지속하여 유지하게 되었다.

2008년 보증지원 규모는 43.0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에 56.3조원으로 대폭 확대(13.3조원 증가)하였고,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2015년에는 2008년보다 17.9조원 증가한 60.9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보증기관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2008년 10.7조가 확대된 41.1조원을, 기술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7.2조원이 확대된 19.8조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표 II-2-1-7 연도별·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B)	
								증감 (B-A)	
보증규모(잔액기준)	41.0	56.3	56.2	55.4	57.0	59.5	60.4	60.9	17.9 (43.7%)
신용보증기금	30.4	39.2	38.8	38.4	39.3	40.6	41.2	41.1	10.7 (35.2%)
기술보증기금	12.6	17.1	17.4	17.0	17.7	18.9	19.2	19.8	7.2 (57.1%)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8년 2,500억원을 출연했던 정부는 2009년 본예산에서 전년대비 8,500억원 증액한 1조 1,000억원을 출연했고, 다시 추경을 통해 1조 6,000억원이 증액된 2조 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은 리스크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고율을 유지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협약 출연금 증가 등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 출연 없이도 안정적인 운용배수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신·기보 설립 이래 최초로 여유재원 중 5,000억원(신보 3,500억원, 기보 1,500억원)을 정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

표 II-2-1-8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본예산	추경	계					
합계	11,000	16,000	27,000	0	△5,000	1,300	1,500	1,700
신용보증기금	9,000	10,800	19,800	0	△3,500	700	1,000	1,300
기술신용보증기금	2,000	5,200	7,200	0	△1,500	600	500	400

2015년에는 본예산 500억원 출연 후 다시 추경을 통해 1,200억원이 증액된 총 1,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II-2-1-9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단위 : %, 억원, 배)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증 사고율	신 용 보 증 기 금	4.9	4.8	4.2	4.0	4.0
	기 술 보 증 기 금	5.1	5.1	4.0	4.5	4.2
기본재산	신 용 보 증 기 금	53,669	48,239	46,402	44,757	43,503
	기 술 보 증 기 금	27,791	24,578	22,868	21,599	21,074
운용배수	신 용 보 증 기 금	7.2	8.1	8.7	9.2	9.4
	기 술 보 증 기 금	6.1	7.2	8.3	8.9	9.4

다음으로 보증지원 규모 확대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기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재정투입규모 대비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보증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짧은 기간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므로 재정투입 효과성이 용자나 직접 대출보다 매우 높은 편

보증기관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모두 10배 이내 수준의 안정적인 보증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짧은 기간에 대폭 확대된 보증규모는 경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015년에는 중점지원분야에 2008년 대비 약 260% 증가한 60.8조원을 지원하였다.

표 II-2-1-10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계	16.9	34.8	46.8	54.4	60.8
창업 + 기술창업	11.6	16.8	18.3	20.9	23.3
수출기업	5.3	9.6	9.9	11.8	13.3
신성장동력산업	-	3.4	4.5	12.5	16.1
고용창출기업	-	5.0	14.1	9.2	8.1

이처럼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미래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상담회

서울대 업무협약

수출지원 업무협약

4 매출채권보험 운용

● 기업금융과 전 성 우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보험 인수를 통해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1997년 어음보험제도로 도입된 이후 2004년부터 보험대상을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보험인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까지 총 87조 7,283억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685억원의 정부 출연을 통해 전년 대비 7% 증가한 16조 2,764억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하였다.

표 II-2-1-11 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수총액	65,544	69,320	132,395	152,084	162,764
보험금지급	364	747	675	454	561
정부출연	180	250	2,280	1,022	685
기본재산	1,064	1,107	2,664	3,317	3,521
운용배수	12.2	12.7	9.1	10.1	10.4

보험업무 개시 이후 2015년까지 총 5,92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정부는 보험인수 재원으로 2015년까지 총 8,484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다.

2016년에는 17.5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수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매출채권보험 제도개선 추진

일부 비효율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보험 및 간편보험의 보상한도와 보상비율을 상향하여 실질적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험시장 저변확대에 노력하였다.

또한,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보험료 환급형 보험과 보험기간 중 구매자 및 보험금액 조정이 가능한 옵션형 보험 등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을 도입을 통해 고객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와 수협은행 등 총 9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협약보험을 출시하여, 고객 특성에 맞는 보험혜택과 금융혜택을 동시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지원효과의 시너지를 향상하였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처관리 능력을 보유한 우량기업과 사업초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 등으로 고객을 분류 및 관리할 수 있는 고객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고객 유형별 맞춤형 상품을 지원 등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까지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최고보험한도 상향을 통해 새로운 보험수요를 창출하고, 창업기업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보험 및 포괄형 매출채권보험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 업무설명회



신용보험 워크숍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2절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

1 중소기업 인력 애로 현황

- 인력개발과 전 세 희
- 인력개발과 정 영 훈

2015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현 인원은 238만 명에 이르며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33.2%로 가장 높고, 기능직 27.8%, 사무관리직 23.6%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2-2-1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명, %)

중소제조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현 인원	2,087,898	2,122,822	2,086,116	2,271,609	2,375,864
부족인원	64,738	66,331	55,489	34,191	38,210
부족률	3.01	3.03	2.59	1.48	1.58

* 출처 :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중소기업청, 2015)

*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 + 부족인원) * 100

한편,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단순노무직이 2.07%로 가장 높고, 기술직 2.05%, 연구직 1.92%, 기능직 1.66% 등의 순이며, 이와 연계하여 학력별 인력도 고졸 남성 40.5%, 고졸 여성 1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 전문대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졸 이상은 남성 0.7% 여성 0.1%에 그쳤다.

표 II-2-2-2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2015년)

구 분	전 체	사무 관리직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직
부족인원(명)	38,210	3,629	2,205	3,630	11,118	16,645	174	809
부 족 률(%)	1.58	0.64	1.92	2.05	1.66	2.07	1.21	1.20

표 II-2-2-3 중소기업의 학력별 인력구성

(단위 : %)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남 성	1.0	40.5	15.1	16.1	0.7
여 성	0.7	16.3	5.1	4.4	0.1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일수록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와 인력 부족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9인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평균 3.29%로 상시근로자수가 200인~299인 기업의 인력부족률 0.65%에 비해 5.1배 큰 수치로 나타났다.

표 II-2-2-4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

구 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2011년	4.42	3.77	3.07	2.20	1.56	0.91
2012년	6.07	3.34	3.00	1.34	1.14	0.75
2013년	3.77	3.44	2.40	1.97	1.68	0.51
2014년	2.46	2.00	1.30	1.22	0.54	0.43
2015년	3.29	1.92	1.14	0.76	0.59	0.65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 인력개발과 정 현 호
- 인력개발과 주 상 략
- 인력개발과 정 강 은
- 인력개발과 박 회 경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정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계획(2007년, 교과부)에 따라 2008년부터 교과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⁵⁾(66개 전문계고)을 이관 받아 중소기업, 지식기반

5)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기존 교육당국에 의한 일괄관리·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2008년부터 업종별 인력 수요 부처(국방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청, 특허청 등)가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 중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중소기업 기술·기능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2-2-5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천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 예산	13,964	16,802	27,000	28,800	28,600	
지원 실적	학교(개교)	66	80	150	160	162
	학생(천명)	58	68	127	127	126

동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인력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던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생들의 기술·기능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산업분야와 연계한 예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유입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162개 특성화고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취업 맞춤형, 1팀1기업프로젝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역량을 제고(중소기업이해연수, 취업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등) 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양성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II-2-2-6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취업률	42.4	41.5	56.5	58.4	62.6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3자 취업협약(학생-학교-기업)을 약정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시 후 기업에 채용하는 ‘취업 맞춤형’ 운영을 참여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6,138명을 중소

기업에 공급하였으며, 학생들의 기업현장 적응력과 현장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기업과 학생(교사)이 공동과제를 발굴, 문제해결을 하는 ‘1팀 1기업프로젝트’ 266과제를 수행하여, 취업연계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정과제로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교육 공동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이해연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켰으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체계화(1학년 :직업관 함양, 2학년: 기술능력 함양, 3학년: 현장적응력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률 고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 (인력공동관리협의회) : 20개 협회·단체, 1,182명 채용
- * (중기특성화고 이해연수) : 집체 및 찾아가는 연수 등 21,833명 실시
- * (동아리운영) : 전공동아리 3,328개 운영 등

이와 같이 현장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우수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산업으로의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과 대학(전문대·일반대)을 연계, 산학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재 양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불일치를 완화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조성이 우수하고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이공계 학생이 참여 가능한 대학을 선정하고, 중소기업-대학-학생(졸업예정) 간 취업조건부 3자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억을 투입하여 5개 전문대학을 지원, 327명을 양성 289명 취업연계, 2014년에는 25억을 투입하여 12개 대학 지원, 830명 양성 613명을 취업연계, 2015년에는 30억을 투입하여 15개 대학(전문대학 및 일반대) 지원, 820명 양성 604명을 취업 연계하였다. 2016년에는 14개 대학을 지원하여 803여명의 학생을 기술 인력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전문대학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고급 기술인력 양성 과정으로 일반대학을 신규 선정(2개교)하여, 산학맞춤교육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석사과정 진학 등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표 II-2-2-7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구분	예산	참여대학	협·단체	중소기업	양성학생	취업학생	취업률
2013년	1,000	5	14	174	327	289	88.4
2014년	2,500	12	46	745	830	613	73.9
2015년	3,000	15	30	756	820	604	73.7

다. 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을 연계한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규과정 외에 방과 후나 방학을 활용한 특약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높아진 기술수준에 맞는 숙련된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동 사업은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3자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특성화고(2년)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실습, 기초 및 전공 소양을, 전문대학(2년)은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이론 및 기술심화 과정으로 운영하며, 동 사업을 통해서 참여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에 학생 연수비, 학생활동지원비,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성된 80억원(보조금 40억원, 특별교부금 40억원)을 투입하여 15개 사업단을, 2012년에는 96억원(보조금 48억원, 특별교부금 48억원)을 투입하여 3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사업단(전문대 18개교, 특성화고 37개교)을, 2013년에는 96억원(보조금 48억원, 특별교부금 48억원)을 투입하여 18개 사업단(전문대 18개교, 특성화고 37개교)을, 2014년에는 74억원(보조금 39억원, 특별교부금 35억원)을 투입하여 17개 사업단(전문대 17개교, 특성화고 35개교)을, 2015년에는 56억원(보조금 36억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투입하여 17개 사업단(전문대 17개교, 특성화고 33개교)을 운영하여 누계 11,579명의 현장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오고 있다. 2016년에는 57억원(보조금 36억원, 특별교부금 21억원)을 투입하여 16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2,1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기술사관 졸업생 (17개 사업단 305명 중 72.5% 취업)이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협약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지표 성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산업기사 취득 프로그램 편성 지원, 현장학습, 실습학기제 등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산학맞춤 교육을 강화하였다.

2016년부터는 사업 운영체계 개선, 참여 학생 증도이탈 방지, 취업률 제고 등 내실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표 II-2-2-8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	2015	
예산	5,000	8,000	9,600	9,600	7,400	5,600	
지원 실적	학교 전문대 10 + 특성화고 23	전문대 15 + 특성화고 33	전문대 18 + 특성화고 37	전문대 18 + 특성화고 37	전문대 17 + 특성화고 35	전문대 17 + 특성화고 33	
	학생	880	1,497	2,239	2,762	2,486	2,613
	업체	136	260	428	722	821	908

* 2010년부터 교육부와 1:1 매칭
* 2013년 구미대 사업단 사업포기로 1개 사업단 감소

라.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고등학교 및 재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취업보다는 진학 선호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의 취업 선도모델로서 ‘한국형 마이스터고⁶⁾ 육성 기본계획’(2008.7월)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3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급당 20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자율화하였으며, 교장 자격이 없는 산업계 인사의 교장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마이스터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47개교가 지정되었으며, 그 중 43개교가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4개교는 201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표 II-2-2-9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일반현황

구분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학교설립		1954년	1967년	1974년
마이스터고 지정		2008.10월	2009.2월	2009.2월
마이스터고 개교		2010.3월		
학과명 (학급수)		전자회로설계전공(3) 임베디드전공(3) 전자계측제어전공(3) 자동화시스템전공(3) 로봇제어전공(2)	정밀기계과(3) 금형설계과(3) 조선기계과(3) 로봇테크과(6)	폴리메카닉스과(3) 금형설계제작과(4) 산업플랜트과(2) 로봇자동화과(6)
학급 (학생 정원)	1학년	14학급(280명)	15학급(300명)	15학급(300명)
	2학년	14학급(280명)	15학급(300명)	15학급(300명)
	3학년	14학급(280명)	15학급(300명)	15학급(300명)
	계	42학급(840명)	45학급(900명)	45학급(900명)
위치 및 부지		경북 구미시 223천㎡(6.7만평)	부산 해운대구 142천㎡(4.3만평)	전북 익산시 77천㎡(2.3만평)

6)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중소기업청 소속 3개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취지에 맞춰 공모를 통해 임용한 산업계 출신 교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산업 분야별 현장수요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실에 취업지원부를 신설하고 산학협력 지원관을 학교별 2명씩 지원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산학협력기업을 발굴하는 등 교원들의 수업이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2-2-10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합 계	24,339	16,340	17,108	18,041	14,725
직업교육체제 혁신	2,854	6,070	7,008	7,200	9,805
시설확충	15,485	6,270	7,600	10,841	4,920
로봇학과 설치·운영	6,000	4,000	2,500	-	-

중기청 소속 3개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한 이후 입학(2010.3월 입학)한 학생이 졸업한 '12학년도부터 취업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2학년도에 88.2%를 달성하였으며, 2014학년도 90.7%, 2015학년도에는 91.7%를 달성하였다.

표 II-2-2-11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률

(단위 : %)

구 분	'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15학년도
구미전자공고	66.2	98.1	98.1	97.8	98.2
부산기계공고	45.7	88.2	81.7	87.0	90.1
전북기계공고	53.5	78.5	76.0	88.0	87.5
평 균	54.6	88.2	85.0	90.7	91.7

* '12학년도 취업률이 마이스터고 1기 졸업생('10학년도 입학)의 취업률임



3 우수 인력 장기재직 유도

- 인력개발과 문 중 원
- 인력개발과 안 병 철
- 인력개발과 양 동 학
- 인력개발과 유 인 석

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기금을 공동적립하고, 핵심인력이 만기(5년)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범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4,192여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10,123여명이 가입 (15.12월 기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지급방식 개선을 통해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함으로써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10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나. 주택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공급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민영·공공 및 국민임대주택이며, LH공사 등 주택공급자로부터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용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대상자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천(분양 시) 또는 확인(임대 시)함으로써 근로자가 특별공급 물량을 공급받게 된다. 2015년까지 393호의 국민주택을 추천·공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500호 추천·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2-2-12 연도별 주택공급 실적

(단위 : 호)

구 분	확 보					추 천				
	계	국민주택		민영주택		계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04년	618	304	314	-	-	78	52	26	-	-
'05년	729	323	406	-	-	126	53	73	-	-
'06년	1,191	530	661	-	-	251	96	155	-	-
'07년	1,522	355	1,167	-	-	361	42	319	-	-
'08년	1,821	131	1,690	-	-	773	50	723	-	-
'09년	1,435	310	1,125	-	-	788	151	637	-	-
'10년	1,580	416	1,134	30	-	723	94	628	1	-
'11년	807	284	365	158	-	514	120	368	26	-
'12년	733	108	233	387	5	294	34	217	42	1
'13년	1,697	124	444	1,126	3	944	38	875	31	-
'14년	4,022	113	292	3,498	119	483	84	298	101	-
'15년	15,079	419	310	13,954	396	973	119	274	570	10
합 계	31,234	3,417	8,141	19,153	523	6,308	933	4,593	771	11

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정부가 산업체 수요를 고려하여 학과(대학)를 선정하여 개설하면 중소기업의 대표는 소속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학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재교육형의 경우 정부가 등록금의 65%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35%를 기업과 공동으로 부담하며, 채용조건형의 경우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소속 기업에서 일정기간 의무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매년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48개 학과를 통해 1,630명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석사학위 보유 근로자를 고급 연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재교육형 박사학위 과정을 신규 개설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석사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지역특화산업학과」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표 II-2-2-13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현황

연 도	지 원 내 용
2009년	■ 부산대 석사과정 시범운영
2010년	■ 석사과정 전국으로 확대·시행(총 11개 학과)
2011년	■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으로 확대 개설(총 21개 학과)
2012년	■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학과 추가 개설(총 29개 학과)
2013년	■ 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 학과 추가 개설(총 44개 학과)
2014년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1개 신설(76억원, 44개 학과)
2015년	■ 채용조건형 석사과정 1개 추가, 박사과정 3개 신설(92억원, 48개 학과)
2016년(예정)	■ 지역특화산업학과 17개 신설(104억원, 65개 학과)

라.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2001년부터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등 전문인력의 발굴, 사증 취득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체재비(인건비)의 일부 지원(계약연봉 및 급여의 35%, 최대 3,000만원까지), 국내 적응연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별로 전문인력 도입은 IT 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다수 보유한 인도, 기초 소재 부품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 기초과학 분야의 기술력이 우수한 독립국가연합, 임금수준 대비 인적자원이 우수한 중국 등의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2-2-14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추진실적

(단위 : 명, 개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도입인원	147	225	216	201	110	129
도입업체	124	181	176	158	98	119

도입 외국인력 범위 확대를 위해 도입 요건을 완화(박사, 석사+1년 경력, 학사+3년 경력, 7년이상 경력 → 박사, 석사, 학사+1년 경력, 5년이상 경력)으로 하였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국내 학위자 및 재외동포, FTA 체결국가 국적자 도입을 우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업 지원 횟수 제한(동일 인력에 대한 지원은 3년까지 지원,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3년까지 지원하되 4년차 신청부터는 감점 부여)를 제한하였다.

표 II-2-2-15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 주요성과

주 요 지 표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술애로 해결 달성(%)	86.3	82.3	87.2	83.3	83.9	89.0
신제품·신기술 개발(건)	76	75	319	103	59	76
기존 제품·기술 업그레이드(건)	109	93	127	184	87	145
기술애로사항 해결(건)	69	205	174	119	88	143

마.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동안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7년 2월 발표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내용 중 하나인 군복무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2012년부터는 배정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3월에 2015년까지 연장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양성된 인력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개편하였다.

표 II-2-2-16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및 병역지정 업체 신청 요건

구 분		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산업기능 요원	편입자격	국가기술자격증 (석사 이상 불가) * 2012년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편입	제한조건 없음
	근무기간	34개월	26개월
	전직가능 기간	6개월	
병역 지정업체	지정요건	법인,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단, 산학협약을 맺은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인원배정	6,000명(2016년)	9,000명(2016년)
추천 기관		중기청, 문화부, 농림부, 국토부, 방위산업진흥회	

더불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및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2009년 4월에 병역지정 업체 선정 기준을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 하였고, 2010년 2월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연구인력을 포함 하였다.

또한 초기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2년 5월에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도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동 제도는 생산현장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제조 인력난 해소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업계에서도 생산·제조인력 확보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성화고 등 청년층이 경력단절 없이 우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2015년 현역 4,000명과 보충역 4,500명 총 8,500명이 배정 되었다.

표 II-2-2-17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단위 : 명)

구 분	산 업 기 능 요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300	5,500	7,000	7,000	8,000	8,500
현역	3,700	3,700	4,000	4,000	4,000	4,000
보충역	4,600	1,800	3,000	3,000	4,000	4,500

앞으로도 정부의 특성화고 육성 및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맞춰 산학협력으로 특성화고 출신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중소기업 인식개선

◎ 인력개발과 정 강 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취업자와 일반국민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⁷⁾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⁸⁾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현황·역할·발전가능성에 대해 바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인식개선 사업은 2011년(9.5억원)→2012년(10.28억원)→2013년(28억원)→2014년(28억원)→2015년(23억원) 예산으로 미디어 언론홍보, 교육특강, 체험 활동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 11월 시작해 189회를 방영한 KBS-1TV ‘스카우트-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입사를 위해 노력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열정과 노력을 조명하여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는 특성화고 교재 ‘중소기업과 나의 꿈’ 과 보조교재 ‘발칙한 반란을 꿈꾼다’를 개발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하는데 힘썼으며, 2014년부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중소기업 체험캠프와 자유학기제 중학교 대상 중소기업 현장 탐방, 특성화고 대상 연극 특강 및 토크콘서트를 실시하여 청년층에게 생생한 중소기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7)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8) 중소기업 부족인원 : 24.7만명, 부족률 : 2.7% ('15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또한,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바로알기 코너를 만들어 중소기업 실태, 우수중소기업 검색방법, 중소기업 재직자의 혜택 등에 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대상별 맞춤형 중소기업 인식개선 동영상 및 강의안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5년에는 KBS “스카우트”에 이어 “청년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 신규 방송과 EBS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중학생 대상 현장탐방·특강을 확대하고, 연극특강 및 토크 콘서트를 통해 특성화고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특성화고 교사들의 교원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은 체험캠프, 취업 준비생에게는 우수기업 현장 견학을 통해 인식개선 및 취업을 유도하였다.

		
<p>고등학생 토크 콘서트 (’15.11.23)</p>	<p>중학생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특강</p>	<p>대학생 체험캠프 (인사담당자 면담)</p>

제3절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위기대응 강화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 생산혁신정책과 현 수 찬

2014년 R&D 수행 5인 이상 중소기업체는 37,823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체 126,187개사의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6년전인 2008년의 27.6%에 비해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3-1 R&D 수행 중소기업체(5~299인) 추이

(단위 : 개사,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2,660	31,688	32,492	31,642	33,991	38,531	37,823
중소기업체 대비 비중	27.6	28.5	28.9	28.1	31.0	31.6	30.0

* 자료 : 중소기업실태조사(중소기업청, 2015.12)

* 모집단 : 5~299인 중소기업체 126,187개, 표본수 : 8,000개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15년 34,022개사로 2008년 15,696개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 혁신활동 기반도 탄탄해 지고 있다.

표 II-2-3-2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15,696	17,703	20,659	22,876	24,243	27,154	30,741	34,022
소속 연구원수	122,944	131,031	141,080	147,406	146,833	155,580	172,364	188,280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5.12)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14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1.2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63.7조원의 17.6%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3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공공연구기관	46,532	55,584	63,061	64,418	69,503	72,607	81,127	9.71
대학	38,447	42,043	47,455	50,338	52,769	54,803	57,670	6.99
기업	260,001	281,659	328,033	381,833	432,229	465,599	498,545	11.46
- 대기업	187,139	199,700	242,129	283,462	320,709	357,781	386,177	12.83
- 중소기업	72,862	81,959	85,904	98,371	111,520	107,818	112,367	7.49
합계	344,981	379,285	438,548	498,904	554,501	593,009	637,341	10.77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2016.1)

그러나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32%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2-3-4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기술수준	73.6	75.8	74.6	74.7	74.8	77.4	77.6

* 자료 : 201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중소기업중앙회, 2015.12)

표 II-2-3-5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종사자 1인당)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제조업	153	178	175	170	167	2.21
- 중소기업	94	108	107	107	109	3.77
- 대기업	352	373	359	354	336	△1.16
대기업과 격차	26.8	29.1	29.6	30.2	32.5	-

* 주 : '대기업과의 격차'는 대기업을 100.0으로 할 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수준임.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년도에서 재편·가공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R&D)

- 생산혁신정책과 하 유 경
- 생산혁신정책과 허 정 현
 - 기술개발과 전 상 용
 - 기술개발과 허 연
- 기술협력보호과 김 태 식
- 기술협력보호과 편 장 범
- 기술협력보호과 이 현 희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전에 충분한 R&D기획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동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임직원 대상으로 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R&D기획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68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수행 결과 우수과제는 다음연도 R&D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원과제 204개 중 82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여 2016년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이나 용자·보증신청, 기업 IR 등 다양한 분야에 R&D 기획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16년에는 기획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분야 대응을 위해 기획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II-2-3-6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2~2007	2008~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획 지원	과제수	1,201	354	133	153	169	154	204
	금 액	185	90	30	35	35	40	50
R&D 사업 연계	과제수	-	246	92	85	98	92	82
	금 액	-	769	311	252	337	311	264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R&D기획지원을 받은 과제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기획지원 미수혜과제보다 높게 나타나 기획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R&D전략 수립이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2-3-7 R&D 기획지원의 성과(2012~2014년 성과분석 결과)

구 분	R&D기획지원 수혜과제(A)	R&D기획지원 미수혜과제(B)	(A-B)
평균 사업화 성공률	46.8%	41.8%	5.0%p

한편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시행이후 2015년까지 매년 5억원을 투입하여 총 2,12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38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1,291명이 수료하였다.

2015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내용 적절성은 86.1점, 추천의향도는 89.7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88.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2-3-8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정규교육	방문형교육	계	정규교육	방문형교육	계
교육수료 인원	609	229	838	950	341	1,291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 및 위상 제고 뒤에는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1997년부터 한결 같이 함께 해오고 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핵심 R&D 사업으로서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으로 나뉜다.

①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First mover)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②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기술, 제조 기반 등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R&D를 최대 2년간 6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③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1년간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2-3-9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금액	2,797	2,206	2,325	2,448	2,470	2,620
지원업체수	1,525	1,050	1,053	1,081	1,087	1,107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03개 과제에 1조 4,866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기업 성과를 측정한 결과, 수행기업의 67.1%가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45.7%가 신규고용을 창출하였다.

또한, 세계최고 대비 기술수준 29.2% 향상, 기술자립도 36.5% 향상 등 기술적 성과와 과제당 평균 매출액 12.9억원 발생 등 경제적 성과가 창출되었다.

앞으로는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시스템을 갖춘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 신규협약 과제부터 전면 적용중인 온라인 전자협약 및 R&D 포인트제, 전자평가를 확대 보완하여 사업의 신청 및 평가 → 협약 및 과제 수행 → 정산 등에 이르는 사업수행 전 과정을 온라인화한 선진 R&D 관리시스템(SMTECH)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메뉴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서비스 기능 강화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최근 창업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 투자에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 사업은 이러한 창업기업이 기술개발시 수반되는 위험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흡수완충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에 따라 크게 창업과제와 1인 창조기업과제로 구분된다. 창업과제는 업력 7년 이내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일반 창업기업 및 엔젤투자 또는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등이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년간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과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318개 과제에 6,638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II-2-3-10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지원과제수	90	86*	598	1,356**	856	1,102	1,230	5,318
지원예산	100	100	950	1,136	1,314	1,414	1,624	6,638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포함

** 2012년 지원과제 1,356개 중 754개 과제가 5천만원 이하의 소액과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R&D과제 종료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경제적 성과로는 수행기업의 70.9%가 과제 수행 전과 비교하여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출연금 1억원 당 평균 7.4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기술적 성과는 세계최고수준 대비 기술격차는 과제 수행 전 3.5년에서 수행 후 1.2년으로 2.4년이 단축되었고, 기술수준 및 기술자립도는 각각 28.5%p, 37.5%p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제 수행으로 신규 고용한 기업은 전체의 53.0%였으며, 정부출연금 1억원 당 신규 고용인력은 3.1명으로 나타났다.

표 II-2-3-11 지원성과(과제 수행 전후대비 기술적 성과)

(단위 : %, %p)

구 분	과제 수행 전(A)	과제 수행 후(B)	(A-B)
기술수준	56.9	85.4	28.5
기술자립도	45.3	82.8	37.5
세계최고수준 기술격차	3.5	1.2	2.4

2016년에는 부처 내 분산된 창업기업 R&D지원의 통합을 위해 그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내에서 운영하던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과제’를 동 사업으로 이관하여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창업 → 혁신형 → 중견) 구축의 첫 단계인 창업기업의 R&D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융·복합 중소기업 R&D 지원

최근 기술개발환경은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및 기술 수명주기의 급속 단축 등으로 단독 R&D 수행이 가지는 부담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혁신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및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신사업 진출 및 연구개발에 따른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기업간 또는 다자간 협력으로 혁신역량의 상호 보완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개별 기업들의 보유기술을 상호 보완·활용하고 연구개발의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를 지원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까지 1,736개 과제에 3,75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사업 명칭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분야 전문사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총 개발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6억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특정 기술의 타 기술영역과의 융합정도를 측정하는 기술융합 지수를 개발·도입하여 중소기업형 첨단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R&D와 연계지원 체계를 마련해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안정적 자금조달 환경을 제공하였다.

표 II-2-3-12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융합전략현장기획과제)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3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762	234	399	832	840	685
지원과제수	560	112	169	324	315	256

* '13~'14년도 이전기술개발사업 포함

또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1,7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추가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이전기술개발사업을 2013년부터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으로 이관하여, 총 개발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II-2-3-13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이전기술과제)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3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1,014	100	100	125	181	200
지원과제수	1,103	43	53	55	76	91

2013년부터는 미래부,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매칭지원하는 「공공우수기술 이전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13~15년에 총 2,321건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214개 기업에 매칭 지원하고 147건의 기술이전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융·복합 분야 전문사업으로 특화하여 기술개발의 전주기(기획-기술개발-사업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과제 발굴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로 산·학·연 개방형 R&D 환경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5) 제품·공정개선 지원 사업

시장 다변화 및 소비자 기호의 빠른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개선을 통한 신속한 시장 대응이 필수적이나, 다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설비투자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단기간(1년이하)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의 75%이내를 지원하며, 제품개선은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제고를 지원하며, 공정개선은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2015년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전용 R&D를 신설하여, 미래 新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 기술인,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및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他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2-3-14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액	29,719	28,900	29,800
지원과제수	629	611	594

앞으로도 기존 제품 및 공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주력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확보되고, 전기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 로봇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선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장비 부족문제 해소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07년부터 시행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장비이용지원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첨단·고가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장비·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정부가 장비 사용료의 60~70%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초기에 비해 주관기관은 28개에서 170개로, 장비수는 3,150대에서 10,944대로 확대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의 연구장비 공동활용률 제고와 중소기업 장비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II-2-3-15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운영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예산(억원)	50	80	76	126	151	168	184	165	165	1,165
참여기업(개)	930	1,640	1,700	1,425	1,490	1,723	1,550	1459	1374	13,291
주관기관(개)	28	56	86	127	123	142	159	164	170	-
지원실적(건)	6,148	19,100	13,322	16,473	17,970	26,142	27,865	26,075	22,439	175,534
등록장비(대)	3,150	9,389	6,699	8,479	8,439	9,421	10,681	10,614	10,944	-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융·복합, 첨단화에 따라 연구장비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혜기업 확대 및 조기지원 체제 구축, 연구개발 목적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장비이용지원을 확산할 계획이다.

7)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1993년부터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 인력 및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신제품·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R&D와 연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사업이 신설되었다.

표 II-2-3-16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93~'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예산	6,939	1,197	1,322	1,389	1,458	1,520	13,825
참여기업	32,456	1,810	1,984	2,041	1,865	2,179	42,335

①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은 R&D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기술개발 자금부족, 연구장비 및 연구인력의 부족을 손꼽고 있고 R&D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유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도에 1년 이내의 단기·실용과제 지원과 기술혁신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 R&D를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 R&D를 본격화하고, R&D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각종 우대가점을 과감히 삭제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또한 2014년에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과제를 상·하반기에 지원하여 연구개발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R&D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5년부터 첫걸음R&D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첫걸음R&D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의 진행에 따른 문제의 개선, 중소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주관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을 기술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신청서를 약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연간 3회 이상을 모집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표 II-2-3-17 연도별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계획)	비 고
지원	과제수	898	1,029	1,045	
	금 액	447	532	460	

② 도약 기술개발사업

도약R&D는 산학연협력이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과제기획,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258억원, 185개 과제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 시범운영하여 현재까지 344억원, 395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한 11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그밖에 수도권 인력의 지방기업 취업기피 현상으로 지방 소재의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비하여 우수한 인력 확충이 어렵고 연구시설 (인프라) 낙후, 인재육성(재교육) 프로그램 부재 등의 사유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정부는 연구마을의 일환으로 수도권 내 2개 대학을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로 선정하여 16억원, 20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 시범운영한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는 인력지원파트(취업지원센터, 취업경력개발원 등)를 연계 지원함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수도권 정주여건(임대료)에 대한 부담 및 연구장비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R&D지원을 적극 확대하였다.

표 II-2-3-18 연도별 도약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계획)	비 고
지원	과제수	915	769	868	
	금 액	745	665	821	

나. 중소기업 사업화지원(R&D)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술개발 단계부터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200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동 사업은 수요처(정부·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물품 및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5%(최대 5억원, 2년)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10,1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5,8조에 의거하여 2002년 국방분야 13개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표 II-2-3-19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추진 경과

- (2002년) 중기청-국방부간 「국방기술개발협약」 체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범실시
- (2005년) 사업영역(수요처)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대기업 7개사 참여)
- (200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내에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신설
- (2009년) 해외 우수기업 및 바이어 등을 수요처로 한 해외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
- (2011년) ‘민·관R&D 협력펀드 과제’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신설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수요처는 총 670개에 이르며, 2015년도에는 177개 기관의 참여로 6,087억원을 투입하여 2,738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2010년도 성공판정 받은 과제 163개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구매발생과제는 133개로 81.6%에 이르고 구매발생액은 4,915억원으로 과제당 평균 36.9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동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81.6%는 정부 타 R&D 사업의 평균 사업화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는 동 사업이 기술개발비 지원을 넘어 기업의 매출 발생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2-3-2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억원)	600	645	900	965	915
지원과제수(개)	216	262	399	409	395

성공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5년간 상용화율(%)	87.5	86.9	86.1	77.0	81.6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과제 수행 전 세계최고 수준의 54.2%였으나 과제 수행 후에는 83.8%로 29.6%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는 수행 전 3.61년에서 수행 후 1.19년으로 2.42년의 단축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높은 기술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I-2-3-2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성과

기술적 성과	과제수행전	과제수행후	향 상
기술수준(세계최고대비, %)	54.2	83.8	29.6
기술격차(선진국대비, 년)	3.61	1.19	2.42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2015. 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처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상용화율을 제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민·관 공동투자 R&D 협력 펀드 확대

중소기업청은 2008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관R&D 협력펀드 과제’를 시작한 이후, 이를 확대 개편하여 2011년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을 운영 중이다.

동 사업은 투자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구매수요가 있는 신기술·신제품 개발분야의 R&D 지원 자금을 정부와 투자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후,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최대 75%(최대 10억원, 3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이 일정기간 구매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은 향후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

표 II-2-3-2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추진 경과

- (200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내에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신설
- (2011년)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신설
- (2012년) 투자기업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 (2015년) 총 57개사 6,814억원(누적) 협력펀드 조성·운영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1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운영 중이며,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2015년까지 57개 투자기업으로부터 6,814억원을 조성하여 총 669개 과제에 3,267.4억원을 지원하였다.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2011-2015년)’ 실적 기준)

표 II-2-3-23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협력펀드 조성 현황(2015년)

구 분	협력펀드	투자기업명
민 간	5,632억원	경창산업, 네이버, 대우조선해양, 동양물산기업, 르노삼성자동차,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한국항공우주산업,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루멘스,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LG전자, LS엠트론, SK텔레콤,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크루셜텍, 대교, 대동공업, 디아이씨, 렉스코, 인성정보, 미래나노텍,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티, 케이엠더블유, 파워로직스, 필옵틱스, 이래오토모티브(舊 한국델파이), 한백종합건설, S&T모티브
공 공	1,18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표 II-2-3-24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억원)	200	365	521	521	471
지원과제수(개)	85	153	184	132	115
투자기업수(개)	16	22	38	53	57
펀드조성액(억원, 누적)	3,930	4,380	5,508	6,314	6,814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투자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 R&D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OSBIR 지원계획	민관공동투자 R&D 협력펀드 조성	기술개발 성공제품

3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생산혁신정책과 황 승 기
- 생산혁신정책과 김 연 학
- 기술협력보호과 김 승 택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2015년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규모는 약 2.8조원으로 정부 R&D예산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2015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전체 정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25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정부R&D 예산(a)	137,014	148,902	160,112	168,777	177,358	188,747	6.6	
중기청R&D 예산(b)	5,607	6,288	7,150	8,037	8,185	8,717	9.23	
KOSBIR (중기청外)	정부기관(c)	12,743	14,985	17,324	17,178	17,266	19,248	8.6
	공공기관	162	93	88	104	111	119	△6.0
	소계	12,904	15,078	17,412	17,282	17,377	19,367	8.46
정부기관 합계(d=b+c)	18,350	21,273	24,474	25,215	25,451	27,965	8.8	
비중(d/a)	13.4	14.3	15.3	14.9	14.4	14.8	-	

특히 중소기업청 예산(중소기업 R&D 지원)은 2010년 5,607억원에서 2015년 8,71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지원 증가율 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2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R&D기획역량혁신	30	50	55	55	55	5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797	2,206	2,325	2,448	2,470	2,620
창업성장기술개발	100	950	1,136	1,314	1,414	1,62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600	600	645	900	965	915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200	365	416	371	471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	150	100	100	-	-	200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	327	400	435	415	300	312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180	234	399	831	840	685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	200	200	200	-	-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126	151	168	184	165	165
산학연공동기술개발	717	817	902	247	1,458	1,520
산학연기업부설연구소설치	380	380	420	159	-	-
첫걸음 기술개발	-	-	-	390		
도약 기술개발	-	-	-	593		
산학협력실지원	-	-	-	-		
시장창출형기술개발					41	60
기술개발인력 활용	-	-	-	85	105	90
합 계	5,607	6,288	7,150	8,037	8,185	8,717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 확대

중소기업청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13개 부처 및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함)⁹⁾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9) KOSBIR 시행기관

(정부부처 13개)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문화재청
 (공공기관 6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동 제도를 통하여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가 2010년 총 1조 2,904억원에서 2015년도에는 1조 9,367억원을 지원, 6년간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2013.6.27)을 통해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권고 하던 수준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비율을 정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II-2-3-27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행기관 R&D예산(a)	140,396	144,099	160,112	146,015	149,308	158,879
중기 지원(b)	12,904	15,078	17,412	17,282	17,377	19,367
지원 비율(b/a)	9.2	10.5	10.9	11.8	11.6	12.2

표 II-2-3-28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210	183	153	1,610	1,429	2,769
산업통상자원부	9,787	11,680	13,217	11,724	11,612	11,618
방위사업청	896	968	1,476	1,284	1,217	1,320
국토교통부	793	824	840	923	1,056	4,500
해양수산부	-	-	-	122	155	176
농촌진흥청	121	130	145	158	161	177
보건복지부	153	120	202	236	297	323
농림축산식품부	220	272	367	401	481	459
환경부	301	479	517	478	530	747
문화체육관광부	242	300	372	217	271	342

기 관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산림청	5	8	3	5	9.9	12
기상청	14	20	29	20	46	54
문화재청	1	2	2	0.4	1.1	3
한국토지주택공사	11	11	12	7	8.1	13
한국전력공사	87	46	23	28	31	33
한국수자원공사	3	3	4	6	6.5	-
한국가스공사	0	5	20	25	31	34
한국도로공사	18	13	22	27	28	19
한국철도공사	42	14	6	12	6.9	12
합 계	12,904	15,078	17,412	17,282	17,377	19,367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9년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를 수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전략은 중장기적 기간 설정, 산·학·연 혁신주체 포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 시 해당 분야를 직접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으며, 중소기업들도 거시적 로드맵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 운영방향을 직접적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0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은 국가 전반의 산업전략과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정부 중점 육성분야와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제조기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존 문헌 및 시장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분야를 좁혀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II-2-3-29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 (2010년) 녹색, 융합, 제조기반의 3대 분야로부터 풍력, 수소연료 전지 등 26개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112개 전략제품, 1,050개 핵심기술로 구체화
- (2011년) 전년도 로드맵 업데이트를 통해 17개 전략분야, 138개 전략제품, 1,090개 핵심기술 지정하고 각 단계마다 무역현황 등의 분석지표를 추가
- (2012년) 녹색분야 재정의, 서비스분야 신설 등을 추진하고 16개 전략분야, 133개 전략제품, 1,005개 핵심기술을 지정
- (2013년) 수송기계, 안전보안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181개 전략제품, 1,404개 핵심기술을 도출
- (201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smroadmap.smtech.go.kr) 구축을 통해 접근성 향상. 우주항공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15개 전략제품, 1,720개 핵심기술 도출
- (2015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ICT융합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 1,847개 핵심기술 도출

기술로드맵은 단순히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적용을 통해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차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과제 공고 시 로드맵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기반으로 과제를 접수받아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의 전략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준에 맞는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매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침서로서의 로드맵 역할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11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도출현황



그림 12 중소기업청 기술로드맵과 R&D 사업 연계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초 공정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며 제조업의 기초이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다.

뿌리기술은 단순 범용기술 제공을 넘어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주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및 기술수준, 연구개발 역량, 가격 경쟁력 등의 향상이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영세한 기업규모 및 수익구조로 인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뿌리기업 27,141개사의 92.5%인 25,115개사가 50인 미만 소기업이고, 종사자 42만명 중 40대 이상 종사자가 약 60%로 종사인력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고속련 인력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단순노무 외국인(E-9)의 비중이 '14년 9.0%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 II-2-3-30 6대 뿌리산업 종사자 규모별 현황

구 분	업체 (개)	비중(%)
1~9인	17,867	65.8
10~19인	3,804	14.0
20~49인	3,444	12.7
50~199인	1,779	6.6
200~299인	122	0.4
300인 이상	125	0.5
합 계	27,141	100

자료 : 2015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이에 따라 정부는 뿌리기업의 열악한 산업구조, 인적자원, 기술제약 등을 극복하고 전통제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2010년 5월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와 2012년 1월에는 뿌리산업의 범위 및 세부 지원정책 등을 규정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뿌리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12월 지정요건 및 요령 등을 고시하여 우수 뿌리기업 발굴하고 중점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3년 29개를 시작으로 2014년 6월까지 76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평가요건을 기존의 3부문(기술, 경영, 품질수준)에서 2부문(기술수준, 경영역량)으로 단순화하는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로 2014년 143개, 2015년 338개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 뿌리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지정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등 사례중심의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검토를 통한 정책방향 수립 및 현실적인 지정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 II-2-3-3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백만원)	300	400	396	396	412
지정수(개사)	-	-	29	114	195

표 II-2-3-32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전체
2013	9	5	6	4	3	2	29
2014	21	24	22	12	25	10	114
2015	22	43	47	37	32	14	195

표 II-2-3-33 뿌리산업 지역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계
2013	1	3	6		4	6	1			3	5	29
2014	2	12	19	2	5	35	15	1	4	5	14	114
2015	2	24	20	17	11	65	15	2	5	8	26	195

2)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뿌리기업 전문가 지원을 위해서는 일본의 선진 경영·기술 기법인 모노즈쿠리 경영기법 및 독일, 미국, 스위스 등 뿌리 선진기술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4개국에 303명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은 ICT융합 과정을 신설 하는 등 394명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3)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을 개선을 지원하는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사업을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하여 뿌리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6대 뿌리산업 업종별 20개사의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였고,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연계하여 8개사를 대상으로 공장스마트화 구축을 지원하였다.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용감소, 작업 시간 단축 등의 요인을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평균적으로 40% 이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에는 중소 뿌리기업 공정혁신 지원강화를 위하여 본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장스마트화 구축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정자동화 20개사, 공장스마트화 1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2-3-34 2015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현황

구분	주 조	금 형	소성가공	용 접	표면처리	열처리	전 체
예 산(백만원)	288	217	335	192	480	288	1,800
지원기업(개사)	3	3	4	2	5	3	20

표 II-2-3-35 2015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성과

구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평균
생산성 증가(%)	218	20	38	225	109	143	126
비용감소(%)	40	15	35	65	32	54	40
정밀도 제고(%)	30	53	44	50	61	72	52
작업 효율성(%)	54	23	41	13	35	51	36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산업으로 향후 기술, 자금, 인력, 정보화, 품질혁신 등 뿌리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뿌리기술 자동화·첨단화

4 국제 친환경 기술협력(ASEIC)

● 생산혁신정책과 하 유 경

제8차 아셈정상회의(2010.10, 벨기에) 공식인준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ASEM 회원국 중소기업간 친환경 기술협력을 위해 개도국 대상 컨설팅, 친환경 혁신기술, 글로벌 포럼 개최, 전문가 회의 운영, 지수(ASEI) 개발, 인도네시아 GBC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친환경 혁신 컨설팅

친환경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여건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2011년부터 동남아시아 5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1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현지 참가 기업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물투자과 비즈니스 매칭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컨설팅 참여기업의 기술수요와 국제 환경기술 전시회인 IGEM을 연계하여 에코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결과 기업간 MOU 3건이 체결되었다.

2) 친환경 혁신 기술교류 사업

기존의 친환경 적정기술 사업을 친환경 혁신기술 교류로 확대하여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에게는 친환경 혁신 기반 조성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캄보디아에는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60대), 태양열 조리기(120대) 등 친환경적정기술을 지원했고, 9개의 친환경 창업팀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시범적으로 온라인 시스템(asein.aseic.org)을 구축하여 수요기술과 공급기술을 등록하였고, 한-개도국 중소기업 간 오프라인 기술교류를 실시하여 기술 시범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글로벌 포럼

2015년 11월에는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 실천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제1차 아섹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기후변화와 자원 위기 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유럽연합 등 ASEM 회원국 대표들이 각국의 친환경 혁신사례를 공유하면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ASEIC은 EU 공동주관 포럼을 비롯하여 아시아-유럽재단(싱가포르), 한스자이델재단(독일),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일본), 스톡홀름환경연구소(스웨덴) 등 ASEM 역내 주요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환경관련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를 통하여 유럽-아시아 기술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4) 친환경 혁신 역량 전문가회의

ASEM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역량 전문가회의는 2014년 제10차 ASEM 정상 회의에서 공식화 되었다 15-16년에 걸쳐 총 3회가 개최되었으며 13개 ASEM 참여국의 공동관심안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회의의 주요 목표는 ASEM 회원국 대상으로 공동 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추후 ASEM 회원국의 사업 분담금 확대가 이루어지는 발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

5) 친환경 혁신지수(ASEI) 개발

ASEM 친환경 혁신 지수는 ASEM 회원국들의 친환경 혁신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이다. 2012년부터 ASEI 지표개발을 통하여 아시아-유럽 15개국 지수분석을 시작으로

2013년 25개, 2014년 49개국에 이어 2015년 ASEM 전 회원국인 51개국의 친환경 혁신 정책과 제도현황, 기업의 혁신사례 등을 조사하고 평가했다. 영국, 베트남, 태국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가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국가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6) 그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공동으로 설립·운영 중인 GBC는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입주를 유치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친환경 기술교류를 도모한다.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수처리 기술, 태양전지, 에너지 절약 시스템 개발 등 친환경분야 중소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GBC는 입주업체들에게 사무공간과 함께 전문컨설팅과 언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친환경 세미나, 기술매칭 상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ASEIC은 아시아-유럽의 친환경 동반 성장을 위한 가교역할을 ASEM 조직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향후 회원국간 공동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ASEM 중소기업간의 친환경 혁신 및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p>ASEIC 글로벌 포럼</p>	<p>말레이시아 에코비즈니스 매칭 현장</p>	<p>말레이시아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세미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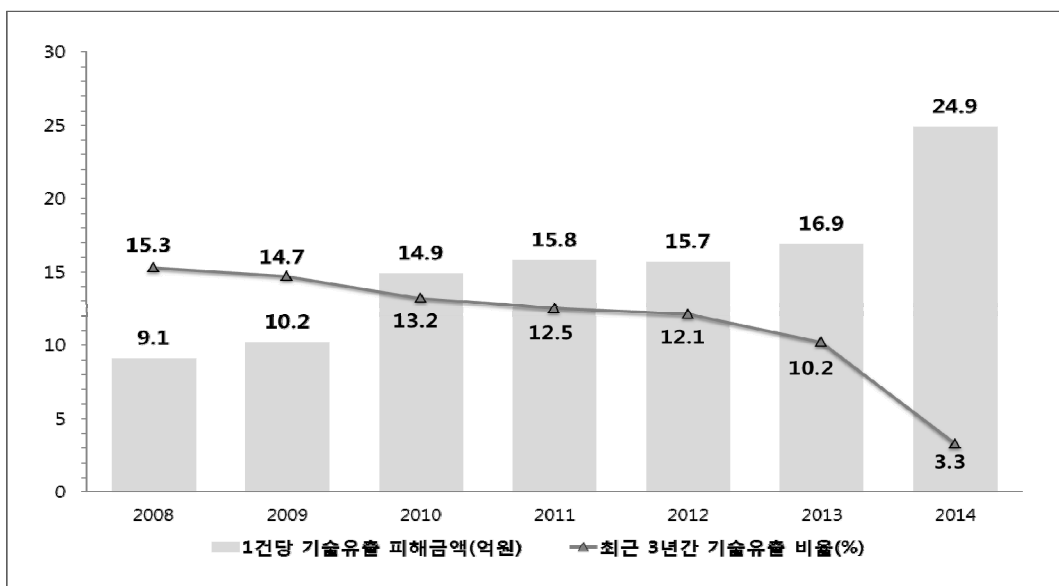
5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화지원

- 기술협력보호과 정 승 국
- 기술협력보호과 이 선 구
- 기술협력보호과 김 승 택

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확대

2015년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12~'14년) 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3%가 기술유출을 경험한 바 있으며,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은 약 24.9억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중기청, 2015)



중소기업 기술유출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거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매출액이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건당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기술유출 피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4년 11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기술보호 기반 확충,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법 시행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중소기업청-특허청)간 업무협력 MOU를 체결('14.12.18)하여 기관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각 기관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소관 정책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기술유용·침해 사건 발생 시 공정위·경찰청의 조사·수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대·중소기업협력재단, '14.12.22)하여 통합지원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16년에는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통합한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산업기술유출, 특허침해, 기술유용·유출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5년 1월부터 법률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부터 조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비용과 조정불성립 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진단·자문,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대응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무료로 진단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안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심화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는 보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연구소 등 퇴직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보안진단, 보안교육, 보안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 기술자료 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임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발생 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고 거래기업 간에는 안정적인 기술사용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지원 R&D 성과물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중소기업청 지원 R&D 성과물에 대해 기술임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기술임치 금고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해 시작한 임치기술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15년 6개사에 총 1,250백만원의 기술담보 대출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기술보증기금 전국 지점과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임치를 이용하여 자금조달, 기술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기술지킴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온라인을 통한 중요기술 유출과 사이버 침해 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무료 보안관제를 제공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의 보안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4)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운영

기술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1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조정·중재 제도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해결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하며,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15년 한해동안 22건의 신청을 받아 4건의 조정 성립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2-3-36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실적(' 15.12월말 기준) (단위 : 개사,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기술보호상담·자문	-	43	387	206	517	898	1,000	617
기술자료임치	26	120	307	618	2,706	5,685	7,161	8,562
기술지킴서비스	-	-	-	253	521	1,019	2,547	4,213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26	27	-	-	-	27	27	43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기술 보호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1)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매년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위(덴마크 2위, 미국 15위, 일본 11위)를 기록하였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는 2015년 조사대상 139개국 중 14위(싱가포르 1위, 미국 7위, 일본 10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IT 인프라의 보급 및 구축 수준에 비해 IT 활용 및 이를 통한 효과나 성과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잘 갖춰진 IT 인프라를 경제발전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5년에는 총 4,214개 기업(중소기업 3,914개, 대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55.95점(100점 만점)으로 대기업(71.08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분야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공통적으로 ‘전략수립’ 및 ‘추진환경’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구축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37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15년)

구 분	정보화수준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활용
대 기 업	71.08 (기업간협력)	86.43	73.82	58.05
중소기업	55.95 (기업내통합)	70.96	57.66	45.44

* 정보화 발전단계 : 정보화도입 → 단위정보화 → 기업내통합 → 기업간협력 → 전략적혁신

* 자료 : 중소기업청

표 II-2-3-38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대 기업	67.64	69.1	71.08
중소기업	50.18	53.21	55.95

2)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및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경영·생산 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 생산정보화 지원을 위한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은 특정 업종이나 단체별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과 간편한 경영관리 솔루션을 발굴·개발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초기 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정보화비용 감축 효과 달성은 물론, 시공간에 자유로운 접근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2015년 12월 말 기준 28개 협·단체, 12,727개사에 대·중소기업간 정보화격차 해소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 및 특화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으며, 4개 협·단체를 선정하여 특화솔루션을 개발중이다.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낭비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제조관련 설비를 보유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주 지원대상이다. 생산현장 정보화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불량률 감소 및 서류작업시간·제조소요시간 감소 등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2,156개사에 생산관리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80개사 시스템 구축지원을 계획 하고 있다.

POP(생산시점관리), MES(제조실행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및 RFID/USN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조, 금형,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대 제조기반 산업의 생산공정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6대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2014년 71개사, 2015년 81개사를 지원하였다.

2013년부터는 한정된 정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금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보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新정보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 등을 위해 기존의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과 IT전문인력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 나가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정보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2-3-39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명,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영혁신플랫폼구축(건)	-	-	-	-	-	7	14	7
생산현장디지털화(개사)	177	155	142	133	129	135	144	146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지식서비스창업과 조 부 식
- 지식서비스창업과 김 용 철

최근 FTA,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경영 및 기술요소의 융·복합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은 기획, 재무, 마케팅, 생산기술, 공정혁신 등 경영·기술 전반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나, 자금,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컨설팅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1999년부터 중소기업이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5년 현재까지 2,01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6,763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I-2-3-40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단위 : 업체,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 원 업 체 수	1,944	1,230	1,295	1,256	1,098	1,092
예 산	219	195	150	128	132	125

* 컨설팅 기반강화 예산은 제외

동 사업은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통해 경영 및 기술 전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정체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조기안정화를 통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3년도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761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2년간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컨설팅 내용 및 과정의 품질 수준은 77.0%, 컨설팅 목표 달성도는 76.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5인 이상)과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컨설팅을 수진받은 기업의 경우, 외형적 성장(매출액, 고용인원)뿐만 아니라, 체질개선을 통한 내실(영업이익, 비용절감 등)을 견고히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3-41 일반 중소기업과 컨설팅 수진 중소기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성과 지표	중소제조업(5인 이상, %)			컨설팅 수진기업(%)		
	2013년	2014년	평균	2013년	2014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4.93	1.72	3.33	24.97	12.00	18.49
영업이익 증가율	5.24	5.18	5.21	30.63	23.24	26.94
비용 감소율	△1.07	△0.47	△0.77	△0.18	1.86	0.84
노동생산성 증가율	△3.64	△12.83	△3.03	16.67	5.88	11.28
고용인원 증가율	8.89	13.89	6.08	13.98	7.01	10.50

* 자료출처 : 중소기업실태조사(중기중앙회), 중소기업성과분석 보고서((주)리서치랩)

그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는 사업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부 최초로 ‘온라인 e-쿠폰제’ 지원방식을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진단 도입, 프로세스 및 운영체계 간소화, 컨설턴트 상대평가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2012년도에는 일률적인 공모를 통한 선정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건강진단을 통한 치유컨설팅을 지원하는 트랙과, 기업이 신청한 과제를 검증·평가하여 지원하는 2-Track 체제로 전환하였고, 기업의 성장단계(지속성장 컨설팅 : 업력 7년 이상, 창업 컨설팅 : 업력 7년 미만)를 고려함과 동시에 지원트랙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사업 효율성과 함께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 : 진단 → 처방 → 치유 컨설팅(연중 수시신청), 수요자선택형 컨설팅 : 신청 → 대면 및 현장평가(PT) → 선정(반기별, 연2회)

또한 한양대, 한성대 등 전국 4개 대학에 「컨설팅대학원 및 R&D센터」를 개설하여 2011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총 483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연간 100여명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컨설팅 기법 및 방법론을 개발·보급 등 지식창출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영세한 중소컨설팅사의 전문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컨설팅 시장의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컨설팅사의 국내시장 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컨설팅사의 내실화 및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컨설팅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최상의 컨설팅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p>중소기업컨설팅</p>	<p>컨설팅대학원</p>	<p>중소기업컨설팅컨퍼런스('15.11.13)</p>

제4절 창조제품 시장수요 확대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 공공구매판로과 이하 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2006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85.5조원으로 최초로 80조원대를 기록하였으며, 총 공공구매액(119.2조원) 대비 71.7%의 점유율을 달성하였다.

표 II-2-4-1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구매실적(조원)	63.0	61.3	79.8	66.9	67.7	72.0	78.8	78	85.5
구매율(%)	65.6	60.7	65.2	64.1	67.8	67.7	69.7	70.0	71.7

우선구매대상인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4년도 여성기업제품구매액은 5.49조원을 기록하였고, 2015년도에는 7.14조원으로 전년대비 30%(1.65조원) 증가하였다.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도입('14.1)으로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공사 구매액의 3%를 여성기업제품으로 각각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율은 법정기준을 초과 달성하였다(물품 6.6%, 용역 7.2%, 공사 5.1%).

표 II-2-4-2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구매실적(조원)	2.59	2.81	3.04	2.36	2.6	3.41	4.48	5.49	7.14
구매율(%)	2.8	2.8	2.5	2.3	3.2	4.0	4.6	4.9	6.0

2015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3.11조원으로 전년대비 18.7%(49백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2% 수준으로 기술개발제품 권장 구매율 10%를 최초로 달성하였다.

표 II-2-4-3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구매실적(조원)	1.37	1.68	2.78	1.37	1.68	2.11	2.54	2.62	3.11
구매율(%)	7.1	6.9	9.3	7.5	8.4	9.2	9.1	9.4	10.2

2015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09조원으로 전년대비 36.3%(2천9백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총구매액의 0.9% 수준으로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구매율인 0.45%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II-2-4-4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구매실적(조원)	0.3	0.21	0.27	0.34	0.68	0.8	1.09
구매율(%)	0.4	0.2	0.27	0.3	0.6	0.7	0.9

2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 공공구매판로과 안 태 용
- 공공구매판로과 이 하 녕
- 공공구매판로과 조 성 규
- 공공구매판로과 정 해 진
- 공공구매판로과 마 경 준
- 공공구매판로과 김 중 길
- 공공구매판로과 정 중 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도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¹⁰⁾’라 하고, 동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체계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¹¹⁾가 폐지 결정된 2006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이 도입되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소액입찰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일반적으로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그 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규정

1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공사 포함)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 단체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1965년 도입하여 2006년까지 시행

표 II-2-4-5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생산 확인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협동조합(적격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 허용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제도(2.1억원 미만 非중기간 물품·용역) - 위장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제도(1억원 미만 非중기간 물품·용역)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중지 명령 제도 도입 - 기술개발제품 종류 확대(9종→13종)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계획 및 직전 연도의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1996년부터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점검해왔으며, 2004년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¹²⁾」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일정 비율(50%)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토록 법제화하였다.

12) 「판로지원법」 제정(’11.5) 이전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규정한 법률

2005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09년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목표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표 II-2-4-6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6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입실적 점검
200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50%) 달성 의무 법제화
2005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5%) 권장
2009년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 상향(5% → 10%)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1999년 69개 기관에서 2011년 282개 기관,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기초 자치단체가 추가로 인해 740개 기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6에는 77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구매계획 및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평가(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85.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총 공공구매액(119.2조원)의 71.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2-4-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년 도	구 분	총 구 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 율(%)
2009		1,222,846	797,556	65.2
2010		1,043,997	669,449	64.1
2011		998,494	677,272	67.8
2012		1,063,598	719,860	67.7
2013		1,130,013	787,956	69.7
2014		1,115,489	780,290	70.0
2015		1,192,070	854,858	71.7

중소기업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과 협의하여 2016년도에는 총 구매액 119.9조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85.7조원 (71.5%),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3.48조원(11.9%)으로 설정하였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각 기관의 조기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표 II-2-4-8 2016년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단위 : 억원)

총 구 매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율	중소기업 물품구매	기술개발 제품구매	비율
1,199,167	857,170	71.5%	288,013	34,846	12.1%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공부문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되고 200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쟁제품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곳 이상 존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동 품목을 구매한 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경쟁제품은 한 번 지정될 경우 3년간 지속되며, 2015년 12월 현재 지정된 207개 경쟁제품의 지정기간은 2013~2015년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향후 3년간(2016~2018년) 적용될 경쟁제품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4개 경쟁제품이 지정되었다.

표 II-2-4-9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

(단위 : 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개수(개)	196	193	202	207	207	204

한편, 2010년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중 일부가 기업을 분할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에 편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분할을 통해 설립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시행되었다.

2015년에는 6만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5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중소기업을 적발하여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기준에 주로 사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초래하여 적정이윤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2006년 중기간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가격을 보장(예정가격의 88%)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며,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4년에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를 개정하여(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 5년)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및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체결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2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통해 수의계약(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2-4-10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적격조합	327	254	228	239	219	209	210	230

2009년 3월에는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상 금액 범위를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G2B(국가조달시스템)를 통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추천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은 총 7,833건(2,951억원)에 대해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63.7%인 4,994건(1,536억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 혹은 수입 제품 등을 납품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및 보훈·복지단체 등과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같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로 주요 생산시설·공정, 최소 필요인력 등으로 확인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업이 이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2010년에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II-2-4-11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접생산확인	16,167	21,512	21,432	13,468	20,796	19,888	23,959	24,017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제조중소기업들이 공사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하청업체로서 단가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조건의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 자재 지정품목(‘15년 현재 123개)’을 공급할 경우에는 직접 발주를 통해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공사업체에 관급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 국무총리 지시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 발주 의무화’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일괄발주 선호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방식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동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자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2-4-1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사용자재	120	120	119	123	123	123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공사품질 저하 우려, 관리인력 부족, 행정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직접구매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2009년 11월에 「관로지원법」을 제정하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재난관련 공사, 국가안보와 관련한 공사 및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구체화하였다.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도입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판로지원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그 추정가격이 일정금액¹³⁾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에서는 영업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가격 1억원이상 2.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르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부여하고, 이 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이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1996년 중소기업청 고시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표 II-2-4-1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6년	중소기업청 고시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006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법령에 상향 규정
2009년	민·관 공동투자 R&D, 녹색인증, 우수조달 공동상표 추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 개발선정품 추가
2015년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추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대상은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GS제품, 조달우수물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6종이었으나, 2013년 6월에 민·관 공동투자R&D(공공부문)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특허권자에 한함)을 추가하여 9종으로 늘었으며, 2014년 2월에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제품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을 추가하여 13종으로 늘었으며, 2015년 5월에 ICT 융합품질인증제품을 추가하여 총 14종에 이르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GS제품, 조달우수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등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구매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구매책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지표로 반영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는 지방공기업 정부권장정책 평가에도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6천억 원에 불과했던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2015년도에도 3.1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2-4-1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금액	2.1	1.4	1.7	2.1	2.5	2.6	3.1

성능인증은 앞에서 언급한 기술개발인증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이 검사하고, 성능에 대해 확인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 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 II-2-4-15 성능인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능인증	249	279	280	288	361	364	346	387

한편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보험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능보험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자체 교체 또는 수리가액을 보상하며 서울보증보험, 자본제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표 II-2-4-16 성능보험 계약 현황

(단위 : 건, 개,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약건	31	35	48	34	3	2	11	22
업체수	15	11	4	6	2	2	11	15
계약금액	8,651	6,136	3,030	2,366	912	32	2,767	25,769

또한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제품의 정확한 가격산출을 위한 원가계산비용 지원 사업과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능검사비용을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2009년 7월 시작하였으며, 두 사업은 각각 소요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동 지원사업으로 2015년에는 66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I-2-4-17 성능검사·원가계산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체수	120	145	173	198	104	122	66
지원금액	238	287	333	408	250	247	110

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종합정보망에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신용평가 등급 등 각종 정보와 기술개발제품 정보가 제공되며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와 공공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동 정보망을 이용하는 인원은 2006년 511천명에서 2015년에는 3,408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입찰정보 제공 건수도 2006년 51천 건에서 2015년 919천 건으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업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자리잡았다.

표 II-2-4-18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단위 : 천명, 천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접속자수	2,187	3,480	3,390	3,464	3,718	4,228	3,408
신규입찰정보	501	531	598	607	637	909	919

그동안 계약이행능력심사 온라인 처리,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차.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업무 담당자를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각 1명씩 총 778명이 지정되어 있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계약의 적절성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2-4-19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 중기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

중소기업청은 소속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통해 각 공공기관별 입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위반한 입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이행 여부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 모니터링, 시정권고,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11년 이후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률이 90% 수준으로 높아졌다.

표 II-2-4-20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행률(A=C/B×100, %)	86.5	94.7	97.4	91.5	91.3	9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적발 건수(B,건)	571	1,877	1,872	2,475	2,213	1,48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정 건수(C,건)	494	1,777	1,825	2,264	2,021	1,365

상시 모니터링 외에, 중소기업청은 연 1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도를 자주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2014년 180개에서 2015년 210개로 확대하였다.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공공구매 촉진대회

제도 순회설명회

3 창조혁신제품 마케팅지원

- 공공구매판로과 정 선 욱
- 공공구매판로과 김 호 진
- 공공구매판로과 안 준 기

최근 유통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대기업의 시장 과점화 심화로 중소기업 제조사의 유통시장 접근성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상위 3사 시장점유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84.5%, 대형마트 93%, 편의점 74.5%로 대기업이 소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매비중은 91.6%로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형 유통업체인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판매망 의존도가 아주 높은 실정이다.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힘입어 신설법인 및 창조적 혁신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의 5년후 생존율은 29.6%로 생존능력이 취약하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은 ‘만드는 것’ 보다 ‘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 창업 및 기술개발을 통해 창조적 혁신제품을 생산하고도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소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창조경제의 바람직한 생태계는 ‘아이디어 → 제품개발 → 사업화 → 판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그간 정부지원은 R&D·투자 자금 등 요소공급에 선택집중하여 창조적인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판로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수요 견인형 시장조성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창조적인 상품의 시장진입이 활발하고, ‘사업화 → 판매 → 이윤창출 → 투자’로 이어지는 창의성이 보상 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선별하여 시장조사, 홍보, 공동상표 지원 등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제품은 TV홈쇼핑 시장을 중심으로 “혁신제품 통합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초기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가.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창업초기 신기술 및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고도 시장성 및 소비자 반응, 제품 분석 등 마케팅 전략 부재로 초기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 창업제품이 시장의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과 시장 분석의 선행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수준은 낮고 자금 및 마케팅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조사 등 사전적 마케팅을 직접수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2014년부터 마케팅 실행력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코칭, 상품성 향상, 실무교육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내역사업인 마케팅 전략수립은 유통대기업의 현업 상품 기획자(MD), 컨설턴트 등의 마케팅 전문가가 상품기획 코칭 및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개선은 제품 성능, 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실질적인 상품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년간 600개사가 동 사업에 참여하여 브랜드 컨셉 개발, 제품 개선 강화, 유통망 입점 연계 등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중소기업도 마케팅 인식이 높아지고 자체적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기회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표 II-2-4-2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실적

연 도	2014년	2015년
예산(백만원)	200	2,960
지원업체수	100	500

앞으로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조적 혁신제품 발굴부터 유통망 진출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공중파 TV 방송,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우수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기회 확대와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대상은 제품의 우수성을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제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품, 시장성이 뛰어난 아이디어 제품을 선별하여 판촉·홍보를 지원한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 수요에 맞추어 효과성이 높은 매체 위주로 홍보를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을 장점으로 온라인 마케팅 매체로 급성장하고 있는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SNS,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GS, CJ, 롯데, 현대 등 TV 홈쇼핑 4개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중기제품 무료방송을 지원하는 등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실질적 판매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그간 방송, 신문, 잡지, 블로그 등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5,045개 제품을 홍보하고, 소셜커머스 및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4,343개 제품의 실질적 판촉·홍보를 지원 하였다.

표 II-2-4-22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 (백만원)	홍보실적(제품)			SNS 교육
		언론매체 (방송 신문 잡지, 블로그)	소셜커머스 판매 및 홍보	TV 홈쇼핑	
2010년	900	187회, 683 제품	-	-	-
2011년	1,860	208회, 816 제품	261 제품	-	6회 281명
2012년	1,226	218회, 807 제품	660 제품	-	8회 350명
2013년	1,928	372회, 596 제품	1,223 제품	67 제품	-
2014년	2,150	395회, 653 제품	1,139 제품	55 제품	-
2015년	3,150	435회, 682 제품	1,528 제품	58 제품	-

다.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중소기업의 원활한 유통채널 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 검증 및 전시·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체 판매장 개설이 힘들거나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개설하여 창업 및 초기 혁신제품의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갤러리아 등 시내면세점 2개소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내 1개소의 매장을 추가 개설하는 등 유동고객이 많은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말 기준으로 1,944개 업체의 21,905 품목을 입점시켜 5,880백만원의 매출 성과와 초기제품의 시장검증 및 전시·홍보를 지원 하였다.

표 II-2-4-23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아임쇼핑) 운영현황('15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오픈일	매장면적	판매액	지원업체 수	비고
면 세 점	인천공항 서편면세점	'12.6.27	76	1,243	180	
	인천공항 동편면세점	'15.11.6	42	117	53	신규
	인천2항 면세점	'14.12.18	116	86	133	
	워커힐 면세점	'15.5.28	30	242	54	신규
	갤러리아 면세점	'15.12.28	50	-	53	신규
교 통	인천1항 여객터미널	'12.12.21	59	79	165	폐점('15.12)
	KTX부산역사	'13.2.5	42	1,074	189	
공 동	명동	'13.5.9	299	776	217	
	청주	'13.12.26	422	212	83	
하 나 로	하나로 삼송점	'14.12.5	99	273	128	
	하나로 양재점	'14.12.10	83	382	114	
휴 계 소	화성휴게소(목포행)	'11.12.1	165	393	119	
	금산휴게소(하남행)	'11.12.1	59	383	114	
	칠곡휴게소(부산행)	'11.12.1	50	239	117	
	진영휴게소(순천행)	'12.10.2	53	164	106	폐점('15.12)
	경주휴게소(부산행)	'13.7.12	49	217	119	
합 계			1,694	5,880	1,944	

라.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랜드 지원

혁신활동을 통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한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 제조업의 총 매출액 608조원 중 내수 판매 매출액은 90.3%인 547조원이나 그 중 자사의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하고 판매한 것은 9.5%인 51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전담인력과 자금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 및 홍보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에 기인한다.

공동상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함에 따라 비용절감 및 품질 개선, 자기상표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 확대 등과 같은 마케팅의 이점과 생산·기술 등을 공유하는 전략적 제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판로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개발·홍보 촉진을 위해 5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할 경우 상표개발에 따른 비용의 70%와 개발된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비의 70%를 지원한다.

2009년부터 6년간 브랜드 개발에 29개, 개발된 브랜드의 홍보에 59개를 지원하였다. 브랜드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6%, 브랜드 인지도 향상 92.9%, 평균 비용절감율 12.1% 등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2-4-24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연도별 지원실적

연 도	예 산(백만원)	개발지원(개)	홍보지원(회)	공동브랜드 종합대전
2010년	1,220	4	10	102개 브랜드, 252개 부스
2011년	2,190	3	13	100개 브랜드, 250개 부스
2012년	1,790	3	9	-
2013년	749	3	9	-
2014년	1,096	8	10	-
2015년	961	8	8	-

마.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제품의 핵심 수요처인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 및 구매기관 등과의 직접거래를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구매상담회·특별판매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및 판매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매상담회 세부 지원내용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직접 개최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개별 기업이 직접 입점하기 힘든 대형 유통업체의 구매 담당자와 상담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입점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회·단체의 구매상담회 개최지원을 통해 부품, 중간재, 환경재, 산업재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특별판매전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직접 매출성과를 시현하며 판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때, 정부는 구매상담회의 경우 총 소요경비에서 70%이내, 25백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판매전의 경우는 80%이내, 15백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09년 이후 구매상담회 81회, 특별판매전 254회 개최를 지원하여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수요처가 없어 판매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판매장 입점 기회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2-4-25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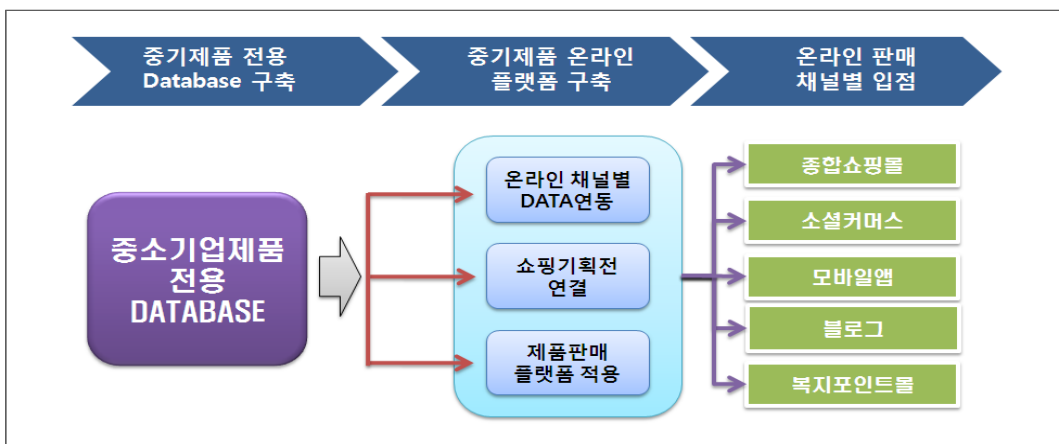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회)

연 도	예 산	전문전시회	구매상담회	특별판매전	대형유통망 상담회
2010년	900	5	7	20	-
2011년	800	-	6	69	6
2012년	1,210	-	5	82	7
2013년	866	-	16	43	6
2014년	838	-	10	22	6
2015년	838	-	8	18	4

바.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및 홍보·판촉 등 온라인 시장진입에 필요한 판매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14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개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접근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 및 발주·배송·CS관리 등 판매를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2015년에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오픈마켓, 종합몰 등 인터넷 쇼핑몰과 시스템 연동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온라인 시장진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의 상품 판매기획전 개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품개발자(MD)에게 우수 혁신제품 기획 제안 등으로 실질적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성과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상세페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 쇼핑몰에 입점등록·판매 되며, 홍보동영상은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업로드 하여 개별기업의 제품을 홍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제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가능한 일반소비재 완제품이며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및 산업재·부자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II-2-4-26 온라인 판로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개)

연 도	예 산	상세페이지	홍보동영상	비 고
2014년	1,500	2,000	90	-
2015년	2,300	3,000	162	-

사. 중소기업 공동 A/S지원

백화점, TV홈쇼핑 등 민간의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판매이후 A/S 문제 해결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은 판로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하여 A/S 대응 한계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6년 7월부터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 A/S지원은 공동 A/S콜센터와 전국적 A/S망, 택배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제품의 A/S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판로확대를 꾀하고 있다.

표 II-2-4-27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추진경과

연 도	내 용
2006년	중소기업공동A/S콜센터 시범운영
2009년	A/S콜센터 사업과 A/S센터사업 통합·운영
2013년	전국 156개 A/S망, 3개 택배센터, 502개사 참여
2014년	전국 193개 A/S망, 1개 택배센터, 708개사 참여
2015년	전국 142개 A/S망, 1개 택배센터, 738개사 참여

참여 대상기업은 국내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등 13개 지원제품군에 해당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일회·소모성 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적은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2010년부터 총 2,355개 업체가 참여하여 10,018건의 A/S콜상담과 674천건의 A/S처리를 지원 하였다.

표 II-2-4-28 중소기업 공동A/S 지원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참여업체수	120	133	154	502	708	738	
A/S 콜수	총콜수	272,158	304,251	451,455	1,974,506	3,431,721	3,584,174
	월평균	22,679	25,368	37,621	164,542	285,977	298,681
A/S 처리	14,335	22,724	36,823	49,108	182,577	368,302	
예 산	20	20	25	135	90	90	

앞으로 확대된 A/S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A/S역량교육,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 A/S대행 처리기관의 생산성 향상, A/S처리 결과의 환류 등 내실화를 통해 질적 성과창출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MRO) 종합지원센터 운영

소모성자재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및 경쟁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년 7월 25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였으며, 동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1월 MRO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정책지원 대상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구매대행업체로서 사무용품, 공구류, 건설자재, 통신·보안 등 17개 제품군으로 하되, 대규모 자재구매 대행업체는 제외하고 있다.

MRO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시장규모, 공공기관의 구매동향 등 일반적 현황과 함께 관련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납품업체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현장방문 코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MRO 상담 및 정보 제공, 공동 MRO물 운영 등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에게 공공시장 및 민간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원 업체수는 1,752개사이고, 판로지원 금액은 53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2-4-29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

연 도	예 산	지원업체	판로지원액	비 고
2012년	1,000	338	1,699	실태조사(1,400개)
2013년	1,000	721	3,021	-
2014년	636	297	626	실태조사(3,608개)
2015년	636	396	-	-

자. 공영홈쇼핑(채널명 : 아임쇼핑) 통한 판로지원

TV홈쇼핑은 상품판매와 동시에 광고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좋은 판로이다.

이로 인해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TV홈쇼핑 입점판매와 홍보를 가장 선호하며 홈쇼핑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사는 대기업·수입제품과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검증된 기존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창업 및 혁신기업의 초기제품이나 농수산 식품은 홈쇼핑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디어 창의혁신제품을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업계 최저 판매수수료율 23%를 적용하는 ‘공영홈쇼핑(채널명 : 아임쇼핑)’ 채널을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개국하였다.

공영홈쇼핑은 타 홈쇼핑사에 비교하여 20번대 하위채널 사용, 대기업·수입제품 판매금지,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100% 취급하는 등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총 5,867억원의 주문 매출실적을 올리며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개척 유통망으로 빠르게 안착해 가고 있다.

표 II-2-4-30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연 도	2015. 7.14~12.31	2016. 1. 1~6.30	합 계('15.7~'16.6)
주문 매출액	2,193	3,674	5,867
상품수	789	900	1,689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제품, 벤처기업 신제품 등 210개의 창의혁신 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53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창업· 혁신기업 사업화 초기제품의 시장진입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p><아임쇼핑 매장 개소 '15.10.14></p>	<p><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구축, '15.12.1></p>	<p><공영홈쇼핑 개국 '15.7.14></p>

제5절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1 수출 현황

● 해외시장과 이 지 은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11년 1,016억불(21.1%), 2012년 1,029억불(18.8%), 2013년 955억불(17.1%), 2014년 1,033억불(18.0%) 이었으며, 2015년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033억불(18.0%)을 기록하였다.

수출중소기업은 2011년 83천개, 2012년 86천개, 2013년 88천개, 2014년 88천개, 2015년 89,364로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다.

표 II-2-5-1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개,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수출액	555,214	547,870	559,632	572,665	526,901
중소기업수출액 (비중)	101,560 (18.3)	102,872 (18.8)	95,492 (17.1)	103,292 (18.0)	96,432 (18.3)
수출기업수	82,833	86,207	87,865	88,486	89,364

* 2011년의 경우 관계기업 제도 시행(2011.1)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비중 감소

* 2015년 수출통계치는 잠정치임 (이하 동일)

2014년과 2015년의 기업규모별 수출을 보면, 대기업은 수출액은 11.1% 감소하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은 2.2%로 비교적 적은 폭으로 수출이 감소한 추세이다.

표 II-2-5-2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구 분	전체	중소기업 (비중,%)	중견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기타 (비중,%)	
2014년	업체수	119,682	88,486(73.9)	2,168 (1.8)	786(0.7)	28,242(23.6)
	수출액	572,665	103,292(18.0)	90,102(15.7)	378,355(66.1)	916(0.2)
2015년	업체수	123,757	89,364(72.2)	2,275(1.8)	737(0.6)	31,381(11.1)
	수출액	526,757	96,227(18.3)	92,853(17.6)	336,667(63.9)	1,009(0.2)

2014년 국가별 수출액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FTA의 영향으로 미국, 아세안, EU 지역의 수출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중국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표 II-2-5-3 국가별 수출액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14년		2015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증감
중국	22,986	22.3	22,056	22.9	△4.0
미국	11,391	11.0	10,860	11.3	△4.7
일본	10,089	9.8	8,840	9.2	△12.4
베트남	7,305	7.1	8,442	8.8	15.6
아세안	17,995	17.4	18,337	19.1	1.9
EU	8,454	8.2	7,446	7.7	△11.9

자료 : 중소기업청, 관세청,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015년도 주요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이며, 2014년 상위 10대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만 소폭 증가(1.9%)하였고 비누치약 및 화장품은 63.0%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2-5-4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감
1	플라스틱 제품	5,683	5.5	플라스틱 제품	5,475	5.3	△3.7
2	자동차 부품	5,564	5.4	자동차 부품	4,818	4.7	△13.4
3	합성수지	3,860	3.7	합성수지	3,395	3.3	△12.0
4	반도체	3,114	3.0	반도체	2,717	2.6	△12.7
5	편직물	2,865	2.8	무선통신기기	2,683	2.6	1.9
6	무선통신기기	2,634	2.6	편직물	2,462	2.4	△14.0
7	기계요소	2,595	2.5	비누치약및화장품	2,230	2.2	63.0
8	기타기계류	2,260	2.2	원동기및펌프	2,223	2.2	4.6
9	자동차	2,248	2.2	기타기계류	2,197	2.1	△2.8
10	철강판	2,214	2.1	기계요소	2,167	2.1	△16.5

주 :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MTI 3단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관세청

2 수출역량별 맞춤지원

- 해외시장과 고 완 육
- 해외시장과 정 운
- 해외시장과 이 지 은
- 해외시장과 흥 경 의
- 기업혁신지원과 양 희 춘

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운영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에 따라 무역교육, 홍보 및 제품 디자인,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2010년까지는 수출 100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만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추진되어오다가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지원 대상을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까지 확대하고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으로, 그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총 8,204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이 6.8%에 감소하였으나 지원기업의 수출증가율은 3.5%를 기록하고, 내수기업의 36.7%가 수출에 성공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I-2-5-5 수출역량강화사업(舊 수출기업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백만불)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 산	240	254	380	380	410
지원업체	1,448	1,589	1,777	1,831	1,519
수출실적	880	2,165	3,273	2,840	1,562

* 2012년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의 수출실적 포함

표 II-2-5-6 수출역량강화사업(舊 수출기업화사업) 성과

(단위 : 개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평균)
지원기업	1,488	1,589	1,777	1,831	1,519	8,204
지원기업 수출증가율	70.9	10.6	25.8	26.7	3.5	(27.5)
지원기업 중 내수기업	356	343	342	331	297	1,669
내수기업 중 수출성공기업	126	108	116	123	109	582
내수기업 수출성공률	35.4	31.4	33.9	37.2	36.7	(34.9)

* 수출증가율의 평균은 증가율에 대한 산술적인 평균수치이며, 통계적 평균과는 상이함에 주의

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R&D,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강소기업('11~)과 지역 강소기업('14~) 사업은 기업규모 등 요건 측면에서 유사함에 따라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두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II-2-5-7 글로벌강소기업 및 지역강소기업 선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글로벌강소기업	81	110	102	140	55	121	609
지역강소기업	-	-	-	23	72	-	95

신청요건은 매출액 100억원(소프트웨어부문은 25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으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이상, 3년 평균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이거나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8% 이상인 유망 중소기업이다. 2016년 2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였고 16개 지자체의 121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14.10)에 따라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편되어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강소기업이 전용 R&D 및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등 지원을 통해 2011년부터 총 38개사가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 (‘11) 3개사 → (‘12) 3개사 → (‘13) 9개사 → (‘14) 8개사 → (‘15) 15개사

표 II-2-5-8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 산	42	40	32	50
지원업체	125	175	198	165
수출증가율*	9.7	17.6	2.8	0.05

* 수출증가율은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은 ‘15년말 유효기업 기준

다.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 강화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말 현재 51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 총 교역의 61.5%를 FTA 발효국과 교역하고 있다. FTA협상이 타결·진행중인 일본, 콜롬비아 및 한-중-일, RCEP, 한-중미 FTA 등 다자간 FTA까지 모두 발효될 경우 FTA 체결국과의과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74.6%, 교역비중은 70.5%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확대,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 긍정적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 수출·FTA 컨설팅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에 대한 맞춤형 FTA 교육('15년 8,789명), 중소기업의 FTA 및 수출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15년 825개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위한 ERP시스템과 원산지관리프로그램(FTA-PASS, KOREA 등)간 연계모듈 구축('15년 29개사), FTA활용 성공사례집과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는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FTA 체결국에 대한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등 무역사절단을 파견('15년 135회)하고, 체결국의 환경규제, 기술표준 등에 대한 인증획득 등을 지원('15년 3,001건)하고 있다.

정부는 한·이스라엘 FTA 체결 등 양자 FTA, 한·중·일 FTA, 한·중·미 FTA, RCEP 등 다자 FTA 체결 추진과 더불어 향후 몽골, 이집트 등 FTA 미체결 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FTA 발효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망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수출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1)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998년 12월부터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도에 총 14개의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4개 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공무원, 수출전문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수출지원기관을 한데 모아 원루프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편키로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정되고, 무역투자 진흥회의(2013.5월) 및 대외경제장관회의(2013.5월)를 통해 확정되었다.

동 계획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의 5대 광역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단을 설치하고, 15년까지 경기, 인천, 울산, 전북 등 9개지역에 지원단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접점을 확대하였다.

표 II-2-5-9 수출지원센터 구성 현황

(단위 : 건, 개사)

구 분	중기청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계	코트라	중진공	소계	
서울	4	1	1	2	8	-	-	-	8
부산	2	1	1	-	4	16	3	19	23
대구·경북	3	1	1	-	5	21	6	27	32
광주·전남	2	1	1	-	4	10	3	13	17
경기	4	3	1	1	9	48	6	48	63
경기북부	1	1	1	-	3	-	-	-	3
인천	3	1	1	1	6	15	4	19	25
대전	4	1	1	-	6	18	4	22	28
울산	2	1	1	-	4	13	4	17	20
강원	2	1	1	-	4	7	2	9	13
충북	4	1	1	2	8	-	-	-	8
전북	4	1	1	-	6	8	3	11	17
경남	3	1	1	3	8	-	-	-	8
제주	2	1	1	1	5	-	-	-	5
소계	40	16	14	10	80	156	35	185	270

표 II-2-5-10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단위 : 건, 개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장수출애로	2,305	2,023	3,276	4,124	4,862
수출유망기업 지정·관리	1,094	1,149	1,068	893	732
수출역량강화(舊수출기업화)	1,488	1,589	1,777	1,835	1,519

2) 수출중소기업 외국어(통번역) 지원

아직 수출을 해 보지 못한 내수기업이나 수출초보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도, 바이어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등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는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1997년 7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외국어(통·번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어·일어 등 총 18개 언어에 대하여 언어 구사능력 및 무역실무능력을 갖춘 100명의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수출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에 바이어 상담, 외국어 수출계약서 작성, 제품 카탈로그에 대한 외국어(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 시행 이래 2015년까지 3,339개사에 16,941건의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여 125건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약 3,500개사에 18,500건의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2-5-11 외국어 통·번역 지원 현황

(단위 : 건, 개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지원(건)	12,252	15,941	15,818	18,031	16,941
지원기업	2,225	2,576	2,741	3,172	3,339

		
<p>〈2016년 수출기업화사업설명회 개최(5.12)〉</p>	<p>〈2016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수여식(6.29)〉</p>	<p>〈2016년 글로벌강소기업 선정기업 사업설명회(6.10)〉</p>

3 해외진출기반구축

- 해외시장과 박 승 호
- 해외시장과 임 상 규
- 해외시장과 김 창 민
- 해외시장과 송 승 현

가. 무역촉진단 파견

1)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은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 수출촉진 사업의 하나이다.

1998년도부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대만,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도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이다.

해외전시회와 시장개척단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단체가 주관이 되어 미국·EU 등 FTA 체결국가, 중국 및 중동·동남아 등 틈새시장에 파견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초 지원을 시작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970개사를 지원하여 2015년까지 104.7억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해외전시회 176회, 시장개척단 4회 등 총 180회 2,900개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그 간의 성과로 지원예산도 1998년 10억원에서 2015년에는 198억원으로 대폭 확대 되었으며, 전시회 참여기업은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경비의 50% 지원하며, 시장개척단 참여기업은 상담장 임차료,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를 업체당 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컨소시엄 지원

2008년도부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현지 마케팅 전문기업 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개척단과는 달리 타깃시장에 대한 진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 마케팅활동,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사업추진 기간도 10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총 173개 컨소시엄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까지 수출성과도 651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지역 수출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중심의 지역무족단 및 주관단체별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제 등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수출촉진의 주요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표 II-2-5-12 무역촉진단 파견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외전시회	115회(2,277)	108회(2,026)	149회(2,711)	147회(2,443)	155회(3,604)
시장개척단	12회(317)	24회(382)	20회(228)	31회(329)	7회(76)
수출컨소시엄	14회(152)	13회(137)	26회(289)	26회(344)	36회(329)
계	141회(2,746)	145회(2,545)	195회(3,228)	204회(3,116)	199회(4,009)

나.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14년까지 총 1,150여개 기업을 지원하여 283백만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도부터는 기업 및 업종 특성에 맞게 사업을 과제공모형식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홈쇼핑 해외 플랫폼 활용, 현지 사무공간 및 물류창고 공동활용 등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였다.

2015년도에는 K-POP 공연과 연계하여 한류를 활용한 중기제품 마케팅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온라인 몰에 ‘한국 중기제품 전용관’을 구축 하는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며 지원기업도 2014년 600개 기업에서 2015년 1,00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표 II-2-5-1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외전시회	1회(3)	2회(15)	7회(92)	6회(63)	8회(91)	11회(102)
수출상담회	4회(68)	4회(70)	7회(93)	6회(61)	6회(80)	9회(121)
홈쇼핑지원	-	-	-	1회(32)	3회(200)	9회(580)
해외인프라활용	-	-	-	2회(43)	6회(149)	13회(308)
한류연계	-	-	-	-	2회(91)	5회(147)
계	5회(71)	6회(85)	14회(185)	15회(199)	25회(611)	47회(1,258)

* 주 : ()안은 참여기업 수

다.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최근 EU,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세계 각지에서 일고 있는 한류로 인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확산 등으로 글로벌 유통환경에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B2C 수출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B2C)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및 홈쇼핑 등 해외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유통망 진출이 관건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013년부터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우수 중기제품의 발굴 → 현지화 지원 → 중기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온라인 및 홈쇼핑 진출, 해외 유통망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활용 지원, 해외 현지에서의 물류 및 AS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프로세스별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림 15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도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2만 3천여개 우수상품 DB를 구축하여 총 3개국 5개 전시판매장에 518개사 2,251개 품목을 입점하여 판매하였다. 특히 원활한 상품공급 및 재고 관리를 위해 전시판매장 설치 지역 2개소(뉴저지, LA)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유통업체·벤더 등 현지 바이어 발굴을 위해 온라인 판매, 홈쇼핑, 특판전,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였다.

표 II-2-5-14 수출 유망상품 DB 구축 현황

(단위 : 개)

구분	패션의류·잡화	가구·리빙·건강	화장품·식품	컴퓨터·디지털·가전	유아동·취미·애견·문구	스포츠·자동차	합계
제품수	6,074	4,811	5,288	2,829	3,280	673	22,955

표 II-2-5-15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 현황

구 분	미국		중국		베트남 호치민
	뉴저지	LA	베이징	정저우	
개소	'12.12	'13.11	'14.1	'14.12	'14.12
위치	Garden State Mall (48평)	Beverly Hills (77평)	롯데마트 공익서교점 內 (43평)	데니스 쇼핑몰 (28평)	롯데마트 땀빈점 (37평)
입점	102개 기업 266개 품목	168개 기업 240개 품목	136개 업체 786개 품목	69개사 447개 품목	43개사 512개 품목

특히 2014년부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B2C) 진출 지원을 위해 라쿠텐, 아마존, 이베이, 쿠팡,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지원하는 ‘해외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판매전문 기업이 상품페이지 제작, 쇼핑몰 등록, 홍보 마케팅, 배송, 사후관리 등 온라인 판매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4년에는 1,028개사 7,506 제품이 '15년에는 1,543개사 9,416제품이 입점하여 각각 108억원, 433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해외민간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민간네트워크는 2001년에 미국, 일본, 중국 등 11개 지역에 20개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51개국 146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여 276개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표 II-2-5-16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네트워크	75	80	95	115	131	132	135	143	146
설치국가	27	27	29	34	38	43	50	49	51
지원업체	208	241	330	300	416	428	353	285	276

동 사업은 해외 현지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지 경험을 토대로 제품 수출부터 현지 진출까지 다양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50% ~70%를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진출 지역별로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지역은 최고 2,000만원, 동서남아, 기타 중남미 등은 최고 1,7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하여 지원한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을 통해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769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그 동안 수출 5,393백만 달러, 투자유치 37백만 달러, 현지법인 설립 331건, 기술협력 계약체결 399건 등 수출 형태별로 다양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2-5-17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성과

(단위 : 백만불, 건)

구 분	'01~'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누계
수출실적(백만불)	2,245	354	372	552	577	565	449	279	5,393
법인/지사설립(건)	211	19	14	25	12	14	19	17	331
투자유치(십만불)	17.8	0.6	1.5	1.7	0.2	1.2	0.3	14.0	37.3
기술협력 (건)	289	21	18	20	18	9	14	10	399

마.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공 및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회계·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8년 미국 시카고센터를 기점으로 2003년에 미국(워싱턴, LA),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북경, 광주), 일본(동경), 2004년에 베트남(호치민), 브라질(상파울로) 2006년에 뉴욕, 상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2007년 청두, 2008년 멕시코시티에 수출인큐베이터를 개설하고, 2014년에 중국 시안, 카자흐스탄 알마티, 베트남 하노이에 신규 개설하여 현재 12개국 20개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현재 279개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2-5-18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단위 : 개)

지역	미 국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UAE	독 일	카자흐스탄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상파울로	멕시코 시티	모스크바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알마티
설치시기	2006.2	1998.9	2004.3	2003.11	2004.11	2008.3	2006.9	2006.11	2000.4	2014.11
입주규모	23개	18개	12개	23개	10개	9개	10개	6개	15개	7개

지역	일 본	중 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도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뉴델리
설치시기	2004.3	2002.8	2006.5	2003.11	2007.12	2014.4	2004.12	2014.7	2006.8	2006.11
입주규모	15개	21개	26개	14개	10개	7개	12개	15개	10개	16개

신규 입주기업들은 기존 입주업체들로부터 현지 시장에 대한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입주업체 간에 상호 정보교류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한국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해 있어 해외바이어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는 등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양적 확대와 함께 기능강화 등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내륙 및 신흥시장 중심의 신규 개설 및 기존 BI의 국가별·기능별 특성화 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해외민간네트워크 및 KBC(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등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마케팅 사업의 연계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II-2-5-19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단위 : 개, 천달러)

국 가	지역	개소시기	수출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 국	뉴욕	2006.2	12,504	25,501	11,088	39,713	22,660	51,677
	시카고	1998.9	38,048	39,483	31,867	41,250	45,039	25,054
	워싱턴	2004.3	14,789	7,104	2,075	14,569	15,319	12,500
	LA	2003.11	21,205	59,205	25,023	16,074	47,046	72,389
브라질	상파울루	2004.11	3,085	47,373	53,682	55,199	48,619	1,101
독 일	프랑크푸르트	2000.4	54,202	57,844	37,980	48,256	38,816	36,859
일 본	도쿄	2004.3	18,525	20,771	22,156	26,031	28,794	31,415
중 국	베이징	2002.8	30,031	36,019	36,727	15,656	36,600	38,125
	상하이	2006.5	28,219	34,184	57,786	76,320	130,795	91,349
	광저우	2003.11	18,159	50,335	43,720	14,020	10,842	16,826
	청두	2007.12	16,750	16,481	6,866	28,305	29,524	96,084
	시안	2014.4	-	-	-	18,988	18,988	6,197
베트남	호치민	2004.12	1,616	7,261	2,705	16,225	48,843	54,045
	하노이	2014.7	-	-	-	13,554	13,554	16,048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6.8	7,639	22,696	57,029	21,320	9,192	15,661
러시아	모스크바	2006.9	2,522	2,641	4,772	11,973	16,255	26,846
UAE	두바이	2006.10	22,089	11,370	8,868	25,142	28,002	30,134
인 도	뉴델리	2006.11	31,939	23,280	25,865	7,806	27,427	22,611
멕시코	멕시코시티	2008.3	10,582	9,647	14,129	14,828	16,444	18,818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4.11	-	-	-	-	-	865
12개국	20개소	-	331,904	471,195	442,338	505,229	632,759	664,604

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세계 각국이 국민의 안정과 산업보호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등의 제정과 함께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등 무역기술장벽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수출업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 획득비용 부담, 획득기간 지연 등이 이유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신청, 제품 시험 등 인증획득 비용에 소요되는 일부 자금 및 기술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제를 지원하는 등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해외규격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심화되어 2010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대상이었던 수출 1,000만달러 이상 기업도 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확대하고, 현재에는 수출 5,000만달러 이하 기업까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인증획득 전후의 수출 평균증가액을 보면 2013년 234천불, 2014년 63천불의 성과가 나타났다.

2013년에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2015년에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규격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CE, NRTL, FCC 등 241개 분야의 인증획득을 지원하였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인증획득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비용·고부가가치 인증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대폭 지원을 확대하였다.

표 II-2-5-20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예산	100	100	206.9	132.6	164.6
지원인증	3,098	2,959	3,706	3,416	3,001

최근 동시다발적 FTA체결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규격인증의 집중 강화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출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p>〈베이징 정책매장 점검 (1.19, 베이징)〉</p>	<p>〈KCON 2016 JAPAN 수출상담회(4.8, 도쿄)〉</p>	<p>〈수출인큐베이터(BI) 방문 (6.17, 뉴욕)〉</p>

4 국제협력 추진

- 해외시장과 **홍 경 의**
- 해외시장과 **조 흥 미**
- 해외시장과 **이 흥 열**

FTA, WTO 확대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경쟁의 심화라는 위기를 제공 하였다.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중국 베이징)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타결이 선언되어 우리나라는 미·중·EU 등 글로벌 3대 경제 권과의 FTA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간 중소기업협력 MOU 체결, 고위급 교류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가. 양자협력 활동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진출국가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진출국, FTA 체결국 이외에도 신흥성장국 등과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쿠웨이트, 브라질, 칠레, 덴마크, 헝가리 등 5개 국가와 중소기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양국정상 임석하에 MOU가 체결되는 등 그간 상대적으로 교류가 미미했던 중남미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2016년에는 MOU 후속조치 추진에 따라, 해외협력관 파견,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등 해당지역과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육성 지원정책은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 한 해 동안 에디오피아, 태국, 터키 등 18개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협력강화 논의 및 벤치마킹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였다.

나. 다자협력 활동

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활동

APEC 내 중소기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참가하여 APEC 회원국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우수 정책을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하조직인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SME Working Group Meeting)에도 중소기업정책 실무자가 매년 2회 참가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PEC 회원국 간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대구에서 중소기업 혁신 촉진이라는 주제로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구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장관회의 각료들은 동 제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여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화함으로써, 한국은 APEC 역내에서 혁신 주도 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설립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공식 개소되었으며, 그 후 2009년 1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동 센터가 이관되었다.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는 매년 APEC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기금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PEC 협력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 10월, 일본 기후에서 개최된 제17차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녹색기술’이란 제목으로 국가간 녹색기술 교류, CDM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하여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2005년에 ‘대구 이니셔티브’ 1주기(2006년~2010년)의 성공적 수행 결과 발표 및 2주기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을 제안하여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2011년 5월, 미국 몬타나에서 개최된 제18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 그린 이니셔티브의 추진 체계 및 성과를 발표하여 많은 국가들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APEC 중소기업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리더십과 기여에 대하여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8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우수정책 사례로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3년 9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0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창조경제의 등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추진 현황을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2014년 9월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소기업 발전과정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촉진, 창업인프라 조성 및 실패기업 재도전 지원,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촉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성장촉진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활동 등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2015년 9월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개최된 제2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창업 밸리 조성, 창업을 위한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확대, 창조적 혁신적 제품의 시장진입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 강화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활동 등에 관해 발표하였다.

2)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 개발기구) 활동

OECD는 이사회 및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산업기업환경위원회 소속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작업반(WPSMEE)’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제6차 중소기업 작업반회의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제9차 회의를 199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OECD 중소기업 작업반회의는 매년 2차례 정례적인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매년 해당 회의 참석을 통하여 OECD 회원국들의 경제 및 중소

기업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반내에서 발간되는 ‘OECD Scoreboard’ 보고서, 국가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평가 지표 등 작업반 내 수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 2~3년마다 회원국의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한국경제보고서에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신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신규정책 마련 및 개선에 활용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OECD 중소기업작업반 회의와 한국경제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p>〈미국 메릴랜드 주 MOU (5.27, 서울)〉</p>	<p>〈미주투자공사(IIIC) 양자회담 (9.7, 대전)〉</p>	<p>〈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9.25, 일로일로)〉</p>

참고

우리나라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가 현황

회의별	일시 및 장소	발표내용	참가자
1차 (’94.10)	일본 오사카	○ 중소기업의 5대 애로분야	산자부 장관
2차 (’95.9)	호주 Adelaide	○ 금융시장의 효율성 연구 등	산자부 차관
3차 (’96.9)	필리핀 Cebu	○ 중소기업의 세계화 여건 조성 등	이우영 청장
4차 (’97.9)	캐나다 오타와	○ APEC 중소기업 활동을 위한 기본틀 마련 등	정해주 청장
5차 (’98.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말련 주도 중소기업 발전계획 채택	추준석 청장
6차 (’99.4)	뉴질랜드 Christchurch	○ 역내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등	추준석 청장
7차 (’00.6)	브루나이	○ 인적자원, 금융,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회원국 경험 공유 등	신동오 차장
8차 (’01.8)	중국 상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 논의	최동규 청장
9차 (’02.8)	멕시코 아까폴코	○ 협력수혜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개발	이석영 청장
10차 (’03.8)	태국 치앙마이	○ APEC 역내 기업가 사회의 강화를 주제로 기업가 정신 등 논의	유창무 청장
11차 (’04.10)	칠레 산티아고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바람직한 정부정책 논의	김성진 청장
12차 (’05.9)	대한민국 대구	○ 중소기업 혁신촉진을 주제로 인적자원 개발 등 논의	김성진 청장
13차 (’06.9)	베트남 하노이	○ 무역과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	이현재 청장
14차 (’07.3)	호주 호바트	○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이현재 청장
15차 (’08.9)	페루 FLAK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청장
16차 (’09.10)	싱가포르	○ 중소기업 글로벌시장 접근 및 무역 장벽 제거 지원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청장
17차 (’10.10)	일본 기후현	○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녹색기술	김동선 청장
18차 (’11.5)	미국 몬타나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김동선 청장
19차 (’12.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린이니셔티브 결과 보고	송중호 청장
20차 (’13.9)	인니 발리	○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한정화 청장
21차 (’14.9)	중국 난징	○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한정화 청장
22차 (’15.9)	필리핀 일로일로	○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	한정화 청장

제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3장 견고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제1절 혁신형 기업 발굴 및 육성 제도 운영

1 벤처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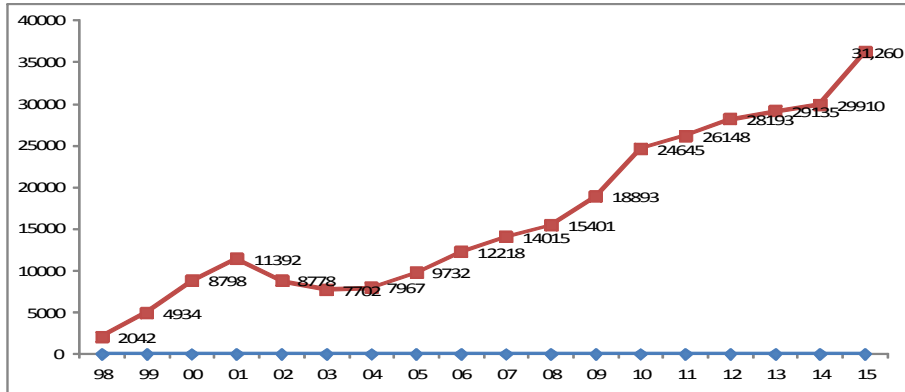
- 벤처정책과 정의경
- 벤처정책과 송제훈
- 벤처정책과 홍선아

그동안 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5월 2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15년말 현재 31,260개를 기록하고 있다. 벤처확인이 최초로 시작된 1998년 2,042개에 비해 15.3배 이상 증가했다.

벤처기업 확인 추이를 보면, 벤처의 버블이 제거되는 과정이었던 2002년~20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국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림 16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고 그 금액이 자본금 대비 10%(문화컨텐츠 7%)이상 되거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상태에서 R&D투자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5~10% 이상이고 사업성 우수평가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천만원 이상 기술평가 보증·대출을 받고(보증·대출 가능 결정 포함) 그 금액이 총 자산대비 5%이상이고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아야 한다.

벤처확인기업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기술평가보증과 기술평가대출을 받고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각각 83.3%, 7.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I-3-1-1 확인유형별 벤처기업수(2015년말 기준)

구분	합계	벤처투자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연구개발	예비벤처
업체수(%)	31,260	967(3.1)	26,050(83.3)	2,459(7.9)	1,713(5.5)	66(0.2)

벤처기업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성장률, 이익률 등의 면에서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4년도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11.2%,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8%로 대기업 및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고성장·고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표 II-3-1-2 벤처기업 성과

구 분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2015년 기업수(천개)	31.3	3,542	3
2014년 매출액 증가율(%)	11.2	4.4	-0.4
2014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5.8	3.1	4.4
2014년 수출액(억불)	167	1,033	3,784
2014년 고용인원(만명)	71.7	1,403	194

또한 창업 이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매출 1천억원 이상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벤처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53개였던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2014년 460개로 2013년 대비 7개사 증가했다. 특히 2008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네이버(주)는 7년 연속 1조원의 매출을 유지했으며, 그 외 1조 벤처기업은 코웨이(주), (주)유라코 퍼레이션, (주)성우하이텍, (주)휴맥스, 에스티엑스중공업(주)이 있다.

벤처 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98.9조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2%임. 이는 삼성(248조), SK(165조), 현대차(158조), 엘지(116조)에 이은 재계 5위 그룹규모에 해당한다.

표 II-3-1-3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기업수(개)	202	242	315	381	416	453	460
매출액(조원)	40.1	47.8	65.1	77.8	89.2	101.2	98.9
GDP비중(%)	3.91	4.49	5.58	6.29	7.01	7.10	6.42

* 구분 란의 각 연도는 벤처천억기업 확인(또는 선정) 연도임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벤처저변을 확충하는 한편 벤처기업과 관련한 각종 부담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벤처 천역기업들의 성장요인 중 지속적인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벤처천역기업 기념식(8.20)

2 벤처기업 지속성장 지원

● 벤처정책과 흥 선 아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0.9%(3.1만개/342만개)에 불과한 수준이나 전체 고용인원의 5.4%(72만명/1,342만명), 전체 수출액의 2.9%(167억불/5,727억불)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 및 사업성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고용인력은 717,025명으로 전체 사업체 근로자수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근로자수는 24.0명으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6.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평균업력이 9.2년이고, 창업기 및 초기 성장기의 기업이 40.7%(12,869개/31,260개)에 달해 데스밸리(death valley), 성장통(growth pain) 등의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2015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결과 자금조달 및 운용, 신규 판로개척,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순으로 애로사항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 벤처기업 인력지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벤처기업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은 벤처기업들의 부정기적인 소규모 개별모집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기업별 수요를 모으고 기간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채용기업들의 자격을 매출액, 성장률, 연봉수준이 높은 우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의 관심 유도과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도 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벤처기업 1,276개사가 3,269명을 채용하여 당초 채용목표인 3,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채용목표 인원을 3.6%가 늘어난 3,38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훈련 지원사업은 벤처기업 신입 직원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총 606명을 교육하였다.

나.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벤처기업은 167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다수 벤처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기술제품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3-1-4 연도별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기업수(개)	35	20	13	15	20	20
수출증가율(%)	30.3	59.9	53.9	44.9	46.6	47.2

* 자료 : 벤처기업협회(지원기업의 직접수출 증가율)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수출초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의 경험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 벤처기업의 해외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도 벤처기업이 해외 수출선 발굴 및 마케팅 정보 제공,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대상 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절차도 대행하여 수출초보벤처기업이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며 2015년에는 20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해외현지 직접마케팅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순수민간 차원의 마케팅 조직인 INKE(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INKE는 2000년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해외거주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직으로 49개국 77개 지부에 1,2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INKE 해외지부를 활용하여 해외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접촉, 해외지사 설립 등 벤처기업의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벤처갤러리 운영, 정기 상담회 개최, 해외기업 비즈니스매칭 등을 통해 초기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기술력 있는 초기 벤처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 지방 및 여성벤처 활성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기업운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벤처기업과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경쟁력 제고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벤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벤처 단체간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협업, 공동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벤처협회 주관하에 공동채용 및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및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판로·마케팅,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16년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들의 기술·경영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입주기업 혁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여성벤처CEO를 꿈꾸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캠프 → 선배 CEO 밀착코칭 → 초기 사업화지원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제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p>벤처기업 공동훈련</p>	<p>INKE 4 season 상담회</p>	<p>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p>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

- 생산혁신정책과 이 도 영
- 생산혁신정책과 이 진 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은 OECD가 1993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술혁신평가 매뉴얼인 ‘오슬로 매뉴얼’을 기초로 개발한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지표(1,000점)와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 지표(10등급)를 적용하여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개별 기술 수준 평가결과가 B등급(6등급에 해당)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은 재선정 하고, 미흡한 기업은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제도의 대외 신뢰성 유지 및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이노비즈 선정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5년 17,472개社가 유지되고 있다.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던 이노비즈기업은 2015년에는 기술 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3-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업체수	16,944	17,298	17,080	16,878	17,47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기술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하는 한편 자금, 판로, 인력, 정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결과를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5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은행 등과 공유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3-1-6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		20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189	83,730	9,620	78,123	8,881	70,867	8,372	67,359

2015년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은 143.1억 원이고, 수출기업 비중은 51.0%, 평균 수출액은 63.6억 원이며, 전체 이노비즈기업 중 고성장 기업은 1,811개로 전체 이노비즈기업의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TCB)를 받은 1년 이내의 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시 기술성 평가를 생략하는 등 기술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희망 성장사다리와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개발한 기술 및 제품 전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2000년부터 개최하여 왔다. 지금까지 관련 유공자에게 매년 150여 점의 표창을 수여하여 유공자(기관)를 격려하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은 국내 중소기업 기술관련 최대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왔고,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술인재대전’을 2013년도에는 ‘IT & Security’ 행사를 통합하였고 2016년도에는 ‘품질혁신 전진대회’ 및 ‘동반성장 테크페어’와 통합하여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제16회 기술혁신대전 개막식

기술혁신대전 전시관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육성

- 생산혁신정책과 이 도 영
- 생산혁신정책과 이 진 영

기업의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외의 요소인 경영혁신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 등에서도 혁신적인 역량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 및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로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포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말 현재 13,898개社가 활동 중이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2011년 17,558개사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부터 2014년말 현재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였으며, 평균 매출액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4년에는 155.8억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II-3-1-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제조업	8,447	7,100	6,411	6,454	7,302
비제조업	9,111	7,767	6,195	5,547	6,596
· R & D 서비스	1,023	900	901	899	1,006
· 건설운수	2,119	1,886	1,466	1,377	1,656
· 도소매업	5,349	4,410	3,320	2,771	3,239
· 기타	620	571	508	500	695
총 합 계	17,558	14,867	12,606	12,001	13,89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R&D, 금융 및 보증, 판로·수출 등 시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농협, IBK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료 감면, 여신한도 확대, 금리우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및 육성시책 발굴, 확인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5년에는 총 23,290건 9조 5,446억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협약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		20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834	102,969	24,133	84,350	23,923	87,961	23,290	95,446

		
메인비즈 역량배양 교육	휴먼에러 전문가 워크숍	메인비즈-코스닥위원회 MOU

제2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글로벌화

- 중견기업정책과 김 주 화
- 중견기업정책과 이 영 순

1 중소기업 현황

가. 중견기업 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 3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2011년 7월 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에 중견기업을 정의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견기업 육성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정책이 한층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중견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 해소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9월에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수립하였고, 2014년에는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7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9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10월)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발표(‘15.6)하였고,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인 「2015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수립(‘15.7)하여 추진하였다.

참고

2015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주요 실적(‘15.12월말 기준)

【과제 추진현황】 국회와 언론 등의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및 우호적 정책환경 등에 힘입어 산업부 등 10개 부처와 45개 과제를 대부분 정상 추진

1]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하도급법, 산업단지지원법 시행령, 벤처법 시행령 개정 완료
 - * 산업기술단지 내의 도시형공장 임차 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추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15.5.6)
 - * 하도급 대금 회수시 중견기업에 수급자 지위 인정(하도급법 개정, '15.7.24)
 - *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벤처집적시설' 지위 유지(벤처특별법 시행령, '15.11.19)
- 전문인력, 해외마케팅 등 핵심 지원시책을 선별하여 초기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
-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대기업 용어사용 법령 정비' 연구 용역 완료('15.9)

2] 중견 후보기업群 발굴·육성

- “지방”, “수출”, “고용” 등 주요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15. 1,043개)
- 인천시 등 지자체별 유망 중소·중견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12개) 및 자체 지원사업* 개발·시행 중
 - * 인천시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유망 중소기업 6개사를 선정하여, 경영 안정자금 30억원, 이차보전금 2%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지원

3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 중견·중소기업의 R&D인력이 공공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공동연구실** 사업 확대('14. 4개 → '15. 33개)
- 출연(연) 등이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밀착지원하는 **'기업공감원스톱 서비스'** 제공('15.11) 등
- **'월드클래스 300'** 지원대상을 30개사 신규 선정('15년 누계, 186개사), R&D·해외 마케팅 등 18개 기관의 21개 시책을 패키지로 지원
- 중견기업의 유망기술에 대한 지재권 구축(44건), 특허경영(11개사) 지재권 분쟁 컨설팅(25개사) 지원 및 지재권 단체보험상품 출시('15.10)
- **중견·중소기업 간의 공동 R&D 및 사업화**를 지원(16개 컨소시엄) 하고,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7건)
- 정부 R&D 사업 참여 **중견기업의 기술료 인하**(30% → 20%)를 위한 시행령 개정('15.12.23일 시행)
- 중견기업 지원세제 신설 및 **일몰연장***(2건), 이행보증 공제 지원(539억원), 중견 해외건설사(16개)의 지원
 - * **(신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 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 * **(일몰연장)**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일몰 연장('15 → '16), 신성장동력산업·원천 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일몰연장('15 → '18)
- 공공조달시장에 초기중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판로법 개정**('15.12.9, 국회 통과)
- 『중견기업 박사과정 계약학과』 신설(2개사, 4명 참여),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 양성(12개 컨소시엄, 210명)
-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학생 무역실무 교육(701명) 및 수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지원(672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19개사), 『청년인턴제 사업』(151개사),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에 중견기업의 참여 허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추진(‘15.11.23 산업위 통과*),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을 위한 『명문장수기업 포럼』 개최(8회, 200명) 및 포상(37개사) 실시
 - * 업력 기준을 당초 30년에서 45년으로 강화, 건설업·금융보험업·부동산업 등 제외

4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사업 참여 확대(109개사), 45개 중견기업이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협약을 체결하고 219억원 출연
-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의 하도급 대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 완료(‘15.7.23)*, 일학습 병행제에 중견기업 참여 확대(179개사)
 - * 현재,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진행 중
-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정보마당』 개설(‘15.3), 중견기업 통계의 국가승인 획득(‘15.11)
-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의 간담회*(7회),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개최 및 유공자 포상 실시(‘15.7)
 - *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회의 3회 개최(‘15.7.22, 9.9, 11.3)
새정치민주연합-중견기업계 간담회(‘15.11.23)
 - * 기재부장관(‘15.6.8), 국무총리(‘15.9.3), 산업부장관(‘15.11.20) 주재 간담회 개최

【성과평가】 대·중소기업 이분법적 법령·제도 개선 및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되어 중견기업 성장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

나. 중견기업 정의

2011년 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중견기업을 정의하였는데 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표 II-3-2-1 중견기업법령의 중견기업 정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 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이후 2014년 7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 되면서, 중견기업 정의는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국내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을 적용받는데 반해, 외국계 국내기업은 이러한 상한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규모가 큰 외국 대기업을 국내 자회사라도 중견기업에 포함되게 되어 국내·외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다.

중견기업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산총액 및 지분소유 기준’등을 중견기업 기준에 추가하여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인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였다.

다. 중견기업 현황

1) 중견기업 수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2014년 기준, 2,979개(관계기업제도에 의해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기업 600개 포함)로, 중소기업 범위개편('15.1.1) 및 중견기업 제외기준 신설('14.7.22) 등 제도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II-3-2-2 연도별 중견기업 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산업(개)	1,172	1,146	2,187	2,743	3,436	3,846	2,979*
제조업(개)	505	484	883	1,071	1,556	1,675	1,331

* 중소기업 범위개편 :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4가지 상한기준(자본총액 1,0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중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만 존치시키고 모두 폐지

* 중견기업 제외기준 : 자산 5조원이상 외국법인 등이 주식 등 30%이상 최대출자자인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폭스바겐코리아 등 약 500개사)

2) 중견기업 고용

중견기업의 고용인력은 2003년 통계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도 말 기준 총 89.9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사업체 종사자의 5.6%를 차지하였다.

표 II-3-2-3 중견기업 고용 추이

(단위: 만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산업	75.6	71.9	88.9	93.4	106.6	116.1	89.9
제조업	36.1	33.6	40.1	42.5	54.1	58.0	46.7

3) 중견기업 매출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483.6조원으로서 우리나라 총 매출액의 13.5%를 차지하였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매출액 상위 1~2위까지의 매출액 합계 413조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표 II-3-2-4 중견기업 총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산업	367	306	350	373	595.1	629.4	483.6
제조업	229	181	220	234	363.9	375.2	284.9

매출액 구간별로는 1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1,622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54.4%를 차지하며 5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204개로 6.8%이다.

표 II-3-2-5 매출액별 중견기업 현황(2014년 기준)

구 분	1천억 미만	1~2천억 미만	2~3천억 미만	3~5천억 미만	5천억~1조미만	1조이상	합계
전산업(개사)	1,622	577	330	246	153	51	2,979

4) 중견기업 R&D

2014년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1.05%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경제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표 II-3-2-6 중견기업 R&D 집약도 추이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1.42	0.98	1.13	1.08	0.88	1.05
제조업	1.59	0.98	1.16	1.37	1.09	1.42

2 중소 → 중견기업 성장결림돌 제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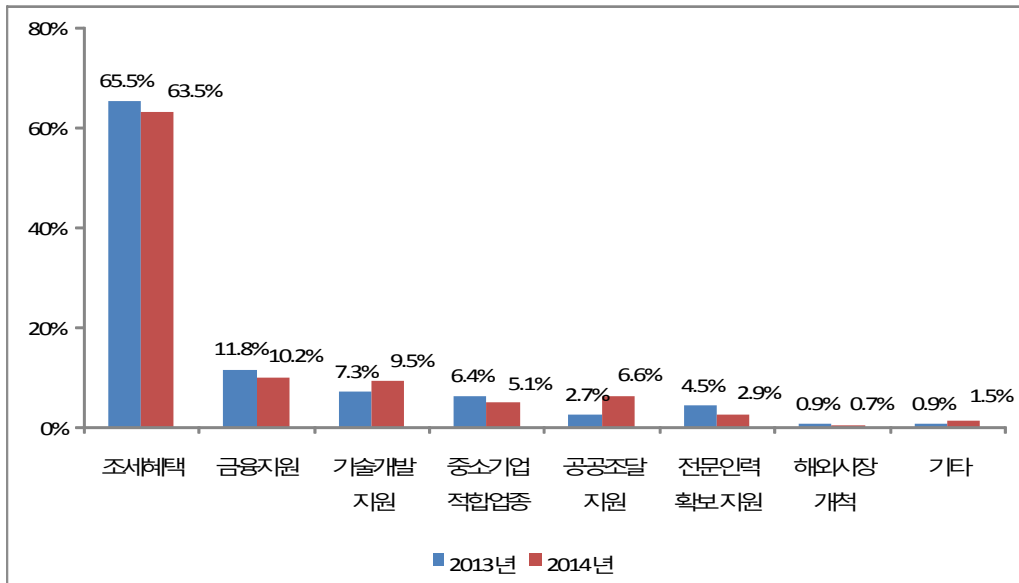
- 중견기업정책과 윤기영
- 중견기업정책과 이문범

가.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보조금, 세제, 융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중견기업은 배제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조세혜택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7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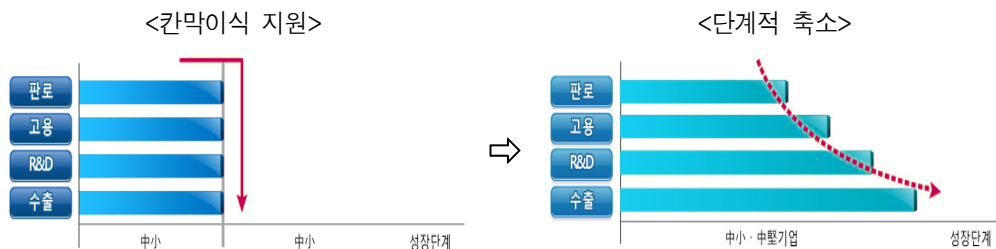
* 자료출처 :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나.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완화를 위한 정책추진 현황

① 2013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서는 ‘판로, 고용, R&D, 수출’ 등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중견기업에 대해 일시에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부담이 단계적으로 축소(Sliding down)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 제도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토록 하였으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림 18 중견기업 성장부담의 단계적 축소



② 2014년 1월에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제정하여 2014년 7월 22일부터 동시에 시행하였다. 중견기업법은 총 5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견기업법 주요내용〉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본원칙을 명시(제3조)
 - 중견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배분
 - 중소기업 지원 축소 금지 및 중견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인·촉진
 -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 지원대상 차별화
- ②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제5조부터 제6조)
- ③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시책 추진(제7조부터 제17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기술개발·인력 등 별도의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 적용도 완화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조세감면 특례 규정
 - 대기업과의 거래시 보호, 가업승계 지원, M&A 활성화 등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 ④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제18조부터 제22조)
 -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지원, 기술혁신 촉진, 인재확보 및 유치, 글로벌화 및 경영혁신 지원 등
- ⑤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함(제23조)
- ⑥ 중견기업 실태·통계조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 마련(제24조부터 제26조)
- ⑦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법정단체화(제27조)
- ⑧ 성장사다리가 복원되는 시점까지,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부칙 제2조)

③ 2014년 9월에 수립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통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적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 2014년 10월에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을 마련하고,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 따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R&D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개편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협의제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 ①세계시장 점유율 1~3위, ②매출 1백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③매출액 대비 R&D 비중 2% 이상(3년 평균), ④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이상(3년 평균) 등

표 II-3-2-7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R&D 지원체계

구 분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R&D)	글로벌 성장단계 (월드클래스 300 R&D)
지 원 체 계	R&D성격	• 단기 상용화 및 제품혁신	• 중장기 핵심기술 확보
	개발기간	• 2년 이내 (0.5년 + 1~1.5년)	• 5년 이내 (1년 + 3~4년)
	지원조건	• 총개발비의 60%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총개발비의 50%이내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다.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 성과

그동안 마련된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진입 이후에 가장 많은 애로를 호소했던 조세 제도와 규제를 중심으로 성장걸림돌이 2013년 83개에서 2015년에는 72개로 감소하였다.

표 II-3-2-8 분야별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 현황

구 분	지원 배제							규 제 신규적용	합 계
	조세	금융	R&D	인력	판로	기타	소계		
2013년	21	7	10	7	10	8	63	20	83
2015년	17	7	9	7	10	5	55	17	72

이러한 성장걸림돌 완화 노력의 결과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도 2013년 14.7%에서 2015년 6.9%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걸림돌 완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성장 애로는 조세지원 단절로 2015년 「중견기업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59.1%의 중견기업이 조세 혜택 때문에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중견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조세지원 제도부터 중견기업 구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조세지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조세지원 단절에 따른 중견기업의 성장통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감면 규모가 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R&D 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에 중견기업 구간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큰 충격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된 주요 세제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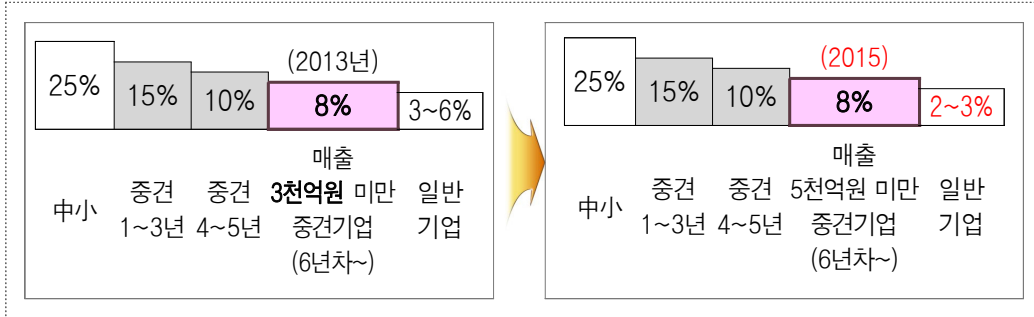
① R&D 세액공제 유예기간 및 중간구간 신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한 R&D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견기업은 대기업 수준으로 세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2011년에 중소기업 졸업 후 5년간 부담완화 기간을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축소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 하였다.

2013년에는 일정 규모 중견기업의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8%의 공제율을 신설하였으며, '14년도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을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공제대상을 확대 하여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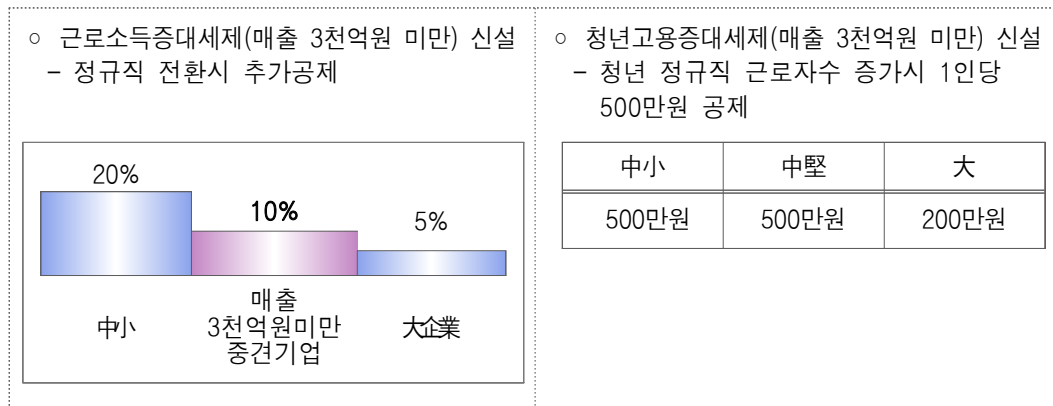
그림 19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



② 고용 창출투자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구간 신설

2014년부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고용창출을 위해 새로 취득하는 산업용 자산 및 R&D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 하였으며, '15년에는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대한 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림 20 중견기업의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부담 완화



③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기업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2008년에 도입되었다.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닌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되었고, 2013년에는 2,000억원, 2014년에는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도입기인 2008년에는 공제한도 30억원, 공제비율 20%였으나,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2014년부터 공제한도 500억원, 공제비율 100%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증여세과세특례는 사전 증여공제한도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원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16년부터는 공동상속도 가능하게 되었다.

표 II-3-2-9 가업상속공제 관련 주요제도의 연혁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한도액
2009.1.1.~ 2010.12.31.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별 · 10년 이상: 60억원 · 15년 이상: 80억원 · 20년 이상: 100억원
2011.1.1.~ 2011.12.31.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중소기업, 매출액 1천 5 백억원 이하 중견기업	상동	상동
2012.1.1.~ 2012.12.31.	상동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별 · 10년 이상: 100억원 · 15년 이상: 150억원 · 20년 이상: 300억원
2013.1.1.~ 2013.12.31.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중소기업, 매출액 2천 억원 이하 중견기업	상동	상동
2014.1.1.~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중소기업, 매출액 3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	가업상속재산의 100%	가업 영위기간별 · 10년 이상: 200억원 · 15년 이상: 300억원 · 20년 이상: 500억원
2016.1.1.~	- 공동상속 허용	상동	상동

2) 하도급 제도 개선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기업과 하도급거래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이를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2012년의 중견기업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했다. 즉, 중견기업은 2~3차 협력사(중소기업)에게 60일 이내 대금결제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원사업자인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60일이 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는 애로가 있었다.

2014년 7월 22일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약정서 발급),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3조(검사의 합리화)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법적보호가 강화되었다.

또한, 2016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16.3.29.)되어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또는 연간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대금지급에 한하여 수급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원사업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판로, R&D, 인력, 자금 등의 지원시책 개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3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일 2016.7.7.)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 역량 기반을 보강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의 인적요건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였다.

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의 배정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재직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중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되 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하고 있다.

* 중견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배정현황 : ('13)171명(6.8%) → ('14)300명(12%) → ('15)414명(16.6%)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 중소기업 65%,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30%,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0%(사업참여만 허용)

3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경쟁력 강화

- 중견기업정책과 윤 기 영
- 기업혁신지원과 박 준 영
- 기업혁신지원과 양 희 춘
- 기업혁신지원과 이 완 재
- 기업혁신지원과 손 한 국

가. 고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정부는 고용효과가 높은 고성장기업이 지속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의 원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출마케팅, 정책자금, R&D」 등을 연계 지원하는 「고성장기업 육성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4.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20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500개씩 3년간 총 1,500개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고성장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하며 2014년 기준 국내 고성장기업은 20,733개가 있다.

고성장기업은 규모별로는 100억원 미만의 중기업 초기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하였다. 평균 업력은 13.4년으로 창업 시기(업력 7년 미만)를 벗어나 성장기에 들어선 기업들이며, 제조업부터 도소매업까지 전 업종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표 II-3-2-10 고성장기업 규모별 분포

매출액	100억원 미만	100~500억원 미만	300~500억원 미만	500~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	계
기업수(개)	15,032	3,960	733	732	276	20,733
비중(%)	72.6	19.1	3.5	3.5	1.3	100

* 통계청, 2014년 기준 기업생명행정통계

표 II-3-2-11 고성장기업 업력별 분포

(단위 : 개)

구분 \ 업력	5년미만	5~7년	7~10년	10~20년	20년이상	합계
전 체	2,751	3,518	4,045	8,270	2,149	20,733
비 중	13.2	17.0	19.5	39.9	10.4	100

* 통계청, 2014년 기준 기업생명행정통계

또한, 고성장기업은 10인 이상 기업의 10.5%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신규 일자리의 33.4%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3-2-12 고용기준 고성장 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개)

전 체	고용 증가 기업		고용 유지 기업	고용 감소 기업
	전 체	고성장 기업		
기업 수	32,134	3,136(9.8%)	4,240(13.2%)	12,171(37.9%)
신규일자리	42,893	43,786(102.3%)	0	-88,268

* 기업데이터(KED) '10인 이상 중소기업 32,134개' 고용 분석('14년, 중기청)

고성장기업 육성프로그램은 고성장기업 요건(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기업은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 기업)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 정책자금, R&D」 등 각 지원시책별 평가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①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해 499개 기업을 선정하고, 고성장기업이 세계시장 개척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수출마케팅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 마케팅 활동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② 「고성장기업전용자금」은 631개 업체에 정책자금 28,0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접수·평가하여 기업별 자금계획에 따라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고성장기업이 수출전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내용을 개선하여 동 사업의 내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World Class 기업(세계적 수준의 기업) :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을 확대하여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동 사업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 3월, 제5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2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30개 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하였다.

표 II-3-2-13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선정기업	236	30	37	33	56	30	50
선정취소	5	1	2	1	1	-	-
누계	231	29	35	32	55	30	50

매년 30~50개사를 선정하여 2016년 6월 현재 231개사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약 50일 동안 요건심사 → 분야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 등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올해까지 선정한 231개사를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이 112개사 중견 기업이 119개사이고, 수출비중(수출액/매출액)이 59% 이며 기술개발 투자비중(연구개발비/매출액)이 5%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통신, 소프트웨어, 의료·광학기기, 섬유, 의약품 등 주력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II-3-2-14 업종별 분포현황

(단위: 개사)

선정 년도	전자 부품 ·통신	기계· 장비	자동차 부품	석유· 화학	SW	금속	의료· 광학 기기	섬유	농· 식품	의약품	전기 장비	운송 장비	지식 서비스	계
11년	10	4	3	2	3	3	3	1	0	2	0	0	0	29
12년	10	8	3	5	2	1	1	1	0	1	2	1	0	35
13년	10	5	6	1	2	2	3	1	1	0	0	0	1	32
14년	18	6	8	2	6	5	2	1	0	3	3	0	1	55
15년	11	4	4	3	0	1	4	1	0	2	0	0	0	30
16년	11	11	11	6	1	4	4	1	0	1	0	0	0	50
계	70	38	35	19	14	16	17	6	1	7	5	1	2	231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0년간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업의 향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75억원 한도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서 현지진출까지에서 필요한 해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간 총 3억원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식재산전략원,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기업별 성장전략 이행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11~'15년간 선정기업들은 기업 스스로의 성장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선정전 대비 매출액은 13.2%, 수출액은 18.7%, 고용인원은 8.3%가 증가하였다. '14~'15년 R&D 종료과제(25개) 경우, '15년말 기준으로 투입금액 10억원당 7.2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였고, 개발제품의 사업화 결과 3,643억원(투입예산 대비 6.5배)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다.

다. 찾아가는 글로벌 마케팅 지원(World Champ)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2011년부터 '월드 챔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해외네트워크를 코트라에서 보완하고, 참가기업별 제품특성, 수출 성숙도, 현지 시장 상황 등 글로벌 현황진단을 거쳐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 후, 5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참가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 퇴직무역전문인력을 수출전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참가기업별로 일대일 밀착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 무역관에서 기업별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현지 전담직원 또한 산업별 전문성 및 현지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로서 해외진출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3-2-15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마케팅 전략(목표)	세부 마케팅 활동
인증/특허 획득 수입신고(등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증 취득을 위한 등록지원 및 병행 마케팅 지원 • 의료기기 등 수입허가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등록) 지원
영업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일즈랩 발굴 및 운영 지원 • 현지 유통망 구축 (대리점 계약 및 영업활동 지원)
저인망식 마케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단독 IR행사, 신제품 설명회 개최, 단독 로드쇼, 전시회 참가 • 해당 산업의 저명인사 초청 마케팅 행사 추진 등
전략적 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글로벌기업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의 • 글로벌 벤더 등록 지원
현지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설립 컨설팅 지원 • 합작 파트너 발굴 지원 등
광고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영문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등) 구성 지원

2016년 7월말 현재 135개사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수출규모 확대, 해외진출지역 및 해외거래처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체계적인 시장 개척 방법 습득 등으로 자발적인 해외진출 의지 고취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접근방식 고도화에 맞춰 지원 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라. 중견기업의 우수인력 유치기반 조성 및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문 기술개발 인력 등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많은 중견기업은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렵게 직원을 채용하여도 오래 근무하지 않고, 대기업 등 더 좋은 근무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 축적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다.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13. KIAT) 결과를 보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조세 등 중소기업 혜택 배제를 꼽았고(61.4%), 그 다음이 전문 인력 부족(10.9%)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유형으로 중견기업의 30%이상이 고급 R&D인력이라 응답했고, 18%이상이 해외 마케팅 인력이 필요하다 답했다.

이에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에 하나인 우수인재 유치와 핵심 인재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4년에는 중견기업 재직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해외 지재권, 글로벌 표준화 등의 기술혁신 분야와 글로벌 마케팅,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핵심 R&D 인력을 정부출연 연구소에 6개월간 파견하여 실제 진행되고 있는 R&D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공동연구를 통해 고급 R&D기술 습득의 실무능력 배양을 지원하였다.

- *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180명(글로벌 기술혁신 90명, 글로벌 경영혁신 90명)
- * R&D인력 Skill-up 교육 지원 : 10개사

2015년에는 중견기업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바로알기특강 및 취업역량 향상 실천 프로그램인 중견기업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업소개 및 채용계획 등을 안내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매칭하는 중견기업 연합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110회, 7,405명 참여), 중견기업 취업준비반(27개반, 603명 참여), 중견기업 연합채용설명회(5회, 335명 참여)

그리고, 핵심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상품인 「희망엔지니어 적금」제도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는 직원이 5년간 장기재직을 한다는 조건하에 회사와 직원이 매칭(1:1 또는 1:2 등)으로 적금을 가입하고, 5년 만기시 회사와 직원이 납입한 원리금 전액을 직원이 수령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다.

표 II-3-2-16 제3기 희망엔지니어적금 주요내용

- ▷ 대상기업 : 중견기업
- ▷ 대상인력 : 기업이 추천하는 핵심인력
- ▷ 가입조건 : 핵심인력의 5년 이상 장기근로
- ▷ 가입금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1:1 매칭시 2배)
- ▷ 적용이율 : 4.05%

2012년 9월 사업시행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하고, 2013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3기 희망엔지니어링 적금이 출시되었으며, 2015년말 1,203개 기업, 2,776명이 가입하였다.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가입한 기업에도 정책적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의 R&D 또는 인력사업 참여시 의무가입 또는 선정평가과정에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표 II-3-2-17 제3기 희망엔지니어적금 가입기업 인센티브

-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선정시 의무가입
-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신청시 우대가점
- ▷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 ▷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정을 중단하고, 중견기업 배정 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중견기업 배정비율 : ('13) 6.8%(171명) → ('14) 12%(300명) → ('15) 20%(500명) → ('16) 20%(500명)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양성 기반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마.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이 중요한 국가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매출액 40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1단계로 신성장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사업화 전략 등 사전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65백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75%를 지원하고, 2단계(R&D)에서는 1단계에서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6억원 한도내(2년간)에서 소요비용의 75%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동 사업은 중견기업과 협력사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하고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을 통해 지원과제별로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혈할 수 있다.

표 II-3-2-18 수행단계별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지원내용
1단계(사전기획)	7개월	65백만원	신성장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사업화 전략 구축
2단계(R&D)	최대 2년	6억원	1단계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사업추진 첫해인 2014년에 17개 컨소시엄(68개사), 2015년에 12개 컨소시엄(37개사)을 선정하여 1단계(사전기획)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사전기획을 통해 발굴된 신성장아이템 중 6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중('15.6~'17.5)이다.

표 II-3-2-19 기술분야별 컨소시엄 지원현황

(단위 : 컨소시엄)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지식서비스	합계
15	4	5	3	1	1	29

동 사업은 단순하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파트너십 결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전기획 단계부터 신성장 아이템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특허선행분석,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p>2016년도 월드클래스 300 신규기업 선정 ('16.6.10)</p>	<p>Good to Great Business Plaza 2016_전시부스 ('16. 5.19 ~ 20)</p>	<p>'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협약설명회('16.8.3)</p>

제3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강화

1 대·중소기업간 경영현황

● 동반성장지원과 김 성 훈

성장성 측면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4.83%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을 확인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2011년부터 줄어들고는 있으나 대기업의 수익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3-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교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대기업(A)	13.09	5.01	0.27	-0.39
	중소기업(B)	10.59	5.31	5.60	4.44
	(A)-(B)	2.5	-0.3	-5.33	-4.83
영 업 이익률	대기업(A)	5.28	4.66	4.66	4.42
	중소기업(B)	3.09	3.05	3.16	3.12
	(A)-(B)	2.19	1.61	1.50	1.3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58% 수준이며, 2015년 중소기업 임금비중은 대기업 대비 60.6%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 기 업	4,664	4,923	4,447	4,688	4,850
중소기업	2,466	2,620	2,764	2,836	2,938
중소기업 임금비율 (대기업=100 기준)	52.9	53.2	62.2	60.5	60.6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구.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제조업)

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분위기 확산

● 동반성장지원과 김 성 훈




가.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인 판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기업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대기업 해당품목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3-3-3 구매상담회 성과

구 분	참여기업(개사)		상담실적(건)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2011년	70	321	609	일산, 서울, 인천(총 3회)
2012년	94	397	651	강원, 충남, 대구, 전북, 충북(총 5회)
2013년	122	603	1,274	경기, 부산, 충북, 동반성장주간(총 4회)
2014년	194	886	1,671	경기, 전북, 대구, 서울(총 4회)
2015년	215	723	1,630	부산, 전북, 충남, 서울(총 4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회의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은 122개 대기업과 603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1,274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2014년은 194개 대기업과 886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1,671건의 상담을 하였고 2015년에는 215개 대기업과 723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1,63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p>상담회 전경(4.30)</p>	<p>제품전시회(4.30)</p>	<p>법률 등 무료상담(4.30)</p>

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참여 확대

2002년부터 국방부, 한전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구매 수요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참여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는 참여기관에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을 포함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577개 수요처가 참여하여 409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670개 수요처가 참여하여 395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기존 공공기관·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간 상생협력을 주도하는 사업이 되었다.

표 II-3-3-4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의 수요처 참여 추진 현황

연 도	참여 수요처(개, 누적)	지원과제(개)	지원금액(억원)
2009년	147	199	450
2010년	177	214	600
2011년	237	216	600
2012년	346	262	645
2013년	466	399	795
2014년	577	409	815
2015년	670	395	915

다. 원가경쟁력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유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1차 협력사(중견기업)와 2차 협력사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기간(6~8개월)에 완료 가능한 원가절감형 공동과제¹⁴⁾를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대기업(공기업)과 1차 협력사,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컨소시엄이며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원가절감 과제를 추진한다. 원가절감 목표 달성시 이에 따른 성과배분을 참여기업인 대기업, 1차 협력사(중견기업)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1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166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I-3-3-5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지원중소기업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참여기업수	16	35	40	32	43

14) 원가절감형 공동과제란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디자인변경, 제조공법 개선, 원재료·부품 개발,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현하는 과제를 말한다.

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한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협력관계 강화

대·중소기업간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 중소기업간 정보교류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 실무자 및 수탁기업 회장단을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총 93개 대기업에서 114개 수탁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1차-2·3차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을 지원한 결과, 2015년 기준 총 187개의 중견·중소기업에서 188개의 2·3차 수탁기업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표 II-3-3-6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기업(개)	57	66	79	84	86	93
1차 수탁기업협의회(개)	68	79	95	108	110	114
1차 협력사(개)	3	4	12	108	176	187
2-3차 수탁기업협의회(개)	3	4	12	109	177	188

아울러 수탁기업협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수탁기업협의회 실무진 및 임원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필요성,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교육, 협력과제 발굴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탁기업협의회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질적 협력채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 기술협력보호과 김 태 식
- 기술협력보호과 조 윤 남

최근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제품의 짧은 수명주기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에도 적기에 제품출시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유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품개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보완적인 기능을 보유한 기업과 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의 사업체처럼 경영활동을 하는 협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 최적의 투자로 위험을 분산시켜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도입, 협업자금 융자지원 등을 실시 하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표 II-3-3-7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실적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협업 사업계획 승인 수	5	48	31	13	15	33	24	19	23
참여기업 수	15	111	75	32	34	72	80	47	54

협업지원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생산·디자인·판매 등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출 및 판로 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협업관리자(Project Manager, PM)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 성공률을 제고함은 물론 산업기능요원·기술혁신개발·정보화·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우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력, 자본 등 경영여건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차원으로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교류→사업기획→R&D→사업화」등 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협업 승인제도를 협업 선정으로 완화하여 사업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교류·협력 추진역량 강화 교육, 표준화된 협업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등 협업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 세미나 & 융합리더 워크숍



협업전문가 양성교육



중진법 시행령 개정관련 회의

4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동반성장지원과 추 원 철
- 동반성장지원과 전 근 표
- 동반성장지원과 김 상 욱
- 동반성장지원과 장 희 양
- 동반성장지원과 김 영 환

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 현황

기업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위탁거래과정에서 위탁기업의 정상적인 대금 결제 여부는 자금력이 미약한 수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관련한 애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위탁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80.0%로 어음결제에 비해 60.0%p 높았으며, '13년 대비 0.1%p 상승하였다.

표 II-3-3-8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

(단위 : %)

연 도	현금성 결제			어 음
	현 금	어음대체결제	소 계	
2009년	67.6	21.0	88.6	11.4
2010년	52.9	34.6	87.2	12.8
2011년	65.5	17.9	83.4	16.6
2012년	48.7	35.3	84.0	16.0
2013년	68.4	11.5	79.9	20.1
2014년	64.6	15.4	80.0	20.0

* 어음대체결제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 자료 : 중소기업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2009~2014)

납품대금 결제기간은 위탁기업이 물품 수령 후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는 업체의 비율은 2014년에는 91.4%로 전년대비 10.1%p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표 II-3-3-9 연도별 납품대금 결제기간 추이

(단위 : %)

연 도	60일 이내	60일 초과			
		소 계	61~90	91~120	121일 이상
2009년	90.9	9.1	7.3	1.3	0.5
2010년	89.7	10.3	7.6	1.8	0.9
2011년	84.2	15.8	10.9	3.2	1.7
2012년	75.9	24.1	11.9	6.8	5.4
2013년	81.3	18.7	14.0	3.1	1.6
2014년	91.4	8.6	6.3	1.5	0.8

* 자료 : 중소기업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2009~2014)

2)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매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벌점¹⁵⁾을 부과한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벌점에 따라 교육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의 법령 위반 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¹⁶⁾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2014년 실태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 5,000개사 가운데 501개사가 법을 위반하였으나,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 31개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이 의심되는 441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하였다.

표 II-3-3-10 수·위탁거래 법령위반기업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업체(개)	3,206	2,533	2,715	3,052	4,000	5,000
위반업체(개)	155	195	158	62	369	501
공정위 조치요구(개)	60	192	132	60	329	441

이와 함께 표준약정서 사용 및 현금성 결제 100% 등을 실천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참여 우대, 2년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신용평가기관(기보) 우대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2개사가 선정되었다.

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1)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의무고발요청제가 본격적으로 시행(2014.1.17)됨에 따라 그동안 甲의 위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온 대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시행 첫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반의 정도가 고발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 중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가 큰 9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9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고발요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된 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재발이 우려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2014. 9월, 중소기업중앙회)하였다.

향후,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인 및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 수·위탁 분쟁조정 지원 활성화

수탁·위탁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 시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분쟁의 조정)

이러한 분쟁의 사전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2005년부터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수·위탁거래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

표 II-3-3-11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5~2015)

구분	접수 건수	분쟁유형					조정결과		
		대금등 미지급	발주 기피·중단	대금 감액·인하	수령 거부	기타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조정 비대상
합계	406	308	33	17	3	45	176	210	20
2005년	15	12				3	6	6	3
2006년	26	22	1		2	1	10	15	1
2007년	39	30	3	1		5	18	21	
2008년	42	30	3	1		8	20	19	3
2009년	45	36	2	5		2	19	24	2
2010년	65	50	2	7		6	28	33	4
2011년	35	32	1		1	1	17	18	
2012년	52	40	5	1		6	15	34	3
2013년	45	30	5			10	19	22	4
2014년	20	12	6			2	13	7	
2015년	22	14	5	2		1	11	11	

3)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4개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2013.11.29) 하였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분쟁조정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13년 73건, 2014년 696건, 2015년 628건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기술 유용에서 부당감액 등 5개 행위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여부, 청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가 있을 시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실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조세상의 특례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세제로 안전설비투자금 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안전설비투자금 공제(제25조)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연구 시설 등에 위탁기업 투자금액의 3% 상당금액의 조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8조의2)은 협력 중소기업에 2013년까지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만 해당)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법인세 공제(제8조의3)는 내국법인이 수탁기업 등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을 목적으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 대해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중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의 경우 2015년까지 대기업 등 153개사가 9,526억원 출연을 협약하였으며, 14,314개 협력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등을 위해 3,99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를 지원한 내국인과 지원받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설비에 대해 손금산입의 특례(제8조)도 인정되고 있다.

5 전략적 동반성장 확대

- 공공구매판로과 강성원
- 소상공인정책과 정진삼

가. 여성기업 활동 촉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원활한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고자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여성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2009년 5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부터 권고사항이었던 구매목표 비율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여성경제인의 경영역량 강화와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여성 CEO MBA교육, 전국경영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 공공구매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여성기업 및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등 여성의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년 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동 실태조사는 2003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지정통계로 승인되었다.

2015년에는 여성기업육성 사업에 5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 여성기업 일반 현황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체 수는 1,378천개(2014년)로 전체 사업자의 38.9% 수준이다.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숙박·음식업이 63.0%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이 41.2%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20.1%로 낮은 비율이다. 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벤처기업은 2014년 12월말 기준 2,393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0%(전체 29,910개사)이며, 2006년 이후 4배가 증가하여 벤처 업계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II-3-3-12 여성기업체 현황

(단위 : 천개)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기업	3,047	3,069	3,125	3,235	3,354	3,419	3,545
여성기업	1,162	1,178	1,204	1,254	1,306	1,336	1,378
비율(%)	38.1	38.4	38.5	38.8	38.9	39.1	38.9

* 자료 : 통계청,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가공(비법인단체, 회사외의 법인 제외)

표 II-3-3-13 여성기업 주요 업종별 현황(2014년)

(단위 : 천개)

연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체기업	701	987	301	149	393
여성기업	442	406	155	85	79
비율(%)	63.0	41.2	51.6	57.2	20.1

* 자료 : 통계청,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가공(비법인단체, 회사외의 법인 제외)

2)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운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총 구매 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을 구분하여 포함(물품과 용역은 각 5%, 공사는 3%이상)하고 의무적으로 계획한 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함으로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에 노력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구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 기업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확인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구매 의무화 시행('14.1)에 따라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참여율 증가 및 여성기업 확인 수요의 증가로 2015년에는 8,153건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14년 대비 686건(9.2%) 증가하였고, 공공구매 실적은 7.14조원으로 '14년 대비 1.65조원(30.1%) 증가하였다.

표 II-3-3-1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청	3,659	2,968	5,235	8,767	10,080
발급	2,921	2,583	4,540	7,467	8,153
누적	5,317	7,685	9,977	14,427	19,809

표 II-3-3-1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체	104.4	99.8	106.4	113.0	111.5	119.2
여 성	2.36	2.59	3.41	4.48	5.49	7.14
비율(%)	2.3	2.6	3.2	4.0	4.9	6.0

3)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확대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크게 정책자금지원과 보증기금운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5년도에는 2,153개 업체에 4,160억원의 정책자금을, 신용보증은 89,06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I-3-3-16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업체수, %)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책자금 규모	29,565	31,493	37,152	32,700	39,019
여성기업 지원실적	2,759 (819)	3,326 (1,283)	4,186 (1,850)	3,852 (1,764)	4,160 (2,153)
여성기업 지원비율	9.3	12.5	12.8	11.8	10.7

표 II-3-3-17 여성기업 보증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신용보증	416,273	45,587	11.0	424,448	45,785	10.8	425,141	44,503	10.5
기술신용보증	193,539	13,322	6.9	196,032	13,666	7.0	208,635	15,832	7.6
지역신용보증	142,722	53,482	37.5	144,549	54,036	37.4	162,461	61,843	38.1
합 계	752,531	114,405	15.2	705,537	89,060	12.6	796,237	122,178	15.3

4)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 창업의 61.6%가 음식·숙박, 도·소매업의 소상공인임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체계적 창업교육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등 전국 15개 지역(서울지역의 경우 중앙센터, 서울센터 각 1개씩 운영)에 설치되어 있으며,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이내의 신규 여성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사무기기 사용, 초고속인터넷·보안장비 등을 지원한다.

* 16개 센터의 총 205개실 입주공간에 192개 업체가 입주

아울러 경영컨설턴트,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 이들을 초빙하여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정보 및 정부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748개 업체가 졸업하여 법인 설립, 사업 확장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나. 장애인기업 육성

2005년 7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2006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2008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장애인기업 현황

2014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총 인구의 5.13%인 273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23만명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인의 63.0%, 고용률도 60.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II-3-3-18 연도별 장애인 현황

(단위 : 만명, %)

구 분	2011년	2012	2013	2014
총인구	5,073	5,095	5,114	5,132
장애인구	252	251	250	273
비율(장애인구/총인구)	4.96	4.93	4.88	5.31

자료 : 장애인실태조사(2014년), 통계청 주민등록통계(각 년도), 장애인경제활동보고서(2014년)

표 II-3-3-19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8년	장애인	2,071	851	41.1	37.7	8.3
	일반인	39,598	24,347	61.5	59.5	3.2
2011년	장애인	2,540	978	38.5	35.5	7.8
	일반인	41,052	25,099	61.1	59.1	3.4
2013년	장애인	2,458	940	38.3	36.0	5.9
	일반인	42,047	26,195	62.3	60.4	3.0
2014년	장애인	2,449	970	39.6	37.0	6.6
	일반인	42,453	26,762	63.0	60.8	3.6
2015년	장애인	2,444	922	37.7	34.8	7.9
	일반인	42,975	27,211	63.3	60.9	3.8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15.5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2015년 실시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체수는 3.9만여개로 총사업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87.4%)이 소상공인이고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3.27명, 그중 장애인근로자는 평균 1.32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

* 기업규모 : 중기업 1,552개(3.9%), 소기업 3,446개(8.7%), 소상공인 34,538개(87.4%)

표 II-3-3-20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단위 : %)

구 분	도·소매	개인서비스	제 조	숙박·음식업	기타
분 포	30.4	21.6	21.6	12.8	13.6

자료 : 2015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이렇듯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크게 높아 장애인 기업이 장애인의 소득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3-21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

구 분	정부기관 ¹⁾	공공기관 ¹⁾	민간기업 ¹⁾	장애인기업 ²⁾
고 용 률	2.80	2.93	2.51	40.4

주 : 1) 고용노동부,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2015.12월말 기준(50인이상 기업체기준)
 2) 2015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

2)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정부는 장애인을 경제 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고용창출의 안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체계적 지원으로 늘어나는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장애인구 증가(만명) : (2011) 252 → (2012) 251 → (2013) 250 → (2014) 273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14>

* 장애인기업수 : (2009) 32,027개 → (2011) 32,685개 → (2013) 34,761개 → (2015) 39,536개

<자료 :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015>

창업교육은 장애 정도와 유형, 경제활동 경력 및 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화업종 창업교육은 장애 유형별 적절한 업종을 발굴하여 기초이론 교육부터 현장실습까지 집중 교육으로 실전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창업자 대상으로 성공창업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실패한 장애인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교육도 2016년부터 신설하여 년 2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와 장애경제인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3-22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사 업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맞춤형 장애인 창업교육	9회, 241명	기초 660명 특화 225명 인턴 101명	기초 655명 특화 209명 인턴 138명	기초 763명 특화 190명 인턴 134명	기초 635명 특화 229명 역량 112명	기초 633명 특화 168명 역량 183명
장애인기업 CEO 교육/연수/세미나	6회, 365명	6회, 382명	5회, 201명	5회, 222명	5회, 200명	4회, 146명
장애인 점포지원	-	21개 점포	21개점포	23개점포	-	32개점포

2011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점포지원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최적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5년간 87개 점포를 지원하여 기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8개 점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창업점포지원을 통해 창업한 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지속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실적을 조사결과 일반사업체 대비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활동 참여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3-3-23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구 분	사업수혜자 (2011~2013년 62개업체)	일반사업체
월평균매출액(만원)	1,109	877 ¹⁾
영업지속률(%)	76	41 ²⁾
상시근로자수(명)	1.53	0.88 ³⁾

주 : 1) 소상공인 월평균매출액(201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상공인진흥원)

2) 사업수혜자 : 2013년 수혜업체 대상 조사(23개 업체) 실시

일반사업체 : 2007~2011년 사업자등록업체 중 3년 미만 폐업률(준속연수별 폐업자현황, 국세청)

3) 소상공인 1개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1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의 자립·성장기반 구축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근접 지원하기 위해 2008년 2개 지역(대구, 광주), 2009년 2개 지역(부산, 대전), 2010년 1개 지역(경기), 2012년 3개 지역(인천, 경남, 울산), 2013년 3개 지역(강원, 전북, 제주), 2014년 2개 지역(충북, 전남), 2015년 2개 지역(충남, 경북)에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센터(132개 창업보육실)를 통해 전국적인 지원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상담 뿐만아니라 센터 입주 장애인기업의 맞춤형 현장코칭까지 장애인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과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장애인기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기업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3-3-24 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주요시설	장애인 창업보육실, 강의실, 경영애로상담실 및 회의실, 편의시설 등
주요사업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관련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

표 II-3-3-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소재지	규모(m ²)	설치일자	설치내역	보육실 수
중앙센터(본관)	2,135	2008. 1	보육실(20개), 재단사무처 등	20개사
대구	503	2008.12	보육실(6개), 회의실 등	6개사
광주	332	2008.12	보육실(6개), 회의실 등	6개사
부산	449	2009. 5	보육실(6개), 회의실 등	6개사
대전	420	2009. 7	보육실(6개), 회의실 등	6개사
경기	663	2010.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인천	313	2012. 7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경남	298	2012.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울산	429	2012.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전북	322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강원	310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제주	268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전남	333	2014.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충북	326	2014.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경북	412	2015.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충남	370	2015.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4)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보 지원




2008년 3월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16.7월에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 그간 권장사항으로(전체 구매액의 0.45%) 운영하였던 것을 의무(전체 구매액의 1%)로 전환 및 구매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장애인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2013년도에는 총 구매액의 0.6%(0.68조원), 2014년도에는 0.7%(0.8조원), 2015년도에는 0.9%(1.08조원)를 달성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3-3-26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구매액	2,083억원	2,732억원	3,387억원	6,826억원	7,959억원	10,899억원
공공기관 수	204개	283개	495개	516개	740개	743개

또한, 판로지원 시스템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맞춤형 정부조달 입찰정보 제공으로 2014년에는 76개사에서 21,721백만원의 낙찰을 받았으며, '15년에는 98개사에서 50,468백만원 낙찰 받는 데 성공하였다.

		
<p>장애인맞춤형 창업교육</p>	<p>장애인 창업점포</p>	<p>충남지역센터 개소식 (15.12.24)</p>

제4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제1절 준비된 창업유도 및 생업안전망 확충

1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정책과 박성원

2014년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063천개, 종사자수는 6,046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6.4%, 전체 고용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사업체수는 101천개, 종사자수는 269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0.2%p 감소한 반면, 종사자 수 비중은 0.2%p 증가하였다.

표 II-4-1-1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체	전 체	3,234,687	3,354,320	3,418,993	3,545,473
	소 상 공 인	2,834,954	2,918,595	2,962,367	3,063,001
	비 중	(87.6)	(87.0)	(86.6)	(86.4)
종사자	전 체	14,534,230	14,891,162	15,344,860	15,962,745
	소 상 공 인	5,548,741	5,677,013	5,777,765	6,046,357
	비 중	(38.2)	(38.1)	(37.7)	(37.9)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가공 및 재편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8.6%), 숙박 및 음식점업(20.1%), 제조업(10.6%) 순이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6.2%), 숙박 및 음식점업(21.3%), 제조업(17.0%) 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생활형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4-1-2 2014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 중	종사자수	비 중
전 (쏙) 산 업	3,063,001	100.0	6,046,357	100.0
도 · 소 매 업	876,093	28.6	1,586,382	26.2
숙박 및 음식점업	616,086	20.1	1,287,130	21.3
제 조 업	325,621	10.6	325,621	10.6
기 타	1,245,201	40.7	2,146,900	35.5

* 자료 :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주요국가와 비교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은 영국(95.5%)과 한국(86.4%)이 높게 나타나며, 미국(47.8%)은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또한,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37.9%, 영국 32.7%, 일본 24.1%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은 5.1%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4-1-3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소상공인	비중(%)	소상공인	비중(%)
한국 (2014)	3,962	86.4	6,046	37.9
미국 (2012)	3,549	47.8	5,907	5.1
영국 (2015)	5,146	95.5	8,461	32.7
일본 (2012)	3,997	73.7	13,377	24.1

주 : 각 국가의 소상공인 기준

- 미국 : 고용주 포함 5인 미만(개인사업체, 파트너쉽, 법인기업)
- 일본 : 상시 20인 이하(제조업, 건설, 운수), 상시 5인 이하(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
- 영국 : 10명 미만, 매출액 or 자산규모 200만 유로 이하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

201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46.8%(1,435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은 27.5%,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은 10.3%,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10.2%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48.1%(2,909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7.1%, 충청권은 10.0%, 호남권은 10.1%이다.

표 II-4-1-4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645,574	228,399	167,353	148,548	89,604	88,288	63,699	6,958
(비중)	(21.0)	(7.4)	(5.4)	(4.8)	(2.9)	(2.8)	(2.0)	(0.2)
종사자	1,238,356	439,546	319,948	293,011	172,885	164,857	121,626	14,651
(비중)	(20.5)	(7.3)	(5.3)	(4.8)	(2.9)	(2.7)	(2.0)	(0.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40,453	108,315	95,855	123,139	115,416	113,350	175,073	210,259	42,718
(20.9)	(3.5)	(3.1)	(4.0)	(3.8)	(3.7)	(5.7)	(6.9)	(1.4)
1,378,011	205,658	186,173	237,783	216,105	220,957	335,891	418,834	82,065
(22.8)	(3.4)	(3.1)	(3.9)	(3.6)	(3.7)	(5.6)	(6.9)	(1.4)

* 자료 :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자영업자¹⁷⁾수는 2002년 최고 수준(619만명)을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2008년~2009년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은 556만명을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2002년 최고 수준(27.9%)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은 21.4%를 기록하였다.

17)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표 II-4-1-5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자영업자	자영업자수 변동률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동기대비 증감비율	자영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2002년	22,169	6,190 (27.9)	2.3	1,617	4.1	4,574	1.7
2003년	22,139	6,043 (27.3)	-2.4	1,629	0.8	4,413	-3.5
2004년	22,557	6,110 (27.1)	1.1	1,679	3.1	4,431	0.4
2005년	22,856	6,172 (27.0)	1.0	1,664	-0.9	4,508	1.7
2006년	23,151	6,135 (26.5)	-0.6	1,632	-1.9	4,503	-0.1
2007년	23,433	6,049 (25.8)	-1.4	1,562	-4.3	4,487	-0.3
2008년	23,577	5,970 (25.3)	-1.3	1,527	-2.3	4,443	-1.0
2009년	23,506	5,711 (24.3)	-4.3	1,517	-0.7	4,194	-5.6
2010년	23,829	5,592 (23.5)	-2.1	1,499	-1.2	4,093	-2.4
2011년	24,244	5,594 (23.1)	0.0	1,505	0.4	4,088	-0.1
2012년	24,681	5,718 (23.2)	2.2	1,549	2.9	4,169	2.0
2013년	25,066	5,651 (22.5)	-1.2	1,510	-2.5	4,141	-0.7
2014년	25,599	5,652 (22.1)	△1.6	1,581	2.0	3,982	△2.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과잉창업 방지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소상공인정책과 백종오
- 소상공인지원과 남기동
- 소상공인지원과 심상진

가. 소상공인 정보제공

1) 소상공인방송(yestv) 운영

소상공인방송(yestv)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 및 유용한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케이블TV와 IPTV를 통해 전국 송출되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방송이다.

소상공인방송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공익 가치와 사회적 공익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의미로 소상공인방송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과 책임을 수행하는 방송채널로서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표 II-4-1-6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선정 결과

공익성 방송분야	연도	채널명
사회 복지	2014년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WorkTV), 소상공인방송(yestv)
	2015년	소상공인방송(yestv) ,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WorkTV)
	2016년	소상공인방송(yestv) ,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WorkTV)

2015년 케이블TV 9개소, LG유플러스(IPTV) 신규 론칭을 통해 187만 신규 가입자를 확보, 전체 2,833만 유료방송 가입자 중 1,357만(47.9%) 가구에 방송 송출 하고 있으며 모바일 에브리온TV(415번)를 통해서도 1일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표 II-4-1-7 2015년 소상공인방송 송출 현황

구분	회사명	송출시명	채널번호
케이블TV	티브로드 (22개사)	(서울)종로중구, 서대문, 광진성동, 동대문, 도봉강북, 노원, 강서 (부산)서부산, 동남, 낙동 (대구)대구, TCN대구, 대경 (인천)서해, 남동, 새롬 (경기)수원, ABC, 한빛, 기남 (충남)중부 (전북)전주방송	231번 외
	CJ헬로비전 (16개사)	(서울)은평, 양천 (부산)해운대기장, 금정, 중부산, 중앙 (인천)북인천 (경기)나라, 드림씨티 (강원)영서, 영동 (전북)전북 (전남)호남 (경남)경남, 가야, 마산방송	544번 외
	씨앤엠 (14개사)	(서울)중앙, 서서울, 동서울, 중랑, 북부, 노원, 마포, 구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경기)경동,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512번 외
	CMB (10개사)	(서울)동서, 한강 (대구)수성, 동부 (광주)광주방송동부지점, 광주 (전남)광주방송전남지점 (대전)대전, 대전방송동대전지점 (충남)충청방송	168번 외
	현대HCN (8개사)	(서울)동작, 관악, 서초 (부산)부산 (대구)금호 (충북)충북 (경북)경북, 새로넷방송	548번 외
	개별SO (9개사)	광주방송, 울산중앙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금강방송, 하나방송, 서경방송, 제주방송, 푸른방송, 남인천방송	각기 다름
IPTV	KT	Olleh tv	255번
	SK브로드밴드	Btv	415번
	LG유플러스	U+ tv G	175번
모바일	현대HCN	에브리온TV	415번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인 (주)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소상공인방송을 시청한 가구는 일평균 38,673가구로 2012년 방송 송출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4-1-8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일평균 시청가구수 추이

(단위 : 가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케이블TV	960	7,615	30,466	29,534
IPTV	720	6,430	5,855	9,139
합 계	1,680	14,045	36,321	38,673

소상공인방송은 시청률 증가를 위해 방송품질 개선으로 HD 프로그램 제작·편성을 확대하였고 뉴스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상인뉴스’를 신설 및 방송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콘텐츠 완성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쟁방식 외주제작과 자체제작을 확대하여 총 907편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하였다.

표 II-4-1-9 2015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단위 : 편)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편수
상권	대한민국 골목기행	대한민국의 대표 골목상권을 소개	52
창업	자급자족 소상공인	귀촌형 창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52
성공노하우	파워인터뷰 공감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인물 인터뷰	52
	휴먼다큐 소상공인	귀감이 될 만한 소상공인 다큐멘터리	130
종합 정보	상인뉴스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	238
	전통시장 네트워크	전통시장 먹거리, 볼거리 등 소개	100
	별별 랭크쇼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앙케이트 프로그램	27
해외사례	아시아 전통시장	아시아 각국의 전통시장 탐방 프로그램	52
전통시장	휴먼다큐 시장사람들	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130
	전통시장 쓰리고	전통시장의 다양한 볼거리를 소개	22
소공인	옛것이 좋다	물품을 전통방식대로 만드는 소공인의 이야기	52

소상공인방송은 TV 시청 외에 방송 홈페이지, 네이버 TV캐스트, 유튜브, SK Btv CUG 등을 통해 VOD(다시보기)로 재시청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총 763,906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였다.

표 II-4-1-10 소상공인방송 VOD 이용건수 추이 (단위 : 가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도별 이용건수	483,259	698,687	750,637	763,906

2)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에서 구현된 실제 상권영역 기반으로 분석한 4개영역(업종, 매출, 인구, 지역) 49종(동종·유사 업체현황 및 추이, 유동·거주인구, 집객시설 등)의 상권정보와 창업과밀지수, 점포평가, 점포이력 등의 부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운 상권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에 따라 2006년 당시 122,219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15년 818,860건으로 연평균 23.5% 증가하였다.

표 II-4-1-11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실적 (월평균)	581,378 (48,448)	494,048 (41,171)	598,919 (49,910)	635,020 (52,918)	818,860 (68,238)
증가율	85.6%	△15.0%	21.2%	6.0%	29.0%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상권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노력을 통해 기초DB의 정확도는 2011년 82.7%에서 2015년 91.0%로 8.3%p 향상하였다. 이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년 기준 전체 사업자수의 31.2% 190만개의 창·폐업이 이루어지는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있는 수치이다.

표 II-4-1-12 상권정보시스템 기초DB 정확도 조사결과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허가	92.2%	90.2%	90.1%	90.8%	90.6%
비인허가	76.6%	83.8%	89.5%	89.8%	91.1%
전체 정확도	82.7%	87.0%	89.8%	90.3%	91.0%

이러한 정확도 제고 노력과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2015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이상)는 누적 10.4%, 전년대비 1.2%p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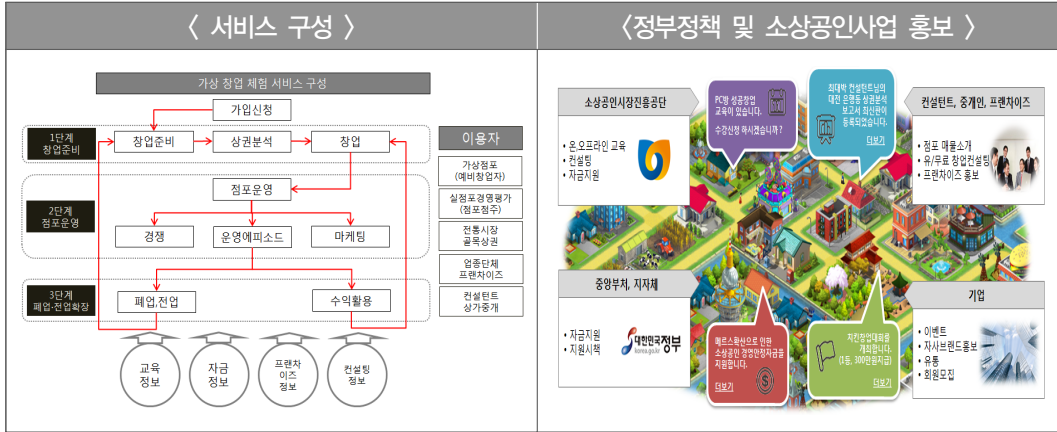
표 II-4-1-13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자 만족도	77.8%	79.8%	82.4%	87.0%	88.2%

2015년에는 신용카드 및 유동인구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업종의 과밀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개·폐업 변화정보를 제공하는 ‘점포이력서비스’, 점포의 수준을 평가해주는 ‘점포평가서비스’ 등의 부가 정보·서비스를 지역별·업종별 확대하였다. 또한, 상가업소DB를 중심으로 공유·수집된 약 250만건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창업과밀지수’ 및 ‘점포평가서비스’의 제공지역 및 업종을 전국·30개업종(창업과밀지수) 45개업종(점포평가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실데이터 기반의 창업전략시뮬레이션으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폐업·업종전환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창업가상체험서비스’의 사업타당성 및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계획으로 ‘창업도 사전에 연습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1 상권정보시스템 2016년 신규 서비스



3)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별 일대일 정책, 창업·경영 등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일원화된 ‘소상공인 통합지원플랫폼’으로 개편(sbiz.or.kr)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2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체계



2015년에는 소상공인방송, 상권정보, 소상공인지원알리미 등 3종의 앱을 하나로 통합한 ‘소상공인마당 앱’을 2015년4월부터 제공하여 3분기만에 26,240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교육, 컨설팅, 방송 등 개별 사이트의 유기적 연계·통합에 따른 편의성 증대로 이용자수가 2014년 96,761명에서 2015년 115,966명으로 전년대비 19.8% 상승하였다.

표 II-4-1-14 2015년 소상공인마당 앱 다운로드 현황

구 분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안드로이드	9,538	4,944	7,544	22,026
IOS	-	2,620	1,594	4,214
총 다운로드 건수	9,538	7,564	9,138	26,240

* (안드로이드) 2015.4.14, (IOS) 2015.9.8 부터 제공

소상공인지원정책 및 지식정보를 통합공간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적시 제공함으로써 종합정보시스템 2015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 이상’)는 누적 15.4%, 전년대비 5.6%p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4-1-15 종합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자 만족도	74.7%	84.5%	90.1%

2016년에는 검색기능 개선 및 맞춤형 정보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고도화 및 개인별 맞춤형정보 제공을 위한 모델링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모바일서비스 확대 및 가독성 강화를 통하여, 웹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기능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확대, 푸시알림 서비스, 실태조사 등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를 인포그래픽스화할 계획이다.

나. 소상공인 창업교육

예비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이후 종합적인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172,382명이 창업교육을 수료하였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은 소상공인사관학교와 소상공인 창업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상공인사관학교는 2015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 과잉진입을 방지하고 신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론·실습교육, 점포경영체험, 멘토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의 창업 준비에 필요한 이론, 현장실습 및 인턴체험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사관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에서 150시간 이내의 창업이론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생은 이론교육 수료 후에 5개 지역 중심상가에 구축된 19개 점포체험장에서 창업하여 3개월간 매장경영을 체험하고, 점포체험단계부터 6개월간 개별 전담멘토링도 지원받는다.

졸업생에게는 소상공인창업자금을 1억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우수 졸업생을 심사·선발하여 사업화 보조금을 2천5백만원 한도(개인부담 50%)로 지원한다. 2015년에는 2기수에 걸쳐 총 305명을 선발하였고, 192명이 점포체험과정에 참여한 후 최종 159명이 졸업하였다.

표 II-4-1-16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장 현황

	점 포 명	주 소
서울	총무로점	중구 총무로2가 50-6외 3필지
	대학로점	종로구 혜화동 143-2
	중랑점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상가 111~118호
	명동점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1층
	강남점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지하1층
부산	센텀시티 1호점	해운대구 우동 1474 107호, 108호
	센텀시티 2호점	해운대구 우동 1484 제A-103B2호
	센텀시티 3호점	해운대구 우동 1458 1105호, 1106호
	범일점	동구 범일동 830-9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범어동 198-2 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두류동 487-7 두류동빌딩 1층
	삼덕점	중구 삼덕동2가 270-1 소석빌딩 1층
광주	금남로점	동구 금남로1가 19-4 YMCA 빌딩 1층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치평동 1216-3 쌍동이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치평동 1254-1 엠써타워 1층
대전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동 1275 아이빌딩 1층
	은행동점	중구 은행동 55-5 사카스포츠 1층
	중앙로점	중구 은행동 140-2 한국투자증권빌딩 1층
	둔산 2호점	서구 둔산동 1043 현대빌딩 1층

소상공인 창업교육과정은 공모로 선정된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80시간 이내의 창업이론 및 실습교육과 유사창업업체에서의 인턴체험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2015년에는 총 63개의 민간교육기관이 선정되어 4,187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다.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2012년 소상공인 창업 교육의 일환으로, 포화된 국내 자영업 시장을 분산시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중국·동남아시아의 한류문화 확산과 FTA 체결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현지 창업을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 확산 및 국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613명의 해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교육(539명) 및 해외 인큐베이팅(74명)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중국·라오스, 2013년에는 중국·베트남·미얀마·필리핀, 2014년에는 중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2015년에는 중국·라오스·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를 창업 대상국으로 하여 국내교육과 해외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였다.

표 II-4-1-17 연도별 해외창업 교육수료 현황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국내 교육	해외 교육	국내 교육	해외 교육	국내 교육	해외 교육	인큐 베이팅	국내 교육	인큐 베이팅
중 국	16	11	24	11	21	13	4	49	11
라오스	26	16	-	-	-	-	-	47	12
베트남	-	-	27	-	34	14	4	61	12
미얀마	-	-	27	12	33	15	4	56	12
캄보디아	-	-	-	-	34	15	4	60	11
필리핀	-	-	24	-	-	-	-	-	-
합 계	42	27	102	23	122	57	16	273	58

교육내용은 해외창업에 필요한 국내교육 및 해외 인큐베이팅, 상권분석 및 자료 수집을 통한 해외 창업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진다.

국내교육은 국가별 경제동향, 상권분석, 창업법규, 세무·회계, 창업성공 사례 및 해당국의 법제도, 언어교육 등 현지 창업적응 기초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2014년부터 시작한 해외 인큐베이팅은, 현지의 창업 준비를 위한 사무공간 지원, 사업타당성 검토, 현지 시장조사, 창업 실무를 위한 법률·회계 자문, 사업자등록 절차, 현지 유관기관 방문 등 실무위주로 진행한다.

해외창업 정보제공은 창업자료 수집, 유망아이템 조사 등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해외창업 정보를 현지조사를 통해 온·오프라인 또는 가이드북 형태로 제공한다.

표 II-4-1-18 연도별 해외창업 현황

구 분	2012년 수료자		2013년 수료자		2014년 수료자		2015년 수료자	
	수료국가 및 창업자	중국	3	중국	2	중국	2	베트남
라오스		3	필리핀	4	베트남	4	캄보디아	3
베트남		1	-	-	미얀마	1	미얀마	3
-		-	-	-	캄보디아	1	라오스	1
계		7	계	6	계	8	계	10

올해 5년차로, 31건의 해외창업 성과를 보였다. 사업성격상 해외 창업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4년, 2015년 해외 인큐베이팅이 도입되면서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국에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국의 창업제도 및 법률, 현지 점포체험, 소상공인 유관단체 방문 등 현지 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지원함으로써 15명의 실제 창업자가 시현되어 향후 꾸준한 추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업 업종은 한식·분식, 커피숍, 화장품 도소매, 자동차 정비업, 꽃집, 치킨집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 8개 도시, 총 78명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도 국내교육과 해외 인큐베이팅을 일원화하고 해외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 인큐베이팅 참가자들에게만 국내교육(40H)을 지원하며 규모도(58명→78명)으로 확대

국가별 교육 과정을 더욱 세분화·전문화하여 운영하고, 현지 기 진출자에 대한 사후지원을 통해 한인 네트워크의 조직화 및 소상공인 간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한 해외 진출자에 대한 컨설팅, 멘토링 등 제2의 해외창업 지원창구 역할도 지원할 예정이다.

라. 신사업 육성 지원

소상공인이 편중된 생계형 업종을 벗어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 국내·외 신사업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사업아이디어 보급사업은 국내·외에서 발굴한 성공창업 유망 아이템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창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I-4-1-19 연도별 신사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굴 건수	360	359	834	431	600	440	346	360	400
사업화 지원	-	-	-	18	13	20	15	15	55

신사업 발굴 전문가, 발굴 커뮤니티,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된 신사업 아이디어는 전국 순회 설명회, 책자발간, 각종 언론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신사업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화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도입하여 2015년까지 총 13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5에는 55명에게 지원하였다.

표 II-4-1-20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대표 사례

발굴년도	아이디어	주요내용
2007년	연장이 필요 없는 조립식 가구	■ 보다 자연에 가깝고 기본에 충실한 미니멀한 형태 감의 이테일을 제안하는 아이템
	JUST SALAD 레스토랑	■ 영양가 높은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푸드 형태의 샐러드 전문점
	식물벽 설치 인테리어	■ 친환경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실내에서 자연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
2008년	노인전문 건강 멀티숍	■ 건강한 고령층 고객을 위한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
	음식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체인점	■ 통합 콜센터를 통해 해당 음식점에 통보해주고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배달연계 아이템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요리책	■ 고객이 원하는 레시피와 이미지, 디자인을 편집하여 테이스트북(TasteBook)을 제작
2009년	여성들을 위한 피트니스 클래스	■ 여성들만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요법들을 지도하는 사업 아이템
	한 입 크기 베이커리	■ 한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빵과 쿠키 같은 다양한 제빵을 판매하는 아이템
	베이비시터와 엄마들을 위한 중계사업	■ 우수한 베이비시터들을 엄선·선발하여 엄마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소개하는 중계사업 아이템
2010년	어린이 전용 헬스클럽	■ 아이들의 성장발달과 운동신경 발달 등의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휘트니스 센터
	맞춤형 신발리폼튜닝	■ '1인 창업'을 내세운 틈새형 맞춤형 리폼 아이템
	초코아트 흙 공방 창업스쿨	■ 특히 여성 창업자들에게 활용범위가 넓고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
2011년	도심을 테마로 한 도보 여행	■ 관광객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특색 있는 도심테마 여행 프로그램 운영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	■ 개인에게 필요한 일일 권장 칼로리에 적합한 음식을 제공하는 창업 아이템
	어린이 맞춤 교재 제작 서비스	■ 다양한 연령대 학습자들의 교육적 니즈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재를 제작해 주는 아이템
2012년	어린이 전용 체험 미술카페	■ 기존 미술학습이외에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웨딩 역경매	■ 웨딩 연계업체가 예비신랑신부가 원하는 맞춤형 웨딩 패키지를 추천하는 아이템

발굴년도	아이디어	주요내용
2013년	시니어 플랜샵	■ 시니어에게 사교장, 사업계획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아이템
	몸으로 치유하는 '힐링모션'	■ 무용·동작을 통해(환자 심리상태 표현) 몸과 마음이 행복을 찾는 예술심리치료
	맛과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미식 버스	■ 버스여행과 고급 요리를 결합한 서비스로 이층 버스로 명소 관광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요리 제공
2014년	액세서리 위탁 판매 박스샵	■ 여성 예비창업자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액세서리 제품을 박스형 쇼케이스에 전시하여 위탁 판매하는 점포
	디지털장례업	■ 고인의 각종 인터넷 기록과 흔적을 삭제함으로써 고인의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고인의 명예 및 가족들의 피해방지 서비스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 3D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주문제작 형태로, 디자인과 융합하여 특화된 작품 제작 및 판매
2015년	육아용품 클리닝 서비스	■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마음을 생각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해세균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서비스
	중년들을 위한 Fashion Advice CAFE	■ 40대 이상의 중년들을 대상으로 패션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1:1 패션 어드바이스 및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 주는 카페
	귀농 게임 시뮬레이션 "귀농코디네이터"	■ 귀농 전에 미리 자신의 귀농유형, 흥미, 성공 및 실패 가능성을 체험해보는 시뮬레이션 게임
	인터넷 합주 서비스	■ 온라인 실시간 연결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악기 연주를 하거나 1:1 강습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사관학교 점포체험장	신사업 사업화 사례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지원과 김 원 주
- 소상공인지원과 남 기 동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은 과밀업종의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61억원을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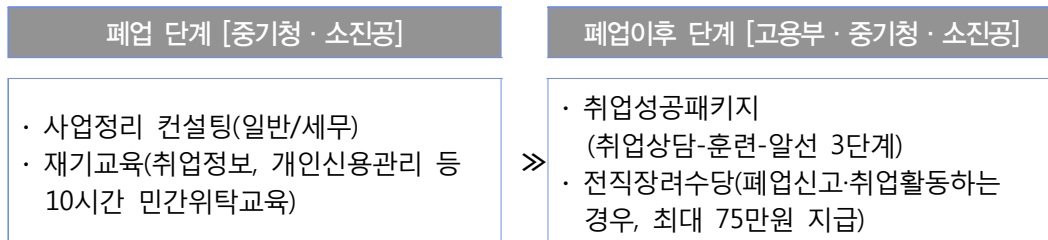
가.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정리 컨설팅(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 분야 전문컨설팅)과 재기교육(면접요령·이력서 작성 등 취업 기본역량, 취업정보 및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5년 실적) 총 3,701명(사업정리 컨설팅 763명, 교육 2,938명) 수료, 2015년 목표 1만명 대비 37% 달성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추천서를 발급하여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1단계인 취업상담을 받거나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림 23 희망리턴 패키지



그러나,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지원실적은 당초 사업정리 컨설팅 4,000명, 재기교육 6,000명 등 총 10,000명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각각 763명 및 2,938명 등 총 3,701명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은 수요자 발굴의 어려움과 메르스사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취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참여자의 취업현황 파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 유망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재창업패키지

재창업패키지는 과밀경쟁업종인 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하여 유망업종으로 재창업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하고자 2015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업종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재도전을 위한 힐링교육, 업종별 기초이론과 전문이론·기술교육 및 유사업체에서의 인턴체험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교육수료 후 창업 전문가의 전담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589명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에는 지원규모를 2,000명으로 확대하여 폐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人公제(노란우산공제)는 폐업·퇴임·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2007.9.5)되어, 2015년 기준 재적가입자는 592,574명이며 3조 8,262억원이 조성되었다.

공제금은 폐업,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에 의한 퇴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는 대출(납부금액 90%범위 내), 소득공제(연 300만원),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월부금의 150배 까지), 수급권 보호(공제금 압류 등 금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진 이후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5년 신규가입자수는 193,531명으로 2010년(33,106명), 2011년(67,591명), 2012년(122,880명), 2013년(121,783명), 2014년(112,224명), 2015년(193,531명)을 감안할 때, 2012년 이후 매년 10만명이 넘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공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2015년까지 228.5억 원을 지원(2008년 10억원, 2009년 56억원, 2010~2014년까지 각 30억원, 2015년 12.5억원)하였다. 한편 다른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2013년 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대부분 전환되었으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역할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행대로 소득공제(300만원)가 유지되었다.

또한 공제자산 운용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13년말부터 자산운용규정, 리스크관리규정, 자산운용지침(IPS)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체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였다.



제2절

혁신역량 제고 및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1

소상공인 혁신역량 제고

- 소상공인지원과 심 상 진
- 소상공인정책과 박 은 주

가.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표 II-4-2-1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연혁

시행시기	내 용
2005년 5월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에 의하여 시범사업 추진
2005년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추진
2006년	자영업 컨설팅사업 추진
2015년	소상공인 역량 Jump-Up프로그램 시범추진

소상공인들은 전문가를 통해 인력·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경영전략, 상품 및 메뉴개발 등의 기술전수, 사업정리 및 상사(商事) 분쟁 등에 따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컨설팅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 II-4-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예산	50	40	59	57	60
일반컨설팅	2,387	2,583	6,886	9,154	4,693
산학협력컨설팅					100
미소금융컨설팅	1,520	1,061	-	-	-
지자체상담창구	3,842	2,599	-	-	-
업종단체컨설팅	18	-	-	-	-
무료법률지원	314	324	364	335	434
현장이동컨설팅	-	-	-	-	-
역량Jump-up					14
총 지원건수	7,959	6,567	7,250	9,489	5,241

2015년에는 교수·컨설턴트의 전문성과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컨설팅을 시행하였고, 위기진단 후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역량Jump-Up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표 II-4-2-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성과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증가업체비율	58.2%	64.4%	60.4%	65.2%	63.3%
매출증가율	3.8%	4.5%	5.0%	7.1%	7.3%

나. 소공인특화지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공인에 대한 조직화·협업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맞춤형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공인은 규모의 영세성 및 인력의 고령화, 기술·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그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책으로

인해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2014년 집적지구 특화지원 사업 신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2014.5.28) 등으로 소공인의 판로개척, 기술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 수제화(성수동), 기계·금속(문래동) 등 기존 8개 센터를 비롯해 16개 신규센터를 설치하고 경영·기술교육, 공동제조장비 활용, 공동사업, 작업환경 개선, 공동판매행사 등 센터지원 3,416개사, 판매촉진 209개사, 제품기술가치 향상 97개사를 지원했으며, 특히 소공인특화센터 수혜 소공인은 2014년 매출 대비 2015년 매출액이 평균 8.1%, 고용은 4.9% 증가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II-4-2-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지역	센터명	집적지	분야	비고
1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종구(쌍림동)	인쇄	'13년 개소
2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3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4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5	인천 송도 기계 금속 센터	동구(송현동)	기계금속	
6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중구(성내동)	귀금속	'14년 개소
7	성남 제과제빵 센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빵)	
8	서울 신당 의류 센터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15년 개소
9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10	서울 성수 수제화 센터	성동구(성수동)	가죽신발	
11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12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13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14	대전 정동 인쇄 센터	동구(정동)	인쇄	
15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16	금산 인삼(식품) 센터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17	대구 노원 안경 센터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18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19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신발	
20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21	광주 서남 인쇄 센터	동구(서남동)	인쇄	
22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23	광양 옥곡 금속가공 센터	광양시(옥곡면)	기계금속	
24	강진 대구 청자 센터	강진군(대군면)	비금속광물(청자)	

		
<p>문래 철공인과의 대화 (’14.11월)</p>	<p>소공인특화센터 공용장비 (3D스캐너 등)</p>	<p>소공인 제품전시장</p>

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이 일자리·복지·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부각됨에 따라 개별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자원부족 및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차 지원 중에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프라 구축과 영업활성화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조합원)의 매출 및 수익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개별 소상공인의 직접지원방식과는 차별화 된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원정책이다.

동 사업은 지난 3년 간(2013년~2015년) 918.6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총 1,320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인프라 구축(1,194개)과 박람회 참가 및 조합 간 나눔네트워크 등 판로확대(126개)를 지원하였다.

표 II-4-2-5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3년	(예산) 407.2억원 / (실적) 협업인프라 구축 433개 지원 (성과)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11% 증가
2014년	(예산) 270.9억원 / (실적) 협업인프라 구축 364개, 판로 10개 (성과)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12.6% 증가
2015년	(예산) 240.5억원 / (실적) 협업인프라 구축 397개, 판로 116개 (성과) 성과 측정 中('16.11월 결과 도출)

동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1단계)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원이 시급한 곳을 선발하여 협동조합으로 육성한 후, (2단계) 협업목표 및 추진내용이 명확하며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선정, 공동사업에 필요한 협업인프라 구축 비용(최고 1억원)을 지원하고, (3단계)수행기관(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외부 전문인력(협업 전문컨설턴트)을 통해 맞춤형 경영지도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여, 조기경영안정 및 조합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협업인프라 구축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홍보),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구매,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로 구성되며, 소요되는 사업비의 8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15년 상반기에는 지역별 사업설명회(12회, 1,058명) 개최 및 사업공고(4회), 지역케이블 큐톤 광고(176,341회), 라디오 광고(60회), KTX 열차 홍보(2,995,920회), 지하철 도어 스크린 홍보(전국 7곳, 2015.4.20~6.20), 기획기사 연재(42회), 홍보물 제작 배포(31,000부) 등을 통해 정책성과 공유 및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와 협업컨설턴트 선발(201명) 및 제도개선(지침 개정) 등 사업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다

하반기에는 발굴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책취지(사업체규모, 협업내용 등) 및 성공가능성(사업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이 높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선정·지원하였다.

표 II-4-2-6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2015.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신청	663	102	45	85	82	67	21	52	41	48	99	21
조합수	548	88	36	78	55	58	14	41	36	40	79	23
지원	397	51	31	66	48	35	10	33	23	23	62	15

또한 선정된 조합들에 대해서는 협업인식제고 교육(1,600명 수료) 및 협업 전문컨설팅(5,783회)을 연계지원하여,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 조합 중, 매출액 증가 및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황토코리아협동조합 등 55개의 우수 협동조합을 발굴하였고, 해당 조합 등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6년에는 국회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그간 저변확충 등 양적 확대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기존조합의 사업내실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협동조합 판로 및 협업전문컨설팅 후속지원 등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 황토코리아협동조합 우수사례 〉

- (설립계기) 특허제품 보유 등 제품 경쟁력은 우수하나, 대형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마케팅에 대항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 소상공인협동조합 자원사업을 통해 공동장비,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지원받아 공동사업 추진
- (설립개요) 2014년 / 6명 최초 설립 / 대표자 : 배종문
- (사업효과) 공동장비 도입 등 시설현대화로 품질제고 및 생산량 증대(230%)를 통해 매출액 723% 상승('15년 6억원 추정) 및 고용인원(7명) 창출



2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소상공인지원과 이 영 석
- 소상공인지원과 남 기 동
- 소상공인지원과 심 상 진
- 소상공인지원과 송 성 동
- 소상공인정책과 김 현 동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교육은 업종 전문교육, 지역특화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e-러닝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총 1,937,694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업종전문교육과정은 소상공인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신 메뉴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제공하였고, 지역특화교육과정은 지역발전 및 소상공인 성장 도모를 위해 지역소비자 성향, 특산물, 주요산업(관광, 제조 등) 등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업종전문교육 10,709명, 지역특화교육 8,150명 등 총 18,85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료생의 96.7%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25%가 교육을 받은 후 매출이 증가하여 전체 일반 소상공인(8.9%)에 비해 16.1%p 높게 나타났다.¹⁸⁾

한편, e-러닝과정은 점포를 비우기가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을 통한 경영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최신 경영기법의 전수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1,397,708명이 수료하였다.

18) 2015년 소상공인교육 성과보고서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드라마, 만화형식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37,35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권역별로 소상공인 전용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대전·서울·광주·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개소한데 이어, 2010년에는 대구에 개소하여 총 5개의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밀집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시내 중심가 위주로 설치하였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은 시청각 시설을 구비하여 무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시·공간적 제약으로 주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직장인 및 소외계층(재소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17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나.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나들가게)

혁신의지가 있는 골목슈퍼를 현대식으로 육성하고, 시설현대화·정보화에 기반한 조직적 역량 결집으로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 10,760개 골목슈퍼를 나들가게로 선정하고, 전문가의 점포운영 종합지도를 바탕으로 POS 설치, 간판교체, 상품재배열 등과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하였다.

표 II-4-2-7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개접지원(개)	2,302	3,005	4,704	-	517	232	10,760
경영지원(개)	-	-	-	1,611	1,807	1,816	5,234
지원예산(억원)	110	215.4	334.2	34.4	56.5	68.6	819.1

2013년에는 그간의 나들가게 육성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평가 및 문제점 분석¹⁹⁾을 토대로 나들가게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였다. 기존 나들가게 지원이 개별점포 시설개체 등 하드웨어 위주 지원으로 사업성과가 단기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나들가게에 대한 간판교체, POS 설치 등 시설개체 지원을 지양하고 공동구매 및 물류지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위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였다.

나아가 2015년에는 나들가게 육성사업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골목상권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정책 체감도와 지원성과를 제고하고자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을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공동인프라 및 조직화·협업화 지원, 경영성과 제고 위주 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24 2015년 나들가게 지원사업 개편내역

기존(2010년~2014년)		개편(2015년~2017년)
• 중앙 집중 지원 방식	⇒	• 지방과 협력 강화
• 개별 점포 지원		• 공동인프라 및 조직화·협업화 지원
• 정책 공급 위주	⇒	• 경영성과 제고 위주
• 공기관 중심의 사업추진		• 민간의 전문성 활용 확대
• 나들가게 Identity 부족		• 특화된 Identity 구축

2015년부터 지역 골목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나들가게 모델숍, 점포 건강관리, 점주교육,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선도지역은 20개 이상의 나들가게를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3년간 총사업비의 80%, 최대 8억원의 국비를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5년에는 서울시 송파구, 부천시, 제천시, 제주시, 포항시, 강원도 영월군 등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19) 「나들가게 발전전략 및 추가 지원방안」(2013.7, 한국중소기업학회)

한편, 나들가게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생적 조직인 지역별 나들가게협의회를 중심으로 상품 공동구매 및 공동마케팅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5년에 3회 개최된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에 전국적으로 637개 점포가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공동마케팅은 나들가게 매출증가와 함께 협업화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들가게의 공동구매 및 상품배송 공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들가게와 중소기업물류센터 사이의 온라인 수발주시스템을 2013년 개발하여 청주와 안동 2개 물류센터에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청주, 안동, 창원 등 3개 중소기업물류센터에서 동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하여 2016년에는 총 5개 중소기업물류센터에 도입하고 전문 컨설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다.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개별 소상공인의 조직화 등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2009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도입,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본격 실시하면서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은 크게 유망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및 연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은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가맹점 1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과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10개 업체에 대하여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는 가맹점 보호 중심의 평가체계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생발전을 지향하는 평가제도다. 지원대상으로는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 2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수준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구성되며, 2등급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고 엠블럼(문장)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결과에 따라 ①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②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가맹본부 체계구축, ③ 브랜드 홍보 등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우수프랜차이즈로 34개 브랜드를 지정하였으며, 510명에 대한 연계교육, 43개 브랜드에 대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였다.

표 II-4-2-8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평가결과 지도	○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지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 I ~ II 등급에 대하여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및 엠블럼 수여
브랜드 재정비 지원	○ 체계구축 컨설팅(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가맹점주 교육	○ 브랜드별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시행
홍보 지원	○ 소상공인 방송(yestv) 광고, 박람회 개최시 부스를 운영하여 우수프랜차이즈 홍보, 명예의전당 운영

2016년도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은 크게 도입-성장-안정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① 도입지원 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IT 환경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이 가맹본부가 되기 위한 사전 준비 지원 및 프랜차이즈 개념에 대한 이론 교육으로 가맹본부 체계를 구축지원, ② 성장지원 단계에서는 역량있는 프랜차이즈 CEO의 경영 노하우 전수 및 멘토링을 진행하며, 브랜드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브랜드 공동 사업 설명회를 지원, ③ 안정화 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를 통하여 가맹본부의 역량 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른 등급별 연계지원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라.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 건립은 중소기업업자의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와 효율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해오다 2009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 진행하고 있다.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물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도매 배송, 검품,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경우, 건립비의 일정비율(중앙정부:지자체:민간부담 = 6:3:1)을 지원하였다.

물류센터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36개소에 총 77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현재 부산, 제주 등 전국 33곳에서 운영 중이고 김포, 남양주, 고흥 3곳은 건립 중이거나 개소를 준비 중이다.

표 II-4-2-9 시도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2015.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36(3)	1	3	1	1	2	1	8(2)	3	2	5	2(1)	3	3	-	1

* ()안은 건축 중인 센터 수

표 II-4-2-10 건립중인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위치	연면적	총 사업비				운영주체
			총계	국비	지방비	민자	
남양주	화도읍	5,082	5,695	3,420	617	1,658	슈퍼조합
김포	통진읍	1,834	5,000	2,999	1,500	501	슈퍼조합
고흥	동강면	8,760	2,000	500	3,736	980	유통조합

물류센터는 조합원 간의 공동구매와 제조사 직거래를 통해서 슈퍼마켓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6~10%)하고 있으며, 민간 공급망이 부족한 지방소재 골목슈퍼의 상품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5년 실태조사 결과, 물류센터당 평균 매출액은 약 100.3억원으로 센터당 평균 회원수 503명이 물류센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물류센터 이용 소매업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3.8점(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 사용)으로 물류센터 이용 사유로는 첫 번째로 일괄구매가 가능(41.7%)하다는 점과 다음으로 저렴한 공급가격(35.5%) 순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물류센터의 도매물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체계 및 시설체계 개선, 물류센터간 공동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999년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업체당 7,000만원(일부자금 1억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2015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성장기반자금은 창업, 사업전환, 소공인 등 성장단계 및 업종에 특화된 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표 II-4-2-1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1999~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업체	208,229	15,128	25,502	29,825	44,233	322,917
지원금액	53,479	5,050	9,345	10,305	14,939	93,118

2015년 지원금액은 14,939억원이며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2015년 4/4분기 기준 2.72%이다.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이며, 44,233개 업체에 지원되었다.

2014년도 자금지원 수혜업체를 조사한 결과²⁰⁾,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업체가 60.2%로 나타나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중소기업연구원, 2015.11.

바. 소상공인 보증 지원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현황

16개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의 총 보증지원규모는 소상공인 및 서민의 자금수요증가와 경제여건에 따라 2010년 13조 2,479억원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6조 2,423억원으로 약 1.22배 증가하였다.

표 II-4-2-12 연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증잔액	132,479	136,088	135,148	142,719	144,501	162,423
업 체 수	833,412	835,802	829,574	837,659	756,842	833,213
보증공급	67,940	60,801	63,581	77,859	85,057	106,386
기본재산	22,160	24,624	26,925	28,918	30,375	32,224
운용배수	6.0	5.5	5.0	4.9	4.8	5.0

2) 2015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운용성과

가) 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보증지원 강화

수요에 민감한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내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며,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인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의 특성상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져 경제정책과 연계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2015년의 경우 국내를 강타한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전국적인 경기침체가 나타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기밀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①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경기회복 지연과 내부수진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공급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보증 특별지원과, 내수침체로 힘들어하는 일반소상공인을 위한 드림보증 특별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금리도 1년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2.9%, 5년만기 원금분할상환대출은 3.4% 이내의 저금리로 지원했다. 이 보증을 통해 3만8천여명의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았다.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메르스 확산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해 1조 1천억원 규모로 시행된 본 보증은 메르스 영향지역 내 사업장 지원을 위한 메르스 영향소상공인 지원(Track 1),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Track 2), 수출업 및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지원(Track 3)으로 구분하여 지원 하고, 금융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금리도 1년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2.8%, 5년만기 원금 분할상환대출은 3.3% 이내의 저금리로 지원했다. 본 특례보증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6월 중순에 출시되어 4개월만인 10월에 1.1조원이 조기소진되어 4만8천여 소상공인에 단비같은 자금을 지원하였다.

③ 일자리창출과 성장산업 특례보증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촉진과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신청대상은 신용등급 ‘CCC’등급 이상의 신규고용창출, 성장산업(수출업,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④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지원과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창업보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2.9%의 낮은 금리 수준이며,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였다.

재단을 통해 지원한 보증은 부가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2015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보고서」(2015.12)에 따르면 산업연관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2조 1,4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 8,70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31,301명, 고용유발효과는 75,995명으로 경기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13 주요 특례보증 시행내역

구 분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특례보증
주요대상	① 신용등급 7등급이상 장애인,새터민, 여성가장,한부모,다둥이,다문화가족 ② 사업자 등록후 3개월이 경과한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소상공인	① 메르스 영향 소상공인 ② 경영애로소상공인 ③ 수출업 및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일자리창출기업 및 성장산업(수출기업,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영위중인 소상공인
시행시기	2015.4.1	2015.6.17	2010.6.14
공급규모	9천억원	1조 1천억원	3천억원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 1억원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공급실적	37,817건 / 8,651억원	48,009건 / 10,530억원	1,540건 / 42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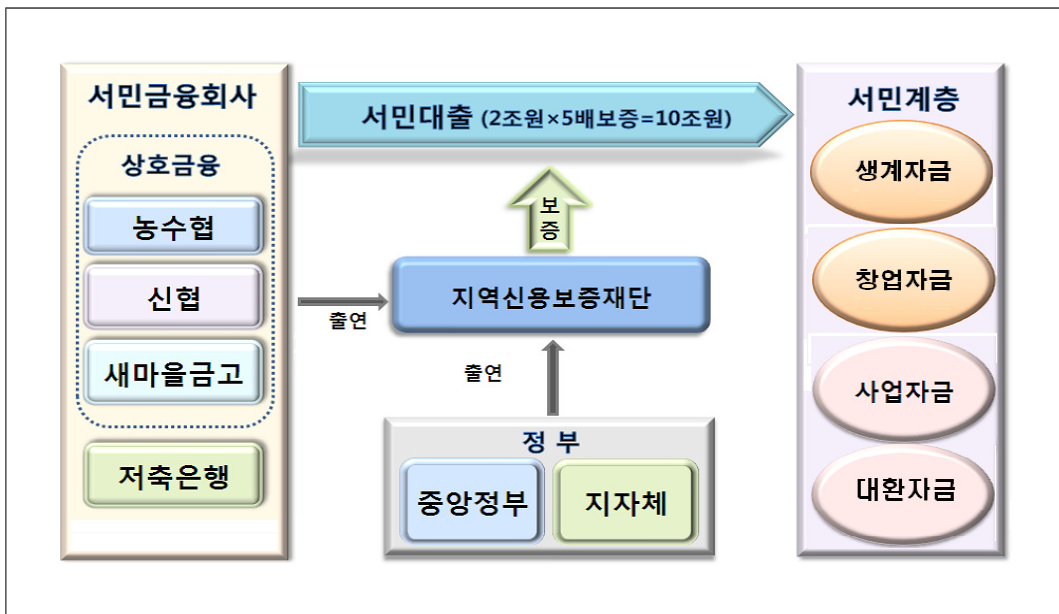
나) 햇살론 제도개선으로 지원규모 확대

햇살론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범 정부차원의 서민지원 정책이다.

2010년 7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햇살론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말 기준, 8조 5,955억원을 약 96만명의 영세 서민에게 지원하였다.

햇살론은 생계자금, 대환자금 외에 2015년 8월 근로자들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5백만원 한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였다. 또한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취급 상한금리를 1.5%p 인하하였고, 기존 고객들 중 연체없이 성실상환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간 0.3%p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햇살론 이용자의 금융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림 25 햇살론 보증공급 체계도



다) 고객중심의 보증제도 운영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15.1월 무방문·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하여 보증부대출 기한연장 시 지역신보의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15.7월 금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 서비스는 신보중앙회와 16개 지역신보의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부 대출금리를 직접 확인하면서 금리가 낮은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거나, 지역신보 담당자가 창구에서 보증상담시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회사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보증부대출 금리알리미

- 금리알리미는 고객에게 신용보증서부 대출금리를 금융회사별, 신용등급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대출이자율이 낮은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 07월 기준 대출금리현황 계단: [전체] | 신용등급: [전체] [검색]

구분	100% 보증		85% 보증	
	최고	평균	최고	평균
경남은행	3.04	3.04	3.35	3.26
광주은행	4.73	3.51	4.92	3.73
국민은행	4.44	3.81	5.27	3.79
기업은행	4.51	3.72	5.44	3.85
농협은행	4.22	3.59	5.55	3.71
대구은행	4.30	3.63	4.50	3.55
부산은행	3.75	3.30	3.96	3.45
신한은행	4.57	3.69	5.16	3.66



신용보증정책 이미지 홍보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



대한민국 금융대전

제3절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1 전통시장 현황

● 시장상권과 이종택

전국의 전통시장은 2015년 현재 1,439개이며, 점포 20.7만개, 상인 35.6만명이 종사하고 있다.(전통시장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9월)

전국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2016.9월)에 의하면 14년 대비 전통시장은 41개, 점포는 약 3.4천개가 증가하였고, 상인은 3천여명 증가하였다.

표 II-4-3-1 연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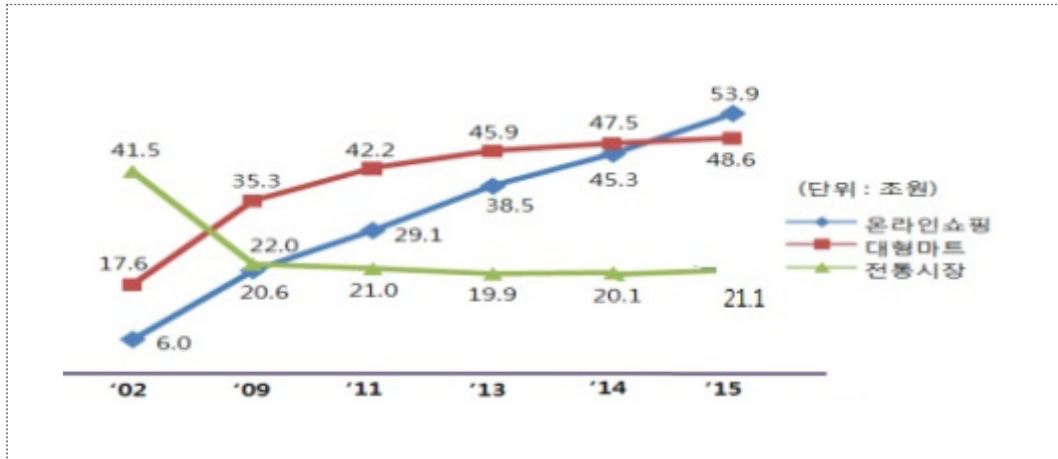
구분	시장수	점포수	상인
2012년	1,347개	194,750개	333,485명
2013년	1,372개	203,036개	334,370명
2014년	1,398개	203,643개	353,070명
2015년	1,439개	207,083개	356,176명

* 2011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미 실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잠식, 온라인, 소량·근린형 등 소비 트렌드 변화, 저성장 고착화와 함께 서민층의 소비여력 저하 등으로 2013년까지는 감소세였으나, 2014년 최초로 매출액이 반등하여 2015년 연이어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60년대) 전통시장 ⇨ ('70~'80년대) 연쇄점·수퍼마켓 ⇨ ('90년대) 편의점·대형마트 ⇨ ('00년대 이후) 온라인·홈쇼핑·SSM

그림 26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양호한 시장은 36.9% (531개), 취약한 시장은 25.3%(364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인조직 활성화, 빈점포 감소, 서비스 향상 등 시장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매출액 상승 등 경영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4-3-2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15년)

전 체	양 호		보 통	취 약	
	A수준 (매우 활발)	B수준 (활발)	C수준 (보통)	D수준 (미흡)	E수준 (침체)
1,439개	123	408	544	308	56
	531		544	364	
100.0%	8.5	28.4	37.8	21.4	3.9
	36.9		37.8	25.3	

2 특성화 시장 육성

- 시장상권과 신 재 경
- 시장상권과 나 경 우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주차장·아케이드, 공동시설 등 표준화된 시설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역 문화와 특산물,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살거리·즐길거리가 있는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특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성화시장의 시작은 2008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3년간 최대 18억원이 지원되며, 2015년 신규 33곳을 포함하여 8년간 127곳을 육성하였다.

* 시장(누적, 곳) : ('08~'10) 18 → ('11) 24 → ('12) 39 → ('13) 71 → ('14) 94 → ('15) 127

2015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외에 글로벌명품시장과 골목형시장 등 2개 유형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는데,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유명관광지나 한국적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외국 관광객이 가볼만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체험 및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야시장을 개설하며, 외국인 안내·통역·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3년간 최대 50억원이 지원되며, 2015년도 6곳을 선정·육성중이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도심이나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1시장 1특성화'할 수 있도록 1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73곳을 육성하였다.

표 II-4-3-3 2015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시장 현황(2015.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81)	1년차 (33)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	
			종량구	동부골목시장	
			종구	중앙시장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상가시장	
			동구	초량전통시장	
			서구	총무동새벽·해안시장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	
			부평구	부평지하도상가	
		대전	중구	은행동상점가	
			동구	중앙시장활성화구역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연합회	
			오산시	오산오색시장	
			용인시	용인중앙시장	
		강원	평창군	봉평시장	
			원주시	원주중앙시장	
			정선군	정선고한시장	
		충북	보은군	보은전통시장	
			청주시	청주북부시장	
		충남	홍성군	광천전통시장	
			태안군	태안특산물전통시장	
		전북	전주시	전주모래내시장	
			전주시	전주신중앙시장	
		전남	순천시	순천아랫장	
			구례군	지리산나들이장터	
			화순군	화순읍시장	
		경북	봉화군	봉화춘양시장	
			청송군	청송진보시장	
		경남	창원군	창원명서시장	
			통영시	통영중앙시장	
			하동군	하동공설시장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계속 (48)	2년차 (23)	제주	제주시	세화오일장	
			제주시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한림오일시장	
	서울	성북구	돈암제일시장		
		마포구	아현시장		
	부산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금정구	서동·서동향토·서동전통 골목시장		
	인천	서구	서구중앙시장(정서진)		
		남구	용현시장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송정5일·송정 역전시장		
	울산	남구	울산번개·아음상가시장		
	세종	세종시	세종전통시장		
	경기	수원시	수원영동시장		
		부천시	역곡북부시장		
	강원	동해시	북평민속시장		
		양양군	양양전통시장		
	충북	진천군	진천전통시장		
	충남	보령시	보령중앙시장		
	전북	완주군	고산미소시장		
		부안군	부안상설시장		
	전남	강진군	강진읍시장		
	경북	문경시	가은아자개시장		
		구미시	구미중앙시장		
	경남	남해시	남해전통시장		
		창원시	상남시장		
	제주	제주시	제주중앙지하상가		
	3년차 (25)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중구	부평깡통시장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광주	남구	신기시장	
			동구	대인시장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	
			구리시	구리전통시장	
			화성시	발안시장	
			양평군	양평재래시장	
		강원	횡성군	횡성시장	
			제천시	역전한마음·약초시장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	
			괴산군	청천·괴산전통시장	
		충남	서산시	서산동부시장	
			천안시	성환시장	
		전북	남원시	남원공설시장	
			무주군	무주시장	
		전남	나주시	나주목사고을시장	
			경북	경주시	계림시장연합
		김천시		김천황금시장	
		안동시		안동구시장	
		경산시		하양공설시장	
		경남	사천시	삼천포수산시장	
제주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표 II-4-3-3 2015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시장 현황(2015.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6)	1년차 (6)	서울	종구	남대문시장	
		부산	중구	국제시장	
		대구	중구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충북	청주	청주육거리시장· 성안길상점가	
		전북	전주	남부시장	
		제주	제주	제주동문시장 (재래·공설·수산·동문)	

표 II-4-3-3 2015년 골목형시장 육성시장 현황(2015.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1년사업 (73)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서울	성동구	뚝도시장	
		서울	성동구	도선동상점가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서울	강북구	북부시장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서울	마포구	도화동상점가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서울	금천구	대명여울빛거리	
		서울	동작구	남성시장	
		서울	강동구	명일시장	
		서울	강동구	둔촌역시장	
		서울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부산	영도구	영도봉래시장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시장	
		부산	사상구	복이있는 덕포시장	
		부산	부산진구	개금골목시장	
		대구	남구청	대명시장	
		대구	중구청	교동시장	
		대구	동구청	동서시장	
		대구	동구청	동구시장	
		대구	달서구	서남신	
		인천	남구	용남시장	
		인천	남구	토지금고시장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인천	남구	석바위시장	
		인천	서구	가좌시장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	
		광주	남구	봉선시장	
		대전	동구	신도시장	
		대전	서구	한민시장	
		대전	유성구	송강시장	
		울산	중구	반구시장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경기	수원시	파장시장	
		경기	수원시	구매탄전통시장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시장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경기	용인시	죽전로데오상점가시장	
		경기	부천시	부천제일시장	
		경기	안양시	안양박달시장	
		경기	안양시	남부시장	
		경기	평택시	평택송복전통시장	
		경기	하남시	신장전통시장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큰시장	
		경기	양평군	용문전통시장	
		강원	원주시	자유시장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	
		강원	고성군	간성시장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충북	청주시	서문 시장	
		충북	청주시	원마루시장	
		충북	제천시	제천내토시장	
		충남	천안시	성정5단지시장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상점가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	
		전북	무주군	안성시장	
		전북	고창군	고창시장	
		전남	여수시	수산시장	
		전남	순천시	역전시장	
		경북	포항시	연일전통시장	
		경북	경주시	안강시장	
		경북	김천시	평화시장	
		경북	고령군	고령대가야시장	
		경북	예천군	용궁시장	
		경남	창원시	성원그랜드상가시장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	
		경남	김해시	장유중앙시장	
		제주	제주시	보성시장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향토오일시장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시장상권과 이 정 구

대형마트의 확산 및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아케이드,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였다.

전통시장의 고객·매출 증가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착수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122개 시장의 시설개선 3,572건에 국비 18,7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지특회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예산소관을 변경하여 111곳에 국비 965억원을 지원하였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15년에 303개 시장·상점가에 805억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진입로·건물 리모델링·화장실·전기·소방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81곳에 아케이드 설치를 지원(누계 964곳)하였고, 지방공설시장 5곳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도·소매 중심의 현대식 시장으로 개발(누계 44곳)하였다.

표 II-4-3-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규지원시장(개)	72	68	58	105	67	38	39	38
지원건수(건)	281	261	259	383	330	308	330	303
지원금액(억원)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805

자료 : 중소기업청

영세 소상공인의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2년 30%이던 민간부담률을 2004년에 10%까지 인하하였고, 2009년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10%까지, 2011년도에는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는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와 같이 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상인부담을 면제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선지중화사업, 상·하수도,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과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을, 2009년에는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을, 2010년에는 공동물류창고와 다목적 광장을, 2013년에는 공동판매장까지 상인 자부담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아케이드 설치의 경우 사업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료 부담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93곳에 960억원, 주차장건립이 어려운 18곳에는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5억원을 지원하여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 완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 후 부지매매계약 및 지방비 확보된 곳을 우선지원 하는 등 만성적 집행부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 및 주차장 건립을 완료한 시장은 매출과 고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100개 시장과 미실시한 10개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현대화 종합개선 시장은 미실시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 점포비율은 1.7배, 고객증가 점포비율은 1.6배, 상인 만족도는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성과 평가(2015.12월)

구 분	종합개선	부분개선	미실시
매 출 증 가 점 포 비 율 (%)	55.0	36.7	33.1
고 객 증 가 점 포 비 율 (%)	51.7	43.3	33.1
상 인 만 족 도 (점)	80.4	74.8	65.2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종합개선(10억 이상 지원), 부분개선(10억 미만 지원)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공영주차장건립은 직접적인 매출증가로 이어져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케이드 준공	고객지원센터 개소	주차장 건립

4 시장경영혁신 지원

- 시장상권과 이 종 택
- 시장상권과 오 성 태
- 시장상권과 정 승 화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더불어 시장상인의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와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4-3-6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억원)	353	287	369	410	488	747	763

가. 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마케팅 활동을 장려, 2014년에는 219개 시장, 2015년에는 225개 시장을 지원하였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그랜드세일(휴가철, 추석, 김장철, 300곳), 블랙프라이데이(10월, 200곳) 및 연말대행사(11월 말~12월 초, 500곳)를 실시하여 내수 회복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실무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참여와 수행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인회의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유통·마케팅·행정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 129명, 2014년 145명, 2015년에는 145명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 KBS 6시 내고향 ‘전통시장을 살립니다’ 코너를 통해 매주 1회 우수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TV를 통해 설·추석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그동안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던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역적 한계와 편의성 부족으로 유통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전국 통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의 수요 촉진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5년도 온누리 상품권은 8,607억원이 판매되었으며, 상품권 구매자별 현황을 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14.1%,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22.5%이며, 개인 구매 비율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품권 특별할인(5%→10%)을 실시하였 으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상향 등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표 II-4-3-7 2015년도 온누리상품권 주체별 구매비율

(단위 : 억원, %)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	계
1,210 (14.1%)	1,939 (22.5%)	5,458 (63.4%)	8,607 (100%)

2009년 7월 온누리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이후 연간 판매액이 2009년 105억 원에서 2015년에는 8,607억원으로 82배 수준 증가하여, 누적판매액이 2조 4천 억원(24,006억원)을 달성하였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실적 배점을 2011년 0.1점에서 2012년 0.3점, 2013년부터 0.3~0.5점으로 지속 상향 조정하였고, 20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10%)를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이를 지자체로 확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상품권 발행 및 온라인 전통 시장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말에는 6개의 쇼핑몰사를 통합하여 쇼핑몰사간 상품검색 및 가격비교 등을 원스톱을 제공하고, 팔도명품상품권을 신규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대표브랜드로 조기 안착되었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단일 상품권으로써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상인 교육 및 상인 대학

2005년부터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을 위해 시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4-3-8 상인교육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교육인원(명)	55,060	41,736	39,178	38,683	32,673

2006년부터는 시장 내 빈 점포나 공공장소 등을 활용하여 의식혁신, 친절 서비스, 점포관리기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상인대학 과정을 도입하여 2014년에는 98개 시장 9,469명의 상인을 교육하였으며, 2015년에는 100개 시장 7,671명의 상인을 교육하였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장상인을 위한 전문교육장을 설치하여 상인지도자, 지자체 공무원, 청년상인 등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의 ICT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는 ICT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우수 전통시장 홍보 및 전통시장 미래상 제시를 통해, 상인 스스로가 시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2015년 10월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하였다.

표 II-4-3-9 연도별 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시	10.21~23	10.19~21	10.18~20	10.31~11.2	10.23~25
장소	EXCO (대구)	DCC&KOTREX (대전)	송도컨벤시아 (인천)	창원컨벤션센터 (창원)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참가 규모	16개 시·도 93개 시장	16개 시·도 140개 시장	17개 시·도 151개시장	17개 시·도 124개시장	17개 시·도 114개시장
고객, 매출	12만명 관람, 8억원 매출	15만명 관람, 10억원 매출	16만명 관람, 10억원 매출	16만명 관람, 10억원 매출	17만명 관람, 11억원 매출



5 상권 활성화

● 시장상권과 율 병 갑

전통시장은 상점가, 지하상가 등 주변 상업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상권을 형성하여 왔으나 신도시 개발과 외부 확장 등으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전통시장 또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권의 일부분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그동안의 정책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서 상업기능이 침체되었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6개 구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 점포수 기준 :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 ** 침체 및 침체 우려 기준 :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액 및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연속 감소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해당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과 경영개선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협력체인 상권관리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 기반인프라구축 : 주차장, 특화거리 조성, 핵심점포 유치, 고객 문화 센터 등
- ** 경영개선사업 :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지원 등

표 II-4-3-10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5년)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 상점가(3) : 의정부지하상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2,546
경기성남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단대마트시장	2,419
충남 부여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부여중앙시장, 부여전통시장	966
전남 순천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중앙시장 ○ 상점가(5) : 옷장 인접상가, 원도심상점가, 중앙지하상가, 문화의거리, 황금로패션가	636
울산 울주	언양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언양공설시장, 언양종합상가 시장, 언양상점가시장	419
부산 해운대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해운대시장, 구남로시장, 애항길시장	627

2014년부터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6개 구역 상권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구역별 2015년 연평균 매출액이 2014년 대비 7.7% 증가하고, 고객수도 4.9% 증가를 시현하여, 상권 내 서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p>전통시장</p>	<p>상권활성화구역</p>	<p>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p>

제5장 현장 체감형 중소기업 행정 구현

1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임 영 주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서 호 경
- 정 책 분 석 과 우 창 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무슨 정책이 있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 기관별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 안내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콜센터 전화번호가 달라서 이리저리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정책을 알아보려면 일일이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고 어렵사리 홈페이지에 접근해도 지원시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또 지원시책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모르면 없는 중소기업정책과 같다’는 인식 아래, 정부 지원정책을 인터넷,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이해증진과 정책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정책정보제공 및 원스톱 애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정책안내,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정책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 m.bizinfo.go.kr)을 통해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지방청에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정책정보 안내·상담부터 현장방문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 기업마당

2006년에 구축된 인터넷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망(www.bizinfo.go.kr)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 중소기업 정책 포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서비스망은 Spi-1357 (2007) → 비즈인포 (2008) → 기업마당(2013)으로 브랜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꾸준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검색 및 조회속도를 향상시켰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정책 차림표” 기능을 구현하여 지원대상, 분야, 담당부처, 사업수행 기관별로 정책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사전에 사업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월말 다음달 공고예정 사업을 월 단위로 사전예고하는 서비스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기업 DB를 분석하여 기업의 특성(업력, 업종, 규모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그림 27 기업마당 웹사이트



기업마당에서는 2015년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 생성한 다양한 중소기업의 정책정보 4,778건을 알기 쉽게 가공·편집한 후 분야별(금융·기술·인력·수출 등)로 구분하여 제공하였으며, 이에 2015년에는 516만명이 기업마당을 이용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안내하는 대표적인 정책포털사이트로 성장하였다.

표 II-5-1-1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시스템(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단위 : 개, 건)

년도	중소기업지원정보 제공기관					정보DB현황		
	계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계	정책정보	교육 세미나 전시회 정보
2010년	367	30	16	4	317	5,370	2,657	2,713
2011년	403	44	16	4	339	7,364	3,658	3,706
2012년	410	44	16	4	346	7,234	3,846	3,388
2013년	436	35	16	9	376	7,946	4,407	3,539
2014년	460	35	17	8	400	7,754	5,244	2,510
2015년	630	35	17	8	570	8,247	4,778	3,469
	계					43,915	24,590	19,325

표 II-5-1-2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시스템(기업마당)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방문수	2,919,923	3,626,634	4,257,105	4,418,570	5,122,233	5,162,986
누계 (2006년~)	8,980,822	12,607,456	16,864,561	21,283,131	26,405,364	31,568,350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과 같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익숙한 고객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1357 중소기업 콜센터'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간편하게 1357을 누르면 '1357중소기업콜센터'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하도록 '전국단위 전화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원정책 안내는 물론 경영애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8 1357 중소기업 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표 II-5-1-3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담건수	142,519	117,040	98,392	97,591	111,662	407,921	517,279

* 총 누계(2006년~2015년) : 1,782,49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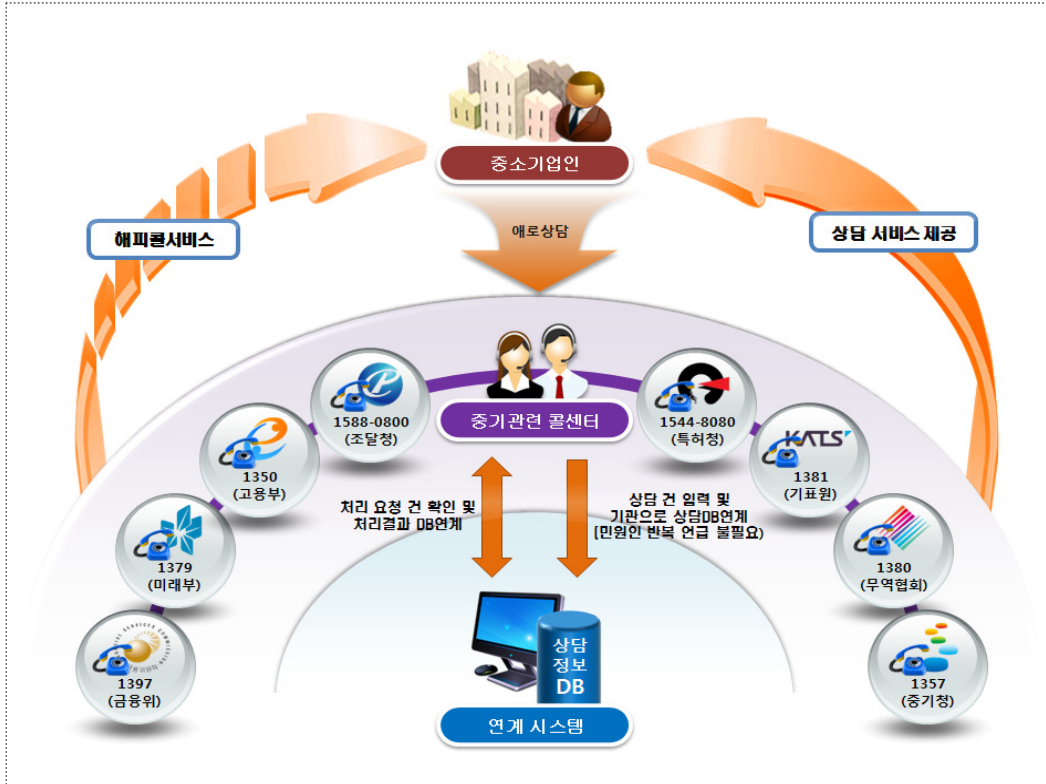
2014년 5월에는 그동안 자금, 창업, R&D 등 주요 정책별로 분산되었던 중소기업청 산하 6개 기관* 콜센터를 1357 단일번호로 통합하고, 2015년 1월에는 장소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구축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산학연협회

이와 더불어 2015년도에는 무역·금융·조달·특허·고용 등 중소기업 관련 7개 중앙부처 8개 콜센터*와 연계하여 정부 3.0기반 One Call 통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이 7개 부처 어느 콜센터로 전화하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청(1357중소기업통합콜), 산업통상자원부(1381 인증표준콜, 1380 FTA콜), 미래창조과학부(1379 기업공감원스톱지원), 고용노동부(1350 고객지원), 금융위원회(1397 서민금융다모아콜), 조달청(1588-0800 정부조달콜), 특허청(1544-8080 특허고객상담)

그림 29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앞으로도 국세청, 관세청 등 중소기업 관련 콜센터와 추가로 연계하여 One Call 통합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역량을 보다 더 강화하여 정보화 환경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인,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편리하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도 시시각각 다양하게 발생되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체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FTA 확대, 환율변동 등 무역환경 변화는 물론 임금피크제, 근로자 정년연장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애로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적시 지원하고자 2008년 정부의 기업 환경개선과제로 채택하고 2009년부터 지방청에 분야별 전문가인 비즈니스 지원단을 상주시켜 기업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해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수출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애로까지 해결해 주는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

표 II-5-1-4 비즈니스지원단 현황('15)

(단위 : 명)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명장 기능장	기술사	기술 지도사	경영 지도사	공공기관 경력자	기타	계
28	23	18	23	75	2	300	5	26	84	538	24	172	1,318

비즈니스지원단은 11개 지방청(3개 사무소, 1개 센터 포함)에 상주하면서 인터넷(기업마당, www.bizinfo.go.kr),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방문(지방청)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상담하고 있다.

표 II-5-1-5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 분	창업 벤처	법무 규제	금융 환위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15	16,332	3,151	11,331	8,642	11,553	12,092	6,057	2,302	3,590	13,341	88,391
누계 ('09~'15)	259,636	33,666	164,916	148,216	146,420	249,312	112,286	52,176	84,962	154,418	1,406,008

또한, 전문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간(3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1-6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단위 : 건)

구분	창업 벤처	법무 규제	금융 환위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15	99	86	34	290	54	282	31	42	97	221	1,236
누계 ('09~'15)	1,131	546	325	4,977	408	2,672	552	457	1,476	1,290	13,834

보다 효과적인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위해 매주 월요일을 ‘법률 상담의 날’로, 매주 수요일을 ‘FTA 상담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9만여건의 전문상담과 2천여건의 현장클리닉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p>비즈니스지원단 역량강화 교육 ('15.10.12)</p>	<p>비즈니스지원단 우수사례 선정 ('15.11.20)</p>	<p>비즈니스지원단 간담회 (경기권)('15.11.25)</p>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규제영향평가과 이 경 우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은 2008년 12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법제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규제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200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총 2,610개 법령, 5,939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411건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 철회, 시행시기 유예,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등의 규제대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중 183건이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시 최종 반영되었다.

2015년에는 총 271개 법령, 575건의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15건의 규제대안을 제출하였고, 이중 8건이 규제심사 시 최종 반영되었다.

표 II-5-1-7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실적

(단위 : 건)

연 도	평 가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 영 륜
	법령건수	규제건수	제출건수	반영건수	
2009년	376	726	153	61	39.9%
2010년	337	707	40	19	47.5%
2011년	494	1,204	82	37	45.1%
2012년	584	1,433	55	26	47.3%
2013년	308	667	39	19	48.7%
2014년	240	627	42	21	50.0%
2015년	271	575	15	8	53.3%
총 계	2,610	5,939	426	191	44.8%

2015년 규제영향평가 결과 최종 반영된 8건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중소기업연구원)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 규모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규제 집행으로 영세기업 배려 등 성과가 기대된다.

표 II-5-1-8 2015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① 서비스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신설안 (고용부)	
규제 내용	근로자 50인 미만의 서비스 4개업종(숙박, 음식, 자동차 및 부품판매, 도매 및 상품중개)에 대하여 안전·보건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정
제출 대안	소규모 기업의 교육참여로 인한 인력부담이 크므로 의무교육 시간 완화
반영 결과	의무 교육시간(제조업의 50% 수준) 최소화 권고
기대 효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교육참여로 인한 약 13만여 사업장 인력부담 완화

② 잔류성 오염물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준용안 (환경부)

규제 내용	잔류성 오염물질 취급 사업장의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확대
제출 대안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한금지물질 지정절차를 준수하여도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별도 지정 철회
반영 결과	도입 보류(개정안 철회)
기대 효과	중복규제 적용에 기업규제 부담 완화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안전처)

규제 내용	소방시설공사업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산정 기준을 2010년 기준을 2019년 이후 과징금 산출 기준으로 변경없이 적용
제출 대안	영업이익률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 재검토 기한(3년)을 신설하여 과징금 산출 기준을 업계의 영업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 결과	도입 보류(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법률정비 후 재 입법 추진)
기대 효과	공사업계 최근 영업이익률을 반영함으로써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 방지

		
규제발굴 전문가회의 (*15.04.29)	규제연구회 활동 (*15.07.17)	국회특별위원회(고질규제개선) (*15.09.09)

3 중소기업 ombudsman 운영

● ombudsman지원단 장흥주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두고(개정 '08.12월)하여 2009.7월에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ombudsman의 업무 활동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대 ombudsman (이민화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09.7.16),
제2대·3대 ombudsman (김문겸 숭실대 교수, '11.3.17~)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인 ombudsman지원단이 중소기업청 직제에 반영('13.9월) 되어, 중소기업청 공무원 외에 타 부처 파견 공무원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직원, 자체 채용한 전문위원 등 총 23명 인원으로 ombudsman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4.12월) 되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ombudsman이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009년 7월 위촉된 이래 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홈페이지,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규제신고센터, 각 지방중기청의 지역규제 개선위원회, 유관협력기관 등을 통해 그 동안 총 10,150건('15.12월)의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였다.

표 II-5-1-9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금융	기술	보건	안전	상생	세제	수출	인력	입지	창업	판로	환경	기타
'15.	2,016	112	173	171	84	28	75	20	96	456	127	198	193	283
누계 ('09~'15)	10,150	787	773	850	331	469	446	156	856	1,636	480	1,054	870	1,442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는 12개 분야별로 분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가 규제애로에 대한 현황파악 및 검토, 조사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 수용한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원클릭 알림서비스에 등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을 옴부즈만 메일링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집단에도 알리고 있다.

표 II-5-1-10 규제애로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09 ~ '15년						'15년					
	총 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	수용 불가	이첩 철회 등	총 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	수용 불가	이첩 철회 등
건수	9,855	1,840	4,640	1,243	1,862	270	2,054	499	789	309	425	32
비율	100.0	18.7	47.1	12.6	18.9	2.8	100.0	24.3	38.4	15.1	20.7	1.6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굴한 파급효과와 타당성이 높은 핵심규제는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립기술표준원, 조달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합동인증정비 TF를 구성하여 113개 인증제도를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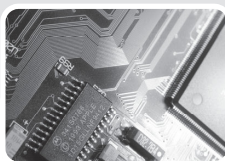
* '15년 :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 규제 혁신방안' 보고 ('15.11.6),

		
<p>기업현장방문 ('15.02.22)</p>	<p>옴부즈만 간담회 ('15.03.26)</p>	<p>명예옴부즈만 연찬회 ('15.10.14)</p>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 제1장 기획재정부
- 제2장 교육부
- 제3장 미래창조과학부
-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 제7장 환경부
- 제8장 고용노동부
- 제9장 해양수산부
- 제10장 방송통신위원회
- 제11장 국세청
- 제12장 관세청
- 제13장 방위사업청
- 제14장 병무청
- 제15장 특허청
- 제16장 기상청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 정책금융·수출지원 및 세제혜택 제공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용자보증 등 **정책금융 5조원 확대** (92 → 97조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확대(116 → 170억원), **가젤형** 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신규 3,350억원), **중기 수출보증보험규모 확대**(40 → 45조원)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우리사주 조합원 세제지원 확대**(6년 이상 보유 소득세 100% 감면),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징수 유예**** 등 중소기업 세제혜택 강화
 - * 상장기업 등의 세액공제를 3 → 4%로 확대 및 '18.12월까지 일몰 연장
 -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기준을 체납액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확대 및 '18.12월까지 일몰 연장, 3년간 징수유예 신설

- 「창업 - 투자 - 회수」 등 단계별로 벤처·창업 관련 재정·세제지원 확충
 - **창업선도대학을 확대**(21개소(508억원) → 28개소(652억원))하고 유망 벤처 기업에서 인턴십 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인턴제’ 신설**(50억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청년창업기업·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 확충 ('15년 2,000억원 조성) 등 **벤처투자 확충**
 - * R&D 지출이 일정수준(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기간 연장(3→5년) 등 회수 활성화

* 일몰연장 : '15년말 일몰 → '18년까지 3년 연장

기준완화 : ①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 → 130% 이상

②50% 초과취득 → 상장회사는 30% 초과+경영권 인수

-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 대폭 확대

-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 (0.9 → 1.5조원)하고, 민간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5,000억원)
-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 (203억원)
- 과잉진입·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1만명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 (100억원)
-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특성화 (189→509억원)를 지원하고, 청년상인 육성 및 대학 연계 (81억원)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2장 교육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직자·성인 학습자 지원을 위한 후진학 지원 체제 강화
 - (先취업)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우수모델 발굴, 전문인력 지속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추진
 - 취업지도 실무연수,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정·지원 등 취업지원역량 우수 모델 발굴확산
 - ※ 고졸취업 확산을 위한 학교 컨설팅 (5회), 취업선도 특성화고 권역별 발표회 (8회), 취업담당교사 핵심역량 제고 연수 (3기, 661명)
 -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편 및 적용 기반 구축
 - ※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고시('15.9)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15.12)
 - (後진학) 재직자·성인학습자 지원을 위한 후진학 지원 체제 강화
 - 성인 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방안(시안) 마련·발표('15.5.26)
 - ※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발표('15.12.30)
 - 재직자등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대학수업 운영 등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15.11.6,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 ※ 수업일수 완화, 학교 밖 시설 수업허용, 학점과정을 전임교원 강의시수로 인정 등

-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입·확대를 통해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 청년취업률 제고 및 뿌리산업·중소기업 등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당초 목표보다 확대 운영
 - ※ 당초(누적) : ('15) 9교 → ('16) 19교 → ('17) 30교 → ('18) 41교
 - => 변경(누적) : ('15) 9교 → ('16) 60교 → ('17) 203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으로 산업분야별 핵심 기술기능인재 양성
 -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장기적으로 마이스터로 성장 가능한 분야를 마이스터고로 확대 지정
 - ※ 소프트웨어(미래부), 종자산업·첨단농업(농림부) 분야 등 3개 마이스터고 지정으로 총 47교 지정(41개 운영)
 - 정부부처가 관련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지원 지속
 - ※ 지원현황 : ('13) 5부3청 204교, 391억원 → ('15) 6부3청 230교, 414억원

- 특성화고 진학기회 확대 및 일반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
 -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현황 : ('13학년도) 2,483명(2.1%) → ('14학년도) 11,395명(10.6%) → ('15학년도) 17,591명(16.4%)
 -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재학생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 위탁기관 다양화
 -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수 : ('14) 10,657명 → ('15) 12,135명

□ 특성화고 중소기업 기술사관의 지속적인 육성 여건 마련

- 17개 사업단, 참여학생 2,612명 중 총 **2,374명을 양성**하고, 졸업예정자 302명 중 **221명이 취업**하여 **협약기업 취업률 72.5%** 기록
- 인력 양성분야에 맞는 **우수기업* Pool 및 협약기업을 확대**하고 ('14, 722개 → '15, 870개), **졸업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연계**
 - * 으뜸기업, 취업하고 싶은 기업, 수출 강소기업, 병역특례 지정업체 등

□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로 체제를 개편**하고, **일자리·현장중심(NCS 기반)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
 -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대학 교직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연수 실시('15.1~2)**
 - ※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로 총 7회 실시, 1,285명 참여
-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이 약정된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 기준을 정**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 주문식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취업친화적 교육과정 지원사업, ~'16.2.29) 실시 * 14개교 총 38.2억원 지원

□ 대학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현장중심 교육 내실화, 지역고용 확대 등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추진**
 - * 2015년 LINC사업 참여 대학('15년 57교, 2,239억원 지원)

□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창업유형 신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원 확대
- (우수 일자리 확대) 의무근무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연매출 2,000억 미만)까지 확대하여 우수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 (장학금 지원)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학생 3,125명에게 학기당 대학 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지급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3장 미래창조과학부

□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운영

- 기본계획 수립('15. 1월)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15.3~6월), 시범 운영('15.6월),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개소('15.7.6)
 - * 센터 공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확보 및 환경조성, 콜시스템 및 홈페이지·통합 DB 구축, 전화상담원(11명) 및 전문기술 상담위원(4명) 운영 등
- 기업현장 방문, 출연연 및 타부처 산하기관·대학 등과 협력·연계를 통해 기업 기술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수행
 - * 장비활용(736건), 기술자문(1,190건), 정보제공 등(7,008건) 등 총 8,934건 기업수요 접수·처리('15.6.1~12.31)
-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공공기술 이전 및 후속연구·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 * 추진실적 : 기술이전·중개, J/V 설립·기술 출자, 후속지원 사업 등 288개 기업, 364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특구기술사업화)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관에 사업화 개발 등 지원(中企 185개 과제, 524억원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특구법 등 제도정비를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이 대폭 증가

* '13. 46개(신규설립 8개) → '14. 89개(신규설립 43개) → '15. 160개(신규설립 71개)

- **(연구개발특구펀드)** 연구개발특구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기업에 투자 (누적 총 47개사 1,053억원, '15년 19개사 452억원)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강화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 추진

*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 미방위 법안소위 회부('15.4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확대('15년 신규 153개),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대상 R&D기획·관리·사업화 전주기 역량강화 교육(258명)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중소기업 등) 사업화 (5개과제) 및 최신 산업시장 동향정보 공동이용(488건) 지원

□ 중소 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K-ICT본투글로벌센터 운영)** ICT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지원 및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1,344건의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외 법인설립 13건, 해외 사업계약·제휴 83건 등 성과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해외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한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국내 액셀러레이터와 창업초기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
 - * '15년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디이브이코리아 등 6개 액셀러레이터를 선정·지원하여 총 50개 창업초기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 진출을 지원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SW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창업·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 '15년 45개의 혁신 아이디어 중 11개 창업 및 25개 서비스 상용화, 서비스 IR·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통해 39.9억원 규모 투자유치 달성

- **ICT 산업 해외진출역량강화(K-Global) 지원**
 - 타겟시장 맞춤형 해외진출 복합 마케팅 사업으로 SW 및 ICT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15년 런던(6월), 실리콘밸리(11월), 중국(12월) 3개 지역에 K-Global 행사 개최
 - 국내기업 265개사, 바이어 557개사 참가, 1,365건 상담
 - * K-Global 런던 : 계약체결 115만달러(셀롯와이어리스(무선원격검침시스템), 이로닉스(보안기기))
 - * K-Global 실리콘밸리 : 현장계약 11천달러(JNK Science(USB충전배터리))
 - * K-Global 차이나 : MOU 체결 5건(이에스이, 글로벌스원, 소프트캠프 등 4개사)

- **재도전 사업화 및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재도전 지원) 재도전 기업인 복귀를 위해 재도전 컴백 캠프 개최(연 8회), 민간투자연계형 재도전 지원(25개사), 재도전 사업화 단계별 지원(43개사) 및 재도전 인식제고 활동** 등을 통해 재기 기반 마련
 - * 투자유치 39.5억원, 매출 56.6억원, 법인 설립 24건 등 성과 창출

- 재도전 방송 프로그램 방영, 중기청과 공동으로 ‘재도전의 날’ 행사 개최 등 실패·재도전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추진

- **(벤처1세대멘토링 지원)** 창업초기기업, 대학창업동아리 등 1,689개사(팀) 대상 총 8,365건 멘토링 서비스 제공

- 투자유치 77건(193.1억원/해외2건), 사업계약 125건(해외 8건), 특허 출원·등록 208건(해외 13건), 법인 설립 122건, M&A 1건(2억원) 성과 달성

- 교육 4회(143명), 데모데이 2회(43개사), 네트워킹 3회(160명), 우수사례 홍보*

* 언론보도 159회, 미디어 노출 2회, 우수사례집 1회, 우수멘티 홍보 영상 제작 3개사 등

□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기업지원)** 해외 주요시장에서 전시상담회, 포럼, 스타트업IR등을 결합한 K-Global@을 통해 150여개 SW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 개도국 등에 SW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화컨설팅(15건), 우수 SW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현지화 사업(7건) 등도 추진

- **(정부간 협력)** 한중 SW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고, SW해외진출 저변 확대를 위한 SW전문 인력 교류도 추진

* 한중 SW분야 국장급 회의('15.11)를 바탕으로 양국 SW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티맥스(한)-인스퍼정보(중)/한컴(한)-킹소프트(중)) 체결('15.12)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 융합형 콘텐츠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지원(가상현실 등 21개 과제)
- 북경영화제 CG기업 공동관 운영 및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15.4월)
 - * 국내 참가업체 7개사 참가, 상담건수 132건, 상담액 13백만불, 계약액 99만불 달성
- AFM(미국필름마켓) 연계 CG 비즈매칭 상담회 개최('15.11월)
 - * 국내 CG/VFX 6개사 참가, 상담건수 215건, 상담액 43백만불, 계약액 818만불 달성

□ 지역SW산업진흥지원

- **(지역SW기업성장지원)** 지역SW기업 수요 기반, 중소 SW기업 맞춤형 4대 성장지원(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사업추진 (56.19억원)
 - * 지역SW기업 499개사 지원, 매출 9,688억원, 신규고용 1,232명, 인증 240건, 특허 272건 등
-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지역 전략산업 내 SW기술을 적용, SW 융합 제품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품질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新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85.5억원)
 - * 77개 기업지원, 과제관련 매출 221억원, 신규고용 547명, 인증 47건, 특허 76건 등
- **(신규)** 지자체 주도의 공익성(생활·주민·재난안전/노인복지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SW융합제품 개발, 상용화 과제 발굴 및 지원(5개 과제)
- **(계속)**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에 SW기술을 적용하여 SW제품의 개발, 현장적용 및 상용화 지원(26개 내외)
- **(지역SW품질역량강화)** 지역SW기업의 역량 및 재정을 고려, 고비용의 컨설팅·테스팅 지원 등을 통한 중소SW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9.5억원)
 - * SW품질 컨설팅 170건, 테스팅 248건, 인증 73건, SW품질 전문교육 962명 등

□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지원

- (기술개발) 현장수요기반 중소기업형 SW융합 R&D 지원 (121억원)
 - (신규) SW융합기술분야 응용·상용화 기술 발굴 및 지원 (신규 8개 과제)
 - (계속) 기추진 22개 과제 대상 2/3년차 기술개발지원 (계속 22개 과제)
 - * 특허출원 26건, 논문 30건, 신규고용 130명, SW등록 30건, 시제품 40건 등
- (성장기반)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SW융합 거점조성 (79억원)
 - 중소 SW기업 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 장비 구축 (36종) 및 SW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31개사, 인증연계 19건)
 - 지역SW융합기업 지원서비스 구축 및 성과확산 (GS시험 및 인증 39건, Open Lab서비스 15건)

□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에 ICT 및 IC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 (86개 과제, 600억원)
- (ICT유망기술개발지원) ICT분야의 신시장 창출 및 성장 기반 제공을 위해 중소·벤처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100개 과제, 310.37억원)
 -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술개발 지원

- ICT SW등과 타 산업간 융합기술 및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시장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전파산업 중소기업 지원)**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인프라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전파인증비용 지원 (174건, 14.77억원)
-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설계·생산·조달·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에 IT시스템 도입 지원**
 - 전문가의 중소기업 현장 파견으로 개선·요구사항 도출 등 정보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시스템 구축 지원
 - * 자동차 부품산업 2개 컨소시엄(모기업 2개, 협력 중소기업 60개)을 대상으로 정보화전략 수립 및 IT협업시스템 구축 지원(11억원)
- **정보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국내 정보보호업체에 **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환경 및 기술자문 제공**
 - 테스트베드 이용 138개사, 이용업체 대상 기술자문 451건
 - 정보보호 제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및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지원**
 - 정보보호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3회, 23개사), 현지 비즈니스 수출·초청 상담회 개최(3회, 43개사),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16개사)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중소기업사 인큐베이팅 및 게임제작·유통 지원
 - 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15.5월~'16.2월), 게임테스트서버 지원('15.10월~'16.3월), G-스타 홍보관 참가('15.11월) 등 인큐베이팅 및 온라인게임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지원
 - * 입주사 19개사, 게임벤처 3.0 운영 20개팀,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12개사 지원
- (모바일게임센터) 중소모바일게임기업 인큐베이팅 및 퍼블리싱 지원
 -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한 중소 모바일게임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퍼블리싱, 맞춤형 현지화 지원으로 해외진출 활성화
 - * 입주사 22개사, 글로벌 퍼블리싱 22편, 해외수출 관련 현지화 40개 게임, 전문운영지원 9개 게임,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퍼블리셔 전략적 제휴 2건 추진
- (차세대 게임콘텐츠 지원 등)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등 육성
 - 미래 게임시장 개척 및 해외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게임 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
 - *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글로벌 진출 12개, 스타트업 육성 10개 총 22개사), 3개 권역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운영[대구·경북권(글로벌연계), 부산·경남권(융복합게임), 전북권(기능성게임)]

- **(애니메이션)**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유아가족용, 극장용 등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지원, 해외전시마켓 참가 및 아시아 공동마켓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
 - *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015~2019)」 수립·발표('15.2.26), 유아용 11개, 가족용 6개, 프리·단편용 20개 작품 지원 및 극장용 7개 작품 신규지원 등
 - * 애니메이션 해외마켓 KIDSSCREEN(2월), MIPTV(4월), MIPCOM(10월) 등 참가 및 아시아 애니메이션 서밋 개최(12월)

- **(방송영상콘텐츠)**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 다큐멘터리, 단막극 등 장르별 우수 콘텐츠 발굴,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업계의 제작역량 및 경쟁력 제고
 - * 총 34작품(다큐멘터리 18, 단막극 13, 미니시리즈 3) 제작지원
 - 해외 유력 국제방송영상견본시 (8개 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91개 중소기업 지원) 및 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M/5월, 벅스코, BCWW/9월, 코엑스) 개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영상콘텐츠업체 작품 마케팅, 비즈매칭 등 수출 촉진 지원
 - 수출용 방송콘텐츠 대상 번역, 더빙, 종합편집 등 현지화 재제작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중소기업 43개 작품)

- **(문화기술 R&D 지원)** 콘텐츠산업 현장 중심의 R&D 체계로 개편,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기술개발 성과 활용 극대화
 - ‘문화산업 현장 밀착 지원형 기술개발’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 공동 기술 개발’ 등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 ※ '14년 42억원 → '15년 108.6억원(현장밀착지원 85억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23.6억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예산 확대(당초 계획(48.7억원) 대비 223% 확대)

-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 기업 필수 참여 추진
- 산업계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전략 기획단*’ 운영(’15.7~9월)
 - * (전략기획단) 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음악, 융복합, 공연·뮤지컬, 전시, 디자인, 정책, 청년 등 10개 분과, 전문가 49명
-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15.6월~7월) 실시, 지역별 산·학·연에 찾아가는 기술수요조사 현장설명회 (’15년 7월/3개 지역) 개최 등을 통한 접근 기회 확대
 - * 문화기술 관련 기술수요 258건 발굴, ’16년도 신규기획대상 과제 30개 도출
- 개발기술의 활용성 및 사업화 확대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강화
 -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단비’K-CT 프로젝트 등) 지원과제의 특허 기술트리, 특허 창출방향, 국내외 동향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해 단계별 지원* 등 차별화된 문화기술 개발지원 정책으로 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 제안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소기업의 참여 장벽을 축소하여 신청 기업수 약 289% 증가(’14년 72개 → ’15년 280개)
 - * 단계별지원 : (1단계) 아이디어 개발 지원, (2단계) 연구개발 지원
- 개발기술의 전시·홍보지원을 통한 성과확산 및 비즈매칭 확대
 - GDC, SIGGRAPH, 하이테크페어 (중국 심천) 광주ACE, G-STAR, 코리아 청소년콘텐츠 등 국내외 전시회 CT R&D 공동관 운영 지원으로 기술 사업화 비즈니스 강화 지원
 - * 비즈매칭 상담·계약 건수 1,358건(전년대비 20% 향상), 계약 예정액 5,875만 달러 (전년대비 120% 향상) 달성

□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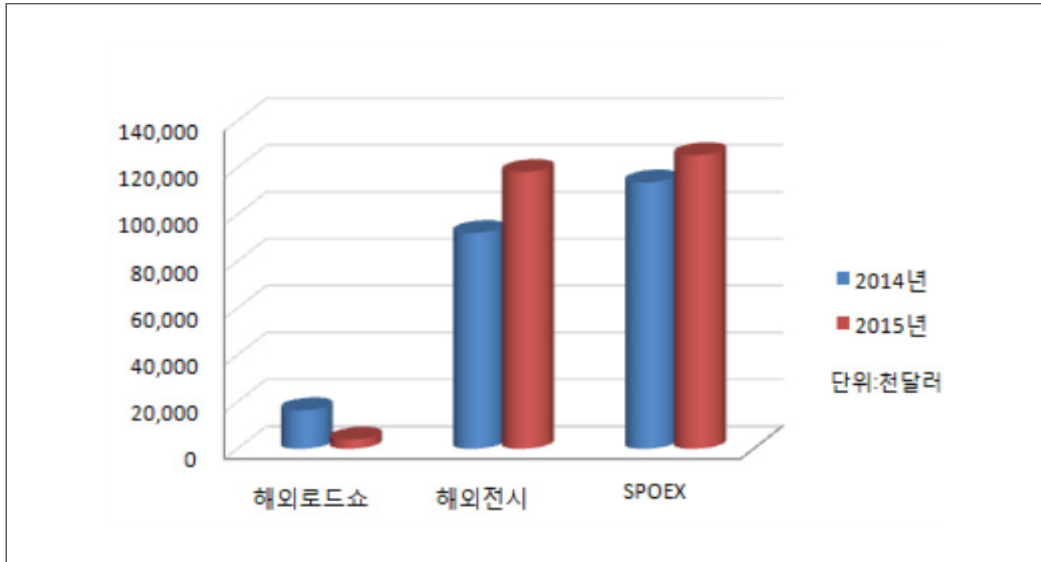
- 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2,203억원) 조성 및 완성보증(신규 601억원) 제도를 통한 콘텐츠 제작 자금 조달 확대
- 다양성(독립, 예술 등) 영화제작사 자생력 강화 지원
 -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을 통해 예술·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 및 관객의 다양성문화 접근 증진(17개관)
 - 개봉예정인 예술·독립영화의 상영·배급 지원(21편)

□ 창조관광기업 발굴 및 육성

- 창조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 창조관광사업의 개념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서용교 의원 발의, '15.4.17 교문위 상정)
 - 창조관광기업 성장 단계별 사업화 지원 및 육성
 - 창조관광기업 투자유치 및 국내외홍보 마케팅 등 지원(29개 기관, 각 2,500만 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4회) 및 기업별·부문별(법률, 세무, 투자유치 등) 전문컨설팅 지원
 - 미디어 홍보 등 마케팅 활동 지원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 '15년 선발 사업 중 68개 업체 관광관련 업종 사업자 등록 추가('15.11월 기준)

- 창조관광사업 인지도 제고 및 투자유치, 기업홍보 지원
 - 2015 가을관광주간 연계 창조관광기업 홍보 이벤트
 - * 15개 창조관광기업 가을관광주간 할인 참가, 마음이 통하는 밥상 이벤트(541팀 2,014명 응모)
 - 2015 내나라여행박람회 창조관광기업관 운영, 2015 창조관광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15.10.23/구글캠퍼스)
 - 창조관광기업 육성 및 투자지원을 위한 창조관광펀드 조성 및 운용
 - * '15년 총 220억(기금 130억 포함) 규모의 제1호 펀드 결성(9월)
 - * '15~'19년까지, 5년간 총 1,000억 (관광기금 500억, 민간 500억)
 - (관광분야) 중소기업 관광기금 융자지원 확대
 - 융자심사 및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융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융자심사·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융자지원 제도 개선('15. 1월부터 시행)
 - 자금 확보력이 좋은 대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는 폐지
 - * '15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실적: 총 5,515억(전년대비 25.0% 증가)
- 국내 유망 중소 스포츠기업체 경쟁력 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속 확대 및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14년 17건→'15년 30건
 - ** 해외 수출 상담건수 4,045건, 총 상담액 247,521달러

표 III-4-1-1 지원 내역



-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용자지원 확대* 및 고부가가치 용품 개발을 위한 중소 스포츠업체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14년) 총 18개업체 65억원 → ('15년) 총 41개업체 137억원 지원

제5장 행정자치부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지원(37개 품목)
 -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임상실험) 지원
 - * 지원대상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지원규모 : 2,740백만원(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식품외식종합자금

- 식품가공업체에 대해 식품외식종합자금(노후시설 현대화, 가공원료 매입 등) 용자를 통해 지원
 - '15년 : 1,140억원(노후시설 현대화 153억, 가공원료매입 960억, 외식업체 육성 27억)
 - * 시설자금(연 3~4%, 3년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연 3~4%, 2년 상환)

□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

- 중소식품·외식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R&D 지원과 함께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 '15년 : 75억원(중소협력지원 활성화 48억,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6억, 대한민국식품대전 18억, 우리술대축제 3억)

* 중소기업협력지원 활성화(자부담 50%),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대한민국식품대전, 우리술대축제 100%

□ 농식품업체 운영 활성화 지원

○ 농기계생산업체에 농기계 생산비축을 위한 원자재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 공급 및 가격안정 도모(95개사, 600억원 용자)

*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연리 3%, 1년이내 상환)

□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 농업소득연계성이 높은 수출전문단지 및 수출선도조직 육성,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맞춤 지원(민간보조 50~90%, 용자 80%)

- 민간경상보조 37,362백만원, 용자 316,000백만원

* 353,362백만원(수출전문단지육성 2,240, 수출선도조직육성 73,480, 수출업체맞춤지원 277,642)

□ 가공식품 수출지원

○ 우량 내수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맞춤 지원(민간보조 50~90%, 용자 80%)

- 민간경상보조 26,253백만원, 용자 169,600백만원

* 195,853백만원(내수식품업체 수출시장 진입지원 29,662, 시장진입 초기 수출업체 지원 82,679, 성장단계 수출업체 지원 83,512)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① 수출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확대를 위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지원확대) '14년 38.4조원 대비 8.6% 증가한 41.7조원 기록

* 중소기업 지원실적(조원) : ('13) 35.9 → ('14) 38.5 → ('15) 38.4
중소기업 지원비중(%) : ('13) 17.6 → ('14) 20.2 → ('15) 24.8

○ (특례지원) 수출초보 및 급증기업에 대해 사업성, 수출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특례지원제도의 대상업체 확대*('15.11월)

* 수출초보기업 :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 50만불 이하
수출급증기업 : 전년대비 수출실적 30% 증가 → 15% 증가

○ (수출희망보증*) 창업초기 수출기업에 대한 제작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업체당 지원한도 3배(0.5억원 → 1.5억원) 확대('15.12월)

* 수출실적이 50만불 이하의 창업초기(5년 이내)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비율 우대(90%→100%) 및 보증료 할인(50%) 제공

② 한·중 FTA 효과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 한·중 FTA 영향평가 및 관계부처·업계 의견수렴(100회이상) 절차 등을 거쳐 '한·중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수립(6월)

* FTA 취약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FTA 활용촉진을 포함하는 약 1.3조원 규모의 대책으로 마련

- (종합지원체계) FTA 정보제공*, 비관세장벽 해소 등 FTA 활용 종합지원을 위한 차이나데스크(3월), FTA해외활용지원센터(4월) 설치

* 협정세율, 통관정보, 비관세장벽 등 중국진출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

- (원산지관리 지원)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및 찾아가는 FTA 서비스** 실시

* '15년 보급현황 : 가입 10,255 개사, 원산지증명서 4,439건 발급, 원산지판정 48,062건

** 전국 주요산단 내 관세사 파견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 실시(2월~), 영세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 컨설팅 실시(3월~), FTA활용 SCM 교육 실시(7~12월),

③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본격 추진

- 유망 내수기업 **2,400개사**에 전담 수출전문PM **100명**을 매칭 지원하여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선정 내수기업에 **7개 수출지원기관***, **24개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875개사 수출기업화** 성과 달성

* 중기청, 코트라, 무협, 중진공, 무보, 수은, 중기중앙회 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수출 붐 조성

④ 저유가엔저 등 대외리스크 대응 강화

- 저유가, 신흥국 경제불안 확산 등 **대외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제공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을 통해 저유가(30건), 엔저(9건) 등 속보 전파

-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세계시장 변화, **엔저** 관련 동향정보 등을 분석하여 우리기업들의 대응전략 제시
 - *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15.1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 주요 산유국 정책 시장 동향 및 시사점('15.12월)
 - * 엔저 장기화에 따른 일본기업 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15.3월)

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정착

-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의 자율 확산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에 기여
 -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평가 반영***(‘15.9월), 상생결제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5.12월)
 - *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추진실적 평가에 가점 반영
 -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의 0.1%에 대해 세액공제
 - 상생결제시스템 누적 운용액 24조 5854억원 달성(‘15.12)
 - * 216개 기업(민간 208, 공공기관 8)이 협약체결, 72,329개 협력사 약정
- **(동반성장밸리)**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 협력사뿐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도록 연계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 9개 대기업 18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중소기업 연계를 위한 관리·매칭·추천 시스템 구축 중(‘15.10월~)
- **(성과공유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제 확대**
 - *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중견기업(개) : (‘13년)10 → (‘14년)48 → (‘15년)85

- 성과공유제 시행효과를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다자간 성과 공유제’ 추진

* 자율추진협약식('15.4월), 다자간 성과공유제 가이드북 제작·배포('15.11월)

⑥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활성화

-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 기금 등을 활용하여 **2·3차 협력사**의 생산혁신 컨설팅 및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지원(기업당 2천만원)
- 1차년도('13.6~'14.7) **1,957개사**, 2차년도('14.8~'15.7) **2,027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였고 이중 152개사에 스마트공장 보급
- 핵심성과지표(KPI)* 달성률 **122%**, 재무효과 기업당 **44백만원**, 신규고용 창출 **2,341명**

* ex)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원자재 교환 시간 단축 등

⑦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

- 스마트공장 **1,240개사** 구축 지원('15.12월 기준), 지원기업의 생산성 평균 **25% 향상**, 품질개선, 비용 절감 등 성과 창출
 - * 276개사 조사 결과, 불량률27% 감소, 원가29% 절감, 납기19% 단축 ('16.1월, 스마트공장추진단)
- **표준인증, 교육홍보** 등 민간 자발적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 * (교육·홍보) 설명회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33회, 1400개사 참여), 동영상 제작배포(6월) 등 (표준인증) 「스마트공장 표준화전략」 발표(7월), 진단평가모델 개발(10월) 등

⑧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 등 산업계 수요가 있는 분야별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한 기반 강화

*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4개 분야)」 : ('15) 502억원 → ('16) 523억원

- 중소기업+대학원 컨소시엄을 통해 산학 공동으로 연구인력 양성, 채용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추진('14년 7개→'15년 12개 컨소시엄)

* 학생 공동선발, 기업애로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성과 중심 학위부여 등

- 기업수요 반영 강화를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신규선정 (1개) 등 SC 활용·지원체계 강화

⑨ 중소기업 부품 및 장비업체 지원

- (반도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장비·재료 성능평가 지원, 패턴웨이퍼 지원 프로그램 등 추진

* 대기업 양산라인에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성능 평가 및 구매 연결

* 메모리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미세 패턴웨이퍼 제공

-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참여기업에의 고용 연계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후방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15.3~'20.2월, 총 56억원), 5년간 최소 112명 (연 30여명)의 디스플레이전공 석사인력 배출, 80% 이상 취업연계 목표

- '한중 디스플레이산업 국장급 민관협의체'를 구축('15.6.12)하여, 우리 디스플레이 장비·소재업체의 對中 진출 지원을 위한 토대 마련

10 뿌리산업 첨단화 및 고도화 기반 마련

- 시장성·혁신성이 높은 **첨단뿌리기술 및 보유기업 선정 및 지원**
 - 첨단뿌리기술 66개를 선정하여 미개발 기술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R&D를 지원*하고, 보유기업은 해외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 * '15년 신규(18개, 112억원) 및 계속과제(16개, 168억원) 포함 총 280억원 지원
- **뿌리산업 대학원 확대(3개→4개), 외국인 뿌리기술인력 양성대학 확대(3→7개)**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14년 7개→'15년 7개) 및 우수 뿌리기업 홍보** 등을 통해 뿌리산업 이미지를 **3D → ACE산업**으로 개선

11 중소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 '15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K-BrainPower) 39개사*** 선정
 - * 엔지니어링(9개사), 디자인(9), 임베디드SW(7), 시스템반도체(4), 바이오(10)
- '15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K-BrainPower) 기술개발 지원**
 - * '15년 예산 25억원, '14년 旣선정 41개사 중 9개사 지원(경쟁률 4.6:1)

12 기술사업화 사업 본격 추진

- 공공연구이 보유한 미활용 R&D 성과물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 * '14년 13개 과제 → '15년 31개 과제 지원

- 공공연 등이 정부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요약정보 등 총 9만여건의 기술 정보 DB 구축

표 III-6-1-1 기술정보 등록 실적

	~'11	'12	'13	'14	'15	합계
등록 기술	32,752	11,687	13,220	15,691	19,736	93,086

- 구축된 NTB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설명회*, 수요 기술플랫폼** 등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행

* '15년 총 14회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793개 기업 참석)

** 기술거래 전문가가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찾아주는 서비스('15.3월 오픈)로, '15년 말 기준 1,270건 수요기술 접수, 112건 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원 실시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7장 환경부

-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87억원)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용량별 보조금 지원(1566대 설치)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8.9억원)
 - 굴뚝 TMS 부착 사업장 중 중소기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정도관리비, 유지관리비 중 일부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
-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14억원)
 - 중소기업 해당 사업장 중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 기술지원 실시
- HAP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2억)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자문(23개소 컨설팅)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14억)
 -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부적합 업소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설비의 부적합 발생 가능성 사전조치, 개선권고 등 기술자문(143개소 컨설팅)

□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11억)

- 담보제공이 어렵고 자체기술 및 재정 능력이 열악한 영세중소기업의 노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증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자문(컨설팅)과 자금지원(1,173백만원)

* 전국 18개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 모집→심사·선정→업체당 최대 2천만원 지원('15년, 64개소 지원)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

- **(지자체 Test-bed 실증화)** 현장적용이 즉시 필요한 분야의 Test-bed 구축을 통한 단기집중 투자로 우수환경기업의 실증사업화 촉진 및 지역 환경 현안 해결 지원(28.3억원)

- 혼합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전북 정읍) 등 5개 지자체 지역 Test-bed 설치 및 실증 연구 지원

- **(중소기업 우수기술 육성 실증화)** 중소기업의 환경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우수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15.6억원)

- 고농도 질소폐액을 재활용한 소각로 환원제 개발 등 중소기업 육성 실증화 연구 2개과제 지원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66억)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195억)의 34%(66억)를 중소기업에 지원

- 토양·지하수 정화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장실증형 R&D 발굴·지원 강화

* 지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지하수장기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소규모 유류배송시설의 상시누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토양·지하수 분야 R&D 과제 지원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

- 중소 재활용업체 230개소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1,036억원(시설자금 636억원, 운전자금 400억원) 지원

□ 중소기업사업화 및 융자 지원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사업전략수립 및 사업개발 지원으로 평균 매출액 전년대비 8.7% 증가(67개소)
- 환경정책자금(이차보전) 융자대상(중소→중견) 확대, 신청주기 단축(반기→분기)를 통한 환경시설 개선 활성화로 평균 매출액 전년대비 12% 증가(64개소, 14년 50.05억원 → '15년(추정치) 56.08억원)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 국내 우수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실증화사업화를 위해 국제공동사업 지원(32개 프로젝트, 40억원)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수출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추진(10개사, 20억원)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15개 프로젝트, 13억원)
-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및 홍보(18억원)
 - 수출거점 국가 내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으로 바이어 알선, 비즈니스라운지 서비스 등 현지수주 지원(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
 - 해외 환경산업 통합정보망 운영, 우수 환경산업체 홍보물 제작 등

제8장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 및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 지원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795억원, 6,750개소), 산재예방시설 융자(1,750억원, 936개소)
- 보육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설치비 88개소, 교재교구비 103개소, 인건비 367개소 등)

□ 고용유지 및 촉진 기업에 대한 지원

- **(고용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실직예방 지원**(1,648개소, 33,363명)
- **(고용촉진)** 여성 가장, 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강화(26,505개소, 33,382명)

□ 우수 중소기업 취업을 통한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산

- **(청년강소기업 체험)** 지역강소기업 탐방, 직업체험 실시로 강소기업 인식 제고 및 취업 연계 유도
 - * '15년도 강소기업 탐방: 11,123명 참여, 강소기업 체험: 2,148명
-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34,112명) 및 정규직 전환(19,061명, '15.12월말 기준 인턴참여중인자 제외)

□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체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 ('15년) 1,208천명, 193,077백만원 지원
- 中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위한 개인지원제도 개선
 - * 비정규직 자비 부담 면제, 훈련비를 고용부가 훈련기관에 직접지급 등
 - ('15년) 234천명, 65,664백만원 지원
- 전문 기술분야 이러닝 훈련 등 중소기업의 이러닝 훈련공급을 위한 평생 능력개발 이러닝 시스템 구축
 - 기술·공학분야 온라인서비스 개시('15.4.8)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를 모든 근로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 개시(www.e-koreatech.ac.kr)
 - * 온라인 가상장비를 통한 실습환경, 학습자가 강사에게 질문하는 기능 등 쌍방향 학습 시스템 구현
 - 콘텐츠 개발
 - 중소기업의 이러닝 환경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보급하기 어려운 기계·전기전자·ICT·메카트로닉스 등의 분야 227과정 개설
 - '15.12월 현재 학습자수는, 60,301명(연인원 200,133명)
 - 160개 중소기업과 '학습지원협약' 체결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15년) 210,338명, 210,935백만원 지원
 -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적 포함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지원
 - ('15년) 51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 52백명, 재직근로자 389백명 등 441백명 직업훈련 실시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특화사업** 추진
 - 훈련생 58,939명을 지원하고, 예산 23,276백만원을 집행함
- **우수기능인에 대한 처우개선**
- 대한민국명장 선정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기능인의 경력설계 지원**
 - 우수숙련기술인 경력 설계 등 지원을 위한 DB 고도화를 통한 계속 사업 추진('16.7.1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시스템 기능강화 및 활용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숙련단체 의견수렴('15.10~12월)
 - 숙련중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숙련기술친화성지표 평가체계 마련**
 - 숙련기술인 우대를 위한 숙련기술인들이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 '14.7.14~12.17 숙련기술인 우대를 위한 NCS기반 숙련기술장려친화성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유효성 검증 추진
 - ** '15년 말 현재 대한민국명장 선정(605명), 숙련기술인 국민스타화(18명), 산업현장 교수단 위촉(1,002명), 기능한국인 100인 행사('15.6.23),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숙련기술인 배출(19번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 등
-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여건 제고**
-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활용 지원을 위해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및 성실 근로자 재입국제도 운영**
 -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활용 지원을 위해 재고용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도 추진(10,407명)

- 사업주 수요에 적합한 인력 선발 지원을 위해 **기능수준평가**(체력, 면접, 기초기능 등)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주에게 제공(31,699명)
-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4,111명) 및 **사업주 대상 교육** 실시(5,926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강화 및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확대 및 다각화**를 통한 인력지원 강화(1,424개소, 4,211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인력지원 강화
 - * 신규채용인건비 지원(75개소, 57억원), 설비투자 지원(45개소, 18억), 설비투자용자 지원(39개소, 240억), 임금보전 지원(12개소, 3억)

○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성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

- (업종별재해예방)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망·사고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도
 - * 사고성재해예방 기술지도(공단)(18,650개소),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410,691개소), 적시기술지도(20,777개소), 위험성 평가(60,637개소)등 실시(458억원)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인증, 20인미만 사업장 안전검사
 - *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64,100건),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30,535건) 실시(67억원)

※ 공단 수행실적 기준

- (유해작업환경개선)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의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지원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74억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2,437개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30,290개소) 등(155억원)

□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금지원

- **(판로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지원 등
 - **(온라인)** 상품소개사이트(www.e-store365.or.kr) 지속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 * 사회적기업 1,391개소 제품 3,949개 등록
 - **(오프라인)**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운영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
 - * 판매장 : '15년 중 10개소 신규 조성 및 '15년말 현재 총 44개소 운영
 -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15.7.1~7.3 부산 벡스코)
 - **(공공구매 지원)** 공공구매지원센터(☎1566-5365) 운영을 통한 상시 구매상담,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설명회 개최 등
 - * '15년 중 구매상담 131건, 구매설명회 및 교육 18회 실시
- **(자금지원)** 사회적기업 투자지원 및 정책연계를 통한 대부지원
 - **(투자지원)** 민관합동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투자 시행(총 64억원)
 - *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 4개 조합, 182억원 규모 운영 중
 - **(대부지원)**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정책연계를 통해 대출 지원 시행('15년 중 97.9억원, 101건)
 - * ('15년 지원) 미소금융 5억원, 중소기업정책자금 55.6억원, 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기업전용 특별보증 5.3억원, 신용보증기금 나눔보증 32억원

□ 중소기업 근로체계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 일터혁신을 위해 임금직무체계 개선 (345개소), 장시간근로 개선 (120개소)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컨설팅 지원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연계(30개소)
- 임금체계 및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교육 1,868명, 중소기업 CEO 혁신코칭* 32개소 (목표 30개소 보다 초과 실적) 실시
 - *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코칭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을 조성
- 기업의 일터혁신을 촉진하고 확산을 도모하고자, ‘일터혁신 우수기업’ 대상(4개소 중 중소기업 2개소) 및 인증(6개소 중 중소기업 2개소)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사업

- 기업복지활성화 컨설팅 실효성 제고 및 기업의 제도도입 촉진을 위해 심화컨설팅 제공 확대
 - 심화컨설팅 645개소(21.6%)를 비롯 총 2,981개소 실시

표 Ⅲ-8-1-1 컨설팅 실적

(단위 : 개소)

계	기 본 컨 설팅	심화컨설팅			
		소계	선택적복지	사내기금	EAP
2,981	2,336	645	311	176	158

- 수행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 지원자격 및 위촉 기준 강화*하여 우수 인력 확보
 - * '15.2월 관련 규정 개정: 전문컨설팅업체 종사경력 1년 이상→3년 이상, 기업복지/근로자 복지 업무경력 2년 이상→5년 이상
 - 기본 및 심화컨설팅 수행실적, 모니터링 결과 반영하여 컨설턴트 재위촉*
 - * '15.12월 컨설턴트 실적평가를 통해 재위촉 완료(전체 142명 중 실적부진 24명 해촉, 118명 재위촉)

표 Ⅲ-8-1-2 컨설턴트 위촉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기존	142	37	22	16	36	17	14
해촉	△24	△11	-	△1	△9	△2	△1
재위촉	118	26	22	15	27	15	13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9장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상용화 성과 창출 유도를 위해 신규과제 지원 확대*
 - * '14년 8개 신규과제(17억 원) → '15년 13개 신규과제(29.4억 원)
 - 해양수산 R&D 성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검증 지원 신규 추진(30.5억원)
 - * 既 개발된 기술의 상용제품화, 생산공정개선 등 실제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25억원) 및 제품화 단계 기술에 대한 실증, 인증 등 소요비용 지원(5.5억원)
-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 63개 중소 수산가공업체에 총 192억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한 수산식품산업 육성
 - * 중소 수산가공업체 1개소 당 평균 3억원 지원(금리 3.5~4.0%)
- 수산물 원료확보 위한 수산물 구매자금 지원
 - 수협,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료 구매자금 1,329억원 규모를 융자하여 원료구입 지원
 - * 수산물 구매지원 예산 : ('14) 1,229억원 → ('15) 1,329억원

- 수산물 유통·가공업체에 대한 정책금리를 인하(4%→3%)하여 안정적인 원료수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용자조건 : 용자 80%, 자부담 20%

□ 중소 가공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 용자지원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출향상 도모

* 지원업체/수출실적 : 140개사(1,300억원)/462,634천불(지원업체에 한함)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0장 방송통신위원회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송출비를 할인**하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추진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을 위해 방통위-중기청-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자간 MOU 체결
-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방송광고 제작 32개사, 라디오광고 제작 78개사 등 총 110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지원**
 - * TV방송광고는 최대 5천만원, 라디오광고는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의 광고비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방송광고 송출비의 최대 70%를 할인**하여 **207개** 중소기업에 대해 **353억원**의 송출비 할인

제11장 국세청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납세유예)**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납세유예 실시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납세유예* 실적은 재해 등의 감소로 전년 보다 감소**
 - * 납세유예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포함
 - ** 327천건('14) → 253천건('15), 73천건(22.5%) ↓
- **(130만 중소상공인 지원)** 연간 매출금액 1천억 미만의 경기침체 애로업종, 경제성장 견인업종 등에 대한 세무조사·사후검증 유예 실시
- **(환급금 조기 지급)** 모범납세자 및 중소기업이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부당환급협의를 없는 경우 조기 환급금을 조기 지급
 - * 15년 조기지급 실적 : 196천건, 14.1조원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전 관서에서 세정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세무서 세금문제상담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세금고충 해소
 - * 15년 운영실적 : 간담회 954회, 현장 세무상담실 2,030회
- **(무료 세무자문) 영세납세자지원단**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까지 확대 운영
 - * 15년 운영실적 : 무료 세무자문 172건 제공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하여 잠재적 가업승계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등 가업승계 안내활동 384회 실시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21천부)를 발간·배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
 - **(명의신탁주식 환원절차 대상 확대)** 무상증자, 주식배당, 균등 유상증자를 신청대상에 포함
 - 불균등 증자한 경우로서 명의신탁자 주식수가 변동이 없고,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 주식수가 증가하는 불균등증자도 신청대상에 포함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간편조사 실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조사관서 사무실 조사 실시
 - **(세무조사 선정 제외)**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는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 * 15년(수도권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 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의견청취 강화)**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견 청취제도를 중소기업 법인까지 확대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인프라 구축
 - **(신고 편의)** 세무에 취약한 납세자를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서비스 확대 제공**
 -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까지 미리 채워주기 →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 종료
 - **(성실납세 지원)** 분석기능이 강화된 NTIS시스템과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신고 전 안내 대폭 강화**
 -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조사·사후검증사례 등 **성실 신고와 직결되는 통합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 * 15년 제공실적 : 법인세 15종 6만 건, 부가가치세 70종 125만 건, 소득세 40종 53만 건
 - **(성실납세 협약제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성실납세협약제도로 변경하고 **협약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세무진단 회수를 축소하는 등 운영방식 변경으로 성실신고 지원
 - * (협약체결 대상) 수입금액 5백억~5천억원 → 수입금액 3백억~1천억원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 '15.9.9~11.20. 중 전국 44개 지역에서 약 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 「보도자료, 안내책자, 발급동영상, 홍보매체」 등 다각적 홍보* 실시
 - * 네이버 등 모바일 광고, 인터넷(조세전문지, 일간지, 네이버 포탈) 등 홍보

□ 해외진출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장 등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한 세정 지원(10회)
 - 실무자급 공무원과의 **협력기반 확충** 통해 세정애로사항을 사전 방지(중국, 인니 등 12개국 91명의 세무공무원 연수 실시)
 - 중소기업의 세부대응에 필요한 현지 세법·세정에 대한 정보 제공*
 - * 해외진출이 집중된 중국·베트남·인니 등 세정간담회 26회 개최
 -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발간(6개국)
 - * 매월 주요 6개국(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니, 인도) 진출기업에게 세정뉴스 발송
- (외국계기업 지원)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외국계기업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수집하고 해결방안 논의
 - 「외국계기업 CEO를 위한 영문 세무안내서*」를 발간·배포하고 세무조사 선정 외국계기업에게 「세무조사 영문 가이드북」을 제공
 - * Guide to Taxation in Korea for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제12장 관세청

- 중소기업 AEO공인 확대를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무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AEO 공인획득 컨설팅 지원** (46개사, 8억원)
 - * 중소기업 AEO공인업체수 : ('14) 56개 → ('15) 115개 (전년 대비 105% ↑)
 - **관세청-기업은행 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을 위한 자금조달 비용 금리 인하(0.5~1.5%p) MOU 체결*(15.5월)**
 - * 9개 중소기업, 252억원 혜택
 - 중소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AEO MRA 협상**을 진행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 대만과 MRA 체결*
 - * 세계 최다(13개국) 체결국 지위 유지
- 중소기업 및 FTA 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FTA 활용 및 수출 촉진
 - 관세청의 제반 FTA 활용지원 사업에 대한 **고유 브랜드(YES FTA)**를 확보함으로써 **수요자의 정책 접근성 제고**
 -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 「찾아가는 YES FTA센터(이동상담버스)」 등을 통해 FTA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인력과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수출 활용에 필요한 YES FTA 전문 컨설팅** 제공 (총 546개 기업*)
 - * ('14년) 574개사, 12.3억원 → ('15년) 546개사, 12.3억원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3장 방위사업청

□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정책수요자를 확대(방산업체 중심 → 일반군수업체, 벤처 및 신규희망업체 포함)하여 **기업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 (방산참여업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역량 강화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일반군수업체) 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하고 조기계약을 위한 조달업무 간소화 추진
 - (벤처 및 신규희망업체) 방위사업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신규진입 걸림돌 제거 및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지원분야(자금, 인력, 기술, 시설, 수출 등)별로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사항을 발굴하여 추진

□ 부품국산화 활성화 지원

-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무기체계별 조사분석을 통해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핵심부품 선정 및 5개년 개발계획 수립**

* 5개 분야, 10개 무기체계 대상으로 14개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 계속과제 관리 및 평가
 - * '15년 신규과제 8개 선정 147.3억원 지원, 계속과제 24개 관리
- 부품국산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국산화 성과 홍보를 위한 「2016 대한민국 방산 장비·부품대전」('16.6월) 개최 추진
 - * 개최장소 결정(8월, 창원), 기본계획 수립(11월), 방사청-창원시 MOU 체결(11월)

□ 국방벤처기업 육성 지원

- 국방벤처 지원사업 예산을 최초로 확보('15년 30억원)하여 벤처기업의 **R&D 지원기반 마련**
 -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과제 선정기준, 개발비 지원 등) 제정
 - 거점지역별 기업 지원을 위한 **전남국방벤처센터 신규 설립**

표 Ⅲ-13-1-1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

센터	설립	협약업체수	센터	설립	협약업체수
서울	'03.09.	16	대전	'11.11.	36
부산	'08.12.	18	광주	'13.12.	33
경남	'09.09.	32	구미	'14.03.	30
전주	'09.09.	23	전남	'15.09.	18

- 국방벤처기업을 위한 개발비 및 마케팅 지원
 - 18개 지원과제 선정 및 개발비 25.7억원 지원
 - * 과제별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
 - ADEX, 美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팀 방한 시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전시 및 홍보
 -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기관의 공감대 형성 및 성과지향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벤처 컨퍼런스 개최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 '15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선정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약 체결
 - 풍부한 기술개발 경험과 수출가능성, 향후 국내 소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 * 동인광학(열영상 대구경 도트사이트), 연합정밀(차기인터컴)
- '14년 선정기업의 개발과제 중간평가 실시
 - 진도점검을 통한 중간평가 결과 계획대비 연구개발 추진실적 양호
 - * 인소팩(스마트통신시스템), 휴너드테크놀러지스(고속무선전송장비)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기존 방산업체 한정에서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까지 확대**
 - '16.7월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년 하반기 지원사업부터 일반업체 참여 가능
- 세부 운영절차 마련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진도관리, 평가절차** 등의 구체적 방법 마련
- 기 선정 과제에 대한 **진도평가 및 최종평가 수행**
 - 계속지원 과제(3건)에 대한 현장평가 등 진도점검 결과, 개발계획 대비 정상진행 확인
 - '15년 종료과제(2건)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2개 과제 모두 성공적이며, 국제 경쟁입찰 참여 등 해외수출 적극 추진 중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방산분야 신규기업 참여 촉진 및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분야 컨설팅 지원
 - '14년 40개(3.8억) → '15년 60개(6억)로 지원 확대
 - * 3천만원 한도, 컨설팅 비용의 75% 지원
 - 국방벤처 기업의 컨설팅 참여 희망시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적극적인 홍보로 컨설팅에 대한 중소기업 관심 확대
 - * 신청기업 '14년 70개 → '15년 120개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시행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주관기업으로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
- 우선선정 품목은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지정현황 : '10년 2개, '11년 1개, '13년 11개, '14년 11개, '15년 3개

□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강화

- 방산육성자금,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 * 방산육성자금의 중소기업 지원비율 : ('14) 48%→('15) 50%
 - *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 ('14) 175억원→('15) 409억원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방산육성자금) 소프트웨어 개발·구매 등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 *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개발 및 시설자금 비목 추가, 대상 협력업체까지 확대
 - 사업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한 업체 참여 활성화
-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체계 강화
- 기업의 해외방산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무관전문 47건 공개 및 해외입찰 정보 1,286건 제공
 -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 * 35개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총 55개 기업 지원
 - 청-한국수출입은행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 중소기업제품 수출판로 지원
 - DQ마크 24품목 신규 인증 / 인증제품 온라인 및 ADEX 기간 중 홍보
 - DQ마크 인증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 * 심사수수료 인하 : 최초인증 80~100만원→30만원, 사후관리 30~34만원→무료
 - * 서류심사삭제, 외부시험성적서 인정기간 2년→3년 확대, 심사기간 2개월 단축 등
-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 ‘13년부터 시행한 중소기업 절충교역 참여 확대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절충교역(수출) 참여 비율 대폭 확대
 - 중소기업 참여 비율 : ‘13년(9.7%) → ’14년(30.8%) → ‘15년(38.7%)
 - 중소기업 수출 금액 : ‘13년(0.86억불) → ’15년(2.46억불)

- 글로벌 방산업체 대상 수출상담회(장터) 및 1:1 맞춤형 컨설팅(SmAll Day)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능력 향상

- 2월(獨 SELEX社), 5월(美 Lockheed Martin社), 7월(美미 Northrop Grumman社),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약 60여개 중소기업이 국외업체와 협력 관계 구축 방안 협의

-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1:1 컨설팅 - SmAll Day제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 운영

- 의료기기분야 규제전문가(RA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및 자격인증제 실시

- 중소 의료기기업체 GMP 등 품질관리 지원 추진

* 해외인증대비설명회(2회), 품질책임자및CEO 교육(82회), 맞춤형기술지원(252건) 등

□ 첨단 의료제품 산업 제품화 지원 추진

-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팜나비(Pharm Navi) 사업」* 및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운영

* 국산 (개량)신약 개발(누적, 품목) : ('12) 8 → ('14) 21

** 국내개발 바이오시밀러 허가(누적, 건) : (~'13) 1 → ('14) 3

줄기세포치료제 허가(누적, 건) : (~'13) 3 → ('14) 4

- 바이오의약품 국내·외 정보제공 및 인허가 지원 사업

- 주요 진출희망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가이드라인 원문·번역문, 산업정보 종합정보망 구축 및 인허가 컨설팅 수행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4장 병무청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원

-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시 개별배정이 아닌 총괄배정으로 인원 제한 없이 업체 소요인원 전원을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
 - * 병역 지정업체 선정횟수를 늘려(1회→2회) 전문연구요원 활용기회 확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학생 산업기능요원 우선 지원하여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제공
 - 특성화·마이스터고 취업협약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인원배정
 - * (지정업체 선정) 신규 선정된 1,006개 지정업체 중 취업협약업체 806개 우선 선정
 - * ('16년 인원배정)
 - 현 역 : 배정인원 6,000명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생 5,533명 우선 배정 ('15년 대비 2,000명 증원)
 - 보충역 : 배정인원 9,000명 지정업체에서 원하는 만큼 채용(채용한 인원이 배정인원) ('15년 대비 4,500명 증원)

표 III-14-1-1 '15년 중소기업 배정/편입인원

(단위: 명)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편입	%	배정	편입	%	배정	편입	%
9,355	7,954	85.0	855	418	48.9	8,500	7,536	88.7

제15장 특허청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식재산 금융)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융자 지원 확대

- * 투·융자 연계 금융지원(社/역원) : ('14) 303/1,658 → ('15) 402/2,009

-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IP서비스기업투자('15.2)·IP직접투자('15.4)·우수IP-R&D기업투자('15.11) 펀드 조성

- IP 가치평가 비용·기간 다변화를 위해 간소화된 가치평가 모델 개발 ('15.4) 및 IP 가치평가기관에 민간 참여 확대

- * (기존) 단일모델(1,500만원, 6주) → (개선) 보급형(650만원, 3주), 심화형(1,500만원, 6주)

- ** IP가치평가기관 : ('14) 10개 → ('15) 12개(민간 2개: 특허법인 다래, (주)웹스)

-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IP 공급자·수요자 매칭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확대

- 수요자(기업), 공급자(대학·공공연), 투자자(금융·투자기관), 중개자(특허거래전문관, 특허경영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 * 의료기기·전자부품 기술분야 IP 네트워크 운영('15.9~12)

- 특허거래전문관을 지역별로 확대 배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식재산의 거래·사업화 촉진

- * 특허거래전문관(명) : ('14) 7 → ('1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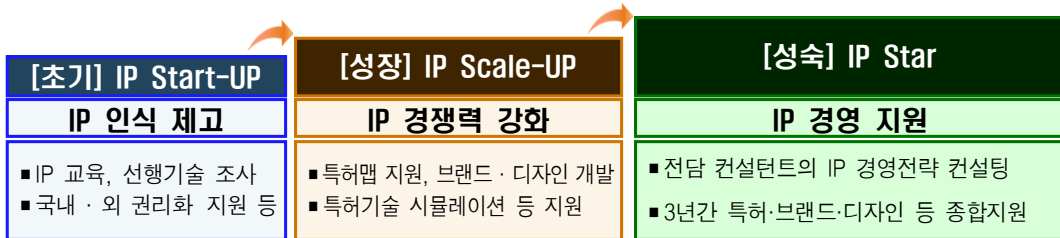
-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IP 제품 혁신 전략’ 지원 확대

* IP 제품 혁신 전략 지원 과제(개) : ('14) 23 → ('15) 25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

- '14년 도입된 IP 역량 단계별 기업 육성 지원체계(IP Start-up → IP Scale-up → IP Star) 정착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그림 30 IP 역량 단계별 기업 육성 지원체계



- IP Start-up 기업을 위해 IP 인큐베이팅 및 해외 권리화 지원 등을 신규 도입하여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5,423社, 50억원)
- IP Scale-up 기업을 위해 선택형 IP 지원 및 해외 IP 컨설팅 지원을 신설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5,022社, 94억원)
- IP Star 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IP 경영전략 컨설팅을 강화하고 전략에 기반한 지식재산권 **종합지원** 실시(598社, 84억원)

□ 첨단 소재·부품 IP-R&D 전략 지원

- 對日 무역적자가 큰 소재·부품 분야의 중소기업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특허 전략(전략수립, 전략선택, 전략특화) 지원 확대

- 과제당 평균 IP획득전략 6.9개 창출, R&D방향제시 4.5개 도출

* 지원현황 : ('14) 135개(92.4억원) → ('15) 128개(88.2억원)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

- 중견기업 등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 기술 분야에서 **강한 특허를 선점**하고 **해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지원

- 지원기업 신청기술 분야의 장벽특허 247건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 200건, R&D 전략 59건의 IP-R&D전략 수립

* 지원현황 : ('14) 44개(25.2억원) → ('15) 48개(26.4억원)

□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 소멸된 원천·물질특허/플랫폼 기술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특허 분쟁의 우려 없는 신규 제품/기술 구현 전략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0개 과제 수행('15년도 시범사업)

* 지원현황 : ('14) 0개 → ('15) 10개(7억원)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IP-DESK) 분쟁 빈발지역인 일본(동경)에 IP-DESK 신규 개소('15.6)**,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외국 세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3) 9개소(23.3억원) → ('14) 10개소(23.3억원) → ('15) 11개소(25.3억원)

- **(초동대응) IP-DESK 미설치 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

* ('15) 법률자문 220건(분쟁예방 187, 분쟁대응 33), 침해조사 7건

- **(컨설팅) 중소·중견 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로펌 등을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13) 128개사(50.1억원) → ('14)283개사(69억원) → ('15)348개사(76억원)

- **(소송보험)** 중소·중견 기업의 지재권 분쟁 발생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 ('13) 50개사(7.8억원) → ('14) 119개사(10.8억원) → ('15) 149개사(12.4억원)

- **(정보제공)** 기업의 지재권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재권 분쟁, NPEs 동향 등의 정보 제공

* 일일분쟁속보(1,482건), 정책통계(12회), 뉴스레터 12회, 판례 1,600건 등

제16장 기상청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상기후산업 수출 강소기업 육성 지원(15개사/수출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 기상기후산업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기상기후산업 글로벌 진출단 지원 사업(시장개척단 8개사, 전시회 9개사)운영
- 기상기후산업 해외 공공조달 입찰정보 등 수출시장 정보 제공(입찰정보 28건, 영문뉴스레터 4회)

□ 날씨경영 확산을 위한 기상민감 업종별 지원 강화

- 기상재해 및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날씨경영 지원
 - 소상공인 날씨경영 확산을 위한 소상공인지원공단 업무협약 체결(1.30.)
 - * 주요내용 : 소상공인 날씨경영 서비스 업종 확대를 위한 상호간 협업,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날씨경영 교육 지원
 - 기상서비스 활용 사각지대 수요처 발굴 및 날씨경영 컨설팅·교육 지원 (교육 24회, 컨설팅 28회)

- 지역산업 기반의 맞춤형 기상컨설팅 지원을 통한 날씨경영 활성화
 - 민간기업(기상기업)의 전국 지자체 주관 행사(지역축제 등 20건) 대상 맞춤형 특별기상서비스 공급 지원(7~12월)

- 기상산업 분야 특화된 마켓플레이스 조성 및 수익창출 지원
 - 유망기술 솔루션 보유 기상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기상산업시장 진출 활성화
 - 기상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날씨경영 솔루션 및 콘텐츠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날씨경영 솔루션 오픈마켓 구축·운영(11월)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기업 보유(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시장경쟁력 강화
 - (추진실적) 센터개소(3.31)를 통해 15개 입주기업 대상 사무공간 등 기반 시설 제공, ‘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 성장지원 실시
 - * 입주기업 주요성과 : 신규채용 37건, 예비창업팀 창업 3건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
 - 기상기후산업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 미래 핵심인재의 참신한 아이템 발굴 및 창업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추진실적) 기상산업분야 예비창업팀(8개팀) 대상 시제품 개발비 지원,

창업 기본지식 함양을 위한 창업캠프 운영 및 창업경연대회 개최·시상
(5개팀)

* 예비창업팀 주요성과 : 창업 2, 특허 출원 2건

□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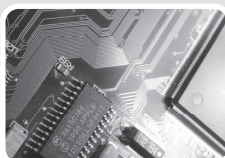
- 중소 기상기업 및 기상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경영지원을 위한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온라인·유선·내방을 통한 상시상담(27건) 및 전문기관(특허·법무·관세법인) 매칭을 통한 심화전문상담(21건) 실시

* 기상기업 및 예비업자 대상 심화전문상담 평균만족도 : 93.1%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 제1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2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3장 중소기업연구원
- 제4장 신용보증기금
- 제5장 기술보증기금
- 제6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7장 중소기업유통센터
- 제8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제9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10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11장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 제12장 중소기업은행
- 제13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제14장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15장 한국생산성본부
- 제16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제17장 산업연구원
- 제18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19장 한국디자인진흥원
- 제20장 한국산학연합회
- 제21장 창업진흥원



제1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 균등과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말 기준 941개 협동조합(72,119개 업체)과 31개 중소기업 관련단체(595,377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조직화, 협동조합 운영지도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 중소기업 국제협력기반 구축 및 수출 지원,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가. 중소기업 조직화 및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창출, 생산,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기업간 협업,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 결과 2015년 37개 협동조합이 신규 설립되고 협동조합 기능을 상실한 34개 조합을 해산 조치하여 전년 대비 3개 증가한 총 941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1-1-1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 합 회	25	25	25	25	24
전 국 조 합	204	218	223	227	222
지 방 조 합	336	343	342	339	339
사 업 조 합	369	353	341	347	356
계	934	939	931	938	941
조 합 원 수	66,449	68,399	70,247	71,052	72,042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5.2.3)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협동조합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방향 및 3개년 로드맵 및 활성화 정책과제를 연구·발굴하였다.

나. 협동조합 운영지도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합원 관리, 총회 개최, 예·결산,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및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회계·세무, 규정 제·개정 등 일반운영과 공동사업운영 등을 현장밀착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설치(2002.5)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조합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5년까지 1,787개 조합에 2,423회 방문하여 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였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20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 및 환경,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9년부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타 조합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부문은 종합대상과 8개 부문별 대상(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창출, 해외시장개척,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신규부문)으로 나뉘며, 많은 협동조합들이 수상 조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합발전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표 IV-1-1-2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단위 : 회, 개)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도횟수	1,200	233	329	323	338	2,423
지도조합	979	142	200	211	255	1,787

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협동조합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반자금 내 조합 전용 협동화자금을 활용하여 2015년 6개 조합, 27억원을 추천하였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5년 3개 조합에 1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V-1-1-3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07~'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추천조합	93	27	23	13	6	162
추천액	868	147	185	92	27	1,319

또한 공동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3년 1월 중소기업 DMC타워에 “협동조합 공동비즈니스 오피스센터”를 개소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오피스센터에 입주한 협동조합은 임차보증금, 임대료, 비품 등을 지원받으며, 최대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15년 9월 강원지역 오피스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15년말 서울(6개 조합), 강원(3개 조합) 등 2곳의 협동조합 공동비즈니스 오피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라. 단체표준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운영해 온 단체표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단체표준 선진화의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MOU를 체결('15.11.18)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표준 제정 지원과 인증에 대한 민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단체표준과 국가표준(KS)과의 중복해소, 상호 전환 촉진 ▲업무추진을 위한 위임·위탁 등이 있다.

2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수출 동반부진, 메르스 쇼크, 청년 고용절벽 심화 등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 1+ 채용운동, 내수살리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우리 사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정책건의, 각종 동향 조사와 현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의 구축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우리 경제 발전에 중소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발굴 및 정책건의

1) 중소기업 지원시책 개발 및 건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영애로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정책건의 채널을 다변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이 더욱 신속하게 정부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경제활성화법 입법화를 위해 범 중소기업계 의견을 모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체인증 우선구매제도’ 도입,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현장중심 규제 개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2) 중소기업 정책 관련 토론회 등 회의 개최

정부부처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손톱밑가시 힐링센터’, ‘세정지원협의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수시 건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국무조정실장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 71건을 제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유사중복인증을 발굴건의한 결과 정부의 ‘인증규제 혁신방안’ 마련에도 기여하였다.

중소기업 현안과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과 정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6회 개최하고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점검과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금융연구회를 7회 개최하였다.

3) 중소기업 정책건의집 발간 등

중소기업 당면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 정부 등에 건의한 정책과제를 종합·정리하여 ‘2015 중소기업 정책건의집’을 발간하였다.

표 IV-1-1-4 중소기업 정책과제 건의 및 반영 현황(2015년)

(단위 : 건, %)

구 분	전체반영	반영		미반영	검토중	합계
		반영	일부반영			
전체 (비율)	258 (42.6)	166 (33.3)	92 (18.5)	99 (19.9)	141 (28.3)	498 (100)
분야별 (비율)	183 (38.9)	102 (27.9)	81 (22.1)	91 (24.9)	92 (25.1)	366 (100)
지역별 (비율)	75 (52.7)	64 (48.5)	11 (8.3)	8 (6.1)	49 (37.1)	132 (100)

나. 중소기업 조사 및 통계 생산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기술개발투자, 제품판매, 수·위탁 거래, 인력, 사업전환, 재무구조 등 중소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서비스업의 연간 경영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20,000업체)와 기술개발투자, 기술인력 등 기술개발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3,300개 업체)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본통계와 중소기업 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1,500업체)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시도별로 가공하여 ‘2015년 중소기업현황’을 발간하였고, 중소기업의 현 위상과 경제발전 공헌을 정확히 알리고 중소기업 정책지표로 활용하고자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발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개발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지표’를 발간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중소기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를 발간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은행 ‘끼기’ 실태 및 정부 끼기규제 관련 의견조사(385개사), 설비투자 기상도 조사(350개사),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808개사), 추석자금 수요조사(900개사), 기술금융 이용실태 및 의견조사(400개사),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303개사), 중견기업 경영상황 실태조사(104개사)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정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전통시장 영향 조사(1,450개사), 소상공인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300개사) 등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섬유·의류산업 중소기업 한·중 FTA 현장인식 조사(300개사), 한·중미 6개국 FTA 업종별 의견 조사(300개사),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환변동 대응계획 조사(300개사) 등 FTA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현황과 애로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429개사), 2016년도 외국인력 수요 실태 조사(1,702개사) 등 중소기업 인력 현안에 대한 조사와 글로벌 청년 창업에 대한 의견조사(204명), 메르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애로 조사(615개사) 등 총 50건의 정책기획조사를 통해 각 분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접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1)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 소상공인 골목 상권 침해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중소기업계가 주장, 요구해온 사안으로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었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범중소기업계가 하나 되어, 정부·국회 등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2013년 경제민주화법 이라고 불리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 IV-1-1-5 경제민주화 입법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13.4.30)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13.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유용 ⇒ 부당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행위 확대 ○ 전속고발권 폐지[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13.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 고발 요청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고발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금지('1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일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상장 20%, 비상장 30%)
협동조합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14.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조합, 2개 단체(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이와 함께 2015년에는 공정위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익명제보센터 설치 및 홍보,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하였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하에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위와 공동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해나 갈 예정이다.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진단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제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실태 조사, 대기업 유보금 실태조사, 중소기업 원가절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015년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15건)을 발굴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포스코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QSS 혁신활동 확산 협약식’을 맺고 향후 5년간 4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 고유의 현장 혁신활동인 QSS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며, 2015년까지 150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범이 되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 협동조합 공정거래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회에 설치된 제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2015년 28건의 하도급분쟁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였다.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11년 제도 도입 이후 '13년 상생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 적합업종 재합의 75개 품목 재합의를 완료하였다.

* 합의·권고(49개), 시장감시(7개), 상생협약(21개)

또한 적합업종 이행력·실효성 강화를 위해 적합업종경쟁력강화위원회 발족('15.7), 적합업종 서비스업분야 성과분석 연구('15.8),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15.10),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위한 이슈리포트 발간('15.12) 등을 했고, 동반위의 적합업종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표 IV-1-1-6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개 정 주 요 내 용

- 대기업에게 조정협의체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특별한 사유가 없이 1년 이상 적합업종 미합의시 사업조정 신청
- 권고사항 미이행시 정부포상과 공공기관 입찰 제한 요청, 동반성장지수 감점 부과

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1)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맞춰 미국, 중국 등 11개국에 5회에 걸쳐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정상외교 후 중동, 중국 및 이란·터키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순방외교의 성과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로 미국 LA 베버리힐즈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제품의 미국 대형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상외교와 연계한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민간대사 제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업종별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한국관 지원 170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20회 등 총 180억원 규모로 지원하였다.

2) 해외 네트워크 기반 마련

중소기업 경제사절단 파견 시 현지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예정 중소기업들에 각국 정부의 정책과 실제 진출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동시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정착 애로를 발굴하고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불가리아 BSMEPA(불가리아 중소기업진흥청), 터키 TUSKON(터키기업연합), 중국 상해 ISPC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불가리아 대통령 초청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4월),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세미나(5월), 한-불가리아 화장품업계 네트워킹 포럼 개최(9월), 독일 대통령 초청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10월), 2015 백두포럼(12월) 등 해외 각국 정부와 중소기업인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통상현안 정책기능 강화 및 환경변화 대응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지원, 외환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인 해외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급증 및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FTA 체결 및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결정시 반영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업종별 간담회(1월), 한중 FTA 중소기업 피해예상업종 대책마련 위한 간담회(4월), 중소기업 수출관련 애로파악 간담회(5월), 협동조합 글로벌화를 위한 대토론회(5월),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토론회(10월) 등을 개최하였다.

4) 통일경제시대 대비 중소기업 정보제공

통일경제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축적, 홍보를 위하여 통일경제정보 사이트(onekorea.kbiz.or.kr)를 구축하고 북한경제동향, 연구자료, 전문가색션, 월 1회 정보제공 웹진서비스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경협과 관련한 현안점검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통일위원회를, 학계·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산업현황 및 경제개발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통일경제시대 준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실질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소기업 대표단을 구성하여 개성공단을 방문하여(11월) 기반시설 및 생산시설 등을 현지 시찰하였고, 학계·전문가와 함께 「2015 백두포럼」을 연길에서 개최하여(12월) 중소기업의 북·중 접경지역 진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였다.

마.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증여특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하여 가업승계 기업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명문 장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종합지원 패키지 정책연구('15.8), 가업승계특별위원회 개최('15.6), 가업승계 실태조사 실시('15.11), 명문 장수기업 포상('15.10) 등을 실시하였고, 가업승계 차세대 CEO 스쿨을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및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3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가. 산업정책 개발 및 업종 경쟁력 제고

1)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건의, 입법화 추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지원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조직을 기능 중심에서 업종중심으로 개편하고, 14개 산업위원회를 운영(53회 위원회 개최, 66건 정책건의, 19건 실태조사 실시)하였고, 각 산업의 현장애로 수렴, 업계 현안

과제 및 애로사항 해결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이슈 선점과 선제적 대응정책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림 31 산업위원회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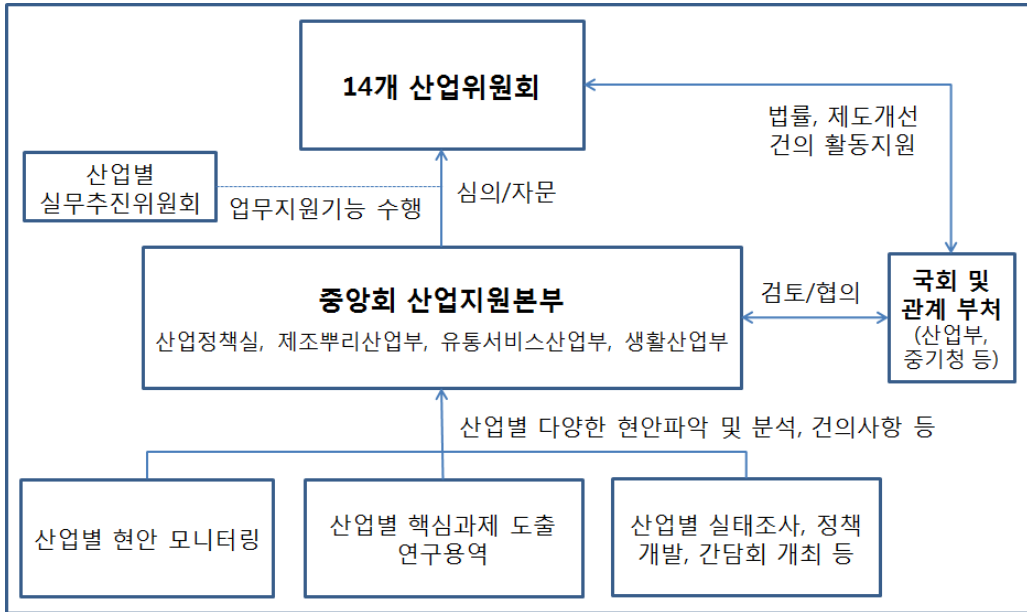


그림 32 산업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부서	위원회명	부서
ICT산업위원회	산업 정책실	유통산업위원회	유통 서비스 산업부
콘텐츠산업위원회		서비스산업위원회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제조 뿌리 산업부	생활용품산업위원회
뿌리·부품소재산업위원회	농·식품산업위원회		
화학·플라스틱산업위원회	섬유산업위원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종이·인쇄산업위원회		
기계·금속산업위원회			
전기·기기산업위원회			

2) 중소기업 중심 창조경제 확산 추진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하고자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 김광두)를 운영하였고 총 7회 회의를 개최하여 창조경제시대 중소기업의 역할과 방향, 장애요인 발굴 및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분야별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정부 정책제안 기능도 놓치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계 전반에 창조경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2015 창조경제 공감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예비창업자, 대학생 약 350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성공사례 공유와 창조경제의 개념 등 9건의 주제에 대해 강연하였다.

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이 중소제조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196개사의 참여수요를 발굴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출발은 뿌리산업의 스마트화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뿌리산업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인식조사, 뿌리산업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수준별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팩토리 구현 전략 및 Action Plan을 담은 10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다. 중소기업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연구

1) 소상공인의 사업영역보호 및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경영현황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발굴과 전문가를 통한 정책대안 발굴, 골목상권 활성화 및 동반성장 방안을 도출하였고, 정부·국회 건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적법 판결 등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와 더불어 사업조정 및 서비스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의 기틀을 조성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지정된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기간이 2016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대기업과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업종에 대해 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대형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코자 롯데백화점에 설치한 중소기업상생관(드림플라자)에 중소기업을 입점시켜 판로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유통심포지엄(1회) 및 중소기업포럼(2회) 등을 개최하여 유통업계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중소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기틀 마련

우리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계적인 중소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중소서비스기업에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관련 협동조합, 협회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국회·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애로를 해소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라. 생활산업 우수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 진출지원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국내 시장의 판로를 찾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은 TV홈쇼핑에 입점을 희망하는 우수 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위해 1:1 입점 설명회 및 상품추천위원회를 통해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 무료 방송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지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산품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일사천리사업」을 통해 연간 100개사를 지원, 총 5,259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신시장으로 떠오르는 할랄(HALAL)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2015 국제할랄산업전」(HALAL KOREA 2015)과 연계하여 수출상담회와 교육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수출상담회에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건강 기능 제품 수입업체 ‘더 모델 쿡(The Model Cook)’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식음료 수입업체 ‘첼코 프리마 만디리(Chemco Prima Mandiri)’ 등의 대형바이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2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1대 1 비즈니스 수출 상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할랄시장 관련 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랄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매너’, ‘주요 산업별 할랄시장 동향’, ‘할랄인증 현황 및 주요 국가별 할랄인증 절차와 방법’,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학계 및 업계 등 할랄 전문가로 구성된 「할랄비즈 중소기업포럼」을 발족하였으며, 향후 할랄시장 관련 민간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

중소기업자간 상호부조에 의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여건 조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조합 등의 출연금 및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1998년 정부출연 중단 이후에는 각종 홍보 강화, 가입촉진 캠페인 활동 및 경영상담사의 가입유치 활동 등 기금재원 확충을 위한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15년 12월말 현재 13,120개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총 4,589억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표 IV-1-1-7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2015. 12. 31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공제부금	정부출연금	운용수익금 등	계
조성액 (비 중)	3,027 (66.0)	1,400 (30.5)	162 (3.5)	4,589 (100.0)

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대출(제1호대출,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 어음 및 수표대출(제2호대출, 어음 및 수표의 결제 지연에 따른 도산 방지),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대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단기 운영자금 부족 지원),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4호 대출, 외상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 및 손실예방을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와 연쇄도산 방지) 등 4종류가 있다.

총 대출금액의 97.8%인 2,740억원(2015년 대출잔액 기준)을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금융지원시스템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IV-1-1-8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2015. 12. 31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부도어음 (1호대출)		어음수표 (2호대출)		단기운영자금 (3호대출)		매출채권담보 (4호대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이전	12,654	6,544	217,717	49,745	52,092	18,597	-	-	282,463	74,886
2012	122	90	3,280	767	5,378	1,957	7	3	8,787	2,817
2013	69	54	2,598	652	5,575	2,136	96	23	8,338	2,866
2014	59	39	2,325	584	5,819	2,411	45	15	8,248	3,049
2015.12	54	43	2,005	523	5,602	2,714	14	5	7,675	3,285
계	12,958	6,770	227,925	52,271	74,466	27,815	162	46	315,511	86,903

아울러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1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2015년 총 968개 업체에 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대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2호 대출 1.0~3.0%p, 3호 대출 1.0~3.0%p) 하였다.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퇴임·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9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되어 2015년말 현재 누적가입자 685,388명, 누적부금액 4조 3,014억원을 달성하였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인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시중은행·상당사·홈페이지(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부금은 월 5만원~100만원까지이고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전액과 적립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제금의 압류가 금지되며,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부부금은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분기 변동)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입 후 2년간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5년말까지 폐업 또는 사망사유로 71,227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919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35,093건 7,516억원의 공제계약대출을 실행하였다.

표 IV-1-1-9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

(단위 : 건, 억원)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257,850	11,149	121,783	7,522	112,224	10,388	193,531	13,954	685,388	43,014

다. 중소기업 이행보증공제 운영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이행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6월 도입된 「기업보증공제」는 2015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1,743개 업체에 51,103건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해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약 5조 4,082억원을 보증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민영보험사 및 업종별 공제조합이 보증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음에 따라 보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으나, 「기업보증공제」출범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증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민영보험사 및 공제조합 역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시장 전반의 공급 독과점이 개선되어 보증 소비자인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후생이 증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보증공제」는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이용절차 및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조합원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신용을 공여하는 자율적 금융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IV-1-1-10 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개사, 건, 억원)

이용업체 수	증권발급 건수	보증 금액
1,743	51,103	54,082

라. 중소기업 손해공제 운영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화재·재산종합공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근로자재해공제 그리고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단체상해공제의 5가지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손해공제는 시장 보험료 대비 10~25% 저렴하게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체적 가입 추진을 통하여 중소기업 일부 위험업종에 대한 인수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V-1-1-11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	137	220	1,355	1,054	2,018

마.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운영

2002년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라 1999년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와의 PL단체보험 계약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별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PL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PL대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 IV-1-1-12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15	9,690	3,222	9,724	3,465	10,372	3,786	10,903	4,001	12,221

5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1)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의 인재양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1997.4.16)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대의 교육 허브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년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입주 후에는 벤처기업 및 글로벌기업 등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전략분야 인력양성형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 외 지원시책 연계교육, 공공기관 신규 교육 등의 수주를 통해 2015년 연 45,744명이 수료하였다.

표 IV-1-1-13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무능력 향상교육	협동조합 임 직원	지원시책 연계교육	맞춤형 위탁교육	계
2013년	6,554	1,629	54,104	20,274	82,561
2014년	4,505	1,614	27,384	26,647	60,150
2015년	2,272	1,580	15,052	26,840	45,744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외국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인력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인력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 점수제 시행, 3년 취업기간 만료 후 출국 없이 다시 고용할 수 있는 재고용제도(1년 10개월),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없었던 근로자는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제도, 숙련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제도 등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여 반영해 왔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고용허용인원 및 허용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 유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건의, 주요 공공구매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유도함으로써, 2014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총액 111조 5천억원 중 70.0%인 78조원이 중소기업제품으로 조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구매 비율 대비 0.3% 증가된 규모이다.

201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2014년 구매실적 대비 2.2조원 증가한 80조 2천억원으로 공공구매 목표비율 제도의 도입 이후 최초로 80조원대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표 IV-1-1-14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구매실적			2015년 구매목표		
	총구매 (A)	중소기업 (B)	비중 (B/A)	총구매 (C)	중소기업 (D)	비중 (D/C)
총 괄	111.5	78	70.0%	114.2	80.1	70.2%
물 품	36.2	27.9	77.0%	35.9	27.2	75.9%
공 사	55.8	35.9	64.3%	59.2	38.8	65.6%
용 역	19.3	14.1	73.2%	19.0	14.0	73.6%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확대시행

2015년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협동조합과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대상 제품이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일부(23개)에서 전체(204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사업’의 범위에 ‘단체표준인증’이 추가되었다.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관련 정보를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쌍방향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발급,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 지원 및 우선구매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1-15 구매정보망 등록 현황

구 분	2015년	등록 누계
중 소 기 업	7,105개 업체	58,573개 업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2,849명	38,774명

구매정보망을 통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정착되면서 공공조달시장 참여 희망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24,017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표 IV-1-1-16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200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시작
2010	10. 21부터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2011	유효기간 변경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폭 감소
2012	2010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 대폭 증가

표 IV-1-1-17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누 계
업체수	77,744	20,796	19,888	23,959	24,017	166,404
제품수 (세부품목)	380,933	89,789	98,102	130,975	122,974	822,773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는 협동조합에 대해 계약대상 업체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시스템을 2009년 3월부터 공공구매 정보망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057건(추정가격기준 331억원)에 대해 적절한 소기업을 추천하여 영세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증대를 지원하였다.

4) 지방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운영

지방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2003년 4월 16일 대구에 중소기업제품판매장(상호 '드림피아')을 연면적 4,673㎡(1,413평) 규모로 개설하였으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품과 특화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우수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6

중소기업 위상 제고 및 사랑니눔문화 확산

가. 중소기업 사기진작 및 위상 제고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약 550여명의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27회를 맞이한 중소기업 주간행사(2015.5.11~15) 기간 동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 관련 81건의 행사가 개최되어 6,806명이 참가하는 등 중소기업들과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중소기업 주간행사 중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희망, 300만 중소기업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의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이어진 대통령 초청 격려오찬에서 대통령이 직접 2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제 9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2015.7.2.~4, 경주)은 ‘千年古都 경주, 중소기업의 새로운 꿈을 품다’라는 주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륙지역인 ‘경주’로 지역을 옮겨 개최했으며, 메르스 사태로 내수부진을 겪는 지역경기에 활력을 전했다. 포럼에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협동조합 역할 등 중소기업계의 주요이슈를 다루는 한편 ‘청년1+채용운동 선포식’을 통해 국가 중대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이 밖에도 경영 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매월 선정하여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을 제고하고 올바른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위상과 긍지를 드높였다.

나. 중소기업 사랑나눔문화 확산

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십시일반 나눔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복지증진 사업, 내수살리기와 연계한 지역사회공헌활동, 중소기업 가족을 대상으로 장학 및 의료지원 등 중소기업을 대변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2015년 한해간 소외계층 등 1,309명과 복지시설 등 5,505곳에 총 14억원의 기부금품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사회공헌활동 실천을 위해 연간 8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물품과 온누리상품권을 지역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내수살리기도 힘써왔다.

또한 인력·재원·정보부족 등의 사유로 자체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이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연합하여 5월에 「중소기업 연합 봉사단」을 창단하고 연 4회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중소기업 선행을 재조명코자 「중소기업 사회공헌 기획기사」를 연중 8회 보도하였고, 11월에는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결과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천애로와 활성화 의견을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 문화경영 활성화 지원과 지방 중소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그리고 행복한 음악회’(11.25)를 개최했으며, 문화예술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위해 직장으로 공연단을 파견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16회에 걸쳐 개최하여 1,582명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문화접대비’ 홍보와 관련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캠페인 및 광고(TV자막광고 42회, 라디오 광고 109회, 지면광고 22회, 기고 2건)를 실시했으며, 35차에 걸쳐 소상공인 대표 및 중소기업 회계담당 직원 등 3,974명에게 관련 교육을 지원했다.

한편, 문화경영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와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문화대상’을 시상하고 관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으며, 8회에 걸쳐 중소기업과 문화계의 협업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기부금품과 함께 공연을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지부에서는 지방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지역특화산업 실태조사, 정책건의 및 애로파악을 위한 각종 회의, 자금·기술 및 인력 등에 관한 종합상담 등을 실시하여, 2015년 총 132건의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였다.

		
<p>2015 중소기업인대회 (2015. 5. 27)</p>	<p>2015 중소기업리더스 포럼 (2015. 7. 2)</p>	<p>2015소상공인 현장간담회 (2015. 3. 17)</p>

제2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 일반현황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재원으로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융자 사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 등 정부위탁사업을 통해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컨설팅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신청 체계 개선, 메르스 피해 지원, 정책금융 연대보증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였다. 자금신청체계를 선착순에서 사전상담 방식으로 개선하여 조기마감을 해소하고, 메르스 피해 중소 병·의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자금(1,238억원)을 신설하여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기정원 사업이관을 통해서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의 역량강화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중진공 사업추진 기반인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해 총 13,25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지원 후에는 사후관리 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자금의 효과성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 총 3,936건의 정책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정책자금 융자

2015년도 정책자금 규모는 38,890억원(당초 30,26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총 17,796개 기업에 39,019억원(100.3%)을 집행하였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금신청 체계 개선과 메르스 피해 지원, 정책금융 연대보증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였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활성화 및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하기 위해 설립 7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1998년 사업 개시 이후 2015년까지 47,031개사에 12조 6,19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성장유망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15,000억원을 편성하여 100.0% 집행하였다.

표 IV-2-1-1 창업기업지원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2013년	1,367,500	6,882	2,881,497	4,354	1,366,903
2014년	1,140,000	6,710	2,795,114	4,362	1,138,739
2015년	1,500,000	11,926	3,243,648	8,166	1,500,000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7%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과 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신설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15년도에 1,457업체에 1,1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표 IV-2-1-2 청년전용창업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2013년	122,500	4,559	215,812	3,572	122,500
2014년	150,000	5,609	260,600	4,477	150,000
2015년	110,000	2,997	263,984	1,457	110,000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제품화·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1,673사에 3,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표 IV-2-1-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2013년	330,000	1,791	616,055	1,361	330,000
2014년	350,000	1,935	694,871	1,504	350,000
2015년	350,000	2,008	657,399	1,673	350,000

3) 신성장기반자금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 자금내 구조 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2015년에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초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제조기업전용자금을 신설하였고, 총 11,270억원을 편성하여 3,982개 업체에 전액 집행하였다.

표 IV-2-1-4 신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2015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신성장유망	534,100	1,872	992,975	1,491	534,100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43,000	54	53,393	50	43,000
융복합사업	76,500	175	111,450	173	76,500
가젤형기업전용자금	280,000	696	417,872	631	280,000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193,400	1,904	283,120	1,637	193,400
계	1,127,000	4,701	1,858,810	3,982	1,127,000

4)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 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예산 6,000억원(수출 금융지원 1,500억원, 재해복구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 1,381억원, 일반경영 안정지원 3,119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표 IV-2-1-5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2015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수출금융지원	150,000	387	147,478	414	162,944
재해복구지원	138,144	3	474	3	384
일시적경영애로지원*		664	199,575	597	137,760
일반경영안정지원	311,856	1,841	459,104	1,607	311,856
계	600,000	2,895	806,631	2,621	612,944

주)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예산 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 금융으로 운용되어 예산보다 집행금액이 많음

* 메르스피해 자금(123,750백만원) 517개사 123,750백만원 지원

5) 사업전환지원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용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지원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6년 9월 사업개시 이후 2015년까지 총 1,729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여 2,421개사에 12,766억원의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99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225개 업체에 1,02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V-2-1-6 사업전환자금 집행실적(2015년)

(단위 : 개, 억원)

예 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1,026	1,287	185	642	40	384	225	1,026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의 이행으로,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 4월 사업개시 이후, 2015년까지 82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312억원의 용자를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약 94억원을 집행하였다.

6) 투융자복합금융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요소를 복합한 신용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은 이익공유형과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되며 2015년에 424개사에 연 예산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표 IV-2-1-7 투융자복합금융 집행실적(2015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이익공유형	75,000	468	118,909	380	67,350
성장공유형	25,000	69	54,850	44	32,650
계	100,000	537	173,759	424	100,000

7) 재창업자금

재창업자금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5년 466개 업체에 700억원을 집행하였다.

표 IV-2-1-8 재창업자금 집행실적(2015년)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70,000	611	159,042	466	70,000

8) 구조개선전용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5년 신설되었다. 2015년 한 해에만 총 167개사에 3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표 IV-2-1-9 재창업자금 집행실적(2015년)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30,000	188	51,200	167	30,000

나. 기업진단 및 기술지원

1) 기업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용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정책자금의 정책목적 달성을 뿐 아니라 기업부실의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고 진단을 통한 문제점(기업애로) 분석과 처방전(해법) 제시로 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대해 기업진단을 통해 총 13,255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정책자금 용자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자금의 효과성 달성은 물론 기금의 부실률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을 연계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3,936건의 정책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2)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중진공은 2015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주관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수요자선택형 컨설팅, 컨설팅 대학원)을 일원화(컨설팅 업무, 인력, 예산 통합)하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5년 사업추진을 통해 총 1,092개 기업을 선정하여 1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경영지표 개선 등 높은 컨설팅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3)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생산성향상 컨설팅, 사업화지원 등을 통한 관련 사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양레저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접수된 신규 과제 34개 중 7개 과제와, 2014년에 선정된 10개 과제를 계속과제로 지원하였다.

4) 중소기업 재기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으로 나뉜다.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해 진로를 제시하는 진로제시컨설팅은 2013년 4월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5년에는 6억원 예산으로 231개 기업에 대해 진로제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은 2013년 사업개시 이후 총 173개 기업을 지원 결정했다. 2015년 중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61개 중 40개사가 회생인가결정이 완료되어 65.6%의 인가율을 보였다.

5)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2015년 신규 추진 사업으로 R&D 성공 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및 제품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정부 R&D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015년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사업화 기획 32개사, 제품화 지원 2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협약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사업화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303백만원의 신규 매출실적을 달성하였다.

다. 마케팅·글로벌화

1)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중진공은 2009년부터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를 통해 지자체 등 사업주체로부터 예산을 수탁하여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선정·파견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국내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437업체이며, 참가기업 중 1,880개 업체가 자금, 연수, 건강진단 사업을 활용하여 수출실적을 제고하였다.

표 IV-2-1-10 국내수출지원사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2015년)

사업명	실적		성과		
	횟수	참가기업수	상담		계약체결
			상담금액(백만원)	상담횟수	계약금액(백만원)
해외전시회	31회	378개	681	14,211	57
무역사절단	131회	1,104개	3,251	14,383	36
수출상담회	3회	195개	34	357	1
계	165회	1,677개	3,966	28,951	94

표 IV-2-1-11 국내수출지원사업 참가업체 타 사업 연계지원 실적(2015년)

사업유형	참가기업수(a)	연계지원(업체수)				
		정책자금(b)	연수(c)	건강진단(d)	계(e=b+c+d)	연계율(e/a,%)
해외전시회	378	72	238	27	337	89%
무역사절단	1,104	224	588	84	896	81%
수출상담회	195	46	143	17	206	106%
지역특화	760	107	298	36	441	58%
계	2,437	449	1,267	164	1,880	77%

2)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 초기의 위험을 덜어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5년말 현재 미국(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시안), 일본(도쿄), 브라질(상파울루),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지 국가에 설치·운영(12개국 20개소)중에 있다.

3) Gobizkorea(온라인수출지원) 운영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를 제작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된 Gobizkorea(온라인수출지원)는 2015년말까지 43,186개사 176,333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다.

인프라 구축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함으로써 2015년 총 4,648만불의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02%('14년 2,327만불) 증가한 추진성과를 달성하였다.

3) 글로벌바이어 국내알선 지원사업

글로벌바이어 국내알선 지원사업은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에게 Gobizkorea 영문사이트를 통해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알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56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5백만불~5천만불 미만의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3년간 마케팅, R&D,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 5천만불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3건의 신규 프로그램(단체수출보험, 해외세일즈랩, 수출제품 IP전략 수립)을 추가하였으며, 기업당 지원한도(기존 3년간 1억원)를 3년간 2억원으로 확대·시행하였다. 개선된 세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외 전시회 99건, 신 마케팅 프로모션 58건,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52건 등 총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329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5)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해외 유수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도에는 51개국에 146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였으며, 2015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276개사로 수출실적 279백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6) 해외유통망 진출사업

해외유통망 진출사업은 해외 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생산 우수제품의 DB를 구축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유통망 형태별 직접진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형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 및 현지 유통망과 연계 하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해외전시판매장(K-HIT Plaza)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 5개소에 설치·운영되어 총 518개사 2,251개 품목 입점을 지원하였다.

7)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HIT500사업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의 유망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도에 319개의 중소기업제품을 선정하여, 소비자 평가와 제품 체험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을 지원했으며, HIT500 Plaza와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3,471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8)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은 수입품, 고가제품, 대기업제품과 품질비교분석을 통해 착한 중소기업(친환경, 착한가격, 고품질)을 발굴하고, 선정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15년도에는 학생용 의자 등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9개 품목군에서 22개의 스마트제품을 발굴하여 언론 보도를 통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였다.

9) FTA대응역량강화사업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수출컨설팅, FTA교육, 글로벌마케팅, 연구,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확인 및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수출전문가 등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였다.

또한, 소외지역과 공단밀집지역에서 지역별 FTA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FTA활용지원시책, FTA원산지 실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CEO 및 담당자의 FTA활용 의식을 고취하였다. 특히 현장방문 1:1 교육을 통해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시간부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접 방문 및 업체별 담당자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93%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10) 해외산업협력지원

중진공은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 41개국 67개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협력,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IV-2-1-12 해외협력기반 조성실적(2015년)

구 분	실적	비 고
MOU 체결	7회	인도, 이스라엘, 몽골 등 5개국 7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	28명	인도, 중국 등 15개국 28명 교환
해외진출 세미나 및 설명회	10회	인니말련 할랄시장 진출 세미나 등 10회
산업협력사절단 교환	10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0회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2005년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공동 선언을 통해 설립을 의결하고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내에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09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2015년에 ‘APEC 역내 중소기업 국제화’를 목표로 역내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역내시장 진출지원을 도모하였다. 혁신컨설팅을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및 강화하였다

11)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대북진출 상담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자금, 컨설팅, 연수, 정보제공 등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단계별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7개사를 선정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원하였고,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 주재원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법인장 및 관리자 경영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교육기회가 부족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과 관리자에게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12) 수출컨소시엄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 관련 업종간 컨소시엄(10개사 내외)을 구성해 사전시장조사, 시험·인증 및 매뉴얼제작 등 현지화 컨설팅, 공동브랜드 제작 등 현지마케팅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수탁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은 한 해 동안 총 1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였다.

13)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지방은 15%이상)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자율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499개 업체에 총 244억원을 지원하였다.

14)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중국진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중국 진출 역량진단 및 로드맵 수립, 현지화 지원을 통해 중국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7월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2013.9월)의 후속 조치로 시작하여 2015년 76개사를 선정하였다.

15)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완료 기업 또는 기술 개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컨설팅 → R&D 기술개발 → 수출마케팅」에 이르는 One-stop 지원을 통해 R&D 성공제품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5년에는 53개 업체에 총 18억원을 지원하였다.

라. 인력양성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 본원(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 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1년 간 국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며 2015년 현재 총 134만여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1) 연수사업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연수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지역특화연수 등 공공연수를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내수 비중이 높은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마케팅사관학교 연수를 새롭게 추진하였다.

우수 연수고객 방문마케팅 및 연수과정 미스터리 쇼핑 실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과정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과정 운영에 반영하였고, 연수종료 후에는 고객의 목소리(VOC)를 상시 수집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표 IV-2-1-13 2015년 연수실적

(단위: 명, %)

구 분	계획(A)	실적(B)	달성율(B/A)
· 직무역량향상연수	16,341	19,239	117.7
· 맞춤연수	399개사	550개사	137.8
· 정책연수	9,700	13,215	136.2
· 원격연수	13,500	24,285	179.9
계	399개사	550개사	137.8
	39,541	56,739	143.5

2)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만39세 이하)를 선발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청년CEO를 양성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혁신형 청년CEO 양성을 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가 선발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졸업자를 위한 추가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입교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1차 중간평가 우수등급자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제를 신규 도입하였다.

총 1,121명이 입교 신청하여 3단계 심사를 통해 이 중 278명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매월 창업활동 보고, 중간평가 2회 및 최종평가 1회 실시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26명을 중간 퇴교시켜 최종 252명이 졸업하였다.

3)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이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원천기술·IT·마케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129명(수도권 72명(55.8%), 비수도권 57명(44.2%))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4)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으뜸기업, 스마일스토리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뜸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DB로 구축하고, 발굴기업의 정보를 웹사이트(스마일스토리지)를 통해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2년도부터 4년간 추진되어왔으며 총 4,262명의 구직자들에게 취업연계를 지원하였고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추진 종료되었다.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하였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범 후 2015년말까지 4,192개 기업에서 10,123명(누적기준)이 가입하여 당초 목표인 10,000명 대비 101.2% 달성하였으며, 매월 평균 납입금액은 근로자가 119천원 사업주가 301천원씩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은 미디어 홍보,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바로 알리고,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층에 올바른 직업관과 진취적인 직업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총 28회)하여 28개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소개하고, 47명을 취업 연계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및 고졸 채용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체험캠프를 개최(8회 487명)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연극 특강(25개교, 1,508명), 토크콘서트(14개교, 2,691명), 중학생의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현장탐방 특강(75개교, 4,144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 실시하였다.

7) 인력양성사업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 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이다.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44,571백만원을 투입해서 총 48,72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162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대상자중 27,327명이 취업하여 62.6%의 역대 최고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마. 정보제공

1) 간행물 발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보 수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최신 고급정보를 제공하여 경영·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9년부터 중소기업 전문잡지 ‘기업나라’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정기구독 회원 150개사를 ‘독자 모니터링단’으로 선정해 상·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콘텐츠 만족도 분석을 통해 코너 개편과 특집 기사 기획 등에 반영하였다.

‘기업나라’ 정기구독 회원들에게는 중소기업 관련 세무상식과 인사실무 사례를 담은 단행본을 부록으로 제공하였으며, 중소기업 점점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30개 지점과 18개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나라’를 비치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제공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2) 정책중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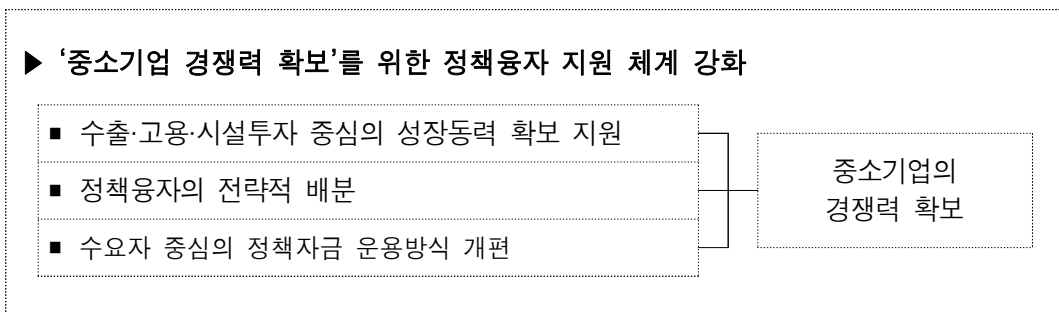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업무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수집한 애로사항 228건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 51건의 규제를 정부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했다.

3 향후 추진방향

2016년 중진공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융자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강화, 수요자 상황별 인력양성 맞춤형지원체계 강화, 융합과 협업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을 주요사업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 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현장접점 기관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를 선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 정책자금 융자

그림 33 정책자금 지원 효과



□ '수출·고용·시설투자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수출증대·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한·중 FTA에 대응하여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자금)과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의 금리를 우대(△0.7%p 이내)하고, 지원비율을 상향(신성장기반자금, 80%이내 → 100% 이내)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정책용자의 전략적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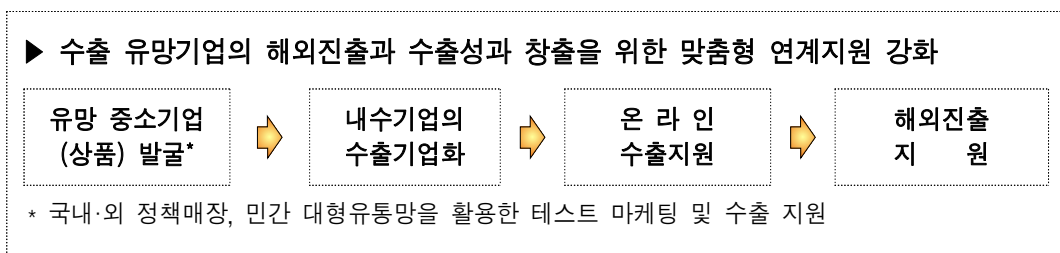
기술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정에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망기업에 대한 R&D 연계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 지원을 위한 투융자복합금융도 확대한다.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로 기술력 우수 기반의 성장·정체기 중소기업에 대한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용방식 개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대출기간 확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고, 건강진단 신청서와 융자 활용계획서를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로 통합하는 서류간소화도 시행할 계획이다.

2)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그림 34 글로벌화 지원체계



□ '대내·외 협업을 통한 수출유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현장접점부서(31개 지역본·지부)의 수출기업 발굴과 글로벌푸처스클럽의 확대운영을 통해 수출유망 내수기업을 연간 3,000개사 발굴하고 1,200개사(40%)를 수출성공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마케팅-융자-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내수기업의 수출성공률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온·오프라인 통합 판매 채널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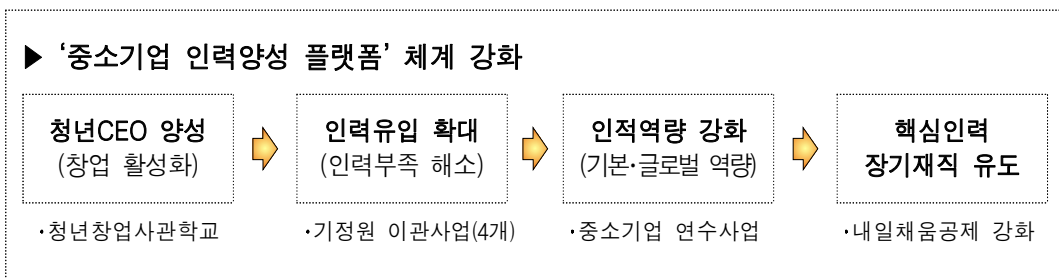
온라인 판매 민간 전문기업을 통해 해외 오픈마켓에 수출 유망제품의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진출 유통 대기업 및 현지 유통기업과 함께 정책매장을 확대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유망제품의 수출 쏠과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국내·외 판매 채널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FTA 등 환경변화에 따른 내수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 및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BI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FTA확대에 따라 FTA컨설팅과 중소기업 실무자에 대한 FTA대응교육을 강화하여 원산지증명, 원산지확인 등 수요자 측면의 FTA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미국 등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중동지역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3) 인력양성사업

그림 35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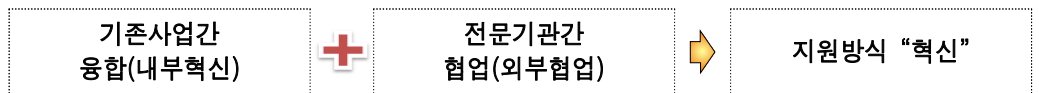
중진공으로 이관된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등 인력유입 지원사업의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및 기업과 밀착된 특화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문기술경력 보유자 선발 확대 및 체계적인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창구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기업 및 신규고객 접점을 확충하고, 대·중소 동반성장 모델의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4) 융합과 협업

그림 36 융합과 협업 체계

▶ 기존 수행사업 간의 “융합”과 대외 전문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실질적 혁신성과 창출



인재육성형 전용자금(내일채움공제+정책융자), 글로벌진출기업 전용자금(글로벌·판로지원+정책융자) 등 기존의 독립적인 사업들을 맞춤형 연계 및 패키지 지원이 가능토록 융합하여 신규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외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p>global jump-up 매칭상담회('15.6.12)</p>	<p>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식('15.6.24)</p>	<p>'15 인재육성형 중기 지정('15.12.17)</p>

제3장 중소기업연구원

1 일반현황

중소기업연구원(KOSBI, <http://www.kosbi.re.kr>)은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93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소기업진흥재단 부설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10여년에 걸쳐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7월에 조직의 확대와 연구인력의 증원과 함께 독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재편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주요사업으로 크게 연구사업, 조사·평가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사업은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 제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평가 및 교육사업은 중기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예산 분석·평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센터, 중소기업 정책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민경제 및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목표아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사업 등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정책 연구분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비전 및 대안 제시와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4년 7월 이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이론과 현장의 균형감각을 배양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성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 경제분석 분야

가)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제현안 연구

대내외 경제 환경 및 구조 변화 속에서 거시경제, 중소기업 동향 분석 및 전망, 산업연관 분석, 구조정책·경쟁정책적 시각 하의 중소기업문제 연구 및 정책대응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통계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시를 위해 중소기업정책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중소기업관련 통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신생벤처기업의 초기 투자시장 창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소기업

범위 검토에 관한 연구, 통일시대 중소기업 정책연구,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개편 검토 연구, 소상공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중견기업 정책이슈 분석 및 방향성 정립 연구를 들 수 있다.

2015년에는 창조경제 전반기 중소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연구,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방안 연구, 소상공인 개념 및 범위기준 검토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중소기업의 금융 및 재정정책 연구

금융연구는 국내외 중소기업 금융관련 법·제도의 비교연구와 금융산업 및 중소기업 자금시장의 동향분석 등을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재정연구는 조세 및 재정정책이 일반경제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합리적 예산배분 및 재정운용정책 수립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물로는 중소혁신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시장의 역할제고 방안, 벤처캐피탈의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벤처기업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보드시장 개선방안,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전략산업 지원 개선방안 연구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015년에는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중진공 정책자금군 성과분석 연구, 창업대표 통계의 작성 및 비교와 창업통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 산업연구분야

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시장구조, 법과 제도, 기업행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실물경제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기술혁신, 네트워크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분야를 산업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개별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방안, 판로개척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주요국의 중소유통업 정책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역량 강화방안, 개성공단 진출 로드맵과 정책적 지원방안,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정리를 통한 재도전 패스트트랙 구축, 서비스기업의 원활한 벤처진입을 위한 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B2B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중소유통의 경제·사회적 가치분석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중소 택배기업 공용물류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나들가게 발전전략 연구, 신성장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 정책환경 중장기 변화 및 대응방향 연구, 소상공인 정책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無공장 제조 중소기업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중소기업 유통경로 실태분석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방안 연구, 중소기업 경쟁력 상위업종 제도 연구, LPG 산업 및 판매업계 발전방향 연구, 관광산업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MRO 가이드라인 실효성 분석 및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및 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기술 및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술혁신시스템·인력수급시스템·지역클러스터의 현상분석 및 발전방향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적자원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노사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방안 및 경영자 근로자간 성과공유모델 개발, 지방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정책성과 평가, 전문계고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촉진 방안,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유입 촉진방안,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따른 고용노동제도 및 지원사업 개편방향 검토, 중소기업 R&D인력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중기 인력운영 특성 연구,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연구, 현장 중심의 R&D평가체계 개선방안 도출 등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중국 동포기업 네트워크 및 매칭연구,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지방중소기업청 수행기능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유턴기업 R&D 지원방안 연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 근로여건 및 대국민 인식현황조사 연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3) 경영분야 연구

가)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정책연구

국내외 기업환경 및 경영이론의 변화를 사전 탐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최적화하고 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경영 전략 및 관리 방안들을 제시하며 관련 경영사례 소개 등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 발전방안,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장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지원세제 개편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성장 유망형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체계 개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통계적 근거 확립을 위한 연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연구 및 실태조사, 북한경제특구(경제개발구) 지원방안 연구, 전통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재도전·재창업기업 금융 신용회복 지원방안 연구, 중소기업 가치창출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지원체계 연구, 정부의 중소기업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사회적 비용 연구, 중소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 유통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온라인구매지원시스템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나)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왜곡된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협력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대·중소기업간 협력모델을 개발·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하도급 문제, 위·수탁 문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조성 구축방안, 상생협력 성과진단 및 발전방안 수립,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방안, 제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및 분석,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내 중기제품 적정가격 보장방안 마련, 회원직접판매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태분석 및 동반성장 방안,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적합업종 합의품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유통분야 상생모델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대형아울렛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 연구, 대기업의 계란유통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실태조사 연구, 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별 실태조사, 적합업종 이슈품목 실태조사, 위장 중소기업 및 모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조달시장 참여제한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다)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정부 주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의 개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물로는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성과평가모델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재래시장 지원 정책 평가, 장기 경과시책의 실효성 평가, 중소중견기업 지원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중소기업 정책 10년의 평가와 미래전망,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사업 성과분석, 중소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체계 마련방안 연구, 규제비용 총량제의 비용분석 연구, 이노비즈협회 정부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2015년에는 해외산업협력지원 성과분석 및 신규 성과 지표개발 연구, 중소기업 자구노력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정부기관의 기업활력지수 측정모형 개발연구,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시장가격조사 연구, 정보화경영체계(MIS) 인증사업 성과분석 연구, 가정용 싱크대 등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성과 및 재지정 타당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4) 국제경제분야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과제 발굴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4월 뉴브리지캐피탈로부터 ‘중소기업발전연구기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 결과로는 ODA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방안, 복수 FTA 체결이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출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애로 및 성장요인, 한중 FTA 중소기업 민감품목 영향 분석 및 대응과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무역조정 실태조사 연구, 중소기업 FTA 피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 연구 등이 있다.

2015년에는 TPP의 對중소기업 효과 연구, 한국 중소기업 국제화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수출기업 실태조사 연구, APEC 중소기업 국제화 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글로벌 성장사다리 연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별 정책자문,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연구,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나. 기타 연구지원 분야

1) 중소기업 정책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홍보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한 내실화 및 외연 확대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사업 수행하는 한편 중소기업학회 등 학계 전문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기은경영연구소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등과의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주요 중기이슈에 대해 적시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KOSBI 경제동향, 중소기업포커스, 정책동향 브리프, 웹진을 발행하고 있으며, 웹진 ‘KOSBI e-Letter’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동향, 연구보고서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포커스는 국내 및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중기 정책방향 등을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대외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책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핀테크 활용방안, 메가 FTA 시대의 도래와 중소기업의 대응과제,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기업 정책 대토론회 등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연구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터, 국제무역연구원, 벤처기업협회, 한국고용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MOU 체결(8건)을 통해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2) 중소기업 정책연구 DB의 구축 및 운영

국내외에서 수집한 각종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법령에 관한 문헌자료를 국내 정부, 연구계, 학계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연구 DB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등 주요국과 OECD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표되는 법령, 정책, 조사통계, 연구자료 등 중소기업 분야의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자료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검색, 수록된 내용에 따른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책연구 DB의 검색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능을 구축하여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sbi.re.kr>)의 중소기업 연구DB 배너를 통해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활용할 수 있다.

3) 국내외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제56차 ICSB 컨퍼런스에 ICSB Korea 대표로 참석, 2012년 57차 ICSB 컨퍼런스 참석 등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3년에는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비전-아시아화 및 글로벌화’를 주제로 아시아중소기업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열린 아시아중소기업대회는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ACSB),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ACSB)의 창립총회,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추계학술대회 진행 및 해외 우수 석학들의 참가를 통해 연구교류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5년에는 정책연구회, 세미나, MOU 체결 등을 통해 정책공유기반 확대를 추진하였는데 각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연구 분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였고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주제로 중소기업청,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경영학회 등과의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책공유 확산에도 노력하였고 벤처기업협회, 지식재산연구원, 무역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다.

다. 향후 추진방향

1) 기본 방향

연구품질 및 활용도 강화를 통해 연구원의 역량 및 위상을 제고하고 맞춤형 정책정보 고도화 및 심층분석의 내실화를 통해 중기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교육 및 대외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연구품질 및 활용도 강화를 위해 장기·종합연구의 확대 및 현안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 현안에 대한 이슈연구의 시의성 및 활용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정책정보 고도화 및 심층분석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 및 기업마당의 연계 통합운영을 통해 기업특성별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심층분석 내실화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책교육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기정책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실시를 통해 정책교육의 성과를 제고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2) 연구품질 및 활용도 강화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심층·장기연구를 확대하고 긴급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수시과제 운영을 통한 대응체제를 강화해나가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연구진 1인 단독 연구에서 벗어나 외부 연구기관 또는 내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안 이슈연구의 시의성 및 활용도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현안 시의성·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포커스’ 주제를 다변화하고 경제동향, 정책 DB 등 연구원이 제공하는 콘텐츠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포커스’는 연구원 중심의 주제발굴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협력체제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KOSBI 경제동향은 『중소기업 경기 종합지수』 개발을 통해 연구원만의 자체 생산통계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정책 DB는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 관련 자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관련 이슈 및 중소기업 정책의 홍보·확산을 위해 정책연구 중심의 계간지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책과제의 개발 및 정책확산을 위한 정책공유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책연구회의 확대운영을 통한 이슈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전문가 풀을 확충하여 중기정책의 대외 공유 및 확산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3) 중기정책 지원 강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16년에 지원기관별 자료의 최신화·정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온라인 연계에 따른 비용대비 효과성,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처간 협업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DB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자료 활용을 위한 DB 공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의 활용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미비점 보완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정책정보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정보 전달 기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기지원사업 분석·효율화 사업의 경우 '16년에는 현황 조사를 내실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의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며, 통합관리시스템 DB를 기반으로 기술, 수출, 내수 분야 중기지원사업 현황을 심층분석하고 이를 통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지원사업을 수행한 기관에 대한 성과분석뿐만 아니라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이 요구하는 정보 분석·제공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규제영향평가사업의 경우 국내외 규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문분야별로 신설·강화 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자문을 수행하고 평가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심층 분석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입지 등 분야별로 중소기업에게 비용·경영부담이 큰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규모별로 차등화가 가능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공신력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정책교육 및 대외협력 강화

중기청 정책전문가 및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전문가 교육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책관련자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16년에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최근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육생 수요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기정책 등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조직 적응력을 제고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중기현장 이해도 제고, 사업운영 능력강화, 핵심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교류 강화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해외 중기정책 담당자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기정책 및 중소기업 관련분야의 연구 교류의 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학회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력 강화 및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결과 및 생성된 정보가 정책공감도 형성 및 정책 인지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기 주요 이슈 및 연구결과·정보 등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중기 현안 대응능력 강화 및 중기 이슈 선제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를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p>소상공인 정책세미나 (‘15.1.29)</p>	<p>중소기업 정책효율화 방안 세미나(‘15.3.26)</p>	<p>한국기업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15.7.1)</p>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4장 신용보증기금

1 일반현황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신보는 1976년 6월 설립 이후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지난 39년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급격한 경제상황 악화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미국 금리정상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 내수시장 또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보는 경제활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총 45.9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3조원의 신용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약 2조원의 산업기반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신용보증

1) 2015년도 기본방향 및 신용보증현황

가) 2015년도 기본방향

신보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목표를 “창업과 성장 촉진을 통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창업 지원 Infra 확충 및 전문화’, ‘기업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체계 확충’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나) 신용보증현황

2015년에는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기업과 지식재산 보유기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 부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약 0.6조원 증가한 총 45.9조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2015년말 현재 보증잔액규모는 49.2조원이다.

표 IV-4-1-1 최근 3개년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총보증*잔액	474,362	484,545	491,862
총보증공급	446,858	453,372	458,953
보증업체수	223,126	215,728	205,361

* 총보증 = 일반보증 + 유동화회사보증 + 시장안정특별보증

2) 추진과제별 주요 추진 실적

가) 창업 지원 Infra 확충 및 전문화

① 창업 단계별 보증지원 체계 완비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창업 성공 가능성 점검을 위한 기업평가를 추가하고 예비창업자 및 신생기업 맞춤형 창업 전용 신용조사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예비창업보증을 체계화하였다.

표 IV-4-1-2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단위 : 개, 억원, 명)

구 분	2014년	2015년
예비창업자 신규보증 업체수	775	1,406
예비창업자 신규보증 금액	577	1,522
보증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1,445	2,440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금융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실현보증’을 도입하여 「아이디어→상품화·권리화→사업화」의 IP창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완비하였으며,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기술 평가능력 및 전문가 멘토링 사업과 신보의 기업 심사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7개 업체에 대해 4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② 우수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고도화

신시장 선도형 창업기업 발굴·지원과 도전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 성장성 중심의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퍼스트펍 30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창업기업 발굴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표 IV-4-1-3 도전적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퍼스트펍권기업 신규 업체수	51	108
퍼스트펍권기업 신규 보증금액	197	634

기술 창업의 성공적 견인을 위해 ‘이큐브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16개 업체에 91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지역 은행이 보유 중인 지역 기업의 경영정보와 지자체의 지역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기술 창업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금융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비금융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희망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반으로 재편하고 실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하였으며, 창업성장멘토링을 통해 강소기업 CEO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였고 기술전문기관(서울대 공대)과의 협업 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컨설팅을 신규 도입·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였다.

③ 창업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제도 혁신

우수 인재가 실패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설립일, 업력 및 담보활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보증료율 인하, 연대보증 면제기간 확대를 통해 고객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전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였다.

④ 창업지원 역량 제고 및 전문화

기술성, 창의성 및 혁신성을 갖춘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금융 및 비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창조금융센터의 인력을 전년 대비 20명 증원 하였으며, 기술 분야 전문연수를 확대하고 박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창조금융센터에 집중확대 배치함으로써 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였고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MOU체결 등 외부 기술자문 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반의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심사능력을 배양하였다.

나) 기업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체계 확충

① 성장성숙기 기업 집중 지원체계 구축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보증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V-Plus 보증을 통해 보증 2.5조원, 신용대출 0.5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신용도가 양호한 성숙기 기업은 C-Plus 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매년 5%p씩 인하함으로써 민간 금융의 신용 부담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한, 대내외 환경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신한은행과 G.P.S.(Globalization of Potential Starters, 수출 잠재 역량 보유 중소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별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표 IV-4-1-4 수출 중소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수출중소기업 보증공급금액	91,127	102,998
G.P.S. 협약보증 신규보증금액	<신규>	10

② 예비중견기업 금융지원 다각화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공동 IR을 실시하는 등 총26회의 투자기업 공동 발굴을 통해 250억원을 신규투자하였으며, 민간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투자플랫폼 활용을 통해 17개 기업이 435억원의 후행투자를 유치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로 지정되어 M&A 보증 2건 1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 회수 → 재투자」의 건강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였으며, 「IPO-100」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25개 기업의 상장(유가증권시장 1개, 코스닥시장 11개, 코넥스시장 13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미래 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핀테크 산업 육성, IP 사업화 등 정부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유망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였으며, 수수료 인하, 평가기관 추가, 협약은행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보증의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IP 보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4-1-5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신성장동력산업 지원금액	64,068	90,066
핀테크 사업화보증 지원금액	<신규>	90
지식재산보증 지원금액	2,107	3,424

또한, 지역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 지정 지역특화산업 지원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지역 대표 전략산업 지원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지자체 및 지방은행과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였다.

표 IV-4-1-6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지역주력 및 협력산업 지원 업체수	1,787	2,037
지역주력 및 협력산업 지원금액	12,268	16,640

나. 신용보험

신보는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에 의거 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7년 9월 부도난 어음을 보상하는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4년 3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보험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신용보험 인수총액은 16조 2,764억원으로 연간 목표 16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2004년 매출채권보험 도입 후 인수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 사고율을 유지하였으며, 부실채권이 발생한 보험가입 기업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연쇄도산 방지라는 정책적 기능을 적극 수행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일부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인수 영역을 확대하여 보험혜택 사각지대를 해소 하였으며, 창업보험과 정책보험 제도 및 다사랑보험 구매자 인수로건을 완화하여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또한, 보험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신상품 도입을 통해 보험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였고, 고객 특성에 맞는 보험혜택 및 금융혜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켰다.

표 IV-4-1-7 신용보험 주요 제도개선 사항

목 적	내 용
보험시장 저변확대	보험가입대상 확대(보험혜택 사각지대 해소) 창업보험, 간편보험 보험한도 및 보상비율 확대 다사랑보험 구매자 인수로건 확대
고객 중심 보험운용	시장친화적 신상품 도입(만기환급형 보험, 옵션형 보험) 산업별 협약보험 출시(메인비즈, 수협은행, 대구은행 협약보험)
사업 운용체계 고도화	계약자 특성을 반영한 고객관리 체계 도입 정부출연금 추가 출연을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다. 산업기반(SOC)신용보증

신보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용자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로는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민간투자제도의 연구·개발, 금융컨설팅,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등이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총 12개 사업에 1조 7,833억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질적인 면에서는 사업재구조화를 돕는 유동화회사보증, 저리자금으로의 리파이낸싱보증을 각각 1조 954억원, 7,210억원 공급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촉진하여 재정절감 및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도로에 편중된 보증지원대상을 다원화하여 사회기반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신규 인프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철도, 문화, 환경시설에 대하여 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다.

그 밖에 인프라금융의 활성화 지원 대책으로 유동화회사보증 공모발행, 국민참여채권보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의 활용도를 높여 재원 조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발행금리 인하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민자사업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표 IV-4-1-8 보증승인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증승인	15,756	19,994	17,833
보증잔액	33,538	34,359	39,826
사 업 수	10	8	12

 <p>온라인 취업박람회 On-line Job Festival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이 주최하는 우수중소기업에서 일일과정을 통해 실무기회를 찾아주세요!</p> <p>일정: 2015. 10. 19(월) ~ 11. 6(금) 세시 3주간 대상: 우수중소기업 500개사 문의처: 중소기업지원센터 (www.kosme.or.kr) / 중소기업지원센터 (www.kosme.or.kr)</p>	 <p>2015년도 신보스타기업 및 최고일자리기업, 선정식 수여식 2015.12.18</p>	 <p>기술상담회 기술상담</p>
온라인 취업박람회	최고일자리기업 선정	기술상담회

제5장 기술보증기금

1 일반현황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술보증 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며,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9년 설립 이후 27여 년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총 28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연계한 투자, 기술·경영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기보는 기술·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의 기술평가정보가 공공과 민간 영역에 광범위 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와 기술평가 시스템의 공신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금융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의 지속적 확충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술보증

1) 총괄

기보는 설립이후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8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공급하여 기술중소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2009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대된 보증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한계기업, 장기고액보증기업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였다. 2015년말 총 보증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5조 5천억원 증가한 20조 7천억원을 보이고 있다.

표 IV-5-1-1 기술보증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증잔액	173,154	181,595	197,284	201,559	207,096
보증공급	169,173	180,775	196,591	200,781	209,804
신규보증	41,396	52,354	60,184	53,489	58,046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3대 중점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별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술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5-1-2 3대 중점지원 분야 보증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획	실적
기술창업기업	57,742	91,928	78,000	103,333
신성장동력산업	24,022	61,046	56,000	70,812
R&D활성화	16,340	29,515	30,000	34,257

2)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기술·창업기업에 보증지원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여 가고 있다.

표 IV-5-1-3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중	비중		비중	
총보증공급	193,539	100.0	196,032	100.0	208,635	100.0
기술혁신기업	183,727	94.9	186,756	95.3	200,447	96.1
벤처기업	115,860	59.9	111,718	57.0	119,368	57.2
이노비즈기업	78,123	40.4	70,867	36.2	67,359	32.3
창업기업	87,142	45.0	91,928	46.9	103,333	49.5
기술평가보증	184,625	95.4	188,832	96.3	202,802	97.2
지식문화산업	30,843	15.9	31,519	16.1	34,190	16.4
일자리창출기업	44,887	23.2	41,827	21.3	50,043	24.0
신성장동력산업	57,742	29.8	61,046	31.1	70,812	33.9
유동화회사보증	3,052	1.6	4,749	2.4	1,169	0.6
총보증잔액	197,284	-	201,559	-	207,096	-

① 기술혁신기업 보증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2015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20조 447억원으로 2014년의 18조 6,756억원 대비 1조 3,691억원 증가하였고, 총 보증공급 대비 지원비중이 96.1%로 2014년의 95.3%보다 0.8%p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② 창업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창업 분위기 확산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신기술사업자로서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3년 8조 7,142억원(45.0%), 2014년 9조 1,928억원(46.9%), 2015년 10조 3,333억원(49.5%)을 지원하는 등 점차적으로 그 규모와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③ 기술평가 보증

기술금융의 대표 기관으로서 기보는 기술혁신기업 금융지원에 최적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2015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으로 전년도 18조 8,832억원(96.3%) 대비 1조 3,970억원 증가한 20조 2,802억원 (97.2%)을 지원하는 등 기술평가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3)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창출 강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기술평가 능력을 갖춘 기보가 기술금융 지원을 선도하게 되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기업,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을 4대 신성장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술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IV-5-1-4 4대 신성장 핵심분야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조원)

연도	우수기술기업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2014년	7.2	3.5	2.7	5.0
2015년	7.7(↑0.5)	3.5	3.0(↑0.3)	5.5(↑0.5)

4)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우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지자체 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설립·출범하였다. 혁신센터는 지역 내 창업·사업화 아이디어부터 사업화 준비, 성공가능성 검증, 투자 유치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창업 허브로의 역할과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 창업·중소기업 육성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보는 금융기관 중 최초로 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센터 입주기업, 창조경제타운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을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시행(‘15.2월)하였다.

또한, 기보·금융기관(기업은행)·혁신센터 3자간 상호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15.9월)하여 ‘혁신센터 추천기업 우대보증’을 전국 19개 혁신센터로 확대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특별 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5년 896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② 혁신센터, 대기업, 지자체와의 협약 통한 지역별 특화업종 지원

각 지역별 혁신센터는 자체 발굴한 창업기업을 창업 단계별로 지원함에 있어 대기업의 참여를 통한 지원기관 역량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혁신센터·대기업·지자체와 기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기업의 특별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한 후 지역별 특화업종 영위기업을 추천하는 맞춤형 금융지원 방식을 강화하였다(‘15.2월 이후). 현재 대기업(LG, 네이버, 현대차, KT, 두산, 한진)이 충북, 강원, 광주, 경기, 경남, 인천에 위치한 혁신센터와 추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171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5)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분위기 조성

①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창출보증 지원 확대

기업이 성장하면서 고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선정하여 심사 완화, 보증료 우대 등을 통해 2015년 5.0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실제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의 보증만기 도래 시 재선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신규 인력을 채용 시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우대보증」을 통해 2015년 4,985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그 대상을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청년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청년창업기업 지원, 청년 채용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채용기업 지원으로 제도를 이원화 한 「청년채용 연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15.10월)하여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②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보증 지원 확대

미래성장 기반 조성과 고용 없는 성장 극복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40·50창업, 1인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 지식재산권창업 등 7대 창업육성 분야로 선정된 「맞춤형 창업 성장 보증」을 통해 11,506개 창업기업에 2조 7,47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소액 창업기업 위주로 기술보증 저변을 확대하여 초기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매출액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였다.

6)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산업 지원 확대

① 지식문화산업 보증지원 확대

지식·정보화시대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보는 Post-제조업 성장 엔진으로서 지식집약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금융으로 흡수 가능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부문”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였다.

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신성장 지식문화 업종을 기술금융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적 지원 확대 노력으로 2015년말 전체 보증잔액의 약 16.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②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

새로운 사업영역인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원 교육훈련, 산업특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현업 적용도 및 기술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의료·교육서비스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하는 등 지식문화산업 관련 기술평가모형 세분화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제고와 기술평가 전문성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8월에 도입한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의 용역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간의 고질적인 금융갭(gap) 해소 및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사업수행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 문화산업완성보증 도입을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 제작지원과 투자유인을 위해 2009년 9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하였다.

이후 고객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산업완성보증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콘텐츠(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융합CG) 및 한류 콘텐츠(수출용)에 대한 제작비 지원 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제작 역량과 사업성 등이 양호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상환조건을 면제하고 수익금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완성보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해 왔다. 2015년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5 조용필 콘서트’ 등에 총 601억원의 제작 자금을 지원하였다.

7) 고객중심의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① 업무처리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고객만족 제고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의 경우 기한연장과 기보증회수보증 취급 시 심사방법을 대폭 간소화하고, 거래은행 변경,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시 업무처리 절차를 단순화 하는 등 처리 기한을 단축하였다.

또한 보증심사 시 비효율 업무 부분 제거하고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절차 일원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하였다. 보증기한 연장 시 보증기업이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기한연장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만기도래 건 중 58.8%를 무방문으로 처리하여 서류 준비, 영업점 직접 방문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② 보증부대출 금리 모니터링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보증부대출의 보증약관을 개정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못하도록 원천적

으로 차단하였다. 최근 3개월 보증부대출 실행금리를 업체 맞춤형으로 조회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할 수 있는 대고객 보증부대출 금리 공시시스템인 ‘금리 알리미’를 운영 중에 있다.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기준을 마련하여 고금리 보증부 대출건은 채권은행에 소명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에 점검을 요청하는 등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 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③ 연대보증제도 개선

창업 활성화와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경영자에 한하여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 실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연대보증인 면제를 기술력이 우수(기술사업평가등급 AAA~A)한 비창업기업에도 적용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

표 IV-5-1-5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인기업	0.27	0.17	0.09	0.06	0.05
법인기업	1.55	1.14	1.07	1.03	1.02

나. 기술평가

1) 총괄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기보는 1997년 2월 기술평가업무를 시행한 이후 2015년말까지 총 50만 8천여 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V-5-1-6 기술평가건수(누계)

(단위 : 건)

구 분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술평가건수	235,370	275,338	316,040	361,742	407,156	454,097	508,773

특히, 기술평가중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술평가’와 ‘건당 평가료가 2백만원 이상인 민간부문 기술평가’는 일반평가보다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기술평가로 국내 기술평가시장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IV-5-1-7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문기술평가건수	2,241	2,970	3,535	4,642	5,410	7,610	11,272

2014년 7월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으로 참여하여 은행, 민간 TCB 등과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TCB제도의 조기 정착과 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TCB 평가서 연계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제도를 한시적(2014.8월~2015년말)으로 시행하였다.

표 IV-5-1-8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TCB 제공건수		이자 보전	
2014년(7월-12월)	2015년	2014년(8월-12월)	2015년
4,360	9,639	933	2,050

*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1-3%의 이자 보전

2) 기술평가 조직·인력의 전문성 강화

① 창조금융 확산을 위한 기술평가 조직과 인력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술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보는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핵심 업무 위주로 기술평가 조직을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기술평가원의 경우 고난이도 전문기술 평가를, 기술융합센터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기술평가 센터는 기술평가보증 등 정형화된 기술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IV-5-1-9 기술평가 운용 조직체계

구 분	주 요 업 무
중앙기술평가원(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등) ■ 정부 및 유관기관 대상 기술평가 마케팅 ■ 기술평가서 검증 및 평가지원 등
기술융합센터(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거래·M&A 관련 전문기술평가(수반보증 포함) ■ 기술거래 수요발굴 및 중개·마케팅 업무 ■ 기술정보 수집 및 가공,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평가센터(5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보증(지식재산보증, R&D보증 등) ■ 정부 R&D 경제성 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신용평가,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등

또한, 기보가 창조금융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및 기술평가사 1급 양성을 통해 전문평가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박사급 인력을 전략적 거점지역 영업점까지 확대 배치하였다.

표 IV-5-1-10 기술평가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금 전체	1,068	1,066	1,085	1,102	1,126
기술평가전담 인력	559	532	578	552	592
박사급 인력	131	134	147	154	168

② 외부자문 네트워크 확충 및 효율화

신기술 출현이 잦고 기술의 진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외부자문위원 관리·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자문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평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평가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화된 평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 20개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인력 POOL을 확충하였고 전문 IP(Information Provider)의 가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3)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① 기술평가모형 고도화 및 新평가기법 개발

기술평가등급모형은 평가 목적과 용도에 따라 크게 KTRS계열, 정책목적용 모형으로 구분되며, 소규모 영세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단일업종 모형이던 KTRS-BM을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총 10개 모형, 53개 분야의 기술평가모형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등급산출 체계의 일관성 확보하는 등 기술평가 모형과 기법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연구소 등 사업주체가 미확정된 특허, SW,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IP) 사업화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가치평가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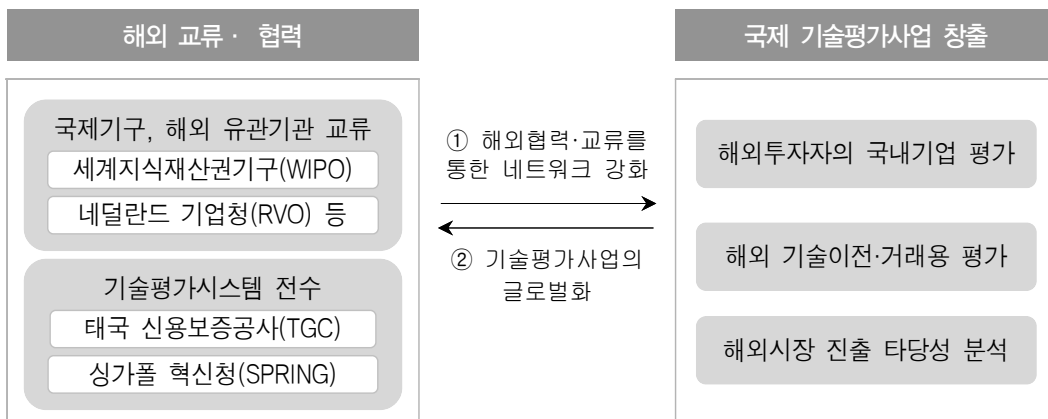
② 기술평가 품질관리 강화

기술가치평가를 수반하는 지식재산(IP)·기술 등 창의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가진단시스템, 사전검증제도, 기술가치평가서 검수, 사후검증제도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평가자간 편차 최소화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평가 결과를 다른 평가자의 결과와 비교·모니터링하는 기술평가 피드백시스템을 강화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③ 기술평가시스템의 글로벌화 추진

독자적 개발 모형인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해외에 소개하고 필요한 국제기구나 해외 유관기관에 이를 전수하여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와 위상을 높였다.

표 IV-5-1-11 기술평가의 글로벌화 추진전략



4) 기술평가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① 지식재산(IP)·기술 기반 창조금융 지원 확대

지식재산(IP)·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활용 확대를 위해서 특허기술가치 평가보증, 기술가치연계보증 및 기술이전보증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창조금융 지원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는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식재산(IP) 투자보증」 등 IP·기술 가치평가기반 맞춤형 보증상품을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표 IV-5-1-12 연도별 지식재산(IP) 보증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IP보증지원	1,110	2,002	1,138	2,105	1,579	2,952	2,250	4,349
IP평가보증	995	1,794	1,020	1,915	1,313	2,602	1,794	3,811
IP인수보증	115	208	118	190	266	350	455	535
IP투자보증	-	-	-	-	-	-	1	3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술 등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융합·R&D가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보증료 감면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의 우대조건을 갖춘 ‘기술융합 기업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산업간 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합 성과를 활용·사업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R&D 경제성 평가, R&BD 멘토링, R&D 기획지원 등의 정부 R&D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R&D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였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R&D를 선별하여 R&D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R&D보증」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R&D 자금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표 IV-5-1-13 R&D보증 지원실적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340	24,022	29,515	34,257

다. TB(Tech-Bridge)사업

1) 총괄

TB사업이란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정보와 기술수요정보 등을 통합·정제·가공·관리·제공하는 업무와 기술-기업 매칭, R&D과제 발굴,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4년 1월 전국 영업점에서 발굴한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TB업무를 수행 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전담영업조직인 기술융합센터를 서울 대전에 설치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부산·대구지역에 기술융합센터를 확대 설치하였다.

또한, 2014년 9월에는 TB업무 전용 IT플랫폼인 기술-기업 매칭시스템(KTMS, 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고 국가 R&D 기술의 개발 촉진 및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급기술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확대 하고 신규 협약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기술이전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TB 추진실적 및 성과

①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 실적 및 성과

2015년 172개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6,903회의 기술이전 중개활동을 실시하여 262건의 이전계약을 통해 456개의 기술을 이전하였다. 이전된 기술의 93.5%가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로 기술수요자인 135개 기업에 대해 247억원의 IP인수보증을 지원하는 등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였다.

② Tech-Bridge 운영성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기술 정보 29만 340건, 기보의 수요기술정보 2,704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였다. 이로써 기술-수요기업간 매칭시간 단축과 정보공유·협력을 통한 성과 극대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협력기관의 성과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그림 37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 업무프로세스



라. 보증연계투자

1) 보증연계투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도입·시행한 후 2015년말까지 150개 업체에 1,741억원의 보증연계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2년 6월 기금법령 개정·시행으로 기보의 고유업무로 법제화 되었으며 투자 중심의 창조금융 정책 흐름에 부응하고 융자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시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표 IV-5-1-14 보증연계투자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투자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대상기업	<p>아래 각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후 5년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투자심사일 현재 기 보증기업(또는 보증승인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일부 BBB등급)이상인 기업 ▪ 법상 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개별기업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투자한도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 100억원 (단, 기보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 초과할 수 없음)

2) 투자옵션부보증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부대출로 Seed Money를 우선 제공한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기보가 선택적으로 보증부 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이다. 2014년 4월 첫 시행한 후 2016년 2월부터 대상기업 및 보증한도 등을 확대하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마. 기업지원

1) 중소기업 CEO대상 무료강좌 실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유도를 위한 ‘기보벤처창업교실’,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새싹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 강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 후 3~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등을 매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표 IV-5-1-15 강좌별 수료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프로그램명	2013년	2014년	2015년
창업준비기	기보벤처창업교실	194	191	194
창업초기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328	349	347
도약기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	90	101

2) 기술·경영컨설팅

기업 성장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경영개선과 실패예방을 위한 기업진단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위기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과 창업컨설팅, 진단 컨설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론칭과 안정적인 사업 안착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 수행중인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기업건강 진단→맞춤형 처방)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다.

표 IV-5-1-16 2015년 기술·경영컨설팅 지원현황

(단위 : 건)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진단컨설팅	전문컨설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계
1,096	40	174	99	1,525	2,934



싱가폴 기술평가시스템 연구 연수단 방문 ('15.9.7)



창조금융 특 행사 ('15.12.19)



도약기업 CEO 강좌 ('15.9.9)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6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일반현황

신용보증재단중앙회(KOREG, 이하 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보증 손실을 보전하는 재보증업무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 8월 설립되었다.

중앙회는 전국 16개 지자체가 관할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 상환 불능시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부분(50-80%)을 보전하는 재보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금융위기를 맞아 사금융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서민전용 보증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해 서민들의 금융부담과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320만건, 73조원규모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78만명 근로자에게 6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기업·소상공인 및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하였고, 2015년도에는 경기회복 및 메르스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0.9조원), 경영안정화특례보증(1.1조원)을 시행, 시의성있는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또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전용 보증상품인 햇살론을 3만 2천여명의 사업자에게 3.3천억원, 17만 8천여명의 근로자에게 1조 6천억원을 지원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보증지원업무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강화

2015년 재단은 국내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8조 3천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으며, 총 보증공급대비 소상공인 보증공급의 비중은 98.3%를 차지할 정도로 재단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6-1-1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5년			2014년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보증공급	업체수	448,844	441,160	98.3%	375,150	367,150	97.8%
	금액	106,386	94,755	89.1%	85,057	74,892	88.0%
보증잔액	업체수	833,213	818,806	98.3%	756,842	742,528	98.1%
	금액	162,423	150,216	92.5%	144,501	132,294	91.6%

업종별 보증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보증공급 업체수(32.6%)와 금액(32.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지원되었다.

표 IV-6-1-2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보증공급	업체수	34,125 (7.6%)	83,261 (18.6%)	108,987 (24.3%)	146,282 (32.6%)	76,189 (17.0%)
	금액	17,287 (16.2%)	16,545 (15.6%)	22,880 (21.5%)	34,067 (32.0%)	15,607 (14.7%)
보증잔액	업체수	64,326 (7.7%)	157,991 (19.0%)	203,436 (24.4%)	276,196 (33.1%)	131,264 (15.8%)
	금액	21,117 (13.0%)	27,215 (16.8%)	37,121 (22.9%)	55,007 (33.9%)	21,963 (13.5%)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또한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금액은 3천만원 이하 보증금액이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경색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재단의 보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6-1-3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계
2014년	금 액	49,955	16,954	6,986	11,162	85,057
	비 중	58.7%	19.9%	8.2%	13.1%	100.0%
2015년	금 액	63,456	21,664	8,135	13,131	106,386
	비 중	59.6%	20.4%	7.6%	12.3%	100.0%

2) 신용보증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에 부합한 특례보증제도 시행

국내외여건 등 경제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앙회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보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특례보증사업으로 첫째,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지원과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창업보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대상으로 우대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금리도 2.9%의 낮은 금리 수준이며,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둘째는, 시니어 창업기업 특례보증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창업을 촉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은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한도는 사업자당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는, 일자리창출과 성장산업 특례보증으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촉진과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신청대상은 신용등급 'CCC'등급 이상의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하거나 성장산업(수출업,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사업자당 5천만원이내 운전자금이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15년도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결과 81,524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창업기업 대상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총 1,763개 업체(487억원)을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

나) 햇살론 근로자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햇살론 근로자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생계자금을 '15.8월에 신규 지원하였고, 햇살론 성실상환자 연간 0.3%p 금리인하,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상환금리를 1.5%p 인하함으로써 햇살론 이용자가 연간 약 19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햇살론 수요자 편의성을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채무감면제도를 통한 저소득근로자 채무상환 부담완화 및 재기지원 강화 방안으로

세부기준을 조정 완화했는데, 구체적으로 손해금율을 기존 10~20%에서 0~7%으로 감면하고, 초입금 상환비율에 따른 분할상환 허용기간 차등을 60개월간 적용,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 요건을 10%로 완화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다. 실제 추진성파로 채무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 수혜비율은 전년대비 약 194.6%로 크게 상승하였다.

3)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지원

가)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을 해소하며 성장산업(수출업,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유도

- *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및 성장산업(수출기업,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 보증한도 : 사업자당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 지원실적 : 6,862개 업체 / 1,716억원

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공급을 통하여 경영위기 극복 타개

- * 대상기업 : Track1 : 신용등급 7등급이상인 희망보증대상자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
 Track2 : 신용등급 7등급이상인 소상공인
- * 지원한도 : 사업자당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보증비율 : 100%
- * 지원실적 : 37,817건, 8,651억원

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메르스 확산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조기 경영회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 * 대상기업 : Track1 :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인 소상공인으로서 메르스 영향 소상공인
 - 메르스 영향지역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대표자가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였던 소상공인
 Track2 : 사업자 등록 후 가동중인 소상공인
 Track3 : 신용등급 7등급이상인 수출업 또는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 * 지원한도 : 사업자당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Track3 : 1억원이내)
- * 보증비율 : 100%
- * 지원실적 : 48,009건, 10,530억원

라) 시니어창업기업 협약보증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창업을 촉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기회 부여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40세 이상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 * 지원한도 : 사업자당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보증비율 : 100%
- * 지원실적 : 1,365건, 374억원

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전국 또는 특정지역내의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유도

-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 지원한도 : 사업자당 7천만원(제조업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 보증비율 : 100%
- * 지원실적 : 5,345건, 1,704억원

바)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경영성장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 * 지원한도 : 사업자당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 보증비율 : 100%(2천만원 이하), 90%(2천만원 초과)
- * 지원실적 : 2,330건, 644억원

사) 금융기관 출연부 협약보증

금융기관과의 협력강화로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영세기업들의 보증 지원 확대

- * 대상기업 : 특별출연 협약 체결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소기업 등
- * 지원한도 : 사업자당 8억원 이내 운전자금
- * 보증비율 : 90%(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 100%(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 * 지원실적 : 5,512억원

나. 고객중심의 보증제도 운영

중앙회는 재단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노력을 기울였는 바, ‘15년도에는 보증기한 연장시 전화녹취만으로도 재단방문 필요없이 보증기한이 연장이 가능할수 있는 ’무방문 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제도(‘15.1월)’를 시행하였고, 국민·하나·농협은행등 6개 금융기관과 연계한 통합전자보증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이 전자식 방식으로 직접 서류접수부터 신청의 모든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영세기업·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생계 안정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가) 경기상황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보증의 개발·시행

중앙회는 메르스사태, 글로벌금융위기등 다수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외부 경영애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액, 보증료 및 대출금리를 우대 지원하는등 소상공인의 사업재활의지를 고취하였고, 15년도에는 경기회복 및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시행, 메르스 사태시에는 중앙회는 모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00% 보증지원을 통해 2.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나) 금리알리미 서비스 신설

중앙회는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15.7월 금리알리미 서비스를 중앙회와 16개 재단홈페이지에 신설 공시하고 있다.

고객이 홈페이지상 보증부대출금리를 직접 확인하면서 금리가 낮은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거나, 재단담당자가 창구에서 보증상담시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회사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다)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완화

보증채무이행시 약정이자 지급기한을 기존 7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대위변제를 꾀하는 동시에 금융비용을 연간 43억원의 이행이자를 절감하였다. 또한 햇살론 대환대출 DTI 확대 및 산정방법변경을 통한 부실보증 방지체계를 마련하였는데 대환대출 DTI 산출방법 변경(대환대상 채무를 제외한 전 채무에 대해 연간상환원금 반영),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햇살론 대환대출의 적용을 강화(1천만원이하 취급시에도 전액 DTI 40%이내 제한을 적용)하였고 정밀심사제도 개선, 부정대출방지시스템의 운영으로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근로자 보증채무이행청구 과다에 따라서 미심사채권 적체 해소방안으로 특정금융회사 업무담당제, 표준처리기간 관리제도등 원활한 대위변제처리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라)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햇살론 가산금리를 약 1.5%p 인하하여 서민의 연간 이자부담액이 약 190억원 경감되었다. 기존햇살론 우수거래자 추가 금리인하 및 긴급생계자금을 지원 시행하여 햇살론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수 거래자에게는 1년간 3백만원, 3년 4백만원, 4년간 5백만원한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였고,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0.3%p 인하하였다. 창업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와 저금리 적용협의 및 창업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금리가 일반보증대비 약 1%p 낮은 2.9% 수준의 금리부담이 완화되는 기대효과가 나타났다.

2)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중앙회는 소상공인의 경기동향을 파악하여 정책금융에 활용하고자 2013년부터 보증수혜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를 분기별로 조사·공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보증정보를 활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소상공인의 금융정책 및 금융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기간행물로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햇살론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으며, 전문화된 각종 연구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15년도에는 신용보증데이터와 공공데이터 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였고, 세부사업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마련(6월), 효과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빅데이터 경진대회 개최(9~12월)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다. 보증재원관리 적정성 및 건전성 유지

1) 안정적인 재보증재원 확보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강화

중앙회는 재단의 충실한 보증공급과 재보증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고, 각종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재단 보증잔액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한 재보증한도를 적시에 추가 배분 가능하도록 보증재원관리에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보증 확대를 위해 맞춤형 특례보증 및 금융기관 출연부 협약보증시행으로 보증공급목표대비 41.8% 증가한 10조 6,382억원을 달성하였다.

2) 사업자 보증의 구상채권 회수노력 확대

채권회수 캠페인의 실시 평가로 매 분기별로 재단 보전채권회수 실적공개를 하였고 이를 통한 상호경쟁유도를 꾀하여 구상채권 회수목표를 상회 달성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정보, 고용보험자료등 정부 및 공공기관 보유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구상채권회수 제고노력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을 위한 재단 및 중앙회 기본 재산 확충에 기여하였다.

3) 근로자보증의 구상채권 회수노력 확대

회수기간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등 근로자보증의 구상채권회수 증대 방안 다각화를 통해 근로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지적 전산자료 등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적극 활용으로 채무자은닉재산에 대한 추가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였고, 이후 채무자 보유재산의 대한 가압류, 추심 착수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구상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이다. 주요 업무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기본재산의 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이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의 신용보증재단에서 126개 본·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6-1-4 재단의 영업점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본점 지점(5)	본점 지점(19)	본점 지점(9)	본점 지점(9)	본점 지점(4)	본점 지점(6)	본점 지점(3)	본점 지점(6)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본점 지점(18)	본점 지점(3)	본점 지점(6)	본점 지점(9)	본점 지점(4)	본점 지점(1)	본점 지점(5)	본점 지점(3)

1)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속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이며 적절한 대위변제를 위한 준비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표 IV-6-1-5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단위 : %, 억원)

구분	출연현황						이월 이익금 (B)	기본 재산 (A+B)	
	지자체		정부		금융기관 등				계(A)
	비중		비중	비중					
2015년	17,923	46.2	7,038	18.1	13,856	35.7	38,817	△6,598	32,219

2)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지원 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2015년 보증공급은 10조 6,386억원, 보증잔액은 16조 2,4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액보증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전문성 강화로 2.85%대의 비교적 낮은 보증사고율을 기록했다.

표 IV-6-1-6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단위 : 건, 억원, %, 배)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보증 공급	건 수	448,844	357,150	350,944	275,845	256,434
	금 액	106,386	85,057	77,859	63,581	60,801
보증 잔액	건 수	833,213	756,842	837,659	829,578	835,802
	금 액	162,423	144,501	142,719	135,148	136,088
보증 사고 순증	건 수	33,659	36,559	45,026	58,638	58,451
	금 액	4,630	4,762	4,912	5,883	6,153
	사고율	2.85	3.30	3.4	4.4	4.5
대위 변제 순증	건 수	25,116	34,516	46,016	50,242	41,896
	금 액	2,930	3,474	4,237	4,688	4,248
	변제율	1.8	2.4	3.0	3.5	3.1
운용배수		5.0	4.8	4.9	4.9	5.5
기본재산		32,224	30,376	28,922	27,807	24,624
재단수		16	16	16	16	16



대한민국 금융대전 참가
(2015.8.31.~9.1)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2015.2..26)



지자체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2015.7.14.)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7장 중소기업유통센터

1 일반현황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종합마케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995년 12월 21일에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조직은 2본부 3실· 2단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채널 및 기능별로 백화점사업단, 홈쇼핑사업단, 마케팅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사업단은 목동판매장(행복한백화점)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며, 홈쇼핑사업단은 홈쇼핑사(GS, CJ,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지원실은 중소기업제품 발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구축, 마케팅이노베이션, 중소기업 제품홍보, 중기제품 전용 판매장, 브랜드 지원, 구매상담회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중소소모성자재납품기업지원, 발굴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유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신규 판로지원채널을 확보를 위해 제 7홈쇼핑인 공영홈쇼핑(15.7 개국)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유통시장 진출 및 판로지원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On/Off-Line 판로지원 및 전시·홍보지원 등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 백화점(목동판매장) 운영

1999년 12월 3일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목동 판매장(행복한 백화점)을 개점하여 2015년까지 총 1만 5천여개 업체에 대해 1조 1,561억 원의 판매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 백화점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HIT500 PLAZA(550평)’를 ‘아임쇼핑(700평)’으로 확대·개편('15.10)하여 2,275개('15.12) 업체의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초기 창업기업(창업사관학교, 창업·벤처기업), 우수 중소기업(인증·특허상품), 기관 및 지자체(지역특화사업, 장애인지원센터 등), 공동브랜드 등 새내기 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입점 중소기업에게는 낮은 수수료 지원, 매장 판매사원 인건비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판매전 및 상담회 등을 통한 대형유통채널 연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목동 판매장에 입점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등 공익성 기획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7-1-1 백화점(목동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판매지원액	9,076	625	635	605	620	11,561
지원업체수	7,289	1,612	1,577	1,628	2,636	14,735

* 정책매장(4층) 개편 현황 : ('11.8) 90평 → ('12.3) 350평 → ('12.9) 550평 → ('15.10) 700평

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 중기청과 유통센터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민간시설 등과 연계하여 신기술·벤처·창업·수출 우수중소기업 등 단일매장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초기·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판매장(IM Shopping)의 판로지원 효과 증대를 위하여 낮은 판매수수료, 판매사원 및 인테리어 비용지원, 타 유통망 연계 등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7-1-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운영 현황 (2015년 말)

구 분	오픈일	매장면적	지원상품수
인천공항(서편)면세점	'12.6.27	76m2(23평)	2,802개품목
인천공항(동편)면세점	'15.11.6	42m2(13평)	510개품목
워커힐면세점	'15.5.28	30m2(10평)	478개품목
갤러리아면세점	'15.12.28	42m2(13평)	350개품목
인천항 여객터미널	'12.12.21	59m2(18평)	1,733개품목
KTX부산역사	'13.2.5	42m2(13평)	1,348개품목
명동	'13.5.9	299m2(90평)	2,091개품목
청주	'13.12.26	422m2(128평)	861개품목
인천2항 면세점	'14.12.18	116m2(35평)	886개품목
하나로 삼송점	'14.12.5	99m2(30평)	852개품목
하나로 양재점	'14.12.10	83m2(25평)	591개품목
화성휴게소(목포행)	'11.12.1	165m2(50평)	2,018개품목
금산휴게소(하남행)	'11.12.1	59m2(18평)	1,820개품목
질곡휴게소(부산행)	'11.12.1	50m2(15평)	1,949개품목
진영휴게소(순천행)	'12.10.2	53m2(16평)	1,876개품목
경주휴게소(부산행)	'13.7.12	49m2(15평)	1,864개품목

3) 홈쇼핑 판로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다양한 판로지원을 위해 6대 홈쇼핑사(GS, CJ, 현대, 롯데, 농수산홈쇼핑, 홈&쇼핑) 및 공영홈쇼핑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2015년까지 3,1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9,200억원의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7-1-3 홈쇼핑사업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판매지원액	8,340	2,623	2,704	3,004	2,529	19,200
지원업체수	2,389	111	130	149	293	3,072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인 공영홈쇼핑(최대주주), 홈&쇼핑(2대 주주)에 주요주주로 참여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홈쇼핑 유통망 진입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 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 컨설팅, 홍보 및 구매상담회, 브랜드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공동A/S지원,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판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A/S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A/S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A/S센터는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불만 해결, 사용법 안내 등 각종 소비자 민원 사항을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A/S 서비스망 구축 지원을 통해 A/S 대행 처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TV(KBS, MBC, 한경TV) 및 신문(매경, 한겨레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2011년 소셜커머스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도 지원하고 있다.

3) 마케팅이노베이션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발굴·선정하여 시장성조사,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종합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4) 온라인 판로지원

국내 온라인쇼핑몰 연동에 기반을 둔 온라인플랫폼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통합 판매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온라인시장 진입 및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동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5)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중소기업의 상표개발 능력 및 브랜드 전략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상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제작 등을 통해 개발된 공동상표를 TV 및 신문, 잡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연계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6)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대기업 MRO사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배양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내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7) 구매상담회 지원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담회 및 중소기업 판매전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8) 발굴·연계시스템(www.imstars.or.kr)구축

발굴·연계시스템이란, 중소기업 상품을 모아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로 판로를 연계하는 통합유통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종합 판로지원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간소화·표준화 하고, 정부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사업의 효율 극대화하고, 민간 유통MD와의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7-1-4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 (2015년 말)

사업명	주요 지원현황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총 732개 중소기업의 A/S 인프라 및 A/S역량강화 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언론홍보 682개 제품, 소셜커머스 1,528개 제품, 홈쇼핑 58개 제품 지원
마케팅이노베이션	◦ 시장성조사 500개 제품, 마케팅전략수립 250개 제품, 제품개선 57개 제품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 상세페이지 제작 3,000개 제품, 홍보동영상 162개 제품 지원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 공동상표 개발 5개, 공동상표 홍보 8개, OEM브랜드 홍보 3개 지원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총 396개 중소납품업체 지원
구매상담회 지원	◦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12회, 중기제품 특별판매전 18회 개최
발굴·연계시스템 구축	◦ 10,086개 기업의 13,334개의 상품정보 DB발굴



공영홈쇼핑 개국
(2015년 7월 14일)



판로지원종합대전
(2015년 6월 25일)



아임쇼핑매장 개소
(2015년 10월 15일)

제8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 일반현황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12월 27일 설립되었으며,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동반성장 인프라구축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통해 명실 공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아 200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2015년까지 670개 수요처(공공 121개, 민간 549개)가 참여하여 총 2,783개 과제에 6,087억원을 지원하였다.

2)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2008년 7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 매칭펀드형 R&D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수요가 있는 R&D 과제에 투자할 자금을 사전에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후,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일정기간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향후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

민·관R&D 협력펀드를 2015년까지 총 57개 투자기업이 참여하여 총 6,814억원을 조성하였고, 총 669개 과제에 총 3,267.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V-8-1-1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 현황

구 분	협력펀드	투자기업명
민 간	5,532억원	경창산업, 네이버, 대우조선해양, 동양물산기업,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한국항공우주산업,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루멘스,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LG전자, LS엠트론, SK텔레콤,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크루셜텍, 대교, 대동공업, 디아이씨, 렉스코, 인성정보, 미래나노텍,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티, 케이엠더블유, 파워로직스, 필옵틱스, 이레오토모티브(舊 한국델파이), 한백종합건설, S&T모티브
공 공	1,18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국 방	100억원	한국항공우주산업(국방부)

재단은 협력펀드의 관리기관으로서 투자기업으로부터의 수요조사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 펀드집행을 위한 사업수행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기술연구회 운영·지원, 과제발굴 기여자 및 우수연구자 격려를 위한 대·중소기업기술협력대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가절감형 공동사업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1차 협력사(중견기업)와 2차 협력사 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단기간(6~8개월)에 완료 가능한 원가절감형 과제를 추진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원가절감형 과제란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디자인변경, 제조공법 개선, 원재료·부품개발,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현하는 과제를 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대기업(공기업)과 1차 협력사, 1차 협력사(중견기업)와 2차 협력사의 연합체다.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원가절감 과제를 추진하고 원가절감 목표 달성 시 이에 따른 성과배분을 참여기업인 대기업, 1차 협력사(중견기업)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IV-8-1-2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지원중소기업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참여기업수(개사)	16	35	40	32	43	166

4)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동반진출 과제로는 글로벌 한류문화 행사와 연계한 한류연계 해외 동반진출(B2B 수출상담회, B2C 판촉전, 스타마케팅),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해외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대기업의 해외 온·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대·중소기업 국제전시회 동반참가(Booth in Booth) 지원 등이 있다.

표 IV-8-1-3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참여기업수(개사)	156	184	199	611	1,164
수출계약실적(백만불)	57	21	24	181	17

* '15년 사업기간 : '15.3월~'16.4월, 수출계약실적 집계중

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대기업의 우수협력사 발굴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On-Off Line 대·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8-1-4 구매상담회 성과

구 분	참여기업(개사)		상담실적(억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담기준(건)	납품기준	
~2011년	441	1,863	4,075	195.9	총 15회 개최 서울(6회), 일산(3회), 인천(2회), 대전(2회), 수원(1회), 부산(1회)
2012년	94	397	651	63	총 5회 개최 강원, 충남, 대구, 전북, 충북
2013년	122	603	1,274	89	총 4회 개최 경기, 부산, 충북, 동반성장주간
2014년	194	886	1,671	75	총 4회 개최 경기, 전북, 대구, 서울
2015년	215	723	1,630	204	총 4회 개최 부산, 전북, 충남, 서울

2)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기업과 협력사간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운영현황 실태조사, 수탁기업협의회 간담회,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IV-8-1-5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신규)
대기업(개)	180	79	84	86	89	89
1차 수탁기업협의회(개)	211	95	108	110	114	114
1차 협력사(개)	10	12	108	176	183	183
2-3차 수탁기업협의회(개)	10	12	109	177	188	188

또한, 대기업과 1차·2차·3차 협력사 또는 협력사간 자금, 시장 정보, 교육, 기술 등의 협력체계가 확산되도록 정부에서는 2·3차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협력기업 네트워크 구축 하고 있다. 이는 동반성장 교류채널인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가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항은 교류활동(2·3차 협력사 교육, 우수 협력사 벤치마킹, 세미나 및 포럼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력과제로 협의회 활동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IV-8-1-6 2·3차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1	교류 활동	- 역량강화, 품질향상, 경영 등 교육 - 우수협력사 벤치마킹 - 기술·경영·시장 정보 교류활동 등	협의회 당 5백만원 한도(70%)
2	협력과제 수행	- 협의회 회원사간 교류활동을 통해 발굴해낸 협력과제 수행 비용	과제 당 35백만원 한도(70%)

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중소기업청 사업을 위탁 받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근거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8-1-7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분쟁조정(건)	187	52	45	20	22
법률자문(개사)	144	41	47	105	52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4.11)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14.12)되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자문, 기술자료 임치 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상시 상담이 가능한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8-1-8 기술자료 임치 현황(’15년 12월말, 누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임치(건)	1,071	2,706	5,685	7,161	8,562	25,185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장치로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도입(1979~)되었으나,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고유업종 지정 업종의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06년에 제도가 폐지되었다.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도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확장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2011년부터 312개 품목을 접수받아 총 108개 품목(적합업종 74개, 시장감시 8개, 상생협약 26개)을 합의권고 하였다. 합의된 품목에는 2011년 적합업종 권고 후 3년이 경과한 77개 재합의 품목 중 51개 품목(적합업종 37개, 시장감시 4개, 상생협약 10개)과, 신규 품목은 11개 품목을 처리완료(적합업종 5개, 상생협약 1개, 철회·반려 5개)하였다.

표 IV-8-1-9 2015년 적합업종 추진 현황(’15년말 기준)

구 분	품목수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진행중	철회반려
재합의 (’14.10~’15.2)	77	49	7	21	-	-
신 규	13	7	1	5	8	20
’16년 재합의 대상	18	18	-	-	18	-
합 계	108	74	8	26	26	20

4)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지원

본 사업은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中企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공동 사업화 과제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품목별 시장현황 및 특성 분석으로 중소기업의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컨설팅 과제와 사업모델 구현 및 매출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공동 사업화 과제를 지원한다.

2015년에는 한국장류협동조합 등 컨설팅 5개 과제,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공동 사업화 6개 과제, 총 11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V-8-1-10 '15년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순	과제명	신청단체	총 사업비	지원 금액	자부담
컨설팅	1	장류산업 물류/유통 경쟁력 강화	장류협동조합	30	27	3
	2	LED 조명기구의 인증 합리화 방안	조명공업협동조합	30	27	3
	3	자동판매기 운영업 신규 사업모델 발굴	자동판매기운영업 협동조합	30	27	3
	4	비디오도어폰 중소기업 대상 사업모델 발굴 컨설팅	전자공업협동조합	30	27	3
	5	LED 등기구의 불법·불량제품 근절방안 수립	전등기구LED산업 협동조합	30	27	3
소 계				150	135	15
공동 사업화	6	중소기업용 판유리 재단 최적화 시스템 구축	판유리산업협회	75.7	60.5	15.2
	7	수출 유망 금형기업 공동 마케팅 솔루션 구축	금형공업협동조합	68	53.5	14.5
	8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구매물 구축	체인사업협동조합	49.75	38.25	11.5
	9	동네빵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지원	대한제과협회	97.55	77.55	20
	10	자동차 재제조부품의 공동 상표 및 브랜드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동차부품재제조 협회	87	67.2	19.8
	11	막걸리 음용잔의 개발을 통한 막걸리 이미지 개선 및 홍보	막걸리협회	63	50	13
소 계				441	347	94
합 계				591	482	109

제9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일반현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2002년 1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6년 동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기술 R&D사업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기능과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및 부합화 지원,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평가,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중소기업분야 R&D 사업 평가관리 전담기관으로 기능이 조정됨으로서 모든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었다. 각 사업유형 및 목적에 부합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R&D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여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더불어, R&D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지향적인 R&D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가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 표준화된 행정모델을 적용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을 위해 클라우드 방식의 업무용 정보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생산공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등 新정보화 기술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기정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자생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1) R&D기획역량제고사업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 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하여 R&D투자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R&D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R&D 기획역량제고사업(舊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체 R&D 기획역량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으로 R&D 기획교육을 지원하는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R&D기획역량제고사업 수행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R&D자금을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지원한 204개 과제 중 96개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016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에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1~8월에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2011년도 지원과제의 신기술사업화율은 43.3%, 사업화 성공률이 45.0%, 시제품 출시비율이 66.7%로 나타나는 등 지원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표 IV-9-1-1 R&D기획역량제고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3,000	3,500	3,500	4,000	5,000	19,000
지원기업수	133	153	169	154	204	813

또한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15년 5억원의 예산으로 1,291명을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82.5%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16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의 예산으로 R&D기획교육 지원할 예정이다.

2)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舊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생산성 향상 및 공정혁신은 중소기업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민간 자율영역이라는 인식으로 그간 정부지원이 소홀하였다. 특히 제품·공정개선 과제를 가지고 있으나 소요자금 부족 등 자체추진이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기존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에서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으로 전면 개편·시행중이다. 자체 연구 인프라·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조공정 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5년부터 내역사업으로 새롭게 시행된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2015년에는 총 3회(2,5,8월) 신청·접수를 시행하였으며, 개발기간 9개월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하고, 소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개발 후 징수하는 기술료는 면제한다.

2015년 594개 과제에 3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377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9-1-2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40,000	43,480	41,503	30,003	31,160	186,146
지원기업수	188	199	674	611	594	2,266

3)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동종 또는 이업종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개별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3년에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으며, 최근 5년간 1,176개 기업에 2,99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 사업명칭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분야 전문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유형, 개발주체, 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5년 지원규모는 685억원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산·연, 산·학, 산·산 등)의 異種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우수과제 발굴평가 시스템 내실화, 융합 촉매조직 역할 강화, 개발제품 사업화 및 판로기반 확대를 강화하였다.

표 IV-9-1-3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23,400	39,900	83,160	83,989	68,530	298,979
지원기업수	112	169	324	315	256	1,176

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잠재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 지원규모는 1,624억으로서 건강진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과제(1,164억),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1인창조기업 과제(100억),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멘토링을 지원하는 투자연계멘토링 과제(150억원), 이공계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R&D를 지원하는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50억), 경제활동 취약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여성전용과제(100억)으로 세분화하였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초기기업의 안착화와 성장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서 잠재역량을 지닌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 및 매출액 증대, 고용창출 등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9-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95,000	113,560	131,361	141,361	162,360	643,642
지원기업수	598	1,356	856	1,102	1,230	5,142

5)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는 생산 중심적 상생문화의 형태로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편협한 인식 및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본 사업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추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수요처 및 투자기업(정부·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물품 및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 징수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수요처의 분야 및 특성에 따라 구매조건부사업 국내수요처과제(공공·민간부문)와 구매조건부사업 해외수요처과제(해외부문),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R&D협력펀드 투자)으로 구분하여 구매조건부사업 국내 및 해외 수요처과제는 2년 이내, 5억원 한도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은 2년 이내에 10억원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의 예산은 2002년 9억원에서 2016년 1,42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평가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신청기업의 신청부터 협약까지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와 투자기업에서 구매를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국가R&D사업의 사업화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9-1-5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76,500	96,884	126,473	128,391	133,286	561,534
지원기업수	417	565	727	707	704	3,120

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개발 소요자금의 최대 65%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본 사업은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의 경우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개발기간 2년 이내,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은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및 수입대체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수출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개발기간 2년 이내,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기반 으로 혁신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개발기간 1년이내, 정부출연금 1.5억원이내)는 자유응모과제로 혁신성, 도전성 서비스모델 발굴이 가능한 서비스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1997년 300억원에서 2015년 2,620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정원은 신청기업의 신청부터 협약까지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IV-9-1-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과제수	959	1,053	1,081	1,087	1,107	5,287
지원금액	2,005	2,236	2,352	2,374	2,520	11,487

* 평가관리비 제외 금액임

7)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 지원규모는 1,520억으로서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첫걸음과제(425억),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129억),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도약과제(394억),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마을과제(153억), 인적·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연전용과제(145억), 유망 창업팀을 선발,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240억),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진단 및 해결해주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35억)로 세분화하였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대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9-1-7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과제수	1,401	1,621	2,041	1,865	2,179	9,107
지원금액	81,700	90,212	138,878	145,822	152,003	608,615

8)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본 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참여기업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및 일반기업 1,374개사에 총 예산 165억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연구장비를 1,686개의 신청기업 중 1,374개사(81.5%, 경쟁률 1.2:1)에 직접적으로 지원, 중소기업이 중견·강소기업으로 진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은 향후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신설, 사업 운영여건 개선 통한 수혜기업 확대 및 참여기업 관리강화를 통한 부정사례 방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장비 부족문제 해소에 힘쓰고 있다.

표 IV-9-1-8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16,540	16,540
지원과제수(건)	1,374개사/20,055건 장비지원	1,374개사/20,055건 장비지원

9)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사업

본 사업은 학사급 기술개발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청년층 기술인력의 현장교육과 취업연계 지원으로 인력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예산은 총 90억으로 미취업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초중급기술개발지원사업(60억),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단계(소양+기술교육+프로젝트수행) 교육지원 후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취업연계R&D교육센터운영사업(30억)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맞출 수 있는 실무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9-1-9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초·중급기술개발인력	5,000(389)	6,000(579)	6,000(524)	17,000(1,502)
취업연계 R&D교육 지원	2,000(357)	3,000(499)	3,000(460)	8,000(1,316)

10)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본 사업은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예산은 총 60억으로 자유응모와 지정공모 방식을 병행하여 총 20개의 과제를 지원(신규과제 : 6개, 계속과제 : 14개)하였다. 중소기업이 창의·도전적인 목표 및 사업화 방안 등을 자유롭게 피력하여 과제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 역량의 기회를 열어두었다. 또한,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통한 사업성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동시에 R&D 전주기 관리를 함으로서 도전적인 R&D 과제를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 및 도전적 R&D 수행을 위한 생태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9-1-10 시장창출형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4,000	6,000	10,000
지원과제수(건)	신규: 14	신규 :6, 계속:14	20

11)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본사업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수출의존형 성장구조 등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사전기획 단계를 거쳐 해당 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5개 신청 컨소시엄 중 12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사전기획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사전기획을 지원받은 컨소시엄 중 6개 컨소시엄에 R&D연계지원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원간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

하였다. 신성장아이템 후보제품 33개를 발굴하였고, 기술확보를 위한 특허 출원 및 기술개발 결과에 대하여 컨소시엄에서 수요기업과 구매 확약을 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표 IV-9-1-11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2,730	2,730
컨소시엄 지원	18	18

표 IV-9-1-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예산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R&D 기획역량혁신사업	30	35	35	40	55	195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400	435	415	300	312	1,862
	융복합기술개발사업	234	399	832	840	685	2,99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950	1,136	1,314	1,414	1,624	6,438
	상용화기술개발사업	765	969	1,265	1,284	1,333	5,61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206	2,325	2,448	2,470	2,620	12,069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817	902	1,388	1,458	1,520	6,085
	연구장비공동활용	-	-	-	-	165	165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사업	-	-	70	90	90	250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	-	40	60	100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 파트너십사업	-	-	-	19	27	46	

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1)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적용, 기존 개별지원 체계에서 공동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3년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 2014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경영혁신플랫폼은 업종·단체별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특화형솔루션과 기본형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화형솔루션은 정보화 취약 중소기업(조합·단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시장성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개발 보급이 어려운 업무용 소프트웨어(28개업종)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기본형솔루션은 정보화 초기 기업을 위한 금융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관리 등 8개의 업무 기능을 제공한다.

표 IV-9-1-13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6,906	6,000	3,970	16,876
지원업종수	7	14	7	28

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점관리(POP), 제조실행계획(MES) 등의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2015년의 경우 321개 업체의 신청과제를 접수받아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146개를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특히, 정보화 활용이 미흡하고 규모가 영세한 뿌리업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의

정보화를 집중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업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불량률 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시스템 구축 후 평균적으로 불량률이 40%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9-1-14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8,000	8,000	7,000	8,000	9,000	40,000
지원기업수	133	129	135	144	146	687

3)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15년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통합)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은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 도모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2년도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여 2014년도 164개 신청업체 중 126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부 전문 감리기관을 통해 사업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IV-9-1-15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	2,000	1,000	-	3,000
지원기업수	246	122	126	29	523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도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43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여 중소기업청 및 22개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위협 탐지 및 공동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9-1-16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178	400	400	1,930	1,940	1,490	6,338
지원기업수	1,606	651	517	925	1,027	43	4,769

* '15년부터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만을 추진(기술보호는 대중소협력재단 이관)

표 IV-9-1-17 연도별 정보화지원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예산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경영혁신플랫폼기반사업	-	-	-	69	60	40	169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80	80	80	70	80	80	470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	-	-	-	20	10	-	30
	기술유출방지사업	1.78	4	4	19.3	19.4	14.9	63.38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사업의 경우 '15년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통합

다. 정보화정책 조사연구사업

중소기업 정보화정책 조사연구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정보화 경영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정보화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인 객관적·분석적 자료를 제공한다. 2014년에는

총 3,914개 기업(대기업 300개사, 중소기업 3,614개사)을 대상으로 1:1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전년대비 1.71%p 증가하였다.

표 IV-9-1-18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추이

(단위 : 점, 개사)

연 도	중 소 기 업		대 기 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정보화 수준	기업수	정보화 수준	기업수	
2007년	52.04	6,004	73.53	500	70.8
2008년	53.60	4,043	70.23	473	76.3
2009년	54.57	4,040	71.14	510	76.7
2010년	56.65	4,405	72.09	321	78.6
2011년	57.86	4,010	73.60	318	78.6
2012년 (신규지수)	59.08 (50.16)	3,701	73.93 (65.86)	300	79.9 (76.1)
2013년	50.18	4,003	67.64	300	74.2
2014년	53.21	3,725	69.10	315	77.0
2015년	55.95	3,614	71.08	300	78.71

* 2011년 정보화수준 지수개편에 따라 2012년부터 신규지수와 구지수 산출, 2013년도부터 신규지수만 산출

		
<p>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 (15.11.18)</p>	<p>창업지원단 업무협약(15.10.26)</p>	<p>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 개막(15.12.16)</p>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0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일반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되어 2014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자금·교육·컨설팅 지원·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지원,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약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소공인 등 분야 지원을 기존 보다 대폭 확대하고 지원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여 조직생산성 제고 및 고객위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일류의 소상공인 시장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국·내외 창업교육, 소상공인 사관학교,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신사업 아이템 제공,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소상공인 사관학교

소상공인사관학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150시간), 점포체험(3개월), 멘토링 및 창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적성검사,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고 선정된 교육생에게 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점포체험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모델에 대한 검증 및 안정화를 도모한 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소상공인사관학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 전용교육장에 설치되었으며, 이론교육 기준으로 1기 및 2기 305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했다. 또한 각 도시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19개 체험점포를 구축하여 예비창업자들이 계획한 신사업 창업아이템으로 체험점포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여 실제 창업시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은 최소화하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상공인 창업교육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과밀 생계형 창업보다 신기술·신지식이 가미된 특화형 또는 비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교육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창업 관련 업체에서 인턴십 등 창업 준비가 되도록 실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기관을 선정해 시행하였다. 최근 5년간 약 15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2015년에는 수료자의 약 37.2%(1,558명)가 신규창업에 성공하였다. 다만, 2016년부터 창업교육이 폐지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아이디어 중심인 신사업아이디어사업화교육으로 대체되었다.

표 IV-10-1-1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소상공인 창업교육 예산	9,837	7,772	6,644	6,664	3,903	34,820

표 IV-10-1-2 최근 5년간 지원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교육수료인원(명)	101,596	16,868	15,122	12,199	4,187	149,972

3)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국내교육과 해외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국내교육과 더불어 해외 체류 및 지원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여 현지 상권조사 조사, 현지 사업 파트너 미팅, 점포 임대 조건 조사, 부동산 업체 방문, 법률조언 등 창업 전 단계까지 확대 지원 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소상공인의 자신감, 사업계획 내실화 등으로 국내교육 중심의 지원에 비해 해외창업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1-3 연도별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산	376,900	500,000	500,000	1,600,000	1,000,000

표 IV-10-1-4 연도별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실적

국가명	' 12년도		' 13년도		' 14년도			' 15년도	
	국내 교육	해외 교육	국내 교육	해외 교육	국내 교육	해외 교육	인큐 베이팅	국내 교육	인큐 베이팅
중 국	16	11	24	11	21	13	4	49	11
라오스	26	16	-	-	-	-	-	47	12
베트남	-	-	27	-	34	14	4	61	12
미얀마	-	-	27	12	33	15	4	56	12
캄보디아	-	-	-	-	34	15	4	60	11
필리핀	-	-	24	-	-	-	-	-	-
합 계	42	27	102	23	122	57	16	273	58

표 IV-10-1-5 연도별 해외창업 성과

구 분	2012년 수료자		2013년 수료자		2014년 수료자		2015년 수료자	
수료국가 및 창업자	중국	3	중국	2	중국	2	베트남	2
	라오스	3	필리핀	4	베트남	4	캄보디아	3
	베트남	1	-	-	미얀마	1	미얀마	3
	-	-	-	-	캄보디아	1	-	-
	계	7	계	6	계	8	계	8

4) 신사업 육성지원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분야의 과당경쟁 해소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최신 트렌드에 대응하는 국내외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사업예산은 21억으로 전년 대비 약 31%가량 증액되었으며, 최근 5년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0-1-6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신사업 육성지원 예산	1,200	1,000	1,600	1,600	2,100	7,500

신사업 아이디어의 발굴 및 보급은 예비창업자 및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국내외 새로운 직종, 사업 아이템 등을 조사해 자료를 공개해, 2010년부터는 발굴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0-1-7 최근 5년간 지원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아이디어 발굴 건수(건)	600	440	346	360	400	2,146
사업화지원 건수(명)	13	20	15	15	55	118

표 IV-10-1-8 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13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 운영체제 도입(아이디어 발굴 루트 확대)
2015년	소상공인사관학교 수료생 연계 지원 도입(사업화 지원)

2015년에는 발굴된 신사업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16 소상공인 창업 이력 아이템에 주목하라」라는 책자를 제작·보급하였다. 또한, 신사업 설명회를 6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많은 예비창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5)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에서 구현된 실제 상권영역 기반으로 분석한 4개영역(업종, 매출, 인구, 지역) 49종(동종·유사 업체현황 및 추이, 유동·거주인구, 집객시설 등)의 상권정보와 창업과밀지수, 점포평가, 점포이력 등의 부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운 상권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 정보·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 하던 이용실적이 2014년 635,020건, 2015년 818,86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6.0%, 22.5% 상승하였다.

표 IV-10-1-9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실적 (월평균)	581,378 (48,448)	494,048 (41,171)	598,919 (49,910)	635,020 (52,918)	818,860 (68,918)
증가율	85.6%	△15.0%	21.2%	6.0%	22.5%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전년건수×100, 연간이용률 평균 24.0% 증가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상권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노력을 통해 기초DB의 정확도는 2011년 82.7%에서 2015년 91.0%로 8.3%p 향상하였다. 이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3년 기준 전체 사업자수의 31.2% 190만개의 창·폐업이 이루어지는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수치이다.

표 IV-10-1-10 상권정보시스템 기초DB 정확도 조사결과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허가	92.2%	90.2%	90.1%	90.8%	90.6%
비인허가	76.6%	83.8%	89.5%	89.8%	91.1%
전체 정확도	82.7%	87.0%	89.8%	90.3%	91.0%

이러한 정확도 제고 노력과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2015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이상)는 누적 10.4%, 전년대비 1.2%p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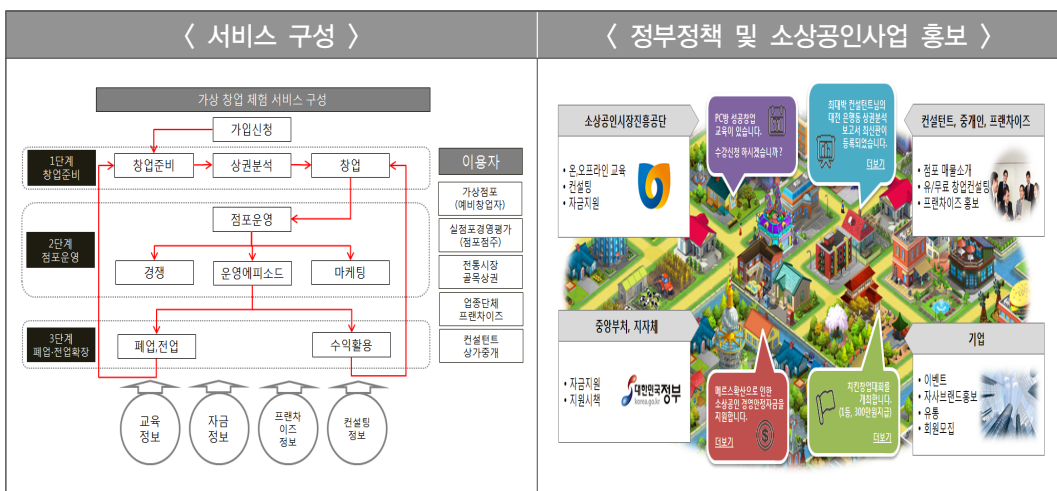
표 IV-10-1-11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자 만족도	77.8%	79.8%	82.4%	87.0%	88.2%

2015년에는 신용카드 및 유동인구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업종의 과밀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개·폐업 변화정보를 제공하는 ‘점포이력서비스’, 점포의 수준을 평가해주는 ‘점포평가서비스’ 등의 부가 정보·서비스를 지역별·업종별 확대하였다. 또한, 상가업소DB를 중심으로 공유·수집된 약 250만건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창업과밀지수’ 및 ‘점포평가서비스’의 제공지역 및 업종을 전국·30개업종(창업과밀지수) 45개업종(점포평가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실데이터 기반의 창업전략시뮬레이션으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폐업·업종전환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창업가상체험서비스’의 사업타당성 및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계획으로 ‘창업도 사전에 연습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38 상권정보시스템 '16년 신규 서비스



나.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영기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전문교육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교육,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협동조합활성화, 나들가게 성과확산, 중소기업 통합구매, 유망프렌차이즈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소상공인경영교육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업종별 최신기술, 판매기법 등을 주로 교육하는 업종별 전문교육과 지역별 특산물,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소상공인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특화교육 등 2개 광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13년~'15년) 189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93,305명을 교육했으며 2015년의 경우 수료자 매출액이 평균 11.98%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1-12 연도별 경영개선교육 실시 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1년	(예산) 47.2억원 / (실적) 104,126명 (성과) 수료생 44.5% 매출신장
2012년	(예산) 34.1억원 / (실적) 55,785명 (성과) 수료생 26.6% 매출신장
2013년	(예산) 78.0억원 / (실적) 49,182명 (성과) 수료생 15.6% 매출신장
2014년	(예산) 70.7억원 / (실적) 25,264명 (성과) 교육 전후 대비 수료자 매출액 평균 10.1% 증가
2015년	(예산) 45.8억원 / (실적) 18,859명 (성과) 교육 전후 대비 수료자 매출액 평균 11.98% 증가

나) 소상공인 e-러닝센터 운영(온라인)

소상공인 e-러닝센터는 점포를 비우기가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을 통한 경영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경영기법의 전수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설문조사 및 수강후기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재 93과정 270차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3년~'15년) 339,131명이 e러닝 교육을 수료하였다.

표 IV-10-1-13 연도별 소상공인 e-러닝센터 운영 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1년	(예산) 3.0억원 / (실적) 회원 수 55,212명, 수료인원 338,088명
2012년	(예산) 9.4억원 / (실적) 회원 수 42,923명, 수료인원 170,318명
2013년	(예산) 3.1억원 / (실적) 회원 수 45,776명, 수료인원 151,090명
2014년	(예산) 3.1억원 / (실적) 회원 수 163,370명, 수료인원 133,674명
2015년	(예산) 2.0억원 / (실적) 회원수 135,716명, 수료인원 54,367명

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운영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회의, 교육시 무료대여, 민간기관이 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재소자, 새터민 등)의 교육, 직장인 야간창업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전용교육장을 구비하고 있다. 전용교육장에는 시청각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협회 등의 회의 등에 무료대여로 지역 내 소상공인 간 교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은 최근 3년간('13년~'15년) 47.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평균 93.8%의 가동률로 6,950명에게 교육을 지원하였다.

표 IV-10-1-14 연도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운영 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1년	(예산) 13.0억원 / (실적) 교육인원 4,050명 (성과) 월평균 이용인원 9,686명, 가동률 97.9%
2012년	(예산) 19.3억원 / (실적) 교육인원 3,713명 (성과) 월평균 이용인원 10,757명, 가동률 98.4%
2013년	(예산) 16.2억원 / (실적) 교육인원 2,670명 (성과) 월평균 이용인원 9,541명, 가동률 99.9%
2014년	(예산) 13.4억원 / (실적) 교육인원 2,109명 (성과) 월평균 이용인원 9,038명, 가동률 97.5%
2015년	(예산) 16.2억원 / (실적) 교육인원 2,171명 (성과) 월평균 이용인원 6,846명, 가동률 83.9%

* 가동률 = 이용실적 ÷ (강의실수 × 주 5회)

2)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표 IV-10-1-15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5년 5월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에 의하여 시범사업 추진
2005년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추진
2006년	자영업 컨설팅사업 추진
2015년	소상공인 역량 Jump-Up프로그램 시범추진

소상공인들은 전문가를 통해 인력·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경영전략, 상품 및 메뉴개발 등의 기술전수, 사업정리 및 상사(商事) 분쟁 등에 따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컨설팅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 IV-10-1-16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예산	50	40	59	57	60
일반컨설팅	2,387	2,583	6,886	9,154	4,693
산학협력컨설팅					100
미소금융컨설팅	1,520	1,061	-	-	-
지자체상담창구	3,842	2,599	-	-	-
업종단체컨설팅	18	-	-	-	-
무료법률지원	314	324	364	335	497
현장이동컨설팅	-	-	-	-	-
역량Jump-up					14
총 지원건수	7,959	6,567	7,250	9,489	5,304

2015년에는 교수·컨설턴트의 전문성과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컨설팅을 시행하였고, 위기진단 후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역량Jump-Up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표 IV-10-1-17 상공인컨설팅 지원성과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증가업체비율	58.2%	64.4%	60.4%	65.2%	63.3%
매출증가율	3.8%	4.5%	5.0%	7.1%	7.3%
만족도율	83.5%	86.0%	85.9%	86.2%	86.4%
컨설팅 개선율	89.6%	92.5%	94.7%	94.3%	94.7%

3)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프라 구축과 영업활성화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조합원)의 매출 및 수익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개별 소상공인의 직접지원방식과는 차별화 된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원정책이다.

동 사업은 지난 3년 간('13년~'15년) 918.6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총 1,320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인프라 구축(1,194개)과 박람회 참가 및 조합 간 나눔네트워크 등 판로확대(126개)를 지원하였다.

표 IV-10-1-18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3년	(예산) 407.2억원 / (실적) 협업인프라 구축 433개 지원 (성과)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11% 증가
2014년	(예산) 270.9억원 / (실적) 협업인프라 구축 364개, 판로 10개 (성과)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12.6% 증가
2015년	(예산) 240.5억원 / (실적) 협업인프라 구축 397개, 판로 116개 (성과) 성과 측정 中('16.11월 결과 도출)

동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1단계)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원이 시급한 곳²¹⁾을 선발하여 협동조합으로 육성한 후, (2단계)협업목표 및 추진내용이 명확하며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선정, 공동사업에 필요한 협업인프라 구축 비용(최고 1억원)을 지원하고, (3단계)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외부 전문인력(협업 전문컨설턴트)을 통해 맞춤형 경영지도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여, 조기경영안정 및 조합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1) 대기업침해·소상공인비중·부가가치·생계형 업종 등을 종합 분석하여 (중소기업연구원('12.12)) 음식점, 의류점 등 20개 업종 선정

협업인프라 구축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홍보),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구매,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로 구성되며, 소요되는 사업비의 8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15년 상반기에는 지역별 사업설명회(12회, 1,058명) 개최 및 사업공고(4회), 지역케이블 쿠폰 광고(176,341회), 라디오 광고(60회), KTX 열차 홍보(2,995,920회), 지하철 도어 스크린 홍보(전국 7곳, '15.4.20~6.20), 기획기사 연재(42회), 홍보물 제작 배포(31,000부) 등을 통해 정책성과 공유 및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와 협업컨설턴트 선발(201명) 및 제도개선(지침 개정) 등 협업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다.

하반기에는 발굴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엄정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의 등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해 정책취지(사업체규모, 협업내용 등) 및 성공가능성(사업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이 높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선정·지원하였다.

표 IV-10-1-19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2015.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신청	663	102	45	85	82	67	21	52	41	48	99	21
조합수	548	88	36	78	55	58	14	41	36	40	79	23
지원	397	51	31	66	48	35	10	33	23	23	62	15

또한 선정된 조합들에 대해서는 협업인식제고 교육(1,600명 수료) 및 협업전문컨설팅(5,783회)을 연계지원하여,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13~'15년 지원 조합 중, 매출액 증가 및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황토코리아협동조합 등 55개의 우수 협동조합을 발굴하였고, 해당 조합 등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6년에는 국회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그간 저변 확충 등 양적 확대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기존조합의 사업내실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협동조합 판로 및 협업전문컨설팅 후속지원 등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 황토코리아협동조합 우수사례 〉

- (설립계기) 특허제품 보유 등 제품 경쟁력은 우수하나, 대형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마케팅에 대항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 소상공인협동조합 자원사업을 통해 공동장비,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지원받아 공동사업 추진
- (설립개요) 2014년 / 6명 최초 설립 / 대표자 : 배종문
- (사업효과) 공동장비 도입 등 시설현대화로 품질제고 및 생산량 증대(230%)를 통해 매출액 723% 상승('15년 6억원 추정) 및 고용인원(7명) 창출



4) 나들가게 성과확산

대기업 편의점 및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의지가 있는 골목슈퍼를 정보화·시설현대화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점포로 변화시키고자 2010년부터 ‘나들가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165㎡ 미만의 영세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총 10,011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개 점포 추가 지원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나들가게 지원이 간판교체, POS 설치 등 시설개체 위주로 이루어 졌다면 2014년부터는 상품공급, 공동구매 등 가격 경쟁력과 점포운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6개²²⁾ 기초자치단체를 선발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선도지역 나들가게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비선도지역(9%) 대비 3%p 높게 나타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이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15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나들가게로 지원받은 점포는 매출액이 2,612만원인데 비해 비나들가게는 2,191만원으로 나들가게가 19.2%²³⁾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를 지원받은 점포의 POS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7.08% 상승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0-1-20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전환지원	2,302개	3,005개	4,704개	-	517개	232개	10,760개
사후관리	-	-	-	1,611개	1,807개	1816개	5,234개
지원예산	110억원	215.4억원	334.2억원	34.4억원	56.5억원	68.6억원	819.1억원

22) 2015년도 선도지역 선정 기초자치단체 :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충북 제천시, 제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영월군

23) 「나들가게 운영실태 조사」(’15.12, 한국갤럽)

표 IV-10-1-21 지역별 나들가게 전환 지원 현황

구분	2010년(개)	2011년(개)	2012년(개)	2014년(개)	2015년(개)	합계(개)	비율(%)
서울	339	413	656	64	16	1,472	13.8%
부산	135	136	241	24	4	536	5.0%
대구	139	217	281	10	10	647	6.1%
인천	148	161	280	15	6	604	5.7%
광주	93	155	230	30	2	508	4.7%
대전	70	76	146	15	9	307	2.9%
울산	92	79	106	9	10	286	2.8%
경기	369	564	827	66	47	1,826	17.4%
강원	57	145	274	20	12	496	4.7%
충북	126	156	234	72	15	588	5.6%
충남	115	152	174	24	7	465	4.4%
전북	187	199	329	20	10	735	6.9%
전남	124	167	206	33	15	530	5.1%
경북	168	192	312	46	31	718	7.0%
경남	106	138	296	28	24	568	5.5%
제주	34	55	112	41	14	242	2.4%
전국	2,302	3,005	4,704	517	232	10,528	100.0%

5) 중소기업 공동구매

정부는 기 지원된 1만개 나들가게 등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매점포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유통단계의 축소와 조직화된 단체의 구매력을 통합함으로써, Buying-power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물류센터 운영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 배송

확대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11개 물류센터에 39대의 배송장비 및 35명의 인건비를 지원, 월평균 배송점포수 7.1% 증가하였다. 또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공동구매 및 도매물류 사업을 진행하고자 신규 건립된 물류센터 외 기 건립 물류센터도 병행하여 물류센터 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였다.

표 IV-10-1-2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통합 정보시스템 보급 실적 및 계획

구 분	2013년 실 적	2014년 실 적	2015년 실 적	2016년 계 획	2017년 계 획
물류센터수	2개	1개	7개	10개	10개

더불어 나들가게 및 물류센터 간 POS기반의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은 2013년 100여개 점포에서 200여개 점포로 증가하였고, 통합 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수발주를 통하여 '15년도 1,3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16년에는 물류정보 시스템을 사용 중 또는 사용예정인 물류센터에도 나들가게와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나들가게의 안정적인 상품공급처 확보 및 매입가 절감을 위해 물류센터 외에도 8개²⁴⁾의 민간 상품공급사 운영을 통해 2015년 280억원 규모의 상품을 나들가게에 공급하였다.

6)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음식업, 숙박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과당경쟁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자원제약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성공창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4) 나들가게 상품공급사 : (주)나들리테일, (주)나들커뮤니케이션, (주)아신, aT사이버거래소, 나들쇼핑, (주)더이음, 수협중앙회, 코레일유통(주)

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거나, 가맹점만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계약, 성과 등 6개 범주를 평가한다. 이는 가맹점 보호 중심의 평가체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생발전을 지향하는 평가 제도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맹본부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맞춤형 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준평가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89개의 브랜드를 평가하였고, 이 중 217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다. 2015년에는 47개 브랜드에 대한 수준평가와 510명에 대한 연계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자영업자 또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에 대하여 가맹본부 운영 시스템 개발 지원,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직영점포가 1개 이상으로 업력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5개 업체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수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출점현황, 매출증가율, 고용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1년간 실시하고 있다.

다.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과밀업종인 생계형 업종에서 특화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안정적 폐업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14.9, 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을 위하여 2015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교육, 취업상담·훈련·알선, 전환대출 등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단계→폐업이후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으로 폐업단계에서 폐업절차, 절세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한 ‘사업정리컨설팅’과 취업기본역량을 위한 ‘재기교육’을 지원하고, 폐업이후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계획 수립부터 훈련,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수료하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최대 75만원(소득세 별도)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전환대출’을 지원한다.

2015년에는 총 3,701명에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지원하고, 수료자 중 1,975명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를 발급하여 취업활동을 통해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였다.

2) 재창업패키지

재창업패키지는 과밀경쟁업종인 생계형업종에서 탈피하여 유망업종으로 업종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을 종합해

지원하는 교육으로 2015년도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교육을 통해 재창업 동기 제고, 사업계획과 상품개발 등 재창업 역량을 높이고, 멘토링을 통해 재창업자의 역량에 맞는 적합한 상품개발, 상권분석 등을 지원했다. 2015년 전체 예산은 1,050백만원으로 이를 통해 58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교육 및 재창업 여건이 악화될 바가 있다.

라.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소공인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장과 미비한 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성장전략을 수립 및 전략에 따른 홍보,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성장희망사다리, 숙련기술과 수제명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한 제품·기술가치향상 등 소공인의 기술력 향상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이다.

1)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집적지²⁵⁾ 소공인에게 특화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소공인 단체, 지자체 산하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집적지 소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6개 센터 설치 이후, 2014년에는 8개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 총 24개 센터를 운영하였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하여 소공인 특화교육, 공동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특화사업을 수행 중이며, 소공인에 대한 상담 및 정책서비스 추천 등의 센터운영으로 소공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25)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

표 IV-10-1-23 연도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현황

사업실적 \ 사업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운영센터수	6개	8개	24개
지원예산	1,853백만원	2,732백만원	8,870백만원
수혜자수	739	2,233	3,416

2016년에는 추가적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공인 수출 역량 강화, 집적지 고용확대 등 보다 특화된 소공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그림 3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우수사례(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서,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집적지 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 공동생산·연구장비 시설, 공용장비·운영시설, 공동전시·판매장 등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5년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들의 관할지역 중 최종 5개 집적지(서울 2개, 대전 1개, 부산 2개)에 공동장비실, 공동전시장, 공동창고, 홍보관 등을 설치하였다.

5개 공동인프라는 개소 후, 집적지 소공인들의 공동브랜드 등을 통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소공인들의 조직·협업화를 촉진하고,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소공인들의 생산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특화지원센터 관할 집적지 내 공동인프라를 5개 내외 추가설치 하고, 신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과 연계된 공동인프라 사업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표 IV-10-1-24 '15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

시설명	인프라 구축현황
서울 창신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장비실·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재단실, 장비실, 전시장, 교육실, 사무실 • (장비) 봉제장비, 연단기, CAD/CAM, 사무집기 등
서울 석관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전시장, 상담·회의실, 사무실 • (장비) 전시장비, CAD/CAM, 빔프로젝터 등
대전 정동 인쇄 소공인 공동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동창고, 교육실, 사무실
부산 범천동 귀금속 소공인 공동장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파괴분석기, 용접기, 3D프린터, 3D캐드 등
부산 범천동 수제화 소공인 제품홍보관·장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전시장, 상담·회의실 • (장비) 전시장비, 촬영장비, 3D프린터, 사무집기 등

3) 소공인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규모 제조업체를 발굴·지원하여 우수 제조업체로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자사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개년 기업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전시·박람회 참가, 방송·지면광고, 홍보동영상제작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판로개척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처음 실시하여 전국의 유망 소규모 제조업체 209개사를 선정·지원 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 전 대비하여 월평균 매출 10.4%, 고용 13.1%가 증가 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자사제품을 직접제조하기 보다는 OEM·ODM 생산하거나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신제품을 개발하여도 판로가 없어 사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동 사업으로 자사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사업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습득한 소공인의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공인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보유 기술·제품의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3단계의 단계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단계) 아이디어가 있는 소공인이 보유한 기술·제품 수준 및 성장가능성을 진단한 후, (2단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3단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절차로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 그 결과, 2015년 처음 실시하여 97개 소공인을 선정·지원하여 지원 전 대비 월평균 매출은 9.2%, 고용은 12.3%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마케팅, 온누리 상품권, 상인교육 및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시장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시장마케팅

가) 공동마케팅

공동마케팅은 지원대상 시장에 세일·경품행사, 각종 이벤트, 홍보사업, 고객참여행사, 공동쿠폰 사업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점검 및 집행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마케팅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장에 전파하였다.

표 IV-10-1-25 공동마케팅 및 그랜드세일 지원실적

(단위 : 곳,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개수	200	284	222	222	460	236	712
지원예산	2,530	3,992	3,149	3,367	6,036	2,670	6,477

그랜드세일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시기인 여름철 및 추석, 김장철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권을 지급하고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기타 경품을 지급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신규로 지원하여 2년간 진행한 사업이다. 2014년 여름에 169개 추석에는 167개, 김장철에 180개의 시장이 참여하였고 온누리 상품권, 경품, 홍보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액과 고객수를 증가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그랜드 세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전국 487개 전통시장도 동참하여 매출액 및 고객수가 향상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청년재능기부사업은 시장 인근 청년 동아리와 시장을 연계하여 시장에 공연, 벽화 그리기, 디자인 소품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신규로 지원한 사업이다. 49백만원의 예산을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29곳 시장에 37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50백만원의 예산으로 80곳 시장에 100개 동아리를 매칭하여 전통시장 인식 제고 및 젊은 고객 유입 증대 등 전통시장의 장기적인 유지·발전에 기여하였다.

나) 전통시장홍보

① 전통시장 이용촉진 홍보 및 시장종합정보지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언론홍보는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인지도 및 시장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2009년) 배포18건 노출429건, (2010년) 배포37건, 노출708건, (2011년) 배포15건, 노출 375건, (2012년) 배포48건, 노출 604건, (2013년) 배포66건, 노출 1,078건, (2014년) 배포71건, 노출 867건, (2015년) 배포334건, 노출 1,634건

시장종합정보지 발행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과 사업관련 소식을 ‘시장’이라는 월간 소식지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 전통시장, 정부부처, 의원실 등에 월 4만부를 배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람할 수 있게 하였다.

표 IV-10-1-26 시장종합정보지 연도별 발행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행횟수 및 부수	24회, 총96만부 (격주 회당4만부)	24회, 총120만부 (격주 회당5만부)	24회, 총144만부 (격주 회당6만부)	20회 총 120만부 (격주 회당 6만부)	20회 총 120만부 (월 1회 6만부)	10회 총 40만부 (월 1회, 4만부)	10회 총 40만부 (월 1회, 4만부)

② 1시장1특색 전통시장 홍보

전통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시장별 특색있는 스토리를 일간지 및 TV방송 등에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전통시장 활성화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홍보사업으로, 주요언론에 고정적으로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및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 (2014년) 기획홍보 20건, TV방송 10건, (2015년)기획홍보 20건, TV방송 10건

표 IV-10-1-27 1시장1특색 전통시장 홍보 연도별 추진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추진실적	언론기획 20회, 방송 10회	언론기획 20회, 방송 10회

③ 명절 TV광고

명절TV광고 사업은 변화하는 전통시장의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통해 매출 증대 및 고객 집객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되었다.

실제 생활사례를 들어 변화된 전통시장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40초 광고를 활용하여 추석명절에 집중 송출하였다. 명절은 제수용품 구입 등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2015년도 명절 TV광고는 9월 11일~27일(17일간) 지난 영상을 활용하여, KBS·MBC·SBS에 15회, 종편에 62회, 케이블에 41회를 송출하였으며, IPTV 및 KTX에 710,597회를 송출하는 등 총 710,715회를 송출하였다.

④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방 방송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전통시장의 변화 모습, 최신 소식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인식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국비 785백만원을 투입하였다.

OBS, G1, TJB, CJB, JTV, KNN, UBC, KBC, JIBS 등 9개 민간방송사를 활용하여 총 267편을 제작하여 송출하였다.

⑤ 6시 내고향

전국 각 지역 전통시장의 특성 및 상품을 지상파 TV를 통해 홍보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5년도 6시 내고향은 KBS1TV 6시 내고향에 1월~12월(12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18:00~18:55분(55분) 동안 방영되었으며, 코너명은 ‘복적 복적 장터한 바퀴’, ‘우리 시장 홍보 CF를 만들어라’, ‘김종하가 간다!’로 구성되어 총 50편이 제작·송출 되었다.

표 IV-10-1-28 6시 내고향 연도별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제작 및 송출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2)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동상품권인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2009년 7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공동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였다. 2009년 200억 발행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381억을 발행해 8,607억을 판매했으며(발행누적 2조 6,241억, 판매누적 2조 4,006억) 1,312개 시장과 179천개 점포가 가맹하였고, 전통시장 관로확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발행(5·10만원 기명식, 충전식)하여 온라인 전통 시장관(우체국 전통시장 등 7곳)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구입확대로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은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표 IV-10-1-29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사업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발 행 액	200억원	900억원	2,350억원	4,000억원	5,000억원	6,360억원	7,381억원
판 매 액	105억원	753억원	2,224억원	4,258억원	3,258억원	4,801억원	8,607억원
가맹시장	739개	912개	1,023개	1,202개	1,249개	1,284개	1,312개
지원예산	13억원	32억원	64억원	149억원	321억원	360억원	731억원

3)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가) 상인교육

경쟁력 있는 선진상인을 육성하는 상인대학, 전통시장 선진화를 선도할 상인지도자를 육성하는 상인대학원, 시장 및 점포의 의식혁신을 촉진하는 맞춤형교육, 스마트폰 및 PC를 이용한 SNS마케팅기법 등을 교육하는 ICT 교육, 해외 우수시장 및 점포를 찾아가 시장 및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법을 체득하는 선진시장탐방, 정부지원정책 설명회, 상인대학 졸업생

및 상인대표 등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워크숍, 전통시장에서 창업 또는 가업승계를 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도입해온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아카데미의 교육을 확대 및 강화하여 전통시장 내 창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표 IV-10-1-30 교육형태별 지원실적 및 지원예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교육과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교육인원	42,156	41,736	39,178	38,698	32,673	
지원예산	4,210	3,656	3,579	3,428	3,265	
상인대학원	250	175	94	127	231	
상인대학	10,000	10,103	12,085	9,469	7,671	
맞춤형	특강	11,000	9,670	20,976	17,787	16,311
	단기	4,500	3,286			
ICT교육(정보화)	9,350	9,979	3,638	8,374	5,826	
선진시장탐방	756	372	250	226	95	
워크숍	2,100	1,656	2,135	2,580	2,389	
청년상인아카데미	-	-	41	135	150	
시장지원교육	4,200	6,495	-	-	-	

나) 상인조직역량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 육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장 상인회에 행정·유통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시장매니저’ 인건비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상인회의 업무 수행능력 배양, 상인회 가입률 증대, 공동사업추진 역량을 강화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표 IV-10-1-31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장수(개)	84	69	127	144	143
시장매니저(명)	84	69	129	145	145

다) 성과평가 및 실태조사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상인조직, 매출액 등 일반 및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15년 전통시장 수는 1,439개로 전년 대비 41개가 증가하였고,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은 4,8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승인 제2013-776호)

표 IV-10-1-32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단위 : 개, 명, 만원)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통시장수	1,283	1,347	1,372	1,398	1,439
점포수	186,192	194,750	203,036	203,643	207,083
총 상인수	328,570	333,485	334,370	353,070	356,176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5,138	4,755	4,648	4,672	4,812

* 2011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미 실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인 매출액 증감 여부를 정부 지원을 받은 실시시장과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미 실시 시장으로 구분해 공표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2015년 실시시장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1,436원이 증가하여 665원 증가에 그친 미 실시 시장에 비해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V-10-1-3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단위: 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실시시장	494,392	555,828	61,436	12.4
미 실시시장	197,800	198,465	665	0.3

라)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전통시장의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전국 1,536개 전통시장의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관련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상인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상인회 및 관할 지자체와 공유하여 자율개선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개·보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및 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IV-10-1-34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예산 및 대상시장 수 (단위 : 천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계획)
사업예산	445,000	1,220,000	2,972,000	2,972,000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 2016년부터 전국 전통시장(1,536개) 대상으로 2년 단위 주기적인 점검 실시

마) 시장활성화컨설팅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 및 개별점포 활성화를 지도할 전문가를 시장·상점가·점포에 파견하여 경쟁력 있는 점포육성을 위한 선진 경영기법을 보급하였다. 시장자문은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사전컨설팅을 통한 예산절감·효율성증대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고, 점포지도는 개별 점포의 고객만족도 향상과 매출액 증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표 IV-10-1-35 자문·지도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문위원(명)	182	194	104	64	363	216
지도위원(명)	51	58	111	89	89	44

표 IV-10-1-36 자문(컨설팅) 및 점포 지도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장자문(건)	145	188	235	286	352	129	278	296
점포지도(건)	635	658	650	662	606	977	483	478

4) 상권활성화

지역상권 자체가 위축될 경우, 개별 시장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성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 6곳을 시범구역으로 지정, 2013년까지 지원했으며 2014년 신규구역을 새로 선정해 2016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 특화 거리 조성, 핵심점포 유치, 대표 캐릭터 개발 및 문화축제 개최 등이 있다.

표 IV-10-1-37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수

구 분	시범구역('11~'13)	신규구역('14~'16)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수	6곳	6곳

- * 시범구역 : 서울 마포 도화용강 상점가 활성화구역, 경기 성남 수정로활성화구역, 강원 동해 활성화구역, 충북 청주육거리·성안길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점가, 경남 창원 오동동어시장 상권
- * 신규구역 : 경기 성남 산성로활성화구역, 경기 의정부 구도심 활성화구역, 충남 부여도심 활성화구역, 전남 순천 원도심 활성화구역, 울산 울주 연양시장 일원 활성화구역, 부산 해운대 활성화구역

5) 특성화시장

가) 문화관광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전통문화 체험장 설치, 관광 상품 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신규시장 33개, 계속시장 48개를 선정하여 시장브랜드 구축, 지역 관광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으로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10-1-38 문화관광형시장 지원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지원시장 수	4곳	6곳	8곳	6곳	15곳	32곳	23곳	33곳	22곳	149곳

표 IV-10-1-39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중점사항 변경내역

시행시기	내 용
'08~'09	시설현대화 사업과 혼합하여 하드웨어 위주
'10~'12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장터 공연단, 시장라디오 등 소프트웨어 사업위주
'13~'15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ICT 및 디자인 융합 등 휴먼웨어 중심

나) 글로벌명품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융합하여 세계인이 필수 관광코스로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고유전통·한류체험, 안내·통역·환전 서비스, 사후면세점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처음 6개 시장을 선정하고 2016년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추진 중이며, 시장별 특화된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표 IV-10-1-40 글로벌명품시장 지역별 선정시장

구 분	'15년 선정시장	'16년 선정시장
지원시장 수	6곳	4곳

- * '15년 선정시장 : (서울)남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대구)서문시장, (청주)육거리시장·성안길상점가, (전주)남부시장, (제주)동문시장연합
- * '16년 선정시장 : (서울)동대문시장연합, (부산)자갈치시장, (수원)남문시장연합, (안동)안동구시장연합

글로벌명품시장 우수사례



남대문시장



대구서문시장

다) 골목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 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전통시장 내에 다양한 살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특화시키고, 신규상품 개발 및 디자인과 ICT의 융합,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이벤트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10-1-41 골목형시장 연차별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예정)
시장 수	73곳	68곳	59곳

6) 전통시장 ICT 기반조성

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는 차별화된 장보기도우미서비스와 배송서비스를 맞벌이 가정, 초보주부, 노년층,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보기도우미인력, 배송인력, 콜센터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49개, 2014년도에는 70개, 2015년도에는 82개 시장에 지원하여 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IV-10-1-42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시장 선정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시장 수	49개	70개	82개
지원예산	678백만원	1,406백만원	1,594백만원

나) ICT 전통시장

ICT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이 가진 콘텐츠(상품, 문화)와 ICT의 융합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마케팅혁신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장 내 고객 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ICT카페구축, 모바일POS보급, 스마트전단지·쿠폰발급 시스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ICT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젊은 고객 유치 등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10-1-43 ICT전통시장육성사업 선정 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계획)
ICT전통시장 지원수	89개	131개	130개

7) 전통시장 대학협력

전통시장-대학협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융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둘째로, 대학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쇠퇴한 전통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15년 6월 처음으로 전국 22개 전통시장과 대학(상인(36,120명)과 학생(3,766명)이 참여하여 시장특화상품 개발, 컨설팅(교육), 조사연구, ICT(홈페이지, 웹, 앱) 개발, 공연행사,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주요 대학(동국대, 상명대, 청운대, 서원대, 교통대, 금오공대, 남부대)에서 2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V-10-1-44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대학명	지식재산권 구분					합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	
동국대	1	1	2	1	-	4
청운대	-	-	2	-	-	2
상명대	-	4	-	-	-	4
서원대	1	2	-	-	-	3
한국교통대	-	2	-	-	-	2
금오공대	-	3	1	-	-	4
남부대	-	1	2	-	-	3
합계	2	13	7	1	-	23

8) 전통시장진흥센터 구축

전통시장 진흥센터는 지역 전통시장 종합지원공간(일명, '전통시장 진흥센터') 구축을 통한 상인들 간 커뮤니티 운영 공간 제공으로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시장 진흥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 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선정하며, 2015년 처음 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대구 광역시에서 전통시장 진흥센터를 구축 중 이다.

바.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체감 및 예상경기를 파악하여 정보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용자 지원업체 사전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효과,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1) 정보인프라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별 일대일 정책, 창업·경영 등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일원화된 ‘소상공인 통합지원플랫폼’으로 개편 (sbiz.or.kr)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40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체계



2015년에는 소상공인방송, 상권정보, 소상공인지원알리미 등 3종의 앱을 하나로 통합한 ‘소상공인마당 앱’을 ‘15년4월부터 제공하여 3분기만에 26,240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교육, 컨설팅, 방송 등 개별 사이트의 유기적 연계·통합에 따른 편의성 증대로 이용자수가 2014년 96,761명에서 2015년 115,966명으로 전년대비 19.8% 상승하였다.

표 IV-10-1-45 '15년 소상공인마당 앱 다운로드 현황

구 분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안드로이드	9,538	4,944	7,544	22,026
IOS	-	2,620	1,594	4,214
총 다운로드 건수	9,538	7,564	9,138	26,240

* (안드로이드) '15.4.14, (IOS) '15.9.8 부터 제공

소상공인지원정책 및 지식정보를 통합공간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적시 제공함으로써 종합정보시스템 2015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이상)는 누적 15.4%, 전년대비 5.6%p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10-1-46 종합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자 만족도	74.7%	84.5%	90.1%

2016년에는 검색기능 개선 및 맞춤형 정보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고도화 및 개인별 맞춤형정보 제공을 위한 모델링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모바일서비스 확대 및 가독성 강화를 통하여, 웹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기능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확대, 푸시알림 서비스, 실태조사 등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를 인포그래픽스화하여 제공 및 개발할 계획이다.

2) 소상공인 네트워크구축

가) 전국소상공인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7년부터 매년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5 전국소상공인대회’는 2015년 9월 11일, 경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58점의 포상을 수여하였다.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및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등과 공동 개최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행사 참가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업체를 홍보하고, 매출증대와 판로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나)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우수기술을 발굴 및 전파하고,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를 2013년 신규로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떡류, 맞춤형복, 화원, 이용, 네일, 분장, 제과 등 총 7개 부문을 선정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3,249명의 소상공인 및 일반인이 경진에 참가하고, 약 112,020여 명의 일반시민이 참관했다. 메인행사로는 소상공인 기능경진이 이루어졌고, 부대행사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체험행사, 쇼, 판매,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다) 협력기반 조성

소상공인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정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 정보지 ‘소상공인場’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연간 총 4회, 웹진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온·오프라인 형태 모두 발간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소상공인 업종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는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체감 및 예상경기를 파악하여 정보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14204호, 2001년)

표 IV-10-1-47 그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상공인	2,010개	2,010개	3,200개	3,200개	2,000개	2,200개
전통시장	1,024개	1,146개	1,300개	1,306개	1,000개	1,000개

* 기존 각각 실시하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 경기동향조사를 2014년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로 통합

소상공인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주요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의 체감경기 및 예상경기 등을 조사한다.

전통시장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소매업 및 근린생활 서비스업 등 주요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 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구매고객수의 체감 경기 및 예상경기 등을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매월 18~22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이다.

표 IV-10-1-48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구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소상공인	체감	51.1	60.0	60.4	66.7	66.3	43.5	64.2	63.0	69.0	71.4	63.2	59.6
	예상	84.2	77.5	118.4	93.3	83.9	75.5	66.0	79.9	94.1	98.3	90.4	84.2
전통시장	체감	66.8	92.5	62.4	62.5	69.8	29.4	63.9	61.9	79.5	65.5	76.0	62.3
	예상	90.6	107.5	101.7	98.6	85.7	74.2	56.5	80.9	106.7	87.0	100.2	91.9

나)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시장 종합대책 수립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학술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상가권리금 거래행태 실태조사’, ‘광역물류통합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절차도 구축 연구’,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현황 및 분석’, ‘해외 주요국의 소상공인 정책동향 조사’, ‘소상공인·전통시장 통계 기반 구축’ 등의 기초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시장 관련 현안문제 대응을 위하여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 경영실태 조사’, ‘소상공인 개념 및 범위기준 검토 연구’, ‘소상공인 과밀업종 해소방안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정부의 시의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발굴 및 개선’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4)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금리 정책 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는 자금의 정책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10-1-4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단위:개사,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지원업체	15,881	15,128	25,502	29,825	44,233	130,569
지원금액	4,450	5,050	9,345	10,305	14,939	44,089

20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 대상 조사결과²⁶⁾,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60.2%, 고용증가율은 4.35%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 중소기업연구원, 2015.11

가) 성장기반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창업, 사업전환, 소공인 등 소상공인 성장단계 및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 초기 시장안착, 사업전환 및 재도전,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은 2012년 신설되어 2015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는 소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한다.

표 IV-10-1-50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2015년)

(단위: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15	5,576	15,833	8,962	12,226	5,576	100.0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이자부담 경감, 재해피해 긴급 자금 지원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 등 경기회복을 위해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을 긴급 조성하여 5,738개 업체에 1,95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V-10-1-51 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2015년)

(단위: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15	12,519	46,209	17,671	32,007	9,363	74.8

제11장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1 일반현황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이하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부가 설립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모태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이 결성하는 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이다. 2009년까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천억원,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재정 4천억원으로 총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성 이후 기존 출자자의 추가 출자금 납입 및 신규 출자자의 참여(영화진흥위원회,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체육진흥공단)를 통해 2015년말 기준 모태펀드 규모는 2조 2,302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운용기간은 30년이며, 회수된 자금은 재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만을 투자하는 전용재원 풀(Pool)에 넣어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해져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 중소기업청이 위탁하는 부수사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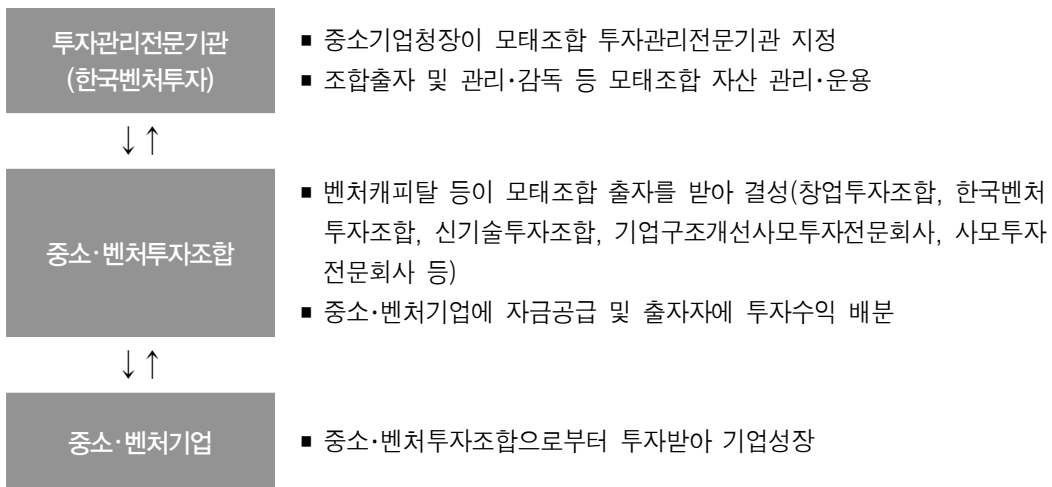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모태조합 운용

1) 운용체계

중소기업청장은 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조합에 대한 출자 및 관리를 담당한다.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모태조합을 비롯한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합을 결성, 기업가치 제고 및 성장 도모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표 IV-11-1-1 모태조합 운영 체계



2) 운용성과

모태조합 출범 이후 벤처투자시장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3년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대책 시행,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2015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IV-11-1-2 벤처투자 자원조성 및 신규조합결성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투 자 재 원	886,820	105,175	115,835	132,990	154,577	1,395,397
신규조합 결성	134,129	8,228	15,679	25,382	26,260	209,678

주) 자료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5 KVCA YEARBOOK)

표 IV-11-1-3 한·미 신규 벤처투자 추이

(단위 : 억원, \$M)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한국(억원)	91,699	12,333	13,845	16,393	20,858	155,128
미국(\$M)	292,616	27,578	29,964	48,349	59,065	457,572

주) 자료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5 KVCA YEARBOOK, 벤처캐피탈 Newsletter 2015 4분기)

모태조합 운용을 통해 구조합에 종자자금(Seed Money)을 제공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 민간중심의 벤처투자 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성과(Track record)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선진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나. 모태조합 운용성과

1)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

모태조합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계정/지방계정/엔젤계정), 문화산업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계정, 관광계정), 특허특별회계(특허청, 특허계정), 영화진흥기금(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정), 방송통신기금(미래창조과학부, 미래계정), 보건복지부(보건계정), 고용노동부(중진계정),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계정) 등에서 출자를 받아 2015년 까지 2조 2,302억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표 IV-11-1-4 모태펀드 자원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중진계정*	8,606	25	325	625	1,520	11,101
엔젤계정	90	700	500	300	500	2,090
문화계정**	3,220	400	300	200	541	4,661
미래계정	100			500	500	1,100
영화계정	170	50	100	100	100	520
특허계정	1,430				170	1,600
보건계정			200	300	300	800
지방계정				100		100
관광계정					130	130
스포츠계정					200	200
계	13,616	1,175	1,425	2,125	3,961	22,302
누 계	13,616	14,791	16,216	18,341	22,302	

* 고용노동부(일반회계) 출자 100억원 포함

** 영화진흥기금 1,100억원 포함

2005년~2015년까지 418개 조합에 3조 4,007억원을 출자 약정해 총 12조 7,753억원 규모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자재원을 조성하였다.

표 IV-11-1-5 모태조합 출자 계정별 구조합 결성 현황

(단위 : 억원)

선정 년도	2011년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중진	159	51,679	10,883	16	4,098	1,318	46	20,721	4,514	30	9,937	2,316	28	9,751	2,457	279	96,186	21,488
엔젤	1	100	90	7	770	700	3	530	500	1	320	300	5	364	320	17	2,084	1,910
문화	40	8,327	2,975	3	625	368	4	765	480	5	1,871	890	5	988	450	57	12,576	5,163
미래	2	200	100							5	1,063	505	3	728	205	10	1,991	810
영화	3	370	170	1	100	50	1	150	100	1	170	100	1	240	140	7	1,030	560
특허	22	5,232	1,722	3	1,461	245	2	700	200	4	1,460	380	3	350	200	34	9,203	2,747
보건							1	1,000	200	2	1,850	300				3	2,850	500
지방										2	200	100	4	468	200	6	668	300
관광													1	220	130	1	220	130
스포츠													2	385	200	2	385	200
공동*													2	560	200	2	560	200
계	227	65,908	15,939	30	7,054	2,681	57	23,866	5,994	50	16,871	4,891	54	14,054	4,502	418	127,753	34,007

* 공동은 문화-ICT융합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중진 및 문화, 미래계정에서 각각 50억원, 50억원, 100억원 출자

모태조합의 출자 약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투자조합에 민간투자자금의 참여를 유도, 3.8배의 승수효과로 12조 7,753억원 규모 투자조합을 결성하였다.

표 IV-11-1-6 모태조합 출자금의 투자승수 효과

(단위 : 억원)

연 도	모태조합 출자액(A)	결성 총액(B)	투자 승수(B/A)
2011년 이전	15,939	65,908	4.1
2012년	2,681	7,054	2.6
2013년	5,994	23,866	4.0
2014년	4,891	16,871	3.4
2015년	4,502	14,054	3.1
계	34,007	127,753	3.8

2) 취약분야 지원강화

2005년~2015년 간 모태조합 출자액의 28%를 출자심사 시 가점부여, 출자한도 및 성과보수 우대 등을 통해 창업초기기업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의 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지원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청년창업 및 엔젤투자펀드 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창업초기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11-1-7 모태조합 취약분야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초기지원	34	2,563	15	1,318	17	1,855	9	1,190	14	1,370	89	8,296
지방,여성	14	698					3	160	5	300	22	1,158
계	48	3,261	15	1,318	17	1,855	12	1,350	19	1,670	111	9,454

아울러 세컨더리, 해외진출 M&A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더불어 창업초기기업 또는 M&A분야에 대한 투자 실적이 우수하거나, 외자를 유치하거나, 조합 운용실적이 우수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선정 우대하는 방향으로 조합 특성에 맞도록 운용하고 있다.

3) 중소벤처기업의 고용창출 및 경영개선 효과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조합에 출자를 통해 일자리창출 및 중소벤처기업의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모태조합 출자조합의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삼일회계법인) 2014년말 현재 모태조합 출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4.91%로 전년 8.19%에 대비하여 큰 폭의 고용증가가 이뤄졌다. 또한 2014년말 현재 모태조합 출자조합 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9.1%, 총자산증가율은 27.92%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4.4%, 4.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중소벤처기업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국벤처투자는 2013년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따라 누적 742억원을 출자하여 DFJ(미국)·FortuneLink(중국) 등 글로벌 우수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해외VC 외자유치펀드를 총 7,946억원 규모로 조성하였다. 9개 자펀드에서 총 4,76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여 출자금액 대비 6.4배 외자유치 효과를 누렸으며 또한 해외VC 외자유치펀드의 국내 기업 투자금액은 1,498억원으로 모태 출자금액 대비 2배의 투자유치 효과를 시현하였다.

5)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및 선진화 유도

한국벤처투자는 구조합 운용사 선정시 단순 재무적 평가보다 운용팀 및 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우선손실충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벤처캐피탈의 선진화와 활성화 지원 방향으로 심사방법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창업초기, 청년창업, 여성기업 등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0%로 낮추고 모태조합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초과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운용사와 타출자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 본연의 모험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 달성시 성과보수를 확대하는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초기기업 및 신주 보통주 투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유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구, 한국정책금융공사)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펀드를 총 2,270억원 규모로 결성한데 이어 2015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이끌어내 한국전력 모펀드를 총 260억원 규모로 결성하였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포트폴리오 기업과 벤처캐피탈 상호 간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Start-up Korea 행사를 개최하여 벤처산업 발전 유공자(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벤처기업 등)에 대한 표창을 통해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있다.

6) 투자자산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한국벤처투자는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시장감시실로 확대 개편하여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모태조합에서 출자한 조합은 수탁기관을 통해 운용·관리하여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도모하고, 투자계약서 및 투자금실사 결과 점검, 중간점검, 해산 실사 등을 통해 투자재원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조합과 운용사의 이슈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에 힘쓰고 있다.

자조합 운용사 리스크 관리 담당자 워크숍, 회계감사인 워크숍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국내 전 창투사를 대상으로 투자역량 및 경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창투사 평가결과는 모태조합 출자선정 심사와 벤처캐피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반영 등에 활용하고 있다.

		
<p>2015 TIPS 창업타운개소 (2015. 7. 14)</p>	<p>2015 벤처투자 비전선포 (2015. 7. 14)</p>	<p>2015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 (2015. 12. 10)</p>

제12장 중소기업은행

1 일반현황

IBK기업은행은 척박한 환경에서 근대화와 산업화의 염원을 등에 업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토대 마련을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다. 근대화가 시작되었던 1960~1970년대에는 설비자금 공급에 주력하며 중소기업의 시설확장에 기여하였고, 1980~1990년대에는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기업과 창업기업 등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왔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혁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종합금융기관으로 발돋움 하였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역할은 위기 때마다 크게 부각되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절정이었던 2009년에는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순증의 절반이상을 IBK기업은행이 도맡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이 감소하는 동안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5조원 이상 확대하며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IBK기업은행은 저금리 환경과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여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이익과 건전성을 개선하여 중소기업금융시장의 1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기술금융, 문화콘텐츠금융, 핀테크 등 창조금융을 주도하며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IBK기업은행은 2015년 말 기준 총자산 226조원, 당기순이익 1조 239억원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자금조달

2015년 말 IBK기업은행의 자금조달 잔액은 2014년 말에 비하여 18조 310억원 (8.7%) 증가한 225조 9,615억원을 기록했다.

자금조달 잔액을 재원별로 보면, 예수금이 특히 크게 증가했는데 전년 말 대비 9조 5,199억원 증가하며 잔액이 91조 9,383억원으로 늘어났고, 구성비는 40.7%로 상승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4조 5,285억원 증가한 78조 2,734억원, 차입금은 1조 7,158억원 증가한 24조 8,147억원, 자본은 1조 4,869억원 증가하며 16조 7,695억원을 기록했다. 그밖에 기타 재원도 7,800억원 증가하며 잔액이 14조 1,656억원으로 늘었다.

자금조달의 잔액별 구성비는 예수금 40.7%, 중소기업금융채권 34.7%, 차입금 11.0%, 자본 및 기타 부문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1-1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말		2015년 말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 수 금	82,418,474	39.6	91,938,338	40.7	9,519,864
중 소 기 업 금 용 채 권	73,744,891	35.5	78,273,390	34.7	4,528,499
차 입 금	23,098,879	11.1	24,814,663	11.0	1,715,784
(정부 및 기 금)	(12,067,033)	(5.8)	(11,686,470)	(5.2)	(△380,563)
(한 은 등 기 타 차 입)	(11,031,846)	(5.3)	(13,128,193)	(5.8)	(2,096,347)
자 본	15,282,598	7.4	16,769,516	7.3	1,486,918
기 타	13,385,575	6.4	14,165,550	6.3	779,975
계	207,930,417	100.0	225,961,457	100.0	18,031,040

나. 자금공급

2015년 중 IBK기업은행은 공급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7조 8,333억원 증가한 66조 7,221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대출금이 7조 9,102억원 증가하며 크게 늘었지만 투자가 769억원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15년도 말 대출잔액은 2014년 대비 11조 4,820억원 증가한 163조 1,939억원, 투자 잔액은 97억원 감소한 3,671억원을 기록했다.

표 IV-12-1-2 자금공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급			잔 액		
	2014년 중	2015년 중	증감(△)액	2014년 말	2015년 말	증감(△)액
대 출 금	58,757,038	66,667,215	7,910,177	151,711,996	163,193,948	11,481,952
투 자	131,826	54,914	△76,912	376,888	367,140	△9,748
계	58,888,864	66,722,129	7,833,265	152,088,884	163,561,088	11,472,204

1) 지원대상별 대출현황

2015년 중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금으로 49조 455억원을 공급하였고 39조 334억원을 회수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자금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26조 1,116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77.3%를 차지했다.

가계자금대출은 15조 408억원이 공급되었고 13조 8,165억원이 회수되면서 잔액은 2014년 말 대비 4.3% 증가한 29조 7,798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18.2%를 차지했다. 또한 대기업 및 공공 기타 부문대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2015년 말 기준 7조 3,025억원을 기록했다.

표 IV-12-1-3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말		2015년 중		2015년 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중 소 기 업 자 금	116,099,472	76.5	49,045,477	39,033,353	126,111,596	77.3	10,012,124
가 계 자 금	28,555,548	18.8	15,040,809	13,816,532	29,779,825	18.2	1,224,277
대기업 및 공공기타	7,056,976	4.7	2,635,843	2,390,292	7,302,527	4.5	245,551
계	151,711,996	100.0	66,722,129	55,240,177	163,193,948	100.0	11,481,952

2) 재원별 대출현황

2015년 중 공급액 기준 재원별 대출 실적은 금융자금이 63조 73억원으로 총 대출 공급액의 94.4%를 차지했고 기금 및 재정자금이 3조 5,004억원으로 5.2%였으며, 외화자금은 2,144억원으로 나머지 0.3%를 차지했다.

2015년도 말 잔액기준 재원별 대출금 잔액은 금융자금이 150조 7,411억원으로 총 대출금의 92.4%를 차지하며 비중이 확대됐고 기금 및 재정자금이 11조 1,150억원으로 6.8%, 외화자금이 1조 3,378억원으로 0.8%를 차지했다.

표 IV-12-1-4 재원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말		2015년 중		2015년 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금 용 자 금	138,558,092	91.3	63,007,298	50,824,287	150,741,103	92.4	12,183,011
기 금 및 재 정 자 금	11,456,793	7.6	3,500,430	3,842,189	11,115,034	6.8	△341,759
차 관 자 금	-	-	-	-	-	-	-
외 화 자 금	1,697,111	1.1	214,401	573,701	1,337,811	0.8	△359,300
계	151,711,996	100.0	66,722,129	55,240,177	163,193,948	100.0	11,481,952

가) 금융자금대출

IBK기업은행 대출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금융자금의 2015년도 말 잔액은 150조 7,41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조 1,830억원이 증가하였다. 금융자금 대출의 잔액 구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금이 114조 1,675억원으로 총액의 75.7%,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은 36조 5,736억원으로 총액의 24.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12-1-5 금융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말		2015년 중		2015년 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중 소 기 업 자 금	103,594,749	74.8	45,418,384	34,845,675	114,167,458	75.7	10,572,709
일 반 자 금	34,963,343	25.2	17,588,914	15,978,612	36,573,645	24.3	1,610,302
계	138,558,092	100.0	63,007,298	50,824,287	150,741,103	100.0	12,183,011

나) 기금 및 재정자금대출

2015년 말 현재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의 잔액은 11조 1,150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418억원 감소하였다. 대출잔액 구성을 살펴보면, 온렌딩자금이 4조 7,71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42.9%)을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2조 7,392억원(24.6%), 지방구조조정 자금이 1조 9,032억원(17.1%), 에너지융합리화기금이 5,887억원(5.3%), 환경 정책자금이 2,791억원(2.5%),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이 2,647억원(2.4%)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2-1-6 기금 및 재정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말		2015년 중		2015년 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온 렌 디 ง 자 금	4,329,441	37.8	1,865,550	1,423,319	4,771,672	42.9	442,23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328,238	29.1	471,985	1,061,057	2,739,166	24.6	△589,072
지 방 구 조 조 정 자 금	2,310,012	20.2	552,514	959,327	1,903,199	17.1	△406,81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90,942	4.3	170,560	72,777	588,725	5.3	97,783
환 경 정 책 자 금	225,292	2.0	105,952	52,141	279,103	2.5	53,81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229,882	2.0	84,625	49,762	264,745	2.4	34,863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92,686	0.8	51,353	16,369	127,670	1.1	34,984
무 역 기 금	75,746	0.7	24,263	20,994	79,015	0.7	3,269
정 보 통 신 진 흥 기 금	72,311	0.6	26,363	21,755	76,919	0.7	4,608
소 상 공 인 지 원 자 금	0	0.0	73,145	902	72,243	0.6	72,243
중전기기술개발기금	32,835	0.3	4,900	8,312	29,423	0.3	△3,412
고 용 창 출 지 원 사 업	3,806	0.0	22,255	913	25,148	0.2	21,342
동물용의약품산업지원자금	9,892	0.1	10,961	862	19,991	0.2	10,099
대 체 산 업 육 성 기 금	15,625	0.1	6,060	2,157	19,528	0.2	3,903
축 산 발 전 기 금	16,753	0.1	7,040	7,153	16,640	0.1	△113
직업능력개발시설자금	12,475	0.1	3,722	469	15,728	0.1	3,253
가 스 안 전 관 리 기 금	15,721	0.1	2,617	3,677	14,661	0.1	△1,060
고 용 보 험 기 금	19,534	0.2	446	5,399	14,581	0.1	△4,953
민간병원재정시설자금	13,418	0.1	0	2,341	11,077	0.1	△2,341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5,623	0.0	4,594	1,281	8,936	0.1	3,313
임금채권보장기금대출	3,040	0.0	3,665	1,427	5,278	0.0	2,238
방 송 진 흥 기 금	7,970	0.1	1,840	4,591	5,219	0.0	△2,751
특정물질시설대체자금	5,463	0.0	372	1,792	4,043	0.0	△1,420
전 력 산 업 기 반 기 금	8,000	0.1	0	4,000	4,000	0.0	△4,000
산 업 기 반 자 금	23,985	0.2	365	0	3,769	0.0	△20,216
민항기국제공동개발 지원	3,600	0.0	219	0	3,200	0.0	△400

구 분	2014년 말		2015년 중		2015년 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약 취 환경 개 선 자 금	3,940	0.0	72	1,349	2,663	0.0	△1,277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자금	2,143	0.0	0	0	2,143	0.0	0
협 동 조 합 공 제 기 금	1,174	0.0	3,754	3,260	1,668	0.0	494
방 송 발 전 기 금	2,664	0.0	0	1,172	1,492	0.0	△1,172
해 외 온 렌 디 ng 자 금	0	0.0	1,000	0	1,000	0.0	1,000
서울특별시기후변화 기금	542	0.0	283	88	737	0.0	195
산 업 기 술 자 금	3,681	0.0	0	2,945	736	0.0	△2,945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	0	0.0	539	0	539	0.0	539
플라스틱재활용기반 구축	512	0.0	0	270	242	0.0	△270
서울시식품진흥기금	561	0.0	0	426	135	0.0	△426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89,286	0.8	0	89,286	0	0.0	△89,286
계	11,456,793	100	3,500,430	3,842,189	11,115,034	100	△341,759

주 : 외국환평형기금(2015년말 잔액 50,701백만 원) 및 외화온렌딩자금(2015년말 잔액 12,072백만 원)은 외화자금으로 분류되어 제외

다) 외화자금대출

2015년 중 외화자금대출은 2,144억원이 공급되었고, 5,737억원이 회수되었다. 2015년 말 잔액은 1조 3,378억원으로 2014년 말 잔액 1조 6,971억원 보다 3,593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0.8%로 소폭 하락하였다.

표 IV-12-1-7 외화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말		2015년 중		2015년 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외 화 자 금	1,697,111	1.1	214,401	573,701	1,337,811	0.8	△359,300

3) 용도별 대출현황

2015년 중 IBK기업은행의 용도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운전자금으로 46조 4,302억원, 시설자금으로 20조 2,919억원을 공급하였다. 2015년 말 기준 운전자금 잔액은 2014년에 비해 2조 2,347억원 증가한 108조 9,19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9조 2,473억원 증가하여 54조 2,749억원을 기록하였다.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운전자금이 2014년 말 70.3%에서 2015년 말 66.7%로 3.6%p 감소한 반면 시설자금은 29.7%에서 33.3%로 3.6%p 증가하였다.

전체 대출잔액 중 운전자금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금융자금이 105조 1,424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64.4%를 차지하였고, 기금 및 재정자금은 3조 3,498억원, 외화대출금은 4,268억원이었으며 비중으로는 2.1%와 0.3%를 차지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금융자금이 45조 5,987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27.9%를 차지하였고, 기금 및 재정자금이 7조 7,652억원, 외화대출금이 9,110억원으로 각각 4.8%, 0.6%의 비중을 나타냈다.

표 IV-12-1-8 용도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말		2015년 중		2015년 말		증감(Δ)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운 전 자 금	106,684,331	70.3	46,430,244	44,195,556	108,919,019	66.7	2,234,688
(금 융 자 금)	(103,817,331)	(68.4)	(44,210,390)	(42,885,281)	(105,142,440)	(64.4)	(1,325,109)
(기금및재정자금)	(2,358,792)	(1.6)	(2,085,979)	(1,094,974)	(3,349,797)	(2.1)	(991,005)
(외화대출금)	(508,208)	(0.3)	(133,875)	(215,301)	(426,782)	(0.3)	(Δ81,426)
시 설 자 금	45,027,665	29.7	20,291,885	11,044,621	54,274,929	33.3	9,247,264
(금 융 자 금)	(34,740,761)	(22.9)	(18,796,908)	(7,939,006)	(45,598,663)	(27.9)	(10,857,902)
(기금및재정자금)	(9,098,001)	(6.0)	(1,414,451)	(2,747,215)	(7,765,237)	(4.8)	(Δ1,332,764)
(외화대출금)	(1,188,903)	(0.8)	(80,526)	(358,400)	(911,029)	(0.6)	(Δ277,874)
(차 관 자 금)	(-)	(-)	(-)	(-)	(-)	(-)	(-)
계	151,711,996	100.0	66,722,129	55,240,177	163,193,948	100.0	11,481,952

주 : ()내는 운전 및 시설자금의 재원별 구성

4) 산업별 대출현황

2015년 말 산업별 잔액 및 비중 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 말에 비해 5조 4,769억원 늘어난 81조 5,629억원을 기록했지만 비중은 50.0%로 소폭 하락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역시 전년 대비 1조 450억원 증가한 21조 3,936억원을 기록했지만 비중은 0.3%p 감소한 13.1%를 차지했다. 반면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은 잔액이 전년 대비 2조 3,032억원 증가한 13조 706억원을 기록하였고 비중은 7.1%에서 8.0%로 상승했다. 건설업은 4,008억원이 증가한 5조 3,087억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5,764억원 증가한 5조 598억원으로 각각 0.1%p 비중이 상승했다.

표 IV-12-1-9 산업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말		2015년 말		증감(Δ)액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농업·임업 및 어업	179,694	0.1	206,693	0.1	26,999
광업	194,957	0.1	204,517	0.1	9,560
제조업	76,085,960	50.2	81,562,864	50.0	5,476,904
(음식료업)	(2,428,914)	(1.6)	(2,809,632)	(1.7)	(380,718)
(섬유·의복 및 가죽)	(5,095,263)	(3.4)	(5,243,942)	(3.2)	(148,679)
(목재·나무제품 및 가구)	(782,700)	(0.5)	(962,417)	(0.6)	(179,717)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	(2,855,501)	(1.9)	(2,953,539)	(1.8)	(98,038)
(석유·화학물·고무·플라스틱제품)	(11,131,957)	(7.3)	(11,971,844)	(7.3)	(839,887)
(비금속광물제품)	(1,966,535)	(1.3)	(2,159,658)	(1.3)	(193,123)
(제1차금속)	(5,094,734)	(3.4)	(5,248,271)	(3.2)	(153,537)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45,301,547)	(29.9)	(48,580,886)	(29.8)	(3,279,339)
(기타제조업)	(1,428,809)	(0.9)	(1,632,675)	(1.0)	(203,86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833,886	1.2	1,987,064	1.2	153,178
건설업	4,907,924	3.2	5,308,676	3.3	400,7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0,348,512	13.4	21,393,557	13.1	1,045,045
운수·창고 및 통신업	4,354,599	2.9	4,620,266	2.8	265,667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0,767,450	7.1	13,070,645	8.0	2,303,19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483,467	3.0	5,059,842	3.1	576,375
기타(개인대출)	28,531,431	18.8	29,654,305	18.2	1,122,874
계	151,687,880	100.0	163,068,429	100.0	11,380,549

주 : 은행계정 총대출금 잔액 기준 (개인대출은 카드로 제외)

5) 투자 현황

2015년 말 IBK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 잔액은 전년 말에 비해 2.6% 감소한 3,671억원이다. 투자주식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수사채가 더 크게 감소하며 전체 잔액도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투자주식은 2015년 중 350억원 공급되며 2014년에 비해 늘어난 935억원을 기록했고 인수전환사채도 2억 59백만 원 증가 하며 74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수사채가 450억 원 회수 되면서 전체 투자 잔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IV-12-1-10 중소·벤처기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말	2015년 중		2015년 말	증감(Δ)액
	잔액	공급	회수	잔액	
인 수 사 채	244,074	-	44,984	199,090	△44,984
인 수 전 환 사 채	74,340	19,924	19,665	74,599	259
사모자산유동화증권	-	-	-	-	-
투 자 주 식	58,474	34,990	13	93,451	34,977
계	376,888	54,914	64,662	367,140	△9,748

다. 주요 정책금융

1)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

IBK기업은행의 2015년 시책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실적은 2014년 대비 11조 7,492억원 증가한 51조 2,484억원이며, 모든 부문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12-1-11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실적		증감(△)액
	2014년 중	2015년 중	
벤처·창업 지원 자금	19,302,155	23,476,419	4,174,264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9,662,951	15,388,196	5,725,245
유망 서비스업 지원 자금	4,500,125	5,647,522	1,147,397
부품생산 중소기업 지원 자금	4,255,144	4,951,608	696,464
기술 개발 자금	1,778,813	1,784,667	5,854
계	39,499,188	51,248,412	11,749,224

부문별로 살펴보면 벤처·창업 지원 자금은 전년 대비 4조 1,743억원 증가한 23조 4,764억원을 공급하였고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5조 7,252억원 증가한 15조 3,882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유망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1조 1,474억원 증가한 5조 6,475억원을 공급했으며, 부품생산 중소기업지원자금은 6,965억원 증가한 4조 9,516억원, 기술개발자금은 59억원 증가한 1조 7,847억원을 각각 2015년 중에 지원하였다.

2) 온렌딩자금에 의한 지원

온렌딩자금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수출기업, 지방소재기업, 대외경쟁력강화, 스마트공장보급지원 등의 용도로 연중 1조 8,656억 원 공급되었으며, 2015년 말 잔액은 4조 7,717억원을 기록했다.

표 IV-12-1-12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말 잔액	2015년 중		2015년 말 잔액
		공급	회수	
온 렌 디 ng 자 금	4,329,441	1,865,550	1,423,319	4,771,672

주 : 외화온렌딩대출(2015년 말 잔액 12,072백만 원) 제외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의한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창업은 물론 구조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지원, 재도약지원, 신성장기반 조성 등에 연중 4,720억 원을 공급하였다.

표 IV-12-1-1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말 잔액	2015년 중		2015년 말 잔액
		공급	회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328,238	471,985	1,061,057	2,739,166

4) 기타 재정 및 기금에 의한 지원

가) 지방구조조정자금

IBK기업은행은 지방중소기업의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 지역간 불균형 개선 및 지역 특화산업육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연중 5,525억 원을 공급하였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IBK기업은행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1,706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 환경정책자금

IBK기업은행은 환경산업 기반 강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환경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1,060억 원을 지원하였다.

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IBK기업은행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재원으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846억 원을 지원하였다.

마) 무역기금

IBK기업은행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홍보, 디자인 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무역기금을 재원으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243억 원을 지원하였다.

바) 정보통신진흥기금

IBK기업은행은 ICT 및 IC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 등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264억 원을 지원하였다.

사) 축산발전기금

IBK기업은행은 축산업 종사자의 영업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70억 원을 지원하였다.

아) 가스안전관리기금

IBK기업은행은 가스유통구조개선, LPG공급방식개선, 도시가스시설개선, 검사기관시설개선을 위해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연중 26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기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으로부터 사용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공급되었다.

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IBK기업은행은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등 대체물질이용 또는 대체물질이용 관련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4억 원을 지원하였다.

라. 주요 추진업무

1) 기술 우수 기업 지원 강화

IBK기업은행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2013년 7월에 「기술평가팀」을 신설하고, 2014년 7월 「기술사업팀」을 증편하였다. 2015년 12월말 현재 2팀제 정규직원 9명과 기술평가 전문인력 13명 등 총 22명의 인력 운용을 통해 기술금융 선도 기반을 견고히 하였다.

2015년 TCB대출 14조 9,214억 원(점유비 24.6%), 혁신성 평가액 기준 7조 7,894억 원(점유비 25.6%)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국내 은행권 실적 전체 1위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시중은행 최초로 지식재산권(IP)을 주담보로 인정하는 대출을 2014년에 출시하여, 2015년까지 총 952억 원의

자금을 기술이 우수하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또한 차별화된 기술금융을 체계화하고 대내외 홍보 및 영업력 강화를 통한 기술금융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 기술금융 자체 브랜드 「T-Solution」을 론칭 하였다.

향후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기술금융 정책이 대출·양적 성장 중심에서 투자·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금융 역량강화와 내실 성장을 통한 기술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먼저 외부 TCB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TCB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여 정부 기술평가 기관 인증을 통해 대·내외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한 기술평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IBK기업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완료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강화

문화콘텐츠산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조 금융의 대표 산업으로 IBK기업은행은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화, 방송, 공연·음악 등 중점 추진분야에 3년간(2014~2016년) 7,500억원의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목표기간이 1년이 남은 2015년 말 현재 목표금액의 98%인 7,315억원을 지원 하는 등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V-12-1-14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대 출	투 자			총 계
		직 접	간 접	소 계	
2014년	3,173	109	30	139	3,312
2015년	3,547	176	280	456	4,003
계	6,720	285	310	595	7,315

주 : 투자조합 출자약정액 기준

문화콘텐츠 기업 특성과 자금소요 상황을 고려하여 직·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맞춤형 특화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등 단계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지원 추진 중이며 제조업 및 도소매업 위주의 동반성장사업 범위를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하여 CJ E&M, KT,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대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중소제작사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영화 부문이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높고 마케팅이 활성화되어 주목받고 있지만, IBK기업은행은 영화(16%)뿐만 아니라 방송(17%), 공연(12%), 게임(11%)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금융지원 중에 있으며 특히, 영화 「연평해전」은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제작비 투자, 배급사 주선, 외부 투자자 모집 등 투자주관사로서 참여하면서 시중은행이 하지 못한 일을 국책은행이 시도한 것으로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좋은 사례로 남았다.

더불어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역량있는 우수 중소제작사 발굴 및 육성에도 많은 역량을 기울이는데, 영화 「암살」의 제작사인 (주)케이퍼 필름과 「베테랑」의 제작사인 (주)외유내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영화, 드라마를 넘어선 다양한 장르로의 투자영역 확대를 실시 중에 있는데 특히, 공연분야는 제작자금을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분야이지만 전문투자사와의 공동투자모델 구조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속 가능한 금융지원을 위해 인프라 확대, 체계적 인력 육성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평해전」에 이은 「인천상륙작전」 투자주관으로 은행권 투자주관사의 위상을 강화하며 융합콘텐츠 지원을 위한 투자조합 결성 등으로 융합콘텐츠분야 유망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3)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IBK기업은행은 2009년 2월 중소기업전문 무료 취업포털사이트인 「잡월드(www.ibkjob.co.kr)」를 구축하고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청년일자리 미스매칭의 해결을 위하여 잡월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2015년 중 3회, 총 45회(2015년 말 누적기준)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8만여명이 채용박람회를 방문하였으며 3천여명이 현장에서 취업에 성공하였다.

중소기업의 채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기업지원 특별우대펀드」를 조성하여 채용 종업원 1인당 50만원의 대출이자 및 수수료를 경감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 결과 2,930개 기업에게 316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재무건전성, 성장성 및 근무여건이 대기업 못지않은 ‘일하기 좋은 우량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홍보하여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섰다.

특성화고교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전국 633개 특성화고교 중 518개교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취업활성화 기부금 96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잡월드를 통해 총 3,070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취업 하였고 이를 통해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의 열린채용이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잡월드 출범이후 6년 10개월만인 2015년 12월 7일 취업자 수 8만명을 돌파,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취업자 수 80,802명을 달성하였다.(2015년 취업자 순증 7,566명)

2016년에는 잡월드 취업자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계한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1:1 헤드헌팅 시스템 구축 등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통해 청년층을 비롯한 특성화고, 제대군인, 시니어세대 및 취약계층 등 쏠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회원화하여 양질의 채용정보를 늘리고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잡월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또한 편리한 서비스와 콘텐츠로 잡월드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하는 한편, 잡월드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회원 및 개인회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우량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중소기업과 인재를 이어주는 ‘튼튼한 징검다리’로서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4) 기업인 명예의 전당 운영

IBK기업은행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들을 기리기 위해 2004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건립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32명의 기업인을 헌액하였다.

2015년에는 자동차 피스톤 부품 생산 국내 1위 기업인 동양피스톤(주)의 홍순겸 회장, 세계 70여개 국가에 원액기를 수출하여 원액기 한류 붐을 이끌어 낸 (주)휴롬 김영기 회장,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레이저 응용장비 제조기업 (주)이오테크닉스 성규동 회장을 헌액하였으며 선정된 기업 임직원들과 회사를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알리고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자 헌액기업에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기념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이들의 제품을 IBK기업은행 본점 1층의 상설전시장에 전시하여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수 경영실천사례를 중소기업 경영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Success Story 책자를 발간하여, 정부, 대학, 국공립 도서관에 송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공헌도가 높고 덕망과 인품이 훌륭한 현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경제상황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5) 중소기업 CEO들의 교류 활성화 장 마련

가) IBK최고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우수 기업 CEO들과의 교류를 통해 거래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1993년 「IBK최고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경영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경영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조찬세미나와 강연, 회원사 모범사원 선발 등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중소기업 CEO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명품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신 경제패러다임인 ‘따뜻한 자본주의’의 확산에 발맞추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전달할 것이다.

나) IBK여성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인 여성 CEO들의 기업 활동을 돕고 교류와 친목을 통해 IBK기업은행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12년 「IBK여성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효율적인 지식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영전략세미나 및 조찬강연, 우수기업 탐방 등 여성경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여성 경영인들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 CEO 모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경영자의 섬세하고

유연한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 중견·중소기업 시찰 등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 IBK미래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IBK와 거래하는 젊은 경영인들과 가업승계 예정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차세대 경영자로서 필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2005년 「IBK미래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회 경영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기업 탐방, 조찬세미나, 해외 문화 체험 등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경영인들의 새로운 교류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경영인들이 미래의 IBK기업은행 충성고객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자발적 모임을 유도하고, 부부동반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클럽을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6)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IBK기업은행은 거래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은행장이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CEO와 대화하는 「타운미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공단 중심으로 세미나 및 기업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현장 소통을 통해 얻은 애로 및 건의 사항은 행복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IBK기업은행의 경영방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2016년에는 창조경제혁신기업, 바이오테크, 문화콘텐츠, 뿌리 기술기업 등 다양한 테마별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하여 CEO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고, 감성 마케팅을 강화하여 핵심기업 고객 기반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7) 중견기업 지원강화

IBK기업은행은 2015년 1월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범위 개편에 맞는 중견기업 지원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법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기업의 증가로 인해 2015년 말 중견기업대출 잔액은 4조 3,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8억원 감소하였고, 여신거래 중견기업수도 총 660개로 전년 대비 88개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법개정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 및 중소기업 범위 초과이력 관리를 위하여 중견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개편으로 영업점 중견기업 관리를 체계화하였다. 우량중견기업 중 「Core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유예기업 등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노력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글로벌 수출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BK수출·기술강소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심사를 거쳐 신규 선정된 57개의 수출강소기업과 84개의 기술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용대출상품을 통한 자금지원 및 비금융서비스를 우대하여 지원하였다.

* 누계기준 : 수출강소기업 697개, 기술강소기업 377개 기업 선정

표 IV-12-1-15 중견기업 수 및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3년 말	2014년 말	2015년 말	전년대비
대 출 잔 액	41,582	45,511	43,733	△1,778
기 업 수	718	748	660	△88

8)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IBK기업은행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지금융 지원을 위해 국내기업 진출이 활발한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점포를 확충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IBK기업은행은 중국 현지법인 내 16개 영업점을 포함하여 11개국에 총 27개 국외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현지 은행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계 MOU은행을 통한 고객지원 실적은 전년 대비 건수로 129%, 금액으로 315% 증가하는 등 2015년 말까지 누적 446건, 107.9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IBK금융그룹사 전략적 공조를 통해 자회사인 IBK캐피탈이 베트남 미얀마 경제발전단계에 적합한 MFI(Micro Finance Institute)로 우선 진출하게 되었으며, 향후 시장개방 시 은행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IBK기업은행은 2015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와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를 연 데 이어 4월 인도 뉴델리 지점을 비롯해 지난 11월에는 필리핀 마닐라 지점을 개점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국내 기업 1,50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어 IBK기업은행의 필리핀 마닐라 지점 개점을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영업력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성장성 높은 해외를 찾아 IBK기업은행의 영토를 넓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진출방식과 현지화를 통해 뿌리 내리고 있다.

추후 캄보디아 프놈펜사무소는 시장 및 경제 상황에 적합한 진출형태(현지법인 또는 지점)를 검토하고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동유럽, ASEAN, 중남미 등 성장잠재력 높은 국가에 사무소 설치 또는 지역전문가 파견으로 현지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국제금융 중심지 및 한국기업 진출지역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분투자, M&A 등의 진출형태 다변화로 진출지역의 시장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9) 「참! 좋은 컨설팅 프로젝트」

IBK기업은행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000개 중소기업에게 무료컨설팅을 제공하는 「참! 좋은 컨설팅 프로젝트」를 조기 완수하고, 2015년부터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희망경영 정착지원을 목표로 동반성장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선진화된 중소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3년간 총 3천 개 기업에게 무료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IBK컨설팅센터에서는 2015년 한해동안 경영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양질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1,002개 중소기업에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 이후 총 3,165개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향후 IBK기업은행은 「경영일류기업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유망기업에게 경영, 세무, 회계, 법률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조기에 경영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성장이 정체된 한계기업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경영애로기업·체인지업기업 컨설팅」, 「해외진출기업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지원 컨설팅」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테마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6년에는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드림팀」 운영 등을 통해 창업 준비기부터 성장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술형 창업기업 및 핀테크

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컨설팅」 등 특화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표 IV-12-1-16 **참: 좋은 무료컨설팅 프로젝트 실적** (단위 : 건)

분 야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경 영	125	184	218	527
가 업 승 계	150	154	101	405
세 무	123	189	152	464
회 계	51	72	204	327
법 률	45	56	41	142
그 린	71	64	58	193
I P · 창 업	4	133	228	365
합 계	569	852	1,002	2,423

10) 핀테크 기업 활성화 지원

2015년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Dream Solution) 수립·추진하였다. 은행권 최초로 우수 핀테크 기업 조기 선점을 위해 「핀테크 Dream공모전」을 개최하여 201건의 접수 건 중 13팀에 대해 시상하였으며, 이들 수상기업에게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 1:1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상담 창구 단일화 및 금융/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핀테크 Dream 지원센터」를 출범하여 7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핀테크 Dream Lab」을 개소하였으며 총 4개 기업이 입주하여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이로써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발굴→지원→육성) 맞춤 프로그램인 「Dream Solution」이 완성되었다.

또한,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개 업종을 핀테크 관련업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 결과 2015년 12월말 기준 366건 1,420억원(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특화 상품인 「핀테크 Dream 기업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발한 금융지원에도 앞장섰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핀테크지원센터 Demo-day를 통해 1:1 매칭된 (주)이리언스의 바이오인증 원천기술을 이용한 「홍채인증 ATM 서비스」를 직원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 및 금융거래 활성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2016년 중 일반 고객을 위한 상용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결제원의 생체인증정보 저장 표준안에 따른 정보 분산저장을 실시하여 해킹 위험에 대비 할 예정이다.

		
<p>우수기업 채용박람회</p>	<p>T-solution 론칭</p>	<p>핀테크 Dream 공모전 시상식</p>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3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일반현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 1962년 6월에 설립되었다.

1995년부터 무역과 투자의 상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KOTRA에는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기능이 추가되었다. 2003년부터 무역, 투자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한 연수교육을 담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에 위한 Contact KOREA기능을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단위 무역·투자·인재유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ICT, 콘텐츠, 서비스, 의료·바이오, 친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분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OTRA는 2015년 12월 현재 국내 5개 본부와 86개국 126개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외에서 무역·투자·인재유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1) KOTRA 지사화 사업

지사화사업은 해외무역관에 소속된 전담직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사화사업을 통하여 수출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바이어 조사, 출장 지원, 인증취득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사화사업은 참가기업별 전담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바이어와 지리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언어, 시차 등을 극복할 수 있어 유용한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V-13-1-1 지사화 연도별 주요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사화업체수	2,070	2,106	2,074	2,079	2,205	2,400	2,818
성약실적(백만불)	743	970	1,296	1,350	1,420	1,551	1,672

2)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KOTRA는 해외 현지시장에 판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과다 지출 및 신속한 납품 시스템 부재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물류체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OTRA 해외 무역관이 선정한 현지 물류 전문기업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의 현지 통관과 운송, 재고관리 등의 컨설팅과 물류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다.

표 IV-13-1-2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참가기업수(개사)	308	355	391	407	483	560	575
참가기업수출실적(천불)	159,916	221,414	251,900	366,493	377,699	400,618	627,605

3)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가)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KOTRA는 수출상품 해외홍보, 해외 구매수요 검색, 수출대금 결제, EMS 국제배송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를 통해 국내 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13-1-3 buyKOREA.org의 서비스 제공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수출상품 등록	-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까지 등록 가능 -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이오퍼 조회 검색	- KOTRA 발굴오퍼 및 바이어 등록오퍼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수신	- 바이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 가능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 KOPS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수취 가능(별도 계약 필요)
수출상품 발송	- EMS 배송신청 기능을 통해 수출상품 발송(할인을 최대 16%)(별도 계약 필요)
화상미팅	- 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 가능
해외기업정보	- 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

표 IV-13-1-4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방문자수	1,972천명	2,767천명	8,299천명	16,926천명
비영오피건수	13,090건	14,958건	16,960건	19,109건
신규상품등록	4,828건	9,659건	12,364건	24,776건

나) KOPS 결제 서비스 제공

초기 소액 수출거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인 KOPS(Kotra Online Payment Service)를 통하여 국내기업은 1만불 미만의 소액 수출 결제에 대해서 무역보험을 통해 해외바이어의 부도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게 수출거래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KOPS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http://www.buykorea.org>에 가입하고 결제대행사((주)올렛)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이용할 수 있다.

표 IV-13-1-5 카드결제 시스템 이용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고객 (개사)	국내업체	126	197	124	78
	해외업체	286	304	172	113
카드결제실적	건수	1,048	677	435	292
	금액(\$)	1,328,546	1,343,732	1,108,671	783,176

4)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수출구매상담회란 유력 바이어로 구성된 한국상품 구매단을 국내로 유치, 바이어의 수입희망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적격업체와의 수출상담 주선, 바이어의 요청사항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OTRA의 광범위한 해외조직망을 활용, 한국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세계 유수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수출구매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바이어를 상대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3-1-6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최횟수	66회	57회	68회	71회
참가 바이어	2,804개사	3,135개사	3,445개사	4,046개사
참가 국내업체	8,541개사	8,422개사	10,759개사	10,745개사
수출상담액	396,639백만불	466,364백만불	522,508백만불	519,822백만불

5)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KOTRA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시장 조사,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및 사후A/S를 지원하는 해외마케팅의 기본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13-1-7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파견횟수(회)	233회	236회	226회	227회
선진/신흥	85/148	62/174	62/164	54/173
파견업체(개사)	2,673	2,573	2,429	2,780
수출상담액(백만불)	20,309	34,711	27,997	14,433

6)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무역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유망 무역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주선,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비지원(총 참가 직접경비의 최대 50% 지원)과 행정서비스 지원(전시부스 임차 및 장치, 전시품 운송 및 현지통관 등), 그리고 바이어 대상 현지홍보 등 박람회 관련 마케팅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표 IV-13-1-8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시회 참가횟수(회)	95	101	113	124	140
참가업체(개사)	1,918	1,947	2,416	2,469	2,806
상담액(백만불)	7,760	4,693	7,486	7,110	7,241

7)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지원

국내 전문전시회는 탄탄한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의 전시회를 발굴하고 개최하여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KOTRA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전시회로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대전국제농업기술전(격년) 등이 있으며, 이외에 경기국제보트쇼, 국제 LED & OLED EXPO, K-Beauty EXPO, ADEX 등 연간 25여개의 공동주관 국내전시회에 대해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바이어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3-1-9 공동주관 국내전시회 지원결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횟수	20	22	26
해외 참가업체(개사)	62	121	23
참관 바이어(개사)	1,759	1,407	1,356

표 IV-13-1-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추진결과

구 분	개최기간	참관바이어(명)		참가업체(개사)
		해외바이어	총 내방객	
201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15.5.12 - 5.15	3,258	54,117	1,487

* 식품 및 식품기기를 포괄하는 B2B 전문 전시회

8)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바이어 찾기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맞춤형 시장조사, 수출대금 미결제조사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바이어 연락처 확인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표 IV-13-1-11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제공건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서비스 건수	6,803건	9,527건	9,381건	8,460건	7,686건	41,857건

9)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바이어 발굴을 위해 독자적으로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시행하는 개별 중소기업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은 물론, 상담 장소 제공, 통역지원, 호텔 예약 및 기타 현지 활동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고 있다.

표 IV-13-1-12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제공건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서비스 건수	227개사	219개사	174개사	159개사	779개사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서비스 수요 감소

10) 개별 방한 바이어 수출상담 지원

KOTRA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국내의 주요 전시, 상담 등 행사나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일정기간 바이어를 유치하는 업무 외에 바이어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수입 인콰이어리를 발굴한 후 바이어의 방한을 유도하여 국내 적격 업체와 수출상담을 주선하고 있다. 바이어 위주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바이어 방한 시 요청사항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3-1-13 방한 바이어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바이어수(개사)	147	194	216	238	292

나. 전략산업별 해외마케팅 지원

1) IT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최근 IT산업은 모바일화, 네트워크화, 지능화와 함께 산업간 융합의 추세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KOTRA는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IT분야와 연관된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로 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구매수요를 파악하고 수출 유망 국내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또한 우리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IT분야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고 Value Chain상의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K-Global(K-Tech)사업을 활용하여 미국, 중국을 포함 해외 전략 진출 유망 시장에 컨퍼런스, 전시, 수출상담, 스타트업 투자유치 등 사업을 융합한 국가 단위 IT종합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런던, 실리콘밸리, 상하이에서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로봇, 핀테크, ITS(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신산업의 시장개척을 위해 해당 기관들과 협력하여 중국 로봇수출로드쇼, 중국·일본 핀테크 상담회, 동유럽 ITS로드쇼 등 해외전문로드쇼 및 상담회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ICT융합, 전자정부 등 주요 부문 해외 유력 발주처 및 글로벌 IT기업을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상담을 시행하고 국내 우수 IT구축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개최한 Global Mobile Vision은 2015년 8회 행사까지 모바일 분야 국내 대표 전시상담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망 바이어 투자가와 글로벌 리더들을 초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모바일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277개 전시업체(전년대비 60% 증가) 250개 바이어(전년대비 53% 증가)가 참가하여 전시 및 상담회 규모를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IT수출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에로 상담 및 해소를 상시지원하고 있고, 해외에는 주요 IT시장인 미·중·일에 IT지원센터를 운영(베이징, 실리콘밸리, 도쿄)하여 입주 공간과 사무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지화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CT뉴스레터를 통해, IT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일일뉴스와 IT사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 한류스타상품 등 콘텐츠 분야와 프랜차이즈, 디자인 등 기타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은 다양한 지식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선도하기 위해 서비스 문두스(Service Mundus)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문두스 사업을 통해 참가기업 65개사에게 연간 로드맵제공, 맞춤형 시장정보, 지적권 보호, 해외바이어 및 투자가 물색, 매칭, 전시회 참가, 상담 지원 등 기업에 필요한 내용을 KOTRA가 연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14년에는 1425만 달러 성약에서 2015년 2300만 달러를 거양함으로써 지식서비스 분야 해외진출의 대표사업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EU카툰협회와 공동으로 '제7회 韓-EU Cartoon Connection'을 2016년 제주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U집행위 산하기관과 공동개최하는 국가간 협력 사업으로 韓-EU에서 韓-EU-ASIA-중국으로 전면 확대, 다국간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전문포럼, 비즈매칭 상담회를 포함하고 있다.

한류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제 한류의 확산을 위해 2010년 방콕, 2011년 파리, 2012년 오사카, 2013년 영국 런던, 2014년 브라질 상파울루, 20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코리아 브랜드 & 한류 상품박람회(KBEE)를 성대히 개최했다. 2016년 8월에는 중국 선양과 충칭에서 릴레이 개최를 통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류 문화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수출 증진 등 문화한류를 직접적인 비즈니스 한류로 확산시키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류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한류스타 연예기획사와 제조·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스타 브랜드’와 ‘제품 기술력’을 융합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모델인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마케팅을 기획,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의료·바이오산업 해외진출 지원

최근 수출부진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수출먹거리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차세대 수출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외 시장특성을 반영한 마케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분야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상담회 및 설명회 등 융·복합 행사를 통한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인 ‘Global Bio & Medical Forum’ 사업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해외 바이어/발주처 118개사를 국내로 초청,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프로젝트 관련 기업 222개사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 유망 전략지역을 설정하여 수출로드쇼를 추진하고 있다.

연초 연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기업의 수요에 따라 연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Medistar Initiative’, 해외 신규 병원의 건립 및 현대화 등 병원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와 수출 효과 증대를 위한 ‘해외 병원프로젝트 수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망 해외 병원프로젝트의 일괄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공정 분야별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선단형 컨소시엄(설계, 시공, 의료장비/소모품, 의료설비 시설)을 구성하여 전주기 사업의 수주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ADB 발주 몽골 국립병원 설계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하였다.

4) 친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중국, 동남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의 유망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발주처(바이어) 정보, 입찰 관여 및 수주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이래 프로젝트 상담회, 포럼, 전시관, 분과별 세미나, 산업시찰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 세계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 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수주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5년에는 동남아, 유럽, 중동 지역에 환경프로젝트 민관 합동 수주사절단을 파견, 환경 산업 진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유망프로젝트에 대해 민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현지 조사단을 파견, 프로젝트의 사업성·법률·기술·경제성 등 다방면의 현장 상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업계에 전파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전문가 그룹을 파견한 바 있다. 이를 중소·중견기업에 소개하고 대기업·공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밑거름을 제공했다.

5) 글로벌 상생수주단 사업

KOTRA의 글로벌 상생수주단 사업은 국내 친환경 에너지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등 애로 해소를 위해 KOTRA가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 검증한 결과를 기업에 전파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해외 공동 마케팅, 프로젝트 공동 수주, 동반 투자 진출, 현지 판매망 다변화 등의 협력 활동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산업 생태계 Value-Chain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출지원 사업

KOTRA는 2009년 8월 1일 부로 개발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개도국 소재 무역관을 통해 우리기업이 참여 가능한 개도국의 유망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우리기업 중에는 자금력 부족으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하도급 프로젝트 수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다자개발은행과 투자금융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다자개발은행 재원 투자 프로젝트를 우리기업에게 소개하고, 우리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2015년 9월에 개최된 ‘MDB·글로벌 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는 세계은행(W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가해 우리기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논의했다.

2015년 7월 ADB 본사가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그랜드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국내기업-발주처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ADB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ADB 재원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2015년 KOTRA는 해외수주협의회 소속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자문기관으로 하는 해외수주에로상담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7)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지원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발굴되는 각종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수주협의회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출상담회, 설명회, 수주단 파견 및 플랜트 수주지원 센터(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700여개사 2,500여명을 회원사로 하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의 70%는 중소기업이다. 수주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125개 KOTRA 해외 조직망에서 수집하는 대외공고 입찰 3개월 전의 프로젝트 정보를 수시로 전파한다. 또한 업계 정보 교류와 해외 동향파악을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을 분기 1회 개최한다.

2015년 6월에는 국내 최대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상담회인 ‘Global Project Plaza 2015’를 개최했다. 국내 기업의 개별적 접근이 어려운 글로벌 유력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 국내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의 해외 수주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5년 하반기에도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해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현안 점검 및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확대에 주력했다. 2015년 KOTRA의 주요 수주 지원 실적으로는 ① 보츠와나 Morupule A 화력 발전소 성능 개선 프로젝트(1억 8천만 달러), ② 베트남 하이퐁 수처리 시스템 확장 프로젝트(7천 4백만 달러), ③ 수단 카르툼 신공항 건설프로젝트(1,900만 달러) 등 20건이 있다.

8) 일반물자 정부간 교역 지원

2012년 페루 지능형 순찰차 800대의 정부간(G2G) 거래가 계기가 되어, 2014년 1월 21일 대외무역법에 「정부간 수출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외국정부의 조달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돕고자 법제화된 것으로, KOTRA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이 되었으며, 비방산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GtoG교역지원단을 신설하였다.

KOTRA는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외국정부에 물품을 유상으로 수출하는 계약의 당사자로 역할을 하며, 새로운 무역 방식을 통한 수출터거리 창출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외국정부로의 수출 및 조달을 지원한다.

2015년 4월에는 페루 SIMA국영조선소에 LPD다목적함 기자재 및 설계도 공급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는 MOU를 체결하였는데, 동 사업은 대중소협력은 물론 한국과 페루간의 조선산업 국제협력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이행기업은 ‘포스코대우’와 ‘대선조선’이며, 한국 측이 기자재를 공급하고 페루 측에서 건조를 담당한다.)

KOTRA는 정부간수출계약심의위원회를 2015년 7월에 발족하여 수출계약 및 국내기업의 이행능력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정부간 수출계약으로 페루 내무부(경찰)에 지능형순찰차 2,108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은 국내기업(이행기업·협력기업), KOTRA, 주페루한국 대사관, 산업부 등의 협력을 통해 인근 경쟁국을 제치고 수주한 성과이다.

‘정부간 수출계약’은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며, 거래 가능 주요 품목 유형으로는 특수목적차량 및 운반장비, ICT, 각종 인프라 및 관련 운용시스템 등이 있다. 현재 일반물자교역지원단(GtoG교역지원센터 內)은 일반 물자 정부간(G2G) 거래 프로젝트 발굴, 외국 정부와의 계약 협상 및 체결 과정 지원 등 정부간(G2G)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9)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무역관에 조달진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와 정부 조달벤더 초청 1:1 상담회 개최, 조달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해외 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7개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조달시장 진출 정보수집, 사업기회 발굴, 현지 조달벤더와의 파트너링, 벤더등록 지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 글로벌기업 기술협력지원

KOTRA는 글로벌기업의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파트너링(GP)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부품공급 수요나 제품 개발 의뢰에 대응 가능한 소재부품(중간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의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종합상담회를 국내외 권역별로 개최중이며 국내는 하반기에 GP Korea(글로벌파트너링 수요발굴 상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GP사업은 2010년 시작 이후 총 323회 매칭 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술협력 과제를 600건을 발굴하였고 이 중 108건의 정부 R&D를 지원하였다.

표 IV-13-1-14 GP사업 계량 실적 현황

연 도	GP상담회		참가기업		R&D지원 (건)	R&D지원 (억원)
	종합	핀포인트	해외기업	국내기업		
2010년	8	9	322	715	1	22
2011년	14	5	549	706	12	89
2012년	3	20	133	382	16	96
2013년	6	52	249	835	28	77
2014년	14	74	591	1,359	31	92
2015년	8	110	837	1,201	20	90

다. 중소기업 수출 애로해소 및 글로벌 역량강화

1) 글로벌 역량진단(GCL테스트)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을 진단하여 기존 공급자중심 지원에서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역량 진단시 각 기업은 KOTRA 및 유관기관 사업(총 167개)중 해당 글로벌역량단계에 맞는 사업을 추천받게 된다. 2012년 10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수출전문위원이 역량진단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13-1-15 글로벌 역량진단(GCL테스트) 제공 건수

구분	2012년(도입)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진단기업(개사)	539개사	1,502개사	6,445개사	5,560개사	14,046개사

2) 이동코트라

글로벌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결 지원을 위해 서울·전국 6대 권역별(서울·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이동코트라를 운영, 찾아가는 방문 상담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글로벌역량진단 실시 후 각 업체의 역량과 수출단계에 맞는 거래선 발굴방법, 수출지원사업 정보 안내, 계약서 검토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13-1-16 이동코트라 서비스 제공 건수

구분	2013년(도입)	2014년	2015년	합계
방문 기업	2,048개사	2,303개사	2,703개사	7,054개사

3)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센터(Trade Doctor)

Trade Doctor 사업은 무역, 해외투자진출 및 외국인 국내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분야별 상담위원이 온라인, 내방 및 유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문의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컨설팅하는 서비스이다. 이중 온라인 Trade Doctor는 2014년 3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표 IV-13-1-17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서비스 제공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온라인 상담	5,892	9,937	15,829
전화 및 내방상담	13,692	16,144	29,836

4)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은 내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여건상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인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시장 경험이 일천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이 쉽지 않다. 이러한 내수 중소기업에 대한 첫 수출 달성을 위해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13-1-18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구 분	참가기업 수	2014년 수출액	2015년 수출액	비 고
내수기업	771개사	US\$ 0	US\$ 13,924,086	신규수출기업(259개사)
수출초보기업	629개사	US\$ 9,036,167	US\$ 44,388,835	수출증가기업(337개사)
계	1,400개사	US\$ 9,036,167	US\$ 58,312,921	596개사 수출증가(성공)

5) 월드챔프 사업(글로벌 마케팅 지원)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월드챔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해외네트워크를 KOTRA에서 보완하고, 참가기업별 제품특성, 수출 성숙도, 현지 시장상황 등 글로벌 현황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 후, 5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참가기업과 KOTRA 전문위원, 그리고 KOTRA 무역관이 삼각 체계를 구축,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 해외마케팅 분야 퇴직자를 민간전문가로 활용하여 참가기업별로 일대일 밀착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표 IV-13-1-19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마케팅 전략(목표)	세부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 및 수입 규제 극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증 취득을 위한 등록지원 및 병행 마케팅 지원 • 의료기기 등 수입허가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등록) 지원 등
영업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일즈랩 발굴 및 운영 지원 • 현지 유통망 구축 (대리점 계약 및 영업활동 지원)
저인망식 마케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단독 IR행사, 신제품 설명회 개최, 단독 로드쇼 • 해당 산업의 저명인사 초청 마케팅 행사 추진 등
전략적 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깃 글로벌기업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V설립, 공동 R&D 과제 발굴, 개발 구매 프로젝트 발굴 • 글로벌 벤더 등록 지원
현지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설립 지원 • 합작 파트너 발굴 지원, 세일즈 오피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스텝 채용 및 관리 지원, 공동영업 지원 등

2015년 12월말 현재 149개사가 참여하여, 사전에 협의된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단독 로드쇼 개최, 현지 마케팅 인력 운용, 광고/홍보 등 연간 600회 이상의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수출규모 확대, 해외진출지역 및 해외거래처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체계적인 시장개척 방법을 습득하여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접근방식 고도화에 맞춰 지원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 및 생산기업을 선정, 해외 홍보 및 각종 정부지원책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의 생산액이 해외시장 점유율이 5%이상, 5위 이내인 품목을 세계일류상품(현재일류)으로 선정하고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생산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이거나 5위 이내인 기업, 또는 수출점유율이 1위인 기업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현재일류)으로 인증한다. 또한 향후 7년 이내 세계일류상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후보군으로 육성하고 있다. 매년 5~7월 신규품목/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3~4개월 간의 검증을 거쳐 12월에 인증여부를 확정한다. 현재 680개 품목 764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8%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매년 3~5개 집객 효과가 높은 해외 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세계일류상품 및 한국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인증기업의 해외인지도 개선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은 간접지원기관을 통하여 R&D, 인력,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 중소기업 해외투자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www.ois.go.kr)은 개인 또는 기업고객이 해외투자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사이트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 24곳의 유관기관 자료를 통합적으로 접할 수 있다. 해외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동 웹사이트를 통해 국별 투자속보, 시장 정보, 전문자료 및 투자관련 서식 등을 얻을 수 있으며, 무료 회원가입시 매주 2회 해외투자 통합뉴스레터 및 전문가 칼럼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2) 투자박람회, 설명회 개최 및 투자사절단 파견

우리기업이 적절한 해외투자 후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며,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조사단을 파견한다. 2015년 6월, 2년마다 개최되는 ‘대한민국 해외진출종합대전(KOIF)’이 열렸고, 30개국 68개 투자유치기관이 참가하여 우리기업에 종합 투자진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5년 인도, 중국, 리투아니아 투자유망국 설명회 및 11월 글로벌 유통시장 비교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가별 유통채널 현황 및 진출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기업들은 투자설명회 및 현지투자조사단 참여를 통해 국가별 투자절차, 인센티브, 시장 동향,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KOTRA 베이징무역관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2015년 기준 중국 6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시안), 베트남

2개소(호치민, 하노이), 아시아지역 5개소(자카르타, 마닐라, 뉴델리, 프놈펜, 양곤), 유럽 1개소(바르샤바), 중남미 1개소(상파울루) 등 9개국 1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문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센터별 자문 회계, 노무, 변호사 상담지원 등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상담과 이슈 대응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현지 경영지원, 현지정보 발굴 및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출기업의 내수판로 시장개척을 위한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한다.

4) 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

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IP-DESK)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재권 이슈가 많은 주요 국가에 설치, 현지 지재권 창출, 보호 및 애로 사항 해결 지원 기능을 수행중인 전담 데스크이다. 현재 중국 5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미국 2개소(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각 1개소로 총 6개국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출원 비용 일부 지원 사업, 지재권 상담, 지재권 설명회,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사업 등이 있다.

표 IV-13-1-20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종류	세부내용
지재권 법률상담	• 해외 진출(예정)기업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권 법률 애로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지원	•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50%한도)
세관지재권등록 지원	• 현지 상표·디자인에 대한 세관 등록 비용 지원(50%한도)
피침해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 현지의 모조품 유통 실태 조사 및 모조품 단속 비용지원(70%한도)
해외 지재권 설명회	• 현지 단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유명상표를 설명하고, 진품 식별 방법 등 교육 •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진출시 유의사항 안내
해외 지재권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 해외 주요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 지재권 제도 소개 및 지재권 유관 기관 교류 활성화 •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통한 현지국가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직접 전달

5)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KOTRA에서 관련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조세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지원 등)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국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보조금(입지, 설비,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복귀단계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테스크(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선양)에서는 관심기업에게 해외현지법인 구조조정 컨설팅(매각, 양도, 축소 등) 등 국내복귀 관련 각종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글로벌 M&A 지원 사업

KOTRA는 M&A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글로벌화 수단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M&A 전문가를 영입하여 『글로벌 M&A 지원단』을 설립(2013.1.1.)하여,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였다. 해외 판로개척, 선진기술·판매망 확보, 브랜드 인수, 글로벌 기업 납품기회 확대를 중점 지원하며, 해외 M&A 거점무역관(35개)을 기반으로 현지 부티크 및 자문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M&A 매물을 역점 발굴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M&A의 쏠단계에서 본사의 전문인력과 해외 무역관의 네트워크를 활용,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딜 소싱 및 매칭, 현지 법·제도 조사 등은 직접 수행하고, 대상 물건의 가치평가 및 실사 및 인수금융 확보 등은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한다.

표 IV-13-1-21 글로벌 M&A 지원 절차

- ① M&A 지원단에 사업 참여 신청 → ② M&A 전문가 개별 방문 상담으로 지원범위 설정 → ③ 사업신청서 제출 및 KOTRA와 NDA 체결 → ④ 타깃지역 담당 무역관 배정·연계로 지원 전개 → ⑤ 사후관리

마.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및 교육

1) 해외시장정보 조사·전파

125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세계 시장의 통상현안, 경제동향, 통상정책, 수입 규제, 관세 및 비관세제도, 마케팅정보, 상품정보, 바이어정보, 수출 인콰이어리 등 수출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KOTRA는 매년 초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통하여 국내업체에 한 해의 해외시장 진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서부항만 물류지연 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 대책반」을 설치, 현지 동향을 24시간 수집·전파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매년 말 고객의 제안 및 수요조사를 통해 차년도 정보조사 아젠다를 확정, 시의성 있는 현안을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심층 조사하여 전파하고 있다. 신흥시장 및 미개척시장의 선점을 위해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 등을,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신규트렌드를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5 KOTRA 세계경제전망’,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등을 발간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신통상정책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통상정책 등의 정보를 글로벌윈도우 홈페이지 (www.globalwindow.org)와 뉴스레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수출상품 수요변화, 바이어동향, FTA 등 생생한 해외시장의 현장 정보를 글로벌윈도우 홈페이지, 모바일웹(m.globalwindow.org), 트위터(@globalwindow), 뉴스레터, Facebook 서비스, 무역자료실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세계 95개 국가의 개요, 경제동향, 수입규제제도, 주요인증제도, 투자환경,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비즈니스 에티켓, 출장 시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국가 비즈니스 정보 또한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2) 한중 FTA 지원센터

KOTRA는 2015년 4월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4개 지역에 한중 FTA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주요 업무로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홍보 활동, FTA 활용 정보 제공, 그리고 FTA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 순회 설명회, 현지 마케팅 사업 연계 'FTA 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공관 주도의 비관세 대응반과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센터별로 기능별(통관회계법률 등), 산업별(유통, 농식품, IT, 서비스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13-1-22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국가	지역	설치사유
중국	베이징	· 中 수도 소재지, 국내기업 투자진출 거점
	상하이	· 동부연안 경제중심지, 국내기업 투자진출 거점
	칭다오	· 中 물류중심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 밀집 지역(전체 진출기업의 30%)
	청두	· 中 서부 내륙시장 진출 거점도시, 내륙개발 확대에 최근 소비 수요 급증

3)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앱

VIP 해외 순방/국민 방한 시 국가간 합의사항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상외교로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종합정보 DB를 구축, '14년 2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이하 '정상외교포털')을 오픈하였다.

정상외교포털은 2013년 이후 진행된 정상회담 종합정보, 국가별 회담 성과 및 합의내용(MOU)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부처 및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 경제외교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별·분야별 정상외교 관련 종합정보와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등 다양한 해외비즈니스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기업은 포털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활용한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범부처·유관기관의 해외진출지원사업과 연결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외교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정상외교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상외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상외교포털을 통해 모집공고,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결과 공고까지의 신청과정 전반이 이뤄진다. '14년 8월에도 도입한 경제사절단 상시신청시스템을 통해 참가 희망지역 사절단 공고가 나기 전에도 먼저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희망지역에 대한 사절단 일정이 확정되면 이메일 등을 통해 세부 일정, 신청서 보완사항 등을 공지함으로써 사절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1월, [정상외교 경제활용] 모바일 앱이 출시된다. 우리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상시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경제사절단 1:1상담회 신청기업의 상담스케줄 확인, 주선된 바이어와의 1:1 채팅, 행사장 찾기(GPS 활용) 및 출장자료 자동 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다. 제공하는 정보의 폭도 더욱 넓어졌다. 정상회담 종합정보는 물론 KOTRA, 수출입은행 등 수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시장정보 DB를 연계하여 다양한 해외비즈니스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4)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KOTRA아카데미는 2003년 1월에 설립되어 그동안 KOTRA가 쌓아온 해외 비즈니스 노하우와 공사 핵심기능과 연계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 및 무역·투자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KOTRA아카데미의 교육연수과정은 해외 시장정보와 무역투자 관련 국내 강의로 실무활용이 가능한 지식 전달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표 IV-13-1-23 교육과정 운영 현황

과정명	주요내용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Cs 등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 - 국내기업 투자대상국의 핵심 투자진출 실무교육 및 해외연수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 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
외국인투자유치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 투자유치 업무 담당자들의 외국인 투자유치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정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맞춤형 FTA활용, FTA활용 대책 및 석사과정, 무역퇴직자 대상 FTA활용 교육 등 FTA관련 교육 - 실무위주 교육훈련 및 체계적 무역전문 인맥관리 시스템 제공
주재원 사관학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개도국 무역역량강화 과정

바. 외국인 투자유치

1) 투자유치 정보 포털 운영

Invest KOREA는 국내 투자유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K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를 운영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메인 및 10개 광역시도별 투자유치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언어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모바일 웹(영문)도 별도 제공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한-중 FTA 체결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개선된 투자여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의 국내 R&D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R&D 정책 정보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투자환경, 외투기업 성공사례, 투자유망산업, 투자가이드, 생활정보 등 한국에 투자하기 위한 제반 정보와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공식 SNS계정을 통해서도 해외투자자들에게 UCC, 인포그래픽 등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대한투자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KOTRA내에 설치된 Invest KOREA는 국가 투자유치 전담기구(IPA)이다. Invest KOREA는 각종 대한 투자 상담서비스 및 투자유치활동과 35개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무역관에서 현지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2015년 209억 달러(신고기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KOTRA의 Invest KOREA 조직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대상 지역별로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투자가 실현될 때까지 해외무역관-본사-중앙/지방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밀착 지원하고 있다.

Invest KOREA는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아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로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무역관-본사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에 주력한 결과, 2015년 총 2,010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으며, 對韓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표 IV-13-1-24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유치 프로젝트(건)	1,180	1,501	1,783	1,891	2,010

3)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방한 투자사절단 지원

Invest KOREA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사업 활동을 위한 활동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 유망 잠재 투자자와 투자 유망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해외에서 투자전담관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망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해외무역관 투자전담관과 함께 본사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매니저(PM)가 전담으로 지정되어 한국진출에 따른 법인설립, 공장부지 물색, 인센티브 설명 그리고 유관단체 면담 등 방한 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방한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행정수속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vest KOREA는 투자유치 IR과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한편 투자유치 테스트포스팀(TFT)을 파견하고 투자가를 향한 초청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겟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IR,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 기관 연계 해외 IR 및 라운드테이블, 실무TFT, 지자체 수요에 의한 투자유치단 파견은 2015년 81회를 수행하였다. 한편, Invest KOREA에서는 2015년 방한 투자가를 758회 지원하였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처리

이미 우리나라에 투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선진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1999년 10월 외국인투자 ombudsman 사무소 개소 이래 연평균 약 386건, 2015년말 기준 462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투기업의 고충에 따라 금융, 세무, 법률, 건설, 회계, IT, 노무, 지적권 등 분야별 전문위원인 홈닥터를 배치하여 단순한 경영자문에서 법규 및 행정과 관련된 까다로운 고충해결까지 현장방문, 상담, 온라인,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1:1 맞춤형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투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외투기업과의 간담회, CEO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공통애로사항인 우수인력 확보 문제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외투기업 채용박람회와 외투기업 지방대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외투기업 모기업 차원의 고충현안 발굴 및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 모기업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13-1-25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

년 도 별	처 리 현 황		처 리 유 형		
	건 수	증감률	제도개선	행정처리	기타처리
2011년	403	4.3	13	63	327
2012년	348	-13.6	6	104	238
2013년	383	10	5	98	280
2014년	437	14	9	112	316
2015년	462	5.7	14	112	336

주) 처리유형은 정부 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 조치를 수반하는 “행정 처리”, 자문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기타처리”로 구분됨.

5)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인 한국투자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6년 11월에 개관한 외투기업 창업지원센터(Invest KOREA Plaza, IKP)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인큐베이션 건물로 외국인투자기업(7~9층)이 입주해 있으며, 2층에는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ICC)과 은행, 회계법인 등의 비즈니스센터, 외국기업협회 등의 유관기관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특히 투자종합상담실에는 여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서 파견 나온 20명의 공무원 및 KOTRA 전문위원들이 분야별 컨설팅 및 민원 처리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3-1-26 투자종합상담실 One-Stop 서비스 내역

비자	관세	국세	입지	운전 면허	외투 신고	법률	세무 /회계	고용 /노사	생활	로컬 데스크
비자 발급/ 갱신/ 변경	현물 출자 확인서 발급	사업자 등록 신고	투자 입지/ 공장등록 대행	운전면허 교환 발급	외투신고 /등록 /변경	법인등록 대행/ 법률상담	조세 및 인센티브 상담	노사관계 /고용 지원제도 등 상담	생활상담 / 일일비서	지자체 입지지원/ 정보제공 /제증명 발급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관세청	국세청	산단공	도로교통 안전공단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호사)	전문위원 (회계사)	전문위원 (노무사) 고용부	전문위원 (영어, 일어)	8개 지자체

6) Invest KOREA Plaza 운영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지원센터(Invest KOREA Plaza, IKP)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대 및 각종 행정 지원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인큐베이팅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다. IKP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외국인 투자자 전용 사무실(7~9층)과 KOTRA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ICC), 지자체, 투자유치 유관기관, 은행 등이 입주하여 IKP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관 시 부터 2015년 12월까지 IKP 외국인 투자가 전용사무실을 이용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164개 업체이며 이 중 136개 기업이 IKP를 졸업하였으며, 36억 달러의 투자신고 실적을 나타냈다.

표 IV-13-1-27 IKP 인큐베이터 이용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규업체(개사)	14	14	8	11	21
졸업업체(개사)	18	10	11	10	12
투자신고액(US\$ 천 달러)	72,908	170,895	291,971	224,388	104,100

7) 산업별 투자유치활동 전개

Invest Korea는 단순한 Catch All 전략의 양적인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국내 비즈니스 파트너 및 사업기회 발굴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투자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에너지신산업, 의료바이오, 식품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복합리조트, 문화콘텐츠, 물류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GAPS(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사업을 통하여 국내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국가 중점육성 산업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간 공동 R&D, 마케팅 등 다중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독일의 화학기업 Henkel사 및 사우디의 국영기업 SABIC과 GAPS사업을 추진하였다.

사. 해외 전문인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1) 해외 전문인력 발굴·공급

KOTRA의 Contact Korea는 기업과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재 발굴에서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골드카드), 국내취업 후 정착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글로벌 인재 발굴 서비스

국내기업 및 기관에서 포털사이트(www.contactkorea.go.kr)를 통해 글로벌 인재 발굴신청을 등록하면 해외무역관을 통해 적정인재를 발굴, 의뢰처에 인재정보를 제공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무료로, 대기업에게는 유료로 인재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3-1-28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 ① 인재발굴 신청 → ② 해외무역관 인재발굴 → ③ 인재정보 송부 → ④ 채용 인터뷰 → ⑤ 이력확인 → ⑥ 고용계약 체결 → ⑦ 비자추천 → ⑧ 국내 정착 지원

표 IV-13-1-29 글로벌 인재 채용지원 실적

연도	구분	해외 전문인력 채용			합계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2013년	수요처(개)	137	6	1	144
	채용인원(명)	234	42	1	277
2014년	수요처(개)	89	17	3	109
	채용인원(명)	150	51	3	204
2015년	수요처(개)	136	34	9	179
	채용인원(명)	277	47	11	335

나) 해외 전문 인력 DB 구축

인재유치포털(www.contactkorea.go.kr)에 해외 전문 인력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심 해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국내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표 IV-13-1-30 전문 분야별 DB 구축 현황

(단위 : 건)

구분	공학	관리	컴퓨터	경영	연구	교육	기타*	계
2013년	1,556	2,740	568	962	159	116	2,113	8,214
2014년	723	813	440	1,466	77	89	2,272	5,880
2015년	697	950	476	1,246	70	58	2,003	5,500

* 기타 : 디자인, 법률, 의료, 운송, 농업 등

다) 해외 전문 인력 체류비자 추천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골드카드)를 발급하고,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지원하여 출입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용추천서 발급시 비자 발급 상한기간은 최대 5년이며 고용기간 연장시 비자도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복수비자 발급, 영주권 발급 우대, 배우자 취업 허용, 가사보조원 동반비자 발급 허용, 이직 지원 등 다양한 특혜가 제공된다. 고용추천서 신청은 포털사이트(www.contactkorea.go.k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13-1-31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①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③ 1차 서류 검토 → ④ 이력 확인 → ⑤ 외부심사 → ⑥ 홈페이지에서 고용추천서 다운로드 → ⑦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표 IV-13-1-32 고용추천서 발급 실적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고용추천서	310	310	278

2) 해외 일자리 창출

KOTRA는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국내 인재의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해외무역관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 발굴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외취업박람회와 취업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인력의 해외 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표 IV-13-1-33 국내인력 해외 취업지원 절차

① 해외기업의 국내인력 채용수요 발굴 → ② 해외취업희망 인력모집 → ③ 적격인재 면접
알선 → ④ 고용계약 체결 및 비자발급 지원

아. 신흥국 상생협력 기반 구축

1) 글로벌 CSR사업

KOTRA는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도와 우리기업의 마케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규제수단으로 발전하는 CSR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CSR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이며, KOTRA는 참가기업에게 사업의 기획·실행, 홍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KOTRA 소개 - 알림마당 - 사업안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csr@kotra.or.kr로 송부하면 된다.

표 IV-13-1-34 주요 사업내용 및 '15년 실적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15년 실적
우리 기업의 해외 CSR 활동 지원	자사 제품·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기업이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 기부 ○ (효과) 현지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우리기업은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형성 	중국, 동남아 등에서 55개 사업
	해외 기술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신흥국 정부나 발주처를 대상으로 공유 ○ (효과) 현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우리기업과 발주처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제고 	동남아, 중남미 등에서 56개 사업
	한류 스타 C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해외에서 한국의 경제행사에 한류스타가 우리기업의 제품을 현지에 기부하거나 자체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 (효과) 한류스타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이미지 제고효과 극대화 	중국에서 3개 사업
	유휴 장비 신흥국 이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한국의 연구개발·제품생산·공공서비스 분야 장비와 운영경험을 신흥국에 제공 ○ (효과) 신흥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에 기여 	미얀마, 베트남 등 5개 사업
우리기업의 CSR 가이드라인 준수 지원	국내외 CSR 포럼·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국가별 CSR 이슈에 대응하여 우리기업이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포상·포럼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공유 ○ (효과) 국제 CSR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국내외에 우리기업의 CSR 활동노력을 홍보 	한국,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중남미등에서 18회 개최

2)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OTRA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무역투자진흥정책 및 경제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국의 수출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비즈니스 연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협력국에 친 한국적 제도 수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윈-윈(win-win)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쿠바, 케냐, 러시아, 태국, 에콰도르 등 총 9개국에 대해 KSP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별 정책자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V-13-1-35 2015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국가명	수행 내용
쿠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주제) 쿠바 무역투자현황 연구와 국영기업의 역량강화 ○ (연계사업) 쿠바 유망산업 진출 세미나 및 1:1 상담회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주제) 연해주, 캄차카, 사할린의 경제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방안 ○ (연계사업) 극동러시아 투자진출 세미나 및 1:1 상담회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주제) 케냐 산업단지 조성방안 ○ (연계사업) 케냐 투자진출 세미나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주제) 디지털콘텐츠 및 SW 산업의 협력 증진 전략, 자동차 산업 발전경험 정책 전수, 식품클러스터 조성방안 ○ (연계사업) 한-태국 Digital Contents Sharing & Tech Alliance 상담회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주제) 국가품질인증방안 자문 및 무역투자역량강화 ○ (연계사업) 에콰도르 인증상담회
기타 수행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태평양도서국포럼) 남태평양도서국의 통상증진방안 ○ (UAE) 산업단지 개발운영, 외국인투자유치방안, 녹색성장전략 등 ○ (불가리아)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 (페루) 핵심권역 산업발전계획 수립

제14장 한국무역보험공사

1 일반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우리나라 수출·수입 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입보험은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정부에서는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신규보험종목 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수출보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1992년 약 1조 8,000억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2015년말기준 168조 1,359억원을 달성하였고 국내수출의 약22%를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1조 3,5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보험으로서의 공신력도 크게 증대되었다. 2010년에는 수출보험법 개정(2010.7.6자 시행)을 통해 공사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중요 물자 수입거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및 수출기반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지원 및 중요 광물이나 원유 등 수입이 불가피한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공사는 총 16개 국내지사 운영을 통해 권역별 중소수출기업 전담지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수출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12개 해외지사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과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확대

공사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상경영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중소·중견수출기업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등의 경기둔화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확대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2014년 38.5조원, 2015년 41.7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14,046개, 2015년 15,295개의 중소·

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경쟁력 확충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인수실적 18.6조원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수 6,952개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결과, 2015년 수출신용보증 인수실적은 2008년 1.4조원 대비 약 4.0배 증가한 5.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14-1-1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소·중견기업 인수실적	358,828	384,814	417,269
수출신용보증	66,833	64,711	56,076

나. 중소기업 육성방안 시행

공사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이행 및 신규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등 수출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통해 보험(보증)종목의 보험(보증)료 50% 할인(기업별 최대 300만원) 및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10회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금부족으로 수출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희망보증’ 제도를 운영하여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을 우대하고 있으며 경제성 있는 수출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

(보증)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다.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2009년부터 중소수출기업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석자 특성에 맞는 제도 해설과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강사진 확충을 통해 무역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수출 예비/초보 기업에 대한 교육강좌를 추가하여 잠재 수출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IV-14-1-2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내역

(단위 : 회, 개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최횟수	21	28	38
수료자수	550	973	1,105

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보험(증)료 지원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보험(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수출실적 US\$500만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증)료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2015년 500백만원,

업체당 수혜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2015년에는 지원예산 5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수출실적 US\$100만 이하 수출기업 지원에 배정하고 수출실적 US\$100만 초과 수출기업 지원에 300백만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무역협회와 ‘중소중견기업 Plus+보험료 지원’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수출실적 US\$500만 이하인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Plus+보험료 지원사업의 2015년 예산은 총 350백만원이고 업체별 수혜한도는 100만원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IV-14-1-3 보험(증)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단위 : 백만원, 개사)

구 분		2014년	2015년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증)료 지원	지원금액	500	500
	수혜업체수	497	383
무역협회 중소중견기업 Plus+ 보험료 지원	지원금액	306	350
	수혜업체수	1,019	927

* 단체보험 도입으로 수혜업체수 대폭 증가

마. 무역보험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고객의 거래처 변경 및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무역보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수출자금 조달, 수출채권 유동화, 환변동관리 등 수요자 맞춤형 무역보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바.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의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수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단기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에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부대비용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나,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단기수출보험과 연계하는 경우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시 수출자의 귀책이 없으면 수출자는 연계된 보험금 이내에서 미결제금액의 부보율(중소기업 100%)만큼은 공사에 상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출자의 손실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수출신용보증(NEGO)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같이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이 증계무역 거래를

제외하고 지원하는데 비해 수출신용보증(NEGO)은 모든 수출거래가 보증대상이 되며, 보증서 발급 후 별도절차 없이 1년간 회전 보증 가능하다. 또한 은행에 대한 면책조항 축소로 담보력이 강화되었으며, 단기수출보험과의 연계 가입 의무가 없다. 다만 결제기간이 180일 이내인 거래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3) 환변동보험 제도 운영

환변동보험(일반형)은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금액 또는 수입을 통해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상품이다.

수출거래의 경우,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출기업에게 보상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거래와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환변동보험(옵션형)은 공사는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율상승시 발생하는 환수금이 부담스러운 영세수출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공사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통해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헷지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투기적 환헷지 수요 차단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실행지 유도를 위해, 공사는 유관기관, 컨설팅사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 주요지역에서 설명회 개최 및 개별기업 1:1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V-14-1-4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2014년	2015년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15,096	12,262
보험금 지급액	321	178
보험금 지급업체수	417	367
대 기업	1	2
중소·중견기업	416	365

4) 지방자치단체 보험(증)료 지원

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보험(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관별로 연도별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장 위치, 수출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내 수출중소기업에게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으로 지원 기관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종목에 차이가 있다. 공사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중소기업은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5) 무역협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무역협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2009년부터 무역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수출실적 US\$500만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Plus+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한국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150만원 한도로 환변동보험료도 지원하였다. 업체별 연간 수혜한도는 종목별로 각각 중소중견기업 Plus+ 보험 100만원, 환변동 보험 150만원이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기존 수입자 및 신규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하고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대금미회수 위험과 환변동 위험을 커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이다(HS-Code 제1~24류 (농수산물) 중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이며 종목별 한도는 업체당 연간 3,000만원이다.

7) 수산무역협회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수산무역협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2013년부터 수산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으로 종목별 지원한도는 각 1,000만원, 3,000만원이다.

8) 산림조합중앙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임산물 수출(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제외)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이다.

9)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사업

공사는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미수채권 관리 및 회수대책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사의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사업의 실효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대외채권회수 노하우가 풍부한 국외보상채권부에서 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2월말 기준 전세계 35개국 74개 채권추심기관과 업무제휴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사 해외조직망을 통해서도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도입

공사는 무역보험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하여, 단체(유관기관, 지자체, 협회 등)의 구성원인 회원사 중소기업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10개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며, 중소기업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거래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통상 5만달러 범위내). 이와 관련,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1) 기타 중소기업 우대제도

대기업의 부보율이 95%(중견기업은 9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부보율이 100%로 우대함으로써 대금미회수 발생시 중소기업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한은 2~3개월로 대기업에 대한 보험금지급시한 3~4개월에 비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이 보험금액의 60%이내(중견기업 70%)인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은 80% 이내로 우대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은 전 보험종목에서 10~25%의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추가로 보험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도 책정시에도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5장 한국생산성본부

1 일반현황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32조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컨설팅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수사업, 조사연구사업,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법의 개발 및 보급사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위탁사업, 아시아생산성기구(APO)와 관련되는 정부업무의 대행, 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공장관리합리화·물류합리화에 관한 연구·컨설팅·교육훈련·기술개발 및 설비의 책임감리,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ITQ)발급, 정보시스템 감리 및 평가 등 정보화 진흥사업, 생산성향상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증발급 사업, 생산성향상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시청각교재, 정기 간행물, 도서 등의 제작·발간 및 각종 정보자료의 개발 보급,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기술조사 및 연구용역,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상담·교육사업, 생산성회원제도의 운영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및 전문요원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7본부(소·실), 28센터·팀, 4지역본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에 소재하며, 경기도 이천의 연수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항구적인 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방법론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제조혁신방법론(KPS) 보급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지향적 컨설팅 방법론 제시와 고품질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산업 체질 강화와 새로운 생산성 제고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가 생산성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산업혁신운동, 청년취업, 산학협력, 취업·전직 지원, 대학경쟁력 강화 등 국가적 과제 수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컨설팅/교육/자격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규 모델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및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생산성향상 사업

1) 국가 생산성대상,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한국생산성본부는 1962년 생산성상을 제정하여 경영의 발전과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국가 생산성대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요구되는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소개하여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제고 및 근로자의 참여 도모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측정된 경영, 평가된 경영, 체계화된 경영 기법을 보급·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향상의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국가적 생산성 의식의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국무총리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포상하고 기업 및 소속단체에서

생산성향상운동과 경영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자 및 임직원을 추천받아 생산성 향상 유공자로 선정·포상하고 있다.

표 IV-15-1-1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성대상·유공자 포상(사·명)	70	60	57

2) 생산성관련 조사·연구 및 경영생산성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는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전략, 임금정책의 기초가 되는 노동생산성통계와 상장기업의 노동생산성분석 등을 분기별로 편제·발표하여 생산효율화, 기술투자, 성과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으며, 외국선진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보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IV-15-1-2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성 통계 발간(종)	8	6	6

3)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등급인증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경영시스템의 생산성 혁신역량 수준을 진단·인증하고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증심사의 기준과 방법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PMS인증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듦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수준을 감안,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집중하여 진단함으로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15-1-3 PMS 인증심사 및 OJT 컨설팅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PMS인증심사(개사)	224	111	123
OJT컨설팅(개사)	49	46	58

4) 한국형제조혁신방법론(KPS)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제고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우리 산업환경 및 기업수준에 적합한 생산성프로세스 및 시스템 혁신방법론인 한국형 제조혁신방법론(KPS : Korea Production System)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KPS는 제조표준모델, 평가체계, 실행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TPS/Lean 생산시스템을 모방적으로 채택하거나 TPM-ERP-6시그마와 같은 개선 기법들을 유행 따라 시도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업의 제조철학과 산업특성에 맞는 제조운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심화형 KPS(스마트 공장) 개발을 진행하였고 섬유, 조선 KPS 개발을 차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방법론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대기업이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1·2·3차 협력사에 대해 경영·제조현장·기술 등 입체적 현장진단, 혁신환경 조성, 제조혁신방법 제공, 기술기반 구축,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16개 컨소시엄, 88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 생산성향상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6)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부터 자발적인 동반성장의 기치아래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참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활동을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형제조혁신방법론(KPS)모델을 제공함과 더불어 인력지원 등 산업혁신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3차년도인 2015년에는 295여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참여 기업들의 불량률과 원가절감률, 품질개선 및 임직원의 혁신의식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둬으로써 산업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7)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국가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 대학, 지자체 및 중소기업과 제휴하여 취업지원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학생들의 중견·중소기업 취업 동기부여를 위해 취업 캠프 이후 실제 기업 채용연계 방식으로 진행되는 취업연계형 잡(Job) 콘서트를 기획하여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SAP ERP, 빅데이터, ICT 자격증 등 중소기업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교육을 통하여 구직자와 기업간의 미스매칭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 컨설팅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1958년 현대적 경영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영컨설팅을 시작한 이래 선진이론을 도입·정착시켜왔고, 인사/조직, 전략, 성과측정 등에 대해 전략수립에서 관리시스템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바탕으로 객관성이 요구되는 공공분야 컨설팅을 비롯 제조현장 합리화, 품질관리 컨설팅에서 나아가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특성과 최신 경영 트렌드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책 및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정책연구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으며, CS전략수립, CS측정모델구축, CS경영시스템구축 등의 고객만족 컨설팅과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전략, 브랜드 체계 전략 수립 등의 브랜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글로벌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탄소 에너지경영 인증제도, DJSI지수 발표 및 지속가능 경영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IV-15-1-4 컨설팅 지원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컨설팅지원(건)	441	666	744

다. 교육훈련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력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고급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이론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자기주도 학습과정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품질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경영관리, 생산품질, 정보화 등 직무직능분야별로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교육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관리능력 및 조직개발 등 주요 테마별 주문식 교육인 수탁교육, 인터넷, 우편통신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인 이러닝교육 등의 과정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표 IV-15-1-5 교육 및 훈련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개교육(명)	41,416	39,992	37,646
수탁교육(명)	122,754	134,432	143,586
e러닝교육(명)	48,574	85,914	105,000

라. 아시아생산성기구(APO) 협력 사업

생산성향상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개발을 목표로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APO)와 상호협력사업을 통해 각국의 생산성 관련 정보 및 인적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이를 국내기업 등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APO 회원국간의 경험 및 정보를 상호교류하기 위해서 매년 수차례의 APO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회원국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인바운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회원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표 IV-15-1-6 세미나 개최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국내 주관 세미나(회)	3	4	5
해외 프로그램 참가(명)	43	45	27

마. 정보기술자격검정 사업

기업종사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처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정보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에 걸쳐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에 기반한 신규 자격(서비스 경영자격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능력위주의 사회구현이라는 국가 정책과제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IV-15-1-7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ITQ 등 자격인증	794,834	749,558	719,048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6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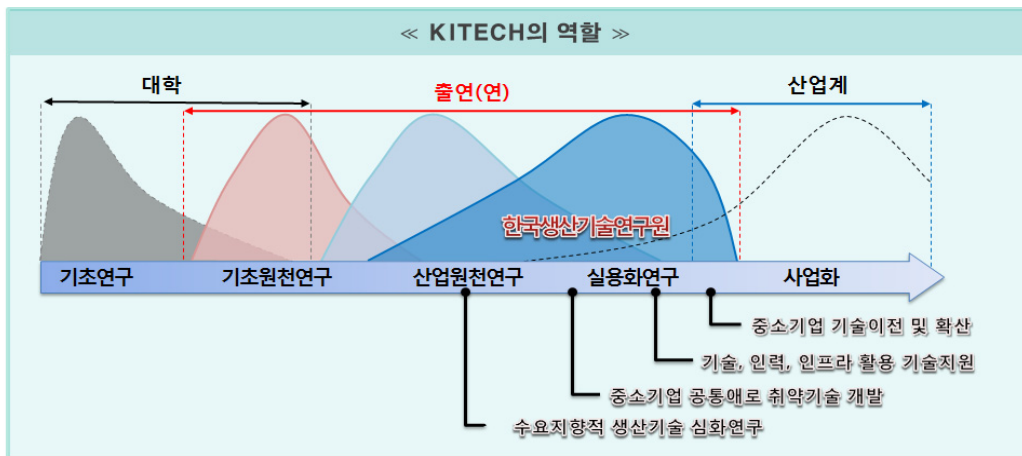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1989년 국가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다.

그림 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태동 및 기반구축기 ('89~ '97)	성장·발전기 ('98~ '03)	지역체제 구축기 ('04~ '12)	신성장기 ('13~present)
			
<p>19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공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설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 활동 기틀 마련 <p>19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HDTV 시대 개척 <p>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원 이전(충남 천안) 종합기업서비스센터 개소 	<p>19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연) 육성법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 변경 <p>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km/h급 한국형 고속전철차량 개발 반도체 생산설비 국산화 <p>20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부 '올해의 최고 기술' 선정 (사이버 엔지니어 U24) 	<p>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체제 구축(호남, 동남, 대경) <p>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초, 세계 2번째 안드로이드 로봇 개발 <p>20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전지용 웨이퍼 잉곳 제조기술 개발 <p>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초 예코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합금기술 개발 <p>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p>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개소 <p>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ME Talk 등 수요기반형 중소기업 지원 추진 <p>예측시 원천기술 기업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형 가젤형 기업 발굴·육성 <p>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울산, 제주지역본부 신설 무기바인더 제조기술 기업 이전

3대 중점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2대 핵심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술주도형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선도하며 심화연구 및 축적된 생산기술을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술주도형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1) 기술주도형 중소·중견기업 종합지원 체제 구축

지역별로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본원(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인천(뿌리산업기술연구소), 경기 안산(융합생산기술연구소), 충남 천안(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 광주(서남지역본부), 부산(동남지역본부), 대구(대경지역본부), 강릉(강원지역본부), 울산(울산지역본부), 전북 전주(전북지역본부), 제주(제주지역본부)의 「3연구소 7개 지역본부」 조직체계를 운영 중이다.

2) 글로벌 중소기업 지원 체제 강화

해외 진출 글로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해외 선진 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센터 운영(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기술지원은 물론 진출국에 대한 기술확산 지원으로 현지 장비, 부품·소재산업의 한국화를 추진 중이다.

그림 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현황



나. 기관주요업무 중심의 3대 중점 연구영역의 전략적 육성

생산기술 분야 연구개발과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이라는 기관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의 기술력 향상, 부품·소재 산업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생산기술’, 친환경 생산혁신을 위한 ‘청정생산시스템기술’, 고부가가치 융합신사업 창출을 위한 ‘융·복합생산기술’의 3대 중점 연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6-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능

구분	내용
뿌리생산기술	우리나라 주력기간산업 부품소재의 품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조, 금형, 용접·접합, 열처리, 소성가공 기술개발 및 확산
청정생산시스템기술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의 효율적, 환경 친화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확산
융·복합생산기술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산업의 발전을 혁신하고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융·복합생산기술 개발 및 확산

다. 중소기업 지원 체제 효율성 강화

기관 고유미션인 3대 중점연구 역량확보 및 기술주도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본부별 연구 및 실용화지원 역할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지원 연구기관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 사업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조직으로 ‘중소·중견기업지원본부’를 설치(‘14.1월)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애로기술해결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 공동R&D지원

지역 중소기업과의 커뮤니티채널(기술교류회, SME TALK, 테크컨택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 기술 수요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기업 매칭 R&D 등을 수행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시까지 박사급 연구원이 전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16-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구분	내용
파트너기업 수요대응 생산기술 지원사업	중기테크컨택센터를 통해 접수된 파트너기업의 긴급한 현장애로기술을 접수 받아 우리 원 기술력, 인력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및 자체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일자리 비타민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신기술개발,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연구개발 등 집중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가 예상되는 기술지원
타킷형 히든챔피언육성 지원사업	해외 시장진입 및 점유율 확대가능 기술을 타겟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술스펙까지 개발 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소재·부품기업 성장통극복지원사업	업종 평균이하의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성장통 원인을 진단하여 기술지원과 신성장아이템을 발굴 지원
수요기반형 플랫폼형 R&D사업	생기원에서 보유한 특화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중소제조기업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기술의 실용화 연구 추진
기업주문형 R&D 사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받아 생기원에서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전 협약에 따른 기술이전

* 광역경제권 지역본부 내에 특화보유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지역	인천	경기	충청	서남	대경	동남	강원	울산	전북	제주
주요 기술	뿌리산업 기술	융합생산 기술, 지능형 로봇, 섬유	생산시스템, 그린공정 소재	동력부품, 광관련 기반기술	극한제조 기술, 건설기계 부품	해양플랜트 기자재, 지능형 정밀기계 부품	비철금속 기발 소재공정	제조현장 ACE화, 기후변화 대응기술	농기계 특화기술, 친환경 용접공정	천연생태 자원기공

2) 장비활용지원(개방형 실험실)

850여종의 연구원 보유장비를 지역본부 40개 개방형 실험실에 재정비하여 연구장비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개방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16-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0개)

지역본부	개방형 실험실
뿌리산업기술연구소 (13)	재료물성분석/재료시험 공용실험실,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주물기술지원 공정실험실(경서), 표면분석 공용실험실, 금속재료기초분석 공용실험실, 미세조직 정밀분석 공용실험실, 도금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사이버설계기술지원/첨단장비 지원공정실험실, 소성가공 공정실험실, 열처리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용접접합 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정밀금형 공정실험실, 자전거제조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융합생산기술연구소 (6)	유해물질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정밀측정 공용실험실, 산업용섬유 공정실험실, 섬유시제품 공정실험실, 의류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패키징기술센터 공정실험실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 (5)	음향진동 공용실험실, 청정환경 공용실험실, 재료분석 및 물성 공용실험실, 에너지 설비성능인증 공정실험실, 스마트자동화공정실험실
서남지역본부 (5)	에너지환경(RoHS) 공용실험실, 정밀모터시험.분석 공용실험실, KOLAS(교정) 및 측정/분석 공용실험실, 나노기술집적 공정실험실, 정밀 금형TRYOUT 공정실험실
동남지역본부 (5)	융합플래이팅 공용실험실, 정형프로세스 공용실험실, 첨단하이브리드 공용실험실, 주물기술지원 공용실험실(마천), 초정밀가공 공용실험실
대경지역본부 (2)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 공용실험실, 주물기술지원 공정실험실(다산)
울산지역본부 (1)	친환경청정기술 공용실험실
강원지역본부 (1)	비철금속 공용실험실
전북지역본부 (2)	농기계신뢰성 시험연구센터 공용실험실(김제), 탄소경량소재 공정실험실(전주)

표 IV-16-1-4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술지원 (장비활용)	시험/검사/분석	45,501	45,231	46,690
	시작품제작지원 등	26,864	27,651	25,504
	소계(건)	72,365	72,882	72,194

3) 인력지원

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중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기업에 장기(3년 이상) 파견하여 핵심R&D인력으로 활동토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16-1-5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지원인력수(명)	93	75	62	·
지원기업 수	99	84	61	·

나) 기업현장출장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수행 통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16-1-6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지원 건 수	1,393	1,485	1,573	·
지원기업 수	394	454	479	·

4)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시장수요 기반의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이전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확산 시스템 고도화 및 성과확산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연구원 파트너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휴먼)특허 유·무상 매각 수행을 하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 보육중인 기업이거나 파트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V-16-1-7 기술이전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전건수	327	268	397

5) 창업보육지원

자생력이 미약한 초기 창업기업에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생존, 성장, 발전하도록 각 센터별로 특화된 기술 분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인프라(전담연구원, 공간, 연구장비 활용) 및 경영 등 기본 서비스에서부터 공동 기술개발, 기술지원, 공용장비, 제품생산까지 One- Stop 생산기술혁신형 창업 입주기업 종합지원을 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최우수 S등급(천안·부산창업보육센터)으로 선정되었다.

표 IV-16-1-8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센 터 명	2014년	2015년	비 고
	업체 수	업체 수	
시화창업보육센터	15	8	· 창업공간 165㎡지원 · 멘토지정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 지원 · 경영, 마케팅, 기술지도 교육 연수지원 (고용인원 139명)
천안창업보육센터	19	20	
안산창업보육센터	6	6	
광주창업보육센터	8	8	
부산창업보육센터	6	11	
합 계	54	53	

6) 기술커뮤니티 지원

기술분야별, 지역별, 업종별 유사기술·산업중심의 산·학·연간 기술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유기술 및 노하우의 확산 거점을 마련하고, R&D성과공유, 기술수요발굴,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의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44 기술커뮤니티 지원



표 IV-16-1-9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기술커뮤니티 구성	46	48	46	.
참여기업 수	597	603	597	중복기업有

7) 기업혁신 활동 지원

연구원과 협력관계를 통한 동반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수요파악 및 정책반영, 연구원의 개발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트너기업에게 연구원의 모든 기업지원 활동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16-1-10 생기원-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신규기업	390	331	499	·
기업 수	2,299	2,630	2,991	·

또한 연구원 보유기술 및 노하우 확산을 위한 거점 구축으로 센터별 특화 기술 분야별, 지역별, 업종별 유사기술 중심의 기술커뮤니티 구성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신산업 발굴 및 대응전략 도출을 통해 대형 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기술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연구원 파트너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3~5년간 1인 2社 이상의 집중 전담지원 글로벌기업 육성계획을 통해 생산기술 연구원 보유 38개 개방형 실험실을 활용하여 고도장비 지원, 현장출장/파견, 기술인재 지원사업을 통한 고급인력난 해소 지원 등을 통해 생기원형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표 IV-16-1-11 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기술지도	5,631	6,009	6,171	·
기술상담	2,410	1,582	1,905	·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7장 산업연구원

1 일반현황

산업연구원(KIET)은 국내외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경제의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되었다.

그동안 산업연구원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산업과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연구 분야를 시의 적절하게 변화시켜 왔다.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해소를 위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조직은 지역발전연구센터의 1센터와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서비스산업연구실, 미래산업연구실, 방위산업연구실 등 10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연구실은 1988년부터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들을 발굴하고 조사·분석하여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벤처기업정책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실적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안정 성장기반 구축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중소기업청이 설립되고 외환위기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8년 이후 중소·벤처기업 연구실의 연구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중소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세부전략 수립,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관련 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물로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 및 시책방향,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체제 개선방안, 21세기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평가 등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바람직한 좌표와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중소기업백서 2000,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전략 (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중소기업 지원체제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여러 부처에서 복잡다기하게 추진되면서 지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예산사전

조정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부 규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추세 둔화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 둔화의 원인을 규명하였고, 미래전략 2020 중소기업 부문 과제 연구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의 변천과정 및 운용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중소기업 범위 조정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추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다. 즉,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및 연구개발투자효과 비교분석,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융합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쟁력 실태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분야 국정기조에서 창조경제가 특히 강조됨에 따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기술정책 방향과 과제 등의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 및 상향 이동 지체의 문제를 ‘성장장벽’이라는 기준과 관점에서 그 현상 파악 및 원인 규명을 시도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진단·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2015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2) 벤처기업 및 창업정책에 관한 연구

창조경제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인 벤처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의 실천수단으로서 창업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벤처 등 혁신형 기업과 창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 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 창업보육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중소기업 창업환경 분석,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의 수급구조 분석,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을 제고방안 등이 있다.

특히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현 실태 및 과제, 우리나라의 창업부진 실태와 시사점,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시사점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원의 다양화 및 창업 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성 지식·기술 창업 활성화 방안, 원스톱 온라인 창업시스템의 국제비교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내실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고용률 70% 달성이 국정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 특성과 정책과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기술창업기업의 지방 입지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벤처 붐과 정체를 되돌아보고, 벤처재도약의 가능성을 진단함과 아울러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함과 아울러, 벤처 생태계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벤처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공과를 살펴본 후 미래과제를 제시하는 한국벤처정책 20년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금융활성화에 관한 연구

금융, 인력 등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경영자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금융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중소기업의 소매금융 이용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증장기 운용방안 및 전략,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과제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자금 간 지원방식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자금과 일반 금융기관 자금 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 원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급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고용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고성과 작업제도의 활용 실태와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방안, 고급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활용과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정책의

성과 및 과제, 중소기업 고용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R&D인력 및 질 좋은 인력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이슈와 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현황 및 분석,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 해소방안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신용보증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보증 공급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심화와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 틈바구니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성화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과제로 부각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구조 및 활성화 방안, 국가기술개발 용자지원 정책 평가,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실태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형화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현황과 확대방안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 특성분석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R&D 특성과 혁신역량을 규명하고 정책대상의 합리적 설정과 함께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투자와 개발 활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R&D 사업 평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R&D 사업의 분산·중복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10년간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하여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기술적 혁신성과와 상업적 혁신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KOSBIR의 제도와 운영상 나타나는 과제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R&D자금 지원과 중소기업계의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최근 수년간 세계 최고 대비 75% 내외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측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기술수준 측정방식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공공기술구매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도 시행하였다.

5)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연구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심화 추세를 보이는 기업 간, 업종 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 기업경쟁력 제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생 발전이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실태 및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간 협력강화 종합대책, 중소기업의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하도급거래 구조 변화 분석과 발전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사연구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등이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상호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이론과 논리, 동반성장지수 구성요소에 관한 예비연구 등을 추진하여 동반성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를 비롯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개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생 번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의 작성과 분석, 2015년 성과공유 확산제 시행효과 분석 등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6) 지방화·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전략,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생적인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내외 지역산업발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미국, 유럽,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화·세계화 전략 연구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방안, 중국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적응비용과 대응전략, 한·미 및 한·EU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평가지표 개발,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의 중소기업 파급영향 및 정책수요 조사·분석,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실태와 시사점, 중국 운주상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진출 방안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강소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2015년에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FTA 유망품목 선정 체제 구축 및 정책과제,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7) 시의성 있는 주요 현안과제 연구

유럽의 금융·재정위기, 일본 후쿠시마 재난사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과 같이 국내 중소기업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문제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로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도 원인과 방지대책,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영향 점검,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적정성 및 실효성 조사, 중소기업의 인력난 현황과 정책방안,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일본 후쿠시마 재난사태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환율 변동이 대·중소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엔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엔저의 영향과 대응 등이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일자리대책 종합 평가, 중소기업간 지식·기술 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방안, 중견기업 육성방안,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6차 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88에 도달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과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국내외 주요 지원사업

1) 싱크탱크로서의 대정부 지원업무

산업연구원은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업무 연계성이 높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회, 포럼, 간담회 개최를 통해 축적된 연구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한편, 정책수요가 높은 연구과제는 사전 기획에서부터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정책 관계자를 참여시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개최되는 각종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한 대표적 연구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전략, 중소·벤처기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한·미 및 한·EU FTA에 대한 대응방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현황 점검 및 과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지식재산권 기본계획 수립, 창업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등 다수가 있다.

2)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 관련 조합 및 협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협의회,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의 살아있는 의견을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협의회 또는 토론회로는 중소기업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원인과 대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6차 산업화 정책과 창업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3) 국내외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지식 공유를 위해 상호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연구원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포럼에 유관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소·벤처기업 연구를 위한 지적 기반의 확대와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지식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EDCF)의 일환으로 후발 개도국의 경제관련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한 OECD, APEC, ASEM, G20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관련 국제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제리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경험을 전수한 바 있으며, 한국과 독일의 금융시스템·중소기업 혁신 과제,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등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사례 등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결과를 영문으로도 발간하고 있다.

주요 발간자료로는 Experiences of Korean SME Policies, Development and Policy Issues of SME Scope, Finance Mechanisms for the New Industry Grow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Global SME and Policy Implications, Comparison of Technology Innova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Innovative Capability of SME and Policy Implications, High-growth SME's Job Creation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R&D Support Policy and Its Strategic Direction in Korea, Measures to Promote Youth Start-ups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What Factors Lead Korean SMEs to become Global Hidden Champions?,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Korean SMEs and their Implications, Policy Considerations for SME Globalization in the Creative Economy, Status of Convergence among SMEs and Policy Implications, Status of Women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Policy Implications 등을 발간하였다.

제18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일반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정보연구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통합되어 2001년 1월에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의 정보은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분산형 공동활용 체제 구축
- 지식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전자정보화 촉진·지원
- 정보의 종합유통체제 구축·운영
-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의 연구·개발 및 자문
-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의 조사·분석
- 연구전산망 등 과학·기술 전용 초고속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지원
- 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과 자원할당 및 응용기술의 개발·지원
- 정보관리·유통시스템 등의 보급 및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 국가 과학·기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 정부·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개발 용역의 수행
- 제1호 내지 제10호의 부대사업, 지역정보화 체제 구축·운영,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정보기반구축 사업

1) 정보자료 수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핵심학술지, 학술회의자료, 연구개발보고서,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31개국 347개 기관과 과학기술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 과학기술정보의 지속적 연계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480개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을 통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구축

국내외에서 수집한 각종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기술 문헌정보를 국내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및 구축하고 있다.

표 IV-18-1-1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보 유 량	비 고
국내외 과학기술 논문	74,747,832건	국내외 학술지, 학술회의, 학위논문, 오픈엑세스 저널
과학기술 분석/동향	199,904건	분석리포트, 글로벌동향브리프, 동향지식지
연구보고서	275,299건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미국연구개발보고서
국내외 특허정보	33,021,058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
사실정보	118,792건	화학, 생명, 천문 등 과학기술 사실정보
산업표준	61,546건	한국산업, 국제표준화기구 등
합 계	108,424,431건	

나. 과학기술 정보 포털구축 및 유통

1)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내 과학기술 연구 개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인 NDSL(www.ndsl.kr)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 및 특허, 동향정보,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약 700개 학·협회와 670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국가전자정보컨소시엄(KESLI)을 운영하며 국내 학계 및 기업들이 국내외 최신동향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수집 및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18-1-2 NDSL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유형	서비스 내용
논문	국내논문 KISTI의 학회정보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술지/ 프로시딩 KESLI에 포함되는 국내 전자저널
	해외논문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SLI에 포함되는 해외 전자저널 (ScienceDirect, Springer, IEEE, ACM 등) - 국내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50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 /전자저널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특허	한국특허 (1948년 이후 공개/등록, 약 3백만건 이상) + 미국, 일본, 유럽 특허, WIPO 특허 (1976년 이후 공개/등록) ↓ 검색 ~ 원문입수까지 한 번에 가능

유형	서비스 내용
보고서	<p>국가 R&D 연구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으로부터 인쇄 또는 전자로 납본, 수집된 연구 보고서 - 2009년 이후: 국가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보고서, 각 부처·청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전자원문을 제공받은 연구보고서 <p>분석리포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EN 분석리포트 - ReSEAT 분석리포트 - KISTI MARKET REPORT - iCON 지식리포트
동향	<p>해외과학기술동향(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동향, 미래예측정보, 유망기술 산업 및 시장정보 <p>정보서비스 글로벌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서비스 전반 국내외 주요 이슈 소개, 분석 및 시사점 제시 <p>ISSUES & NDS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주요 이슈, 해당 이슈 관련된 NDSL 콘텐츠 확인
표준	<p>KS(한국산업),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협조로 제공
사실정보	<p>무기결정구조 (ICS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결정구조 DB': X선 패턴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제작 결정구조정보의 검색과 X선 패턴 검색도 가능 <p>플라즈마 물성(PLAS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논문 74종에 수록되어 있는 분자 원자의 물성 데이터 제공 <p>Digital Kore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화된 한국인 인체 영상, 모델 및 뼈대물성정보, 3차원 골격 영상, CT 영상(전신, 뼈대 구역화) 등의 데이터 제공 <p>Visible Kore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체의 연속절단면 영상 DB(Visible Korean Human)를 구축, 3차원으로가시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검색 가능 - 국내외(국내 70여 기관 및 국외 30여 기관) 산학연 연구기관과 데이터 공유

2)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R&D사업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R&D사업에 관련된 17개 부처·청과 연계하여 사업과제정보, 인력정보, 연구시설장비정보, 성과정보 등을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www.ntis.go.kr)이다. 2008년 3월 3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림 45 NTIS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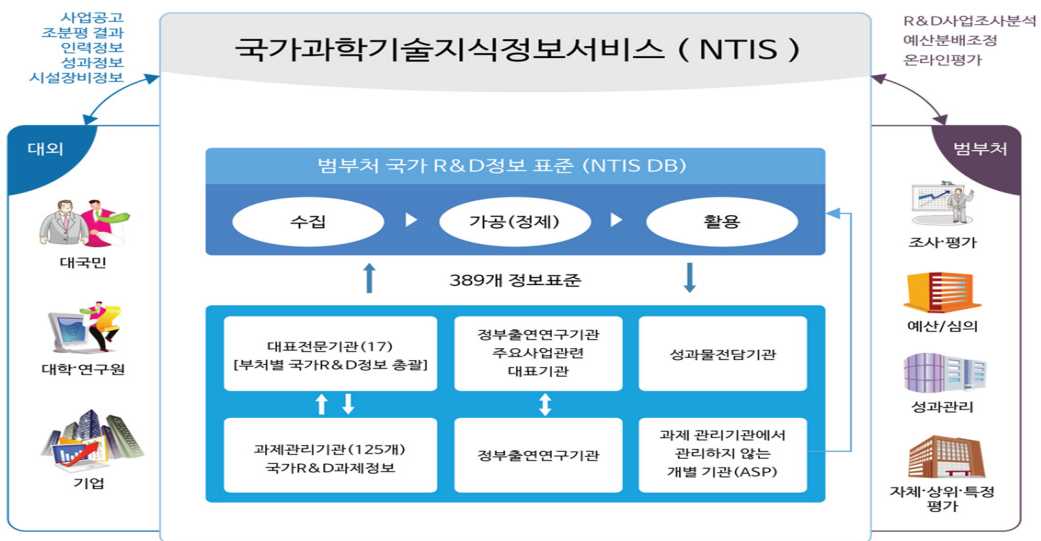


표 IV-18-1-3 NTIS 주요 제공 정보

(기준 : 2015년 12월말)

구 분	건 수
국가R&D과제(2002년~)	43만 건
국가R&D사업 참여 인력 및 평가위원 정보	16만 건
연구시설·장비정보	8만 5천 건
성과정보(논문, 특허 등)	논문 16만 건, 특허 16만 건 등 (총 480만 건 : 성과물 포함)
국가R&D사업 통계 및 과학기술통계	약 660여개 지표

NTIS 서비스 개시 후 가입자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2월 말 기준 가입회원이 25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33%인 약 81,000명이 기업 회원이다. 기업 회원은 NTIS 서비스 가운데 사업공고, 특허, 인력 및 장비활용 등에 관한 수요가 많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NTIS 맞춤형교육」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NTIS 전문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고객 니즈에 부합한 고품질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객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2015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보꾸러미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주력기술 및 제품·특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 분석 전문가나 민간 컨설팅기업과 연계한 국가R&D정보 분석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e-Asia Award, 데이터베이스품질대상, UN 공공행정상, 앱 어워드 코리아 2014, 2015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다. 중소기업 정보지원 사업

1) 연구용역 및 사업타당성분석

연구원 자체의 정보분석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종합적 분석,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사업은 주로 기업이나 연구계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정부의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시장성분석, 사업 타당성평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수립 등의 종합적인 R&D 기획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해당기업의 기술·경영능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체의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고 신규시장 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타 기관에 소장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관련분야의 전문가와의 공동 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2) 산업·기술동향정보 연구

정보분석 연구를 통해서 특정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연구보고서는 산업·기술 전반의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국내외 산업·기술동향 및 특정기술의 개발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CTO를 핵심고객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기술 조사 및 사업화 평가, 연구개발 전략에 필요한 선진 기술동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우수기술의 해외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교육과 중소기업의 R&D 기획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정보를 활용한 기술분석, 기술예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 및 기술의 개발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정보조사, 분석업무의 현대화·고도화를 꾀하여 고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 비정형정보 중심의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프로세스(NEST : New

& Emerging Signals of Trends), 지능형(분석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계량 정보 분석 툴(Tool)인 Knowledgematrix 개발 등이 있다.

또한 정보의 가용가치를 극대화하며 단순정보지원에서 지식정보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기존의 단순정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와 인텔리전스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중소기업 근접지원 및 협력

KISTI는 정보분석서비스와 시스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신기술탐색부터 기술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대학, 산업체, 국공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약 1만 2천여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ASTI를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산업 분야별 밸류체인(Value Chain) 기반 지식연구회를 설립해가고 있다.

R&D 활동을 개선시켜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협의회 소속 중소기업들에게 신규 유망아이템 발굴지원, 글로벌업 프로그램(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맞춤형 분석정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및 장비부족을 극복하고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연구장비 활용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인력, 장비, 예산 등의 자체 자원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기술개발을 위한 M&S(Modeling and Simulation)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ASTI 회원사 가운데 패밀리기업 275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지원, R&D 기획지원 등을 추진했다.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출연연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5)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급 전문인력과 슈퍼컴퓨팅 자원 및 해당 분야 해석 기술 등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신기술 개발, 제품 성능 향상 등을 돕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CAD/CAE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물리적 제품 제작 및 실험활동을 가상의 제품 제작(Modeling) 및 공학해석(Simulation) 활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실물시험을 최소화하여 제품개발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관의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등의 수탁사업의 형태로 본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380여 기업을 지원하였다.

표 IV-18-1-4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기준 : 2015.12.31 현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중기청 사업		25	14	11	-	-	
KISTI 주요 사업	슈퍼컴 M&S	15	23	16	42		
	단순 기술지원	-	24	1	-	-	
기타사업					4		
합계		40	61	28	46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 과정에서의 애로기술에 대한 슈퍼컴퓨팅 기반의 공학해석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자체 인력 및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첨단고급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제품 개발, 기술경쟁력 확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ANSYS·FLUENT·CFX·ABAQUS 등의 다양한 구조 및 열유체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체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설계를 도와준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병렬화 및 최적화에 투입하기도 하여 보통 환경에서 일반적인 기술로 얻을 수 없는 소프트웨어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필요에 따라서 가시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가상 품평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공학해석 전문 기업이나 250여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 및 자문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담당자들이 첨단 기술개발 장비인 슈퍼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슈퍼컴퓨터 활용 환경(ezSIM)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2013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들은 자동차, 선박, 건축 및 생산 설비, 생명공학, 반도체, 항공우주,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지원 수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제품 개발 시간을 약 45% 단축하고 제품 개발 비용을 약 60% 절감한 동시에 매출을 약 30%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년간의 슈퍼컴퓨터 활용기반 제품설계 시뮬레이션 지원으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는 총 1,500억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도 약 500여명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19장 한국디자인진흥원

1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70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 기업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 등 다양한 디자인 진흥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19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설립되었으며, 1977년 「디자인·포장진흥법」이 제정되어 설립근거 법률이 마련되었고, 1985년 우수디자인(GD) 선정제를 도입하여 디자인을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은 ‘21세기 디자인 시대’의 미래창조산업과 지식산업,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디자인 산업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주요사업

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디자인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우수 디자이너 인재양성을 위한 창조교육·창의인재육성 및 실무디자이너 교육 지원, 디자인 정보제공 및 문화확산, 디자인 해외진출 지원 및 신흥시장 개척 비즈니스

교류, 제품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코리아 및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등 진흥사업, 기타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정부의 위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 조직 및 예산규모

- 1) 조직현황 : 4본부 12실, 1해외사무소(중국), 1지역사무소(대전)
(정원: 122명, 현원: 117명)
- 2) 예산규모 : 51,150백만원(2015 결산, 매출액 기준)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디자인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1) 디자인전문회사 육성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전문회사 육성지원은 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육성하여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92년 시행 그간 디자인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2015년말 현재 5,200여 개사 기업이 전문회사로 신고 되어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을 이룬 산업규모에 비해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체계화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 마련 등 디자인전문회사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자인산업 고도화에 맞는 신고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수요에 맞춰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글로벌 디자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요건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디자인전문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디자인 인력의 다방면의 유능한 인재를 포용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마케팅, 기술 분야 등의 참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의 학력규제 개선과 인정범위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회사의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신고기업의 전문분야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표 IV-19-1-1 연도별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실적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회사수(누계)	2,582	3,061	3,519	4,023	4,604	5,228

또한, 우수디자인기업의 발굴·선정을 통해 디자인기업의 역량강화를 장려·육성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유도 . 국가 디자인 산업발전과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디자인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형화 전문화된 디자인기업의 부재함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리딩 디자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수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을 통해 집중 발굴 지원하고 디자인 비즈니스 창출 극대화를 위한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표 IV-19-1-2 연도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실적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사 수(누계)	28개사	30개사	25개사	35개사	30개사	39개사

2)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및 수출기업화 홍보디자인분야 위탁 수행

진흥원은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이 필요한 중소기업(참여 기업)에게 회사(제품)의 맞춤형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홍보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출기업화 홍보디자인 지원기업에게는 500만원 한도로 사업비 70% 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외국어 카탈로그 분야(전자/종이), 외국어 동영상 분야(상품 및 회사의 홍보용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디자인 분야(수출용 제품의 포장디자인), 외국어 모바일용 앱, 외국어 홈페이지 이다.

표 IV-19-1-3 수출기업화 홍보용디자인개발 지원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업체 수	970개사	849개사	1,160개사	1,187개사	1,098개사
지원과제 수	999개 과제	1,282개 과제	1,764개 과제	1,749개 과제	1,799개 과제
지원예산	5,625백만원	4,184백만원	6,386백만원	7,128백	8,355백만원

3)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진흥원은 2~3년 앞단의 新 시장창출 미래상품에 대한 디자인 및 사업화 연구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시장의 First Mover로 혁신하여 미래시장 및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통한 미래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다양한 상품정보를 활용하여 전략적 미래상품 및 선행디자인을 개발하고 미래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수출타겟 국가의 정확한 시장예측과 진입을 위해 미래 디자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선행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실패확률은 낮추고 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기업들의 수출시장 개척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표 IV-19-1-4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주요실적(2015년)

구 분	지원내용
지원현황	7개사(과제) 디자인전략 및 선행디자인 개발지원 1과제당 1.5억~2억 지원
지원성과 및 기대효과	지식재산권 출원 : 15건 해외디자인 어워드 출품 : 7건(예정) 개발전 대비 기대되는 예상매출액 : 389억

4)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

진흥원은 광역단위 수요산업 및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기반사업으로의 업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잠재된 디자인 수요를 발굴하여 디자인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 인식 및 투자가 미흡한 중소기업들에게 디자인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해소하고 디자인투자 마인드를 제고하여 디자인 문제점 진단, 시장 및 소비자 동향조사, 디자인 해결방안 등 디자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술보유기업의 디자인+기술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고 디자인 경영혁신 확산을 통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경제 육성 및 산업단지 내 영세 입주기업의 잠재수요 발굴, 지역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표 IV-19-1-5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 주요실적(2015년)

구 분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현황	- 디자인컨설팅 지원 446개사
만족도 조사 및 인식변화	- 디자인컨설팅 결과 만족도(96% 만족 이상)
컨설팅 결과 활용도	- 디자인진단 결과 활용률 : 34.8%

5)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혁신역량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 부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 디자인으로 조사되었다.

- *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격(42.4%), 품질 및 디자인(32.2%), 기술(18.6%), 마케팅(6.5%) 순으로 인식 [‘12년, 대한상공회의소]
- * 국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 ‘13년 기준 14% 수준으로 해외디자인 선진국(프랑스 36%, 영국 33%)이나 대기업보다 낮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에 걸림돌 [‘13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KIDP]

중소중견기업들의 디자인 활용, 디자인 인력 및 투자실적은 저조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성장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 중소·중견기업의 9%만이 디자인에 투자 [‘13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KIDP]
- * 디자인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확보(54%) [‘13년, 산업연구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 활용율이 저조한 중소·중견기업에 경력 디자인 인력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디자인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디자인 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디자인을 통해 기업경영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IV-19-1-6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주요실적(2015년)

구 분	지원내용 및 주요성과
지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산업부품, 모바일게임 등 제조·서비스 기업 44개사에 경력직 디자인 전문인력 49명 채용지원 -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의 디자인개발 등 디자인 투자 증대, 제품혁신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활용 부가가치화 사례창출 및 실질적 중소기업의 경영·고용성과에 기여 - 매출액 증대 43% - 자체 디자인개발 전환 54% - 인력부족 문제 해결 77%
채용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의 정규채용 26명(경력단정 여성 포함) 외 자체 디자인팀 신설·보강을 통한 추가 디자이너 고용 등 고용사례 창출 ○ 지원기업의 90%가 지원금 규모, 채용인력의 업무능력, 디자인 수준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나. 국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1) 디자인코리아 개최

진흥원은 세계 우수디자인상품을 전시하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정보 교류 및 기업 간 디자인 비즈니스와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코리아 행사를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디자인코리아는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구현하고 디자인산업의 역량을 증대코자 하며, 범국민적인 디자인 행사로 문화 가치확산 및 국내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디자인코리아 2015」은 ‘Design Business Fair’를 테마로 총 6개의 스퀘어(Square)으로 구성되어 세계 17개국 249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중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및 다양한 기업 대상 부대행사 등을 구성하여 참가 기업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했으며, 전시 기간 중 총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표 IV-19-1-7 2015 디자인코리아 주요 부대행사

전시/프로그램	주요 내용
디자인 비즈니스	생활, IT, 디지털, 공공, 커뮤니케이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카테고리의 비즈니스 기업관 전시 및 디자인기업을 위한 국내외 디자인 컨설팅, 발주 가능 제조기반 기업 바이어 유치
디자인 포럼	디자인산업 트렌드와 정보 교류의 자리 전문 컨퍼런스 및 디자인 저변 확대 프로그램 (신제품런칭쇼, 비즈니스 프로그램, 강연, 디자인 세미나, Design'us Party(디자인전람회) 등)
디자인 이벤트	참여와 체험을 통해 디자인 감성을 발굴하고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체험 (IoT, 웨어러블, 혁신기술 등) 및 디자인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참가 기업과 바이어간의 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

다. 디자인 저변확대를 위한 디자인문화 확산

1)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사업은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홍보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상품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디자인 선정 제도이다.

외관구성, 사용목적, 재료사용, 상업생산 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제품디자인 외 4개 분야의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에는 GD마크가 부여된다. 1993년도부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신설하여 우수디자인에 대한 국내 최고 상격 시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에는 호주표준청과 양국간 굿디자인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여 선정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2013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및 산업단지 분야를 신설하는 등 선정 범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당해년도 출시 예정인 상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상품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 지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하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및 국내 외 유명전시 참가를 통한 홍보기회 제공 등 각종 우대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한국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Good Design 웹사이트(www.gd.or.kr)에서 선정상품에 대한 온라인 전시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그림 46 2015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심사장면(2015. 12.16)



그림 47 2015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주요성과 (2015. 12.16)



▲ 왼쪽부터 삼성전자 '21:9 커브드 SUHD TV'(대통령상), 쥘레이 'RAYSCAN α+', 인사이트 디자인 '군용수통'(중소기업청장상)

표 IV-19-1-8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품(전체)	1,501점	1,739점	1,703점	1,222점	1,349점
선정	536점	616점	623점	478점	520점

2)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1966년 당시 상공부 주최로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가 열렸다. 이것이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디자인공모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이다.

1960년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한 정립과 인식 필요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고가 시작됐고, 단순히 싼 값의 경공업제품을 개발해 수출하는 과정과 국제 경쟁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디자인의 필요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1966년 당시 상공부 주최로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가 열렸다. 디자인 불모지였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전람회는 50년의 시간을 이어 오면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전환은 물론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전람회를 통해 디자인의 각 분야가 점차 전문화되기 시작했으며 산업과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또한 학계 및 실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가 배출되기 시작했으며 디자인 관련 단체와 협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국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에서의 디자인적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디자인 산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양한 부문이 분화·신설되었다. 그리고 2007년 42회부터 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제품, 환경·실내, 포장, 텍스타일·패션, 시각,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공예·주얼리, 서비스디자인 등 총 8개 디자인 부문으로 공모를 받는다. 관련분야 전문가 및 디자인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차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파이널리스트가 가려진다. 최종 상격을 가리는 2차 심사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파이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가 끝난 동시에 디자인코리아 행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 전시를 한다. 전람회에서 선발된 최고의 작품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후원 기관장상 등 50여 점의 상장과 100여점 이상의 입·특선, 그리고 총 상금 약 7,50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그림 48 우수디자인상품선정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시상식 (2015. 12.16)



3) 디자이너의 지위를 확립한 ‘초대 및 추천디자이너’ 제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 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중견디자이너의 지위향상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초대 및 추천 디자이너’ 제도다.

* 이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 출품한 디자이너 중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각 부문별 초대·추천디자이너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추천디자이너 위촉 자격]

- 전람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자의 디자이너
- 전람회에서 3회에 걸쳐 기관장상 이상을 수상한 자
- 전람회에서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특선 이상을 한 자
- 전람회에서 5회에 걸쳐 특선 이상을 한 자
- 전람회에서 10회에 걸쳐 입선 이상을 한 자

[초대디자이너 위촉 자격]

- 추천디자이너로서 10회 이상 출품한 자

제20장 한국산학연합회

1 일반현황

(사)한국산학연합회는 1993년 9월 산학연 컨소시엄 전국대학교 협의회로 구성된 후 1998년 1월 중소기업청의 허가과 「민법」 제32조 의거 사단법인 산학연 컨소시엄 전국협의회로 설립되어, 전국각지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2000년 9월 사단법인 산학연전국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는 등 명실공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産(산)·學(학)·研(연) 협력의 중심기관이며, 16개의 지역협회와 1개의 연구기관협회를 보유한 전문성과 독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산학연 협력 관련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3월 현재의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한국산학연합회는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하여 전문인력과 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제고와 역량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간의 협력 체계 구축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획, 정보수집, 조사연구, 산학연간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니즈(Needs)와 R&D기관(대학·연구기관)의 시즈(Seeds)를 효율적으로 매치메이킹 할 수 있는 매개자역할을 수행할 인력과 조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간의 연계시스템 미약 및 정보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은 상호 교류기관과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타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사업제안 등 산학연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산학연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산학연협력사업의 전문적인 관리기관, R&D 기획역량 강화교육 등 산학연 관계자 교육을 수행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산학연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특화된 지식집단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산학연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성장하는 세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1)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1993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발굴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중소기업청과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가 상호 협조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학연협회는 지원사업의 주체인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의

공동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각 기관의 needs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방문을 통한 현장의견을 청취를 통해, 지원사업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지원규모는 1,520억으로서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첫걸음과제(425억),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129억),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도약과제(394억),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마을과제(153억), 인적·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연전용과제(145억), 유망 창업팀을 선발,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240억),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진단 및 해결해주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35억)로 세분화 하였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대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20-1-1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과제수	1,401	1,621	2,041	1,865	2,179	9,107
지원금액	81,700	90,212	138,878	145,822	152,003	608,615

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국내 뿌리기업은 자동차, IT 등 주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공급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뿌리산업의 인력수급을 전망한 결과 2017년 인력 부족 예상규모는 5만 5천명으로 2012년 대비 3배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뿌리산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고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전공자 및 청년층의 취업 기피에 따른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15억원('16년)의 예산으로 뿌리기업의 재직자 및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전문가(명장, 품질명장, 우수숙련기술자)를 활용하여 기술전수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코칭 및 뿌리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국 생산 노하우 벤치마킹 연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코칭은 뿌리기술 전문가와 코칭을 희망하는 뿌리기업 또는 특성화고와 매칭하여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재직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 코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뿌리기업들은 생산현장 자동화가 필요하나, 정부의 다양한 뿌리산업 진흥정책에도 기업의 인식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선진국 벤치마킹 연수 지원을 통해 선진국의 생산현장, 6대 뿌리산업 박람회, 첨단 기술 동향을 파악 등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7월에는 뿌리기술 전문가의 스킬업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개최하여,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교수법 및 컨설팅,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2016년 뿌리기술 전문가 스킬업 교육('16.7.1)

표 IV-20-1-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실적

사업명	지원 내용	실적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	- 명장이 보유한 핵심 뿌리기술 매뉴얼화	문서 : 1개 영상 : 1개
	- 명장이 기업 및 학교에 방문하여 뿌리기술 전수	기업 100개사 특성화고 20개교
	- 6대 뿌리분야 신기술 벤치마킹 해외연수	6회, 120명

3)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사업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습득한 소공인의 숙련 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공인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여 보유 기술제품의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3단계의 단계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아이디어가 있는 소공인이 보유한 기술제품 수준 및 성장가능성을 진단한 후, (2단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3단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절차로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왔다.

본 사업은 한국산학연합회(전문기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리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며, 한국산학연합회는 1단계와 2단계 지원을 맡았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 단계별 평가와 3단계 지원을 맡아서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는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소공인을 방문하여, 소공인의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을 진단하고,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결과물을 통해 소공인이 기술개발을 진행하였다.

표 IV-20-1-3 각 단계별 지원현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 과제 수	365개	183개	97개

4) 전통시장 대학협력

전통시장-대학협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융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둘째로, 대학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쇠퇴한 전통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한국산학연합회(전문기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리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22개 대학의 학생(3,766명)은 컨설팅(교육), 조사연구, ICT(홈페이지, 웹, 앱) 개발, 공연행사,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통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V-20-1-4 지원현황

구 분	지원 대학 수	지원금액(천원)
지원 과제 수	22개	2,515,561

표 IV-20-1-5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대학명	지식재산권 구분					합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	
동국대	1	1	2	1	-	4
청운대	-	-	2	-	-	2
상명대	-	4	-	-	-	4
서원대	1	2	-	-	-	3
한국교통대	-	2	-	-	-	2
금오공대	-	3	1	-	-	4
남부대	-	1	2	-	-	3
합계	2	13	7	1	-	23

5)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기획역량제고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R&D Life-Cycle 전 주기의 이해도 향상 및 기획력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서 수행해오다 2016년부터 산학연합회에서 수행하기 시작하여 정규교육(일반교육-전문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한 기업의 R&D기획력 성장 오프라인 교육을 마련하였고, 평일에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해 기본교육(온라인 동영상) 및 종합교육(주말 인텐시브 교육)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니즈에 최대한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였다.

본 교육은 '16년도 7월 말 기준 14회 교육으로 522명의 교육생 배출과 함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90.0%로 응답하여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0-1-6 '16년도 R&D기획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명, %)

구분		교육신청	교육참석	교육수료
정규	일반	5회 230	183	170
	전문	2회 98	86	76
	종합	3회 175	130	119
방문형		4회 211	165	157
합 계		14회 714	564	522
		-	78.4%	94.6%

(단위 : 명, 점)

설문내용	응답 수	7점 척도 평균	100점 환산 (응답×100/척도)
이용하신 교육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377	6.3	90.0

6)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09년부터 시작 된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전국 대학, 연구기관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니저 및 외부희망자를 대상으로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제도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니즈(Needs)와 R&D기관(대학, 연구원)의 시즈(Seeds)를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매개자의 역할 수행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종합교육과, 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5년도 까지 17회 이상의 교육을 통해 1,200여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자격취득자의 경우에는 '15년도까지 840명에 달하고 있다.

표 IV-20-1-7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운영현황

년도	교육과정	시작일	종료일	수료 인원	비고
2009	기본, 심화, 보수	연중 시행	연중 시행	확인 불가	용역
2010	기본, 심화, 보수	연중 시행	연중 시행		
2011	기본, 심화, 보수	연중 시행	연중 시행		
2012	기본교육	2012-07-30	2012-08-01	58	LIG인재니움 수원
	심화교육	2012-09-24	2012-09-26	93	휴러클리조트
	보수교육	2012-12-12	2012-12-14	111	통계교육원
2013	종합교육	2013-04-17	2013-04-19	62	동양인재개발원
	보수교육	2013-07-03	2013-07-05	53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
	기본교육	2013-07-24	2013-07-26	34	LIG인재니움_사천
	심화교육	2013-09-25	2013-09-27	51	쉐르빌파라다이스연수원
	보수교육	2013-11-20	2013-11-22	80	LIG인재니움_사천

년도	교육과정	시작일	종료일	수료인원	비고
2014	종합교육	2014-03-19	2014-03-21	5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보수교육	2014-07-02	2014-07-04	79	대교HRD센터
	기본교육	2014-08-06	2014-08-08	66	경동인재개발원
	심화교육	2014-09-24	2014-09-26	66	우리인재원
	보수교육	2014-11-12	2014-11-14	64	LIG인재니움_사천
2015	종합교육	2015-03-11	2015-03-13	81	한라인재개발원
	종합교육	2015-08-26	2015-08-28	70	KB손해보험 수원
	보수교육	2015-09-17	2015-09-18	102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보수교육	2015-11-18	2015-11-19	75	KB손해보험 수원
합 계				1,204	-

표 IV-20-1-8 산학연합회 코디네이터 자격시험현황

시행년도	구분	일시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장소
2009	-	2009-12-11	205	198	160	80.8%	우송대
2010	-	2010-12-17	77	73	53	72.6%	우송대
2011	상반기	2011-09-23	55	52	40	76.9%	우송대
	하반기	2011-12-20	90	85	72	84.7%	우송대
2012	-	2012-11-16	154	146	117	80.1%	우송대
2013	상반기	2013-05-24	60	56	31	55.4%	우송대
	하반기	2013-11-01	107	97	55	56.7%	우송대
2014	상반기	2014-05-30	119	95	48	50.5%	대전대
	하반기	2014-10-31	148	137	69	50.4%	대전대
2015	상반기	2015-05-29	150	139	94	67.6%	대전대
	하반기	2015-11-06	232	195	101	51.8%	대전대
합 계			1,397	1,273	840	66.1%	

7)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는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개발되는 우수 특허를 전국 중소기업에 이전하고자 '13년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간의 협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이전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 R&D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인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이후 사장되고 있는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을 매칭하기 위해 추진되는 로드쇼 행사는 '14년 이후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15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였고 '16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참하여 현재 산업부·미래부·중기청·특허청 등 4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됨으로써 우수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후속지원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산학연합회는 '13년 사업 개시 이후 꾸준히 로드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16년 상반기 로드쇼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SMTECH 시스템을 통해 479건의 공공우수기술을 공개하였고, 그 동안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에 관심을 보이는 90여 개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하반기 로드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 IV-20-1-9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상반기(1차)	하반기(2차)	상반기(1차)	하반기(2차)	
일자	11. 26.	3. 21.	12월 (5회)	4. 22.	11.11.	6.29
장소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대구, 부산, 광주	서울	서울	서울
주최	중기청·특허청		중기청	미래부·중기청·특허청		산업부·미래부· 중기청·특허청
발굴기술	385건	670건	280건	420건	566건	479건
상담기업	27	41	51	74	21	64
매칭건수	10	37	-	72	28	53

8) 인력공동관리협의회

한국산학연합회는 '15년 6월부터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인력공동관리협의회로 지정받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협의회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일부 예산을 배정받아 전국 각지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인력채용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한국산학연합회는 '15년도 사업을 통해 10개 특성화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43명의 특성화고 졸업인력을 중소기업에 채용시키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업무협약 체결('15.5.21)

'15년에 이어 '16년에도 인력공동관리협의회에 지정된 한국산학연합회는 50명 채용지원을 목표로, 용산공업고등학교 등 전국 각지의 특성화고와의 MOU 체결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공동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특성화고 인력을 채용할 경우 받게 되는 우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특성화고에 전달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상호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1장 창업진흥원

1 일반현황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창업진흥전담조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국내외 진출지원, 창업자를 위한 자금·인력·판로지원 및 정보제공, 창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창업실태 통계조사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3본부 10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현재 103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다. 2015년 예산은 2,066억원으로 창업저변확대,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창업저변확대

1) 청소년 비즈쿨

비즈쿨(Bizcool)은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라는 의미로 청소년 창업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즈쿨 운영학교를 선정하여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 담당교사 연수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자유학기제 연계형 비즈쿨을 포함하여 총 412개교를 지원하였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비즈쿨 운영학교를 5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IV-21-1-1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2002년~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 산	166.1억원	50억원	45억원	50억원	60억원
비즈쿨운영	903개교, 480천명	124개교, 100천명	135개교, 116천명	200개교, 133천명	412개교, 190천명
창업동아리	3,822개, 37,144명	800개, 10,560명	830개, 11,221명	1,053개, 14,235명	1,329개, 20,137명

2) 창업아카데미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창업인식 전환과 성공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점형 창업강좌(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기초교육, 창업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 창업아카데미 35개, 대학 기업가센터 9개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창업강좌 353개를 운영하여 14,505명이 수강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관한 논문 연구 44편, 콘텐츠 개발 69개, 네트워킹 행사 243회 개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2016년에는 창업교육을 기존 이론중심에서 체험중심으로 개편하고, 업종별, 창업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표 IV-21-1-2 창업아카데미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예산	6,950	7,700	7,542	22,192
지원기관수	45	50	44	139
창업강좌수	183	240	353	776
창업교육생	8,428	9,109	14,505	32,042

3) 시니어창업지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퇴직자가 창업을 통해 퇴직 이후의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 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한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시니어 기술창업스쿨을 통해 신산업·성장유망분야 실전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통해 시니어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전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였다.

2016년부터는 시니어창업스쿨센터 기능을 통합한 결합형 센터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간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퇴직프로그램 연계 교육 과정 개발, 조선업 등 퇴직자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해 퇴직기술인력의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21-1-3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원 현황(2014~2015년) (단위 : 백만원, 개, 명)

구분	예산액	시니어기술창업스쿨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	수료생수	주관기관	이용자수
2014년	4,730	16	1,555	15	2,157
2015년	4,494	9	1,020	20	2,327

4)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스마트기기, 융합신제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쉰단계별 (기획 → 설계·디자인 → 개발·구현 → 시장진출) 맞춤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사업화단계를 구분하여 1단계(아이디어 기획), 2단계(설계·디자인), 3단계(개발·구현), 4단계(시장진출)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 특히 3D프린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 사업화 지원과 장비인프라지원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사업으로써, 창업기업의 신사업 개발 및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장비 및 창업보육공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표 IV-21-1-4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예산	3,260	4,990	8,250
지원기업수	100	115	215

		
시제품제작장비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3D프린팅 기술교육

5) 3D프린터 보급지원(테크숍)

3D프린터 보급지원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3D 프린터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원활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53개 대학에 3D프린팅 장비들을 구축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대학내 3D프린터실 (서울 7개, 경기 11개, 충청 8개, 영남 18개, 호남 9개)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손쉬운 시제품제작 환경을 구축하여, 청년창업자들의 창업 진입장벽 개선과 아이디어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6) 대한민국 창업리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V)』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국의 지역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하였고, 2014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아이디어 경진대회’와 통합하여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V』를 공동개최하는 등 전국민에게 창업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5,057개 창업팀이 창업리그에 참가하여 예선·본선을 통해 15개팀이 최종 수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회 진행 전과정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영할 예정이다.

표 IV-21-1-5 대한민국 창업리그 신청자 및 수상자 현황(최근 5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신청자(팀)	1,777	1,592	1,096	3,803	5,057
수상자(팀)	50	29	30	30	15

7) 기업가정신 전파 등

가)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2001년부터 지속된 벤처창업대전은 학생·기업·지자체·정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적 창업행사”로써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기술창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고 예비창업자에게 기술동향의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미래부 창조경제박람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벤처 및 스타트업의 대국민 홍보와 인식개선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본 행사를 통해 창조경제박람회에서 벤처·창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21-1-6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참가규모(최근 3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참가업체	384개	450개	462개	1,296개
참관객	14,276명	29,447명	25,867명	69,590명



나) K-스타트업(K-startup)

창업정보에서 사업 신청 및 선정 사업비 정산 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등 정부 창업사업을 통합제공하는 창업포털(www.k-startup.go.kr)이다.

2015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50개 기관의 창업 정보의 종합 제공과 수요자 관심분야를 고려한 분류체계 구성 및 맞춤형 간편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하였다.

또한, 창업정보를 온라인 창구로 단일화하여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창업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였다.

K-스타트업을 통해 창업교육부터 멘토링, 판로·해외진출까지 창업에 관한 제반정보를 One-Way, One-Gate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21-1-7 K-스타트업 이용실적(최근 3년)

(단위 : 건, 명)

구 분	총 방문자수	월평균	일평균	회원수
2013년	1,168,478	128,660	3,202	97,374
2014년	2,052,840	171,070	5,625	159,416
2015년	2,274,998	189,583	6,232	194,333

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을 통한(www.startbiz.go.kr)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업자가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센터, 고용노동지청 등 법인설립과 관련한 기관(6개)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법인설립 진행 시 약 50만원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경감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창업 비용 부담과 시간에 기여하고 있다.

예비창업자가 온라인 원스톱 지원을 통해 창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회사 설립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21-1-8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실적(3개년)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3년	211	187	226	227	237	250	316	296	252	271	294	254	3,021
2014년	263	251	286	304	303	376	419	402	352	355	350	391	4,052
2015년	383	324	402	420	370	459	484	422	429	452	464	436	5,045

라) 창업조사연구

창업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창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5년에는 22건의 과제(연구과제 : 9개, 창업통계 : 13개)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방안, 신산업 창업규제 발굴 등 창업관련 법 개정 및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의 정책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창업통계는 창업 기업 실태조사,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는 향후 창업·벤처정책 활성화 대책 수립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표 IV-21-1-9 창업조사·연구 연도별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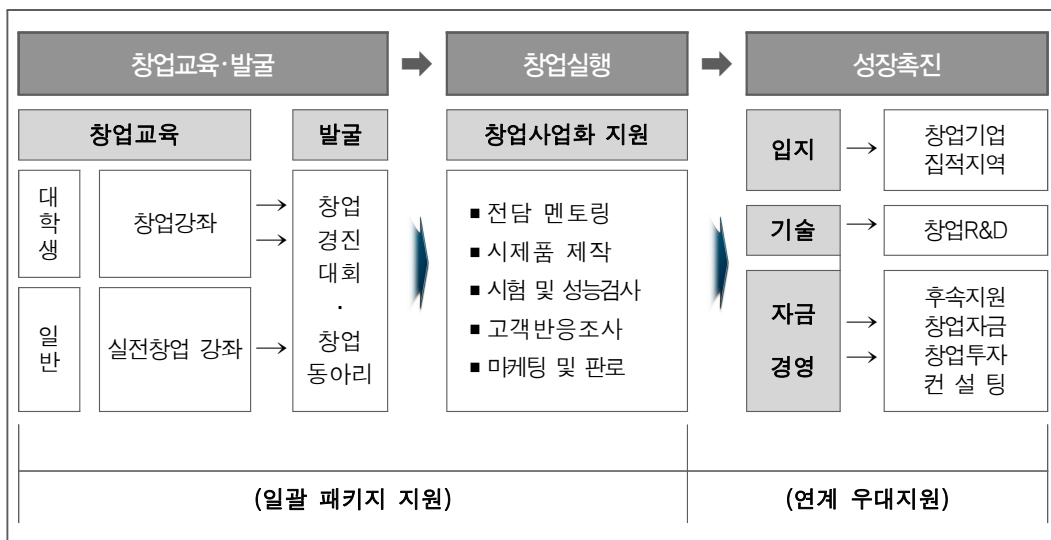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예산	700	700	700	1,000	950	4,050
추진과제(건)	15	15	18	20	22	90

나. 창업선도대학 육성

대학생 및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지원, 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지원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여 ‘대학의 창업기지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49 창업선도대학 지원 체계도



창업선도대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3)”에 따라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7년까지 4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15년 기준으로 총 28개 대학이 지정되었다.

표 IV-21-1-10 2015년 창업선도대학 운영현황

수도권(9)		강원권(1)	충청권(6)	호남권(5)	영남권(6)	제주권(1)
서울(5)	경인(4)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연세대 인덕대	경기대 단국대 한국산기대 인천대	강원대	순천향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한남대 호서대	원광대 순천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경성대 경일대 계명대 동아대 부경대 영남이공대	제주대

* '15년 신규지정 7개 대학은 밑줄 및 진한 글자체 표기

창업지원 역량 및 인프라가 우수한 12개교를 거점형(입소형)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준비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V-21-1-11 2015년 거점형(입소형) 창업선도대학 운영현황

수도권(4)		강원권(1)	충청권(2)	호남권(2)	영남권(3)
서울(2)	경인(2)				
연세대 인덕대	경기대 인천대	강원대	한남대 호서대	원광대 전주대	경일대 계명대 동아대

본 사업을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창업 도전 분위기 제고 및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40개교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표 IV-21-1-12 창업선도대학 주요실적 및 성과

(단위 : 백만원, 명, 건)

구 분	예산	창업아이템 사업화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선정	창업	매출	일자리	지재권	개설	수강	개설	수강
2011년	25,000	537	524	297	1,435	805	86	4,461	15	514
2012년	25,000	510	504	367	1,150	910	147	8,004	18	610
2013년	40,200	590	573	340	1,196	768	159	11,201	18	628
2014년	50,800	629	621	515	1,418	1,045	470	27,608	28	1,005
2015년	65,160	913	891	1,268	2,372	1,418	550	25,726	110	1,704
합 계	206,160	3,179	3,113	2,787	7,571	4,946	1,412	77,000	189	4,461

다. 창업사업화 지원

1) 창업맞춤형사업화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3년미만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Business Model) 개발, 아이템 검증·개선, 시장진입 등을 도와 빠른 수익 창출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제고 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은 사업아이템 특성과 주관기관 지원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전국 32개 주관기관 중 한 곳을 맞춤형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30백만원), 시장전문가 멘토링(10백만원),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10백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R&D 자금 연계, 대형 유통사와 협력한 판로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맞춤형사업은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높여 주는 사업으로써 창업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멘토링을 강화하고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표 IV-21-1-13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30,000	50,000	49,900	42,300	172,200
지원기업수	580	947	883	737	3,147

2)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선도벤처기업의 성공경험과 노하우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매칭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고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제작, 지적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 비용(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선도벤처기업에게는 창업인프라비, 경영·기술자문 비용(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16년에는 선도벤처기업 Pool을 확대하며 특히 해외한인벤처연계를 강화하여 수출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21-1-14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4,500	7,500	7,500	7,500	27,000
지원기업수	50	84	84	84	302

3) 글로벌창업활성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와의 매칭을 통한 현지 보육, 사업화, 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외국인의 국내창업을 목적으로 창업교육, 기술 멘토링, 사업화 및 창업비자 취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은 2011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2015년까지 총 205개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549.5억원, 매출 703.6억원, 신규고용 425명 등 성과를 나타냈다.

표 IV-21-1-15 글로벌창업활성화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830	3,100	2,000	5,000	5,300	16,230
지원기업수	20	39	28	84	84	255

4)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엑셀러레이터, 초기전문 VC 등 민간이 선별한 유망한 기술창업팀 중 업력 3년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은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플랫폼·서비스,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다. 2015년에는 69개 창업팀을 추천받아 이중 45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2015년 45개 창업팀에게 자금·멘토링 등 집중지원을 통해 매출 4.135백만원, 지재권 64건 획득, 신규고용 360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사업화자금 지원 후에는 창업팀의 데스밸리 극복과 지속적 성장지원을 위해 투자유치 IR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112억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표 IV-21-1-16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5,000	6,000	11,000
지원기업수	27	45	72

5) 창업인턴제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비창업자는 기업과 상호 자율 매칭 후, 채용기업 현장에서 최대 1년간 창업현장 체험을 통해 창업계획을 보완·발전시키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6) 재도전 성공 패키지

유망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 재기기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전문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 신규 사업(예산 35억원)으로 59개의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사업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실패요인 분석 및 체계적인 문제해결능력 향상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1:1 심층멘토링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K-Global Re-Startup(재도전 단계별 지원사업)과 협업을 통해 신청자격 및 프로세스 등 유사한 지원내용을 일원화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라.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1) 스마트창업터

사물인터넷, 앱/웹, ICT융합 등 유망지식서비스분야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및 창업 아이템 개발을 지원한다.

2015년에는 4,139명이 창업교육을 받아 3,451명이 최종 수료하였으며, 유망 산업분야 특화교육을 70%이상 운영하여 유망지식서비스분야의 저변을 확대 하였다. 또한, 957개의 신청과제를 접수받아 330개의 창업팀을 선발하여 1년 이내의 창업팀의 아이템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향후 수요자 및 고객반응 등을 통해 제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린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하여 창업자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21-1-17 스마트창업터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9,000	8,000	7,000	8,000	9,000	41,000
교육수료생 수	5,072	4,805	4,082	4,959	3,451	22,369
지원기업수	-	90	199	292	330	911

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사물인터넷, 앱·웹, ICT융합 등 유망지식서비스분야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자금, 마케팅까지 초기창업 전(全)단계를 지원한다.

2015년에는 1,165명(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평가, 대면평가, 사업계획서 수립평가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174명(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창업초기 성장기반 구축 및 IoT, 핀테크, O2O, 공유경제 등 신산업을 주도할 창업자 육성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성장지원 프로그램 강화, 사업비 비목별 한도폐지 등 청년창업자 중심의 지원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표 IV-21-1-18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	-	7,500	13,500	13,150	34,150
지원기업수	-	-	89	174	174	437
졸업기업수	-	-	81	168	171	420

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육 기능을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재정 여건이 취약하고 사업 경험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사업 아이템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009년 21개 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5년에는 전국에 60개의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에는 사무 공간, 창업과 경영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제공 하고, 아이디어 사업화와 일감연계 등을 지원한다. 센터를 기점으로 1인 창조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공급 및 수요 여건이 차츰 조성되고 있으며, 3D프린터, 핀테크 등의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2016년도에는 3D프린터, 핀테크 등의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센터를 통해 개인의 창의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표 IV-21-1-19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추진실적 및 성과

(단위 : 개, 건,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센터 수	34	34	46	60	60	234
사무공간 지원	874	916	1,345	1,395	1,794	6,324
경영 자문	1,535	2,847	2,950	1,846	2,750	11,928
교육 지원 등	16,293	6,708	11,776	7,804	8,926	51,507
창업자	432	427	643	548	562	2,612

4)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나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디자인·브랜드 개발, 방송 광고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 한도 범위에서 마케팅 세부과제(15개)를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선택·추진하는 수요자 선택형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중 수시로 소액의 마케팅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2016년도부터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사업 참여 기업은 15개 세부과제 중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원금 한도 범위(최대 20백만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변경할 예정이다.

표 IV-21-1-20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단위 : 백만원, 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신청기업	1,255	2,198	2,076	5,529
선정기업	357	412	457	1,226
매출	3,260	4,550	6,770	14,580
신규고용	212	221	233	666

5) 1인 창조문화 기반조성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와 성장촉진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5년 시행령 개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업종 확대를 기업 수 현황이 증가하였다. 이에 체계적 정책수립 기반구축 및 정책성과 홍보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와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기적 과학적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성공포럼 개최를 통해 1인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도모한다. 1인 창조기업의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문화 조성 활동을 하고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본 : 업종별/지역별 3,500개 추출 ◆ 조사문항 : 기업 일반현황, 1인 창조기업 창업현황, 기업운영 현황, 1인 창조기업 인지도 및 지원정책 ◆ 조사방식 : 방문면접, E-mail 조사 등
<p>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p>	<p>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개요</p>

마. 중소기업 재기지원

1) 재창업 기반조성

재도전 지원정책 홍보와 더불어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과 재도전 문화 개선을 위한 재창업 기반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창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재도전의 날 행사 및 전시 등을 통한 재도전 지원정책 홍보 및 실패·재도전 사례 공유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p>재도전의 날</p>	<p>재도전 전시관</p>	<p>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p>

2015년도 중소기업청 관련 온라인 시스템

시스템명	URL	구축 년도	운영기관
중소기업움부즈만 홈페이지	osmb.go.kr	2009	중소기업청
기관홈페이지	smba.go.kr	201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인터넷 방송국	tv.smba.go.kr	20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 시스템	stat2.smba.go.kr	2002	중소기업중앙회
비즈니스지원단	link.bizinfo.go.kr	2009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마당	bizinfo.go.kr	2006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	2010	한국기업데이터(주)
중소기업사회적책임 경영시스템	csr.go.kr	2010	한국생산성본부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sbmro.or.kr	2012	중소기업유통센터
수.위탁거래인터넷 실태조사	poll.smba.go.kr	2014	중소기업청
소상공인포털	sbiz.or.kr	20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20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컨설팅시스템	con.sbiz.or.kr, sbiz.or.kr/cot/main.do	20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동조합활성화	coop.sbiz.or.kr	20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들가게	nadle.sbiz.or.kr	20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fc.sbiz.or.kr	20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명	URL	구축 년도	운영기관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sbiz.or.kr/hpr/maion.에	2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정보시스템	edu.sbiz.or.kr	200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방송	yestvo.or.kr	20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아이디어	sbiz.or.kr/neb/index.j네	20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통통	sijangtong.or.kr	20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2015	중견기업연합회
월드클래스300 성과 및 이력관리시스템	www.worldclass300.or.kr	20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 건강관리지원시스템	www.bizdoctor.go.kr	2013	한국기업데이터(주)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2009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edu.k-startup.go.kr	2009	창업진흥원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biz.k-startup.go.kr	2014	창업진흥원
창업도약 패키지	star.k-startup.go.kr	2015	창업진흥원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www.startbiz.go.kr	2009	창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bi.go.kr	2005	(사)한국창업보육협회
기업가정신포털	koreaentrepreneurship.org	2015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중소기업 컨설팅 종합관리시스템	www.smbacon.go.kr	2010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M&A거래정보망	www.mna.go.kr	2010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스템명	URL	구축 년도	운영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smba.go.kr	2010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2005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공공구매론	www.smploan.com	2007	기업데이터
마케팅지원 종합시스템	www.smmarketing.go.kr	2008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플랫폼	sblink.or.kr	2014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2006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2008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 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200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 플랫폼시스템	www.smplatform.go.kr	20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정보화지원 사업관리시스템	it.smba.go.kr	201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정보시스템	www.cobiz.go.kr	200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통합포털	www.ultari.go.kr	201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인정보시스템	techin.sanhak.net	2012	한국산학연합회
산학연플러스시스템	plus.auri.or.kr	2014	한국산학연합회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2004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2006	메인비즈협회

연차보고서 작성자 및 연락처

〈중소기업청〉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제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제1장 기업 일반현황	정책총괄과	송양훈	042-481-4556
1. 중소기업현황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정책총괄과	송양훈	042-481-4556
1. 업종별 동향			
2. 분야별 동향			
제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1장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			
제1절 기술창업 촉진 및 창업생태계 정착			
1. 신설법인현황	창업진흥과	이순석	042-481-4429
2. 창업 저변 확대	벤처정책과	염정수	042-481-4423
	창업진흥과	홍명기	042-481-3991
	지식서비스창업과	홍승한	042-481-4554
3.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진흥과	이광범	042-481-4386
	창업진흥과	김대수	042-481-8914
	창업진흥과	홍명기	042-481-3991
	벤처정책과	염정수	042-481-4423
	지식서비스창업과	이권재	042-481-4524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창업진흥과	김대수	042-481-8914
	창업진흥과	김한기	042-481-3968
	벤처정책과	백대화	042-481-4549
5. 지식서비스기업 성장 촉진	지식서비스창업과	백승표	042-481-4553
	지식서비스창업과	오성재	042-481-4580
	지식서비스창업과	이권재	042-481-4524
	지식서비스창업과	박지수	042-481-3982
제2절 벤처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			
1. 벤처투자 현황	벤처투자과	이철희	042-481-8953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2.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과	이철희	042-481-8953
	벤처투자과	이호중	042-481-4468
3.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투자과	강기삼	042-481-4422
	벤처투자과	오성엽	042-481-3974
제3절 원활한 재도전· 재창업 환경 조성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재도전성장과	임동우	042-481-4520
	재도전성장과	김원석	042-481-4356
	재도전성장과	이효종	042-481-6844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재도전성장과	민경기	042-481-6846
	재도전성장과	김원석	042-481-4356
	재도전성장과	민병철	042-481-6841
제4절 지역 중소기업 성장 유도			
1. 지역특구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지역특구과	이상헌	042-481-1601
	지역특구과	김석동	042-481-1604
2. 지역특구 운영현황	지역특구과	이상헌	042-481-1601
	지역특구과	허일록	042-481-1605
3. 지역특구 운영성과	지역특구과	이상헌	042-481-1601
	지역특구과	오경석	042-481-1603
제2장 중소기업 성장역량 강화			
제1절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기업금융과	이철희	042-481-8953
2. 정책자금지원	기업금융과	추경훈	042-481-4382
	기업금융과	이상진	042-481-4375
3. 신용보증 공급	기업금융과	전성우	042-481-4388
4. 매출채권보험 운영	기업금융과	전성우	042-481-4388
제2절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			
1. 중소기업 인력애로 현황	인력개발과	전세희	042-481-4469
	인력개발과	정영훈	042-481-4471
	인력개발과	박회경	042-481-6875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2.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정현호 주상락 정강은 박회경	042-481-4465 042-481-4365 042-481-4367 042-481-6875
3.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문종원 안병철 양동학 유인석	042-481-4493 042-481-4369 042-481-4424 042-481-4482
4. 중소기업 인식개선	인력개발과	정강은	042-481-4367
제3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생산혁신정책과	현수찬	042-481-3951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생산혁신정책과 생산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기술협력보호과 기술협력보호과	하유경 허정현 전상용 허연 김태식 편장범 이현희	042-481-4437 042-481-4582 042-481-4401 042-481-4451 042-481-4452 042-481-6867 042-481-4443
3.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생산혁신정책과 생산혁신정책과 기술협력보호과	황승기 김연학 김승택	042-481-3996 042-481-4406 042-481-4405
4. 국제 친환경 기술협력	생산혁신정책과	하유경	042-481-4437
5. 기술보호 역량 및 정보화 지원	기술협력보호과 기술협력보호과 기술협력보호과	정승국 이선구 김승택	042-481-8955 042-481-4459 042-481-4405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식서비스창업과	조부식 김용철	042-481-3960 042-481-8909
제4절 창조제품 시장수요 확대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공공구매판로과	이하녕	042-481-8919
2.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지원	공공구매판로과 공공구매판로과	안태용 이하녕	042-481-4466 042-481-8919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공공구매판로과 공공구매판로과 공공구매판로과 공공구매판로과 공공구매판로과	조성규 정해진 마경준 김종길 정종범	042-481-4569 042-481-4398 042-481-8919 042-481-4546 042-481-4434
3. 창조제품 마케팅 지원	공공구매판로과 공공구매판로과 공공구매판로과	정선욱 김호진 안준기	042-481-4483 042-481-8950 042-481-4581
제5절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1. 수출 현황	해외시장과	이지은	042-481-8928
2. 수출역량별 맞춤지원	해외시장과 해외시장과 해외시장과 해외시장과 기업혁신지원과	고완욱 정운 이지은 홍경의 양희춘	042-481-3980 042-481-4514 042-481-8928 042-481-4470 042-481-6835
3. 해외진출 기반구축	해외시장과 해외시장과 해외시장과 해외시장과	박승호 임상규 김창민 송승현	042-481-4461 042-481-4575 042-481-4355 042-481-4473
4. 국제협력	해외시장과 해외시장과 해외시장과	홍경의 조홍미 이홍렬	042-481-4470 042-481-3965 042-481-4499
제3장 견고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제1절 혁신형 기업 발굴 및 육성 제도 운영			
1. 벤처기업 육성	벤처정책과 벤처정책과 벤처정책과	정의경 송제훈 홍선아	042-481-4494 042-481-4425 042-481-8938
2. 벤처기업 지속성장 지원	벤처정책과	홍선아	042-481-8938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생산혁신정책과 생산혁신정책과	이도영 이진형	042-481-4402 042-481-4496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생산혁신정책과 생산혁신정책과	이도영 이진형	042-481-4402 042-481-4496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제2절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글로벌화			
1. 중견기업 현황	중견기업정책과	김주화 이영순	042-481-6811 042-481-6816
2. 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 추진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정책과	윤기영 이문범	042-481-6813 042-481-6812
3.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정책과 기업혁신지원과 기업혁신지원과 기업혁신지원과 기업혁신지원과	윤기영 박준영 양희춘 이완재 손한국	042-481-6813 042-481-6842 042-481-6835 042-481-6834 042-481-6832
제3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강화			
1. 대·중소기업간 경영현황	동반성장지원과	김성훈	042-481-3998
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동반성장지원과	김성훈	042-481-3998
3. 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기술협력보호과 기술협력보호과	김태식 조윤남	042-481-4452 042-481-4450
4.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동반성장지원과 동반성장지원과 동반성장지원과 동반성장지원과 동반성장지원과	추원철 전근표 김상욱 장희양 김영환	042-481-3966 042-481-3979 042-481-8966 042-481-4395 042-481-8958
5. 전략적 동반성장 확대	공공구매판로과 소상공인정책과	강성원 정진삼	042-481-4376 042-481-4566
제4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제1절 준비된 창업유도 및 생업안전망 확충			
1.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정책과	박성원	042-481-4410
2. 과잉창업 방지 및 준비된 창업 유도	소상공인정책과	백종오 남기동 심상진	042-481-4597 042-481-4528 042-481-4491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김원주 남기동	042-481-8997 042-481-4528
제2절 혁신역량 제고 및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1. 소상공인 혁신역량 제고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과	심상진 박은주	042-481-4491 042-481-8922
2.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이영석 남기동 심상진 송성동 김현동	042-481-4490 042-481-4528 042-481-4491 042-481-4583 042-481-3988
제3절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1. 전통시장 현황	시장상권과	이종택	042-481-4517
2. 특성화 시장 육성	시장상권과 시장상권과	신재경 나경우	042-481-4335 042-481-4547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장상권과	이정구	042-481-4563
4. 시장경영혁신 지원	시장상권과 시장상권과 시장상권과	이종택 오성태 정승화	042-481-4517 042-481-4574 042-481-8930
5. 상권활성화	시장상권과	윤병갑	042-481-4560
제5장 현장체감형 중소기업 행정 구현			
1.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고객정보화담당관실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정책분석과	임영주 서호경 우창훈	042-481-4397 042-481-4597 042-481-6852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과	이경우	042-481-8927
3.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옴부즈만지원단	장홍주	02-730-2491

〈16개 부처〉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044-215-4534
제2장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044-203-6058
제3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2237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2216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15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044-203-4199
제7장 환경부	환경산업과		044-201-6706
제8장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2-7030
제9장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044-200-5217
제10장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실		02-2110-1322
제11장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23
제12장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739
제13장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70
제14장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2667
제15장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0
제16장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81-0312

〈중소기업 지원기관〉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장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02-2124-3032
제2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전략실		055-751-9413
제3장 중소기업연구원	경영지원실		02-707-9820
제4장 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부		053-430-4109
제5장 기술보증기금	홍보팀		051-606-7527
제6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영전략본부		042-480-4016
제7장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획조정팀		02-6678-9219
제8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획경영부		02-368-8733
제9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관리부		042-388-0124
제10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부		042-363-7512
제11장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기획조정실		02-2156-2027
제12장 중소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02-729-6821
제13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획조정실		02-3460-7068
제14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기획부		02-399-6793
제15장 한국생산성본부	기획재무팀		02-724-1041
제16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업지원총괄실		041-589-8477
제17장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02-3299-3171
제18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외협력팀		042-869-0967
제19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동반성장실		031-78021460
제20장 한국산학연합회	기획팀		042-720-3360
제21장 창업진흥원	기획조정부		042-480-4320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6년 8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문의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042-481-4577)로 연락바랍니다.